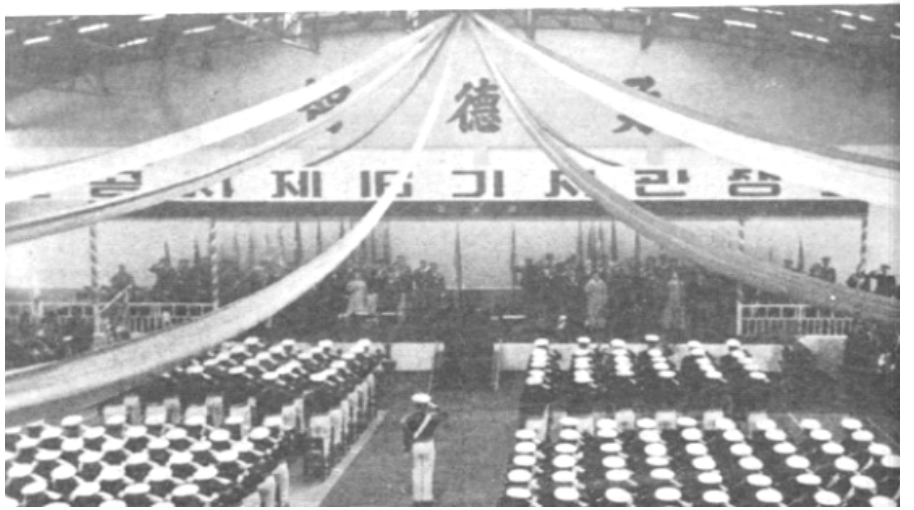
공군

1968年 6月 1日 印刷
1968年 6月 5日 發行

第 104 號

1968

박 대통령 각하 임석리 공사(空士) 제16기 졸업식 성거
공사교(空士校) 16기 졸업 및 임관식이 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상하



축 장성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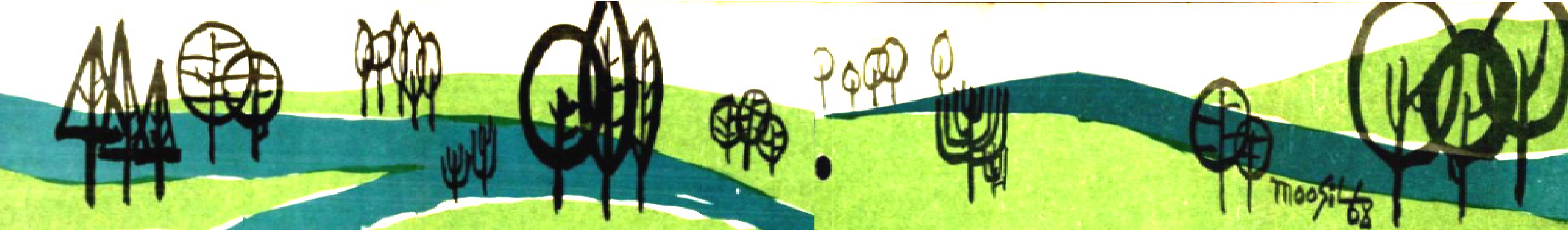
1968년도 장성진급자 일동이 총 · 차장과 함께 기념촬영.
좌로부터 ① 이교안 준장 ② 김현천 준장 ③ 임순혁 준장 ④ 김성룡 차장 ⑤ 장지량 총장 ⑥ 권성근 소장(준장에서) ⑦ 김병탁 준장 ⑧ 김승석 준장 ⑨ 손경욱 준장

최 국방부 장관 공본 초도순시

신임 최영희 국방부 장관은 3월 8일 공군본부를 초도순시하고, 장 총장으로부터 공군력 증강에 관한 현황을 들었다.

제1차 전부대지휘관 회의 개최

1968년도 제1차 공군 전부대지휘관 회의가 4월 10일 K-57기지에서 장 총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공군 제104호 차례

표지 및 목차 · · · · 고무실
〈사진화보〉 표지2·3면 목차 뒤
권두언(卷頭言) · · · · · · · · · · · · · · · · · 정훈감 이충갑(李忠甲) 2
군정신교육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조용철(趙鏞哲) 4
백의민족의 사상 · 이상욱(李相郁) 10
공산주의 사회의 비극 · · · · · · · · · · · · · · · · · · 마동호(馬東鎬) 24
자전차(自轉車)의 거리 · · · · · · · · · · · · · · · · 성경린(成慶麟) 41
운상운하 · 박목월(朴木月) 45
서창기(西窓記) · · · · · · · · · · · · · · · · · · · 양명문(楊明文) 42
사모님 족(族) · · · · · · · · · · · · · · · · · · · 김자림(金玆林) 44
창가의 비(雨) · · · · · · · · · · · · · · · · · · 정락훈 50
메모 광(狂)과 건망증 · · · · · · · · · · · · · · · · 김기완(金基完) 47
변소론(便所論) · · · · · · · · · · · · · · · · · · · 허상진(許祥鎭) 48
B-58기의 진가 · · · · · · · · · · · · · · · · · · · 문갑룡(文甲龍) 52
〈신형 항공기 소개〉 XC-142 · · · · · · · · · · · · · 전양경(田穰耕) 56
〈리틀·타이거〉 작전의 전훈 · · · · · · · · · · · · · 장용순(張瑢淳) 60
미공군은 〈비행접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 김중무(金中茂)(역) 169
군사무기화(軍事武器化)한 부분괘도 폭격체제란? · · · · 홍성표(洪聖杓) 68
달 표면의 성질 · 양현진(穰泫鎭) 76

[특집] 공군과학 자문위원 논문

〈항공공학〉 한국의 항공공업육성의 방안 · · · · · · · · · · · · · 서울공대교수 위상규(魏祥奎) 86
〈항공의학〉 초음속항공시대에 항공의학이 나아갈 길 · · 예비역공군준장 계원철(桂元喆) 91
〈언론〉 언론의 자유와 보안 · · · · · · · · · · · · · · 대한공론사이사장 김봉기(金鳳基) 99
〈국제법〉 국가안전보장상으로 본 한미상호방어조약의 의의 · · 연세대교수 박관숙(朴觀淑) 106
〈사회학〉 속칭, 군대적 사고방식의 소고(小考) · · · · ·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승면(洪承勉) 112
〈심리전〉 현대전(現代戰)과 심리전 · · · · · · · · · · · · · · 육군준장 강두형(姜斗馨) 118

미해군, 해병대의 항공력 · · · · · · · · · · · · · · 김진환(金振煥) 180
전술상으로 본 2차 세계대전 · · · · · · · · · · · · · · · · · 장형득 231
날틀로 처녀비행(處女飛行)한 〈라이트〉형제 · · · · · 이언순(李彦淳)(역) 193
영공주권(領空主權)과 영공자위권(領空自衛權) · · · · 안용일(安勇一) 186

안전(安全)살롱

항적요란(航跡擾亂) · 김유완 128
공중전술 기동훈련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박홍순 134
동계 차량사고 방지책 · 김성님 138
공중에서의 조류충돌방지 · · · · · · · · · · · · · · · · · · 최익순 142
활주로 가시거리 · 이양호 146
안전과 각성 · 윤석태 150
정의의 병폐(病廢)를 극복하자 · · · · · · · · · · · · · · · 이길원 152
동상예방 · 김현상 155
목공소에서 · 한민호 158
완전하게 안전을 찾자 · · · · · · · · · · · · · · · · · · · 이승업 160

종교순례

기독교와 윤리 · 지동식 203
성(性)윤리 소고(小考) · · · · · · · · · · · · · · · · · · · 최원진 208
새로운 윤리 · 도양술 211
술, 담배와 군인 신자(信者) · · · · · · · · · · · · · · · · 한학수 215

군진강단(軍陣講壇)

위대한 산고(産苦) · 이영열 224
신앙의 위기 · 김두식 225
예수의 생활규례 · 현경협 226
성애(聖愛) · 최제경 228
신앙과 양심 · 안병환 229

〈가상〉 소·중공항공전의 전망 · · · · · · · · · · · 홍준표(洪準杓) 124
국제법 문제 〈학술세미나〉 참석 보고 · · · · · · · · 이상운(李相運) 197

나의 취미공개

마이크와 더불어 사는 것이 · · · · · · · · 방송인 임택근(任宅根) 196
바둑판 위의 백병전(白兵戰) · · · · · · · · 화가 박득호(朴得鎬) 199
녹슨 낚싯대 · · · · · · · · · · · · · · · · 화가 이순재(李舜在) 184
소박한 대화 · · · · · · · · · · · · · · · · 화가 박근자(朴槿子) 182

연재 손자병법(孫子兵法)으로 본 한국전쟁(완) · · · · 이종학(李鍾學) 237
〈반공수기〉 자유에의 여객(하) · · · · · · · · · · · · 박운(朴雲) 268
논·픽션 〈피닉스·송〉 · · · · · · · · · · · · · · · · · · 김병로(金秉老) 245
희곡 〈겨울 비둘기〉 · · · · · · · · · · · · · · · · · · 최인호(崔仁浩) 275
편집후기 · · · · · · · · · · · · 294

◇미태평양 공군 사령관 라이언 대장 내방

미태평양 공군 사령관 존 ·D ·라이언 대장은 2월 4일 공군본부로 장 총장을 예방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관 멕키 중장, OO산 레이다 사이트 시찰

미5공군사령관 세스· J ·멕키 중장은 3월 19일 장 총장과 함께 수행원을 대동, 한국공군의 OO산 레이다 사이트를 시찰하고, 기념촬영.

◇채 주월(駐越) 사령관 공본 방문

주월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은 4월 6일 공군본부를 방문, 장 총장과 월남전 상황에 대해 환담하고 있다.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거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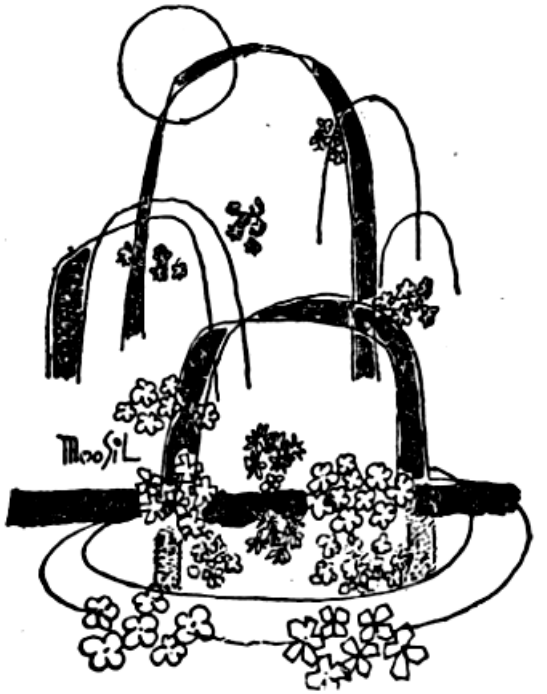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며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공군

<제 104 호>



1968년 제 1 호

<비매품 : 무단전재금>
발행인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 겸 편집인 : 공군대령 이 충 갑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김 복 구
편집실 : (전) 206-3312, 69-3511

권두언

이겨야겠다는 마음부터 앞서야 한다.

정훈감 · 공군대령 이 충 갑

휴전(休戰)이래 위장된, 가상적 평화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는 오늘날 급격히 증가된 김일성 괴뢰집단의 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70년대의 적화통일을 위해 이른바 전 인민의 무장화(武裝化)와 전 북녘의 요새화 등 광신적 구호를 내걸고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언해온 북괴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이제까지의 간접침략을 직접침략으로 그 전술마저 바꾸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북괴는 지난 1월 21일 무장공비들을 대량으로 이 땅에 밀파(密派)하여 천인공노할 참극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휴전선에 연(沿)한 비무장지대전역과 우리의 후방 도처에서 무력에 의한 만행을 수없이 저질러오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북괴에 의란 악랄한 전쟁도발행위는 날이 갈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은인자중과 자제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허무맹랑한 남침망상(南侵妄想)에 사로잡혀,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만행을 자행(恣行)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다시는 이와 같은 망발을 생각해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흉악한 붉은 괴뢰들을 발본색원까지 함으로써 오랜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의 성업을 달성할 소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괴무장공비와 간첩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간첩작전망(對間諜作戰網)을 보다 빈틈없이 펴고 이들의 발호로부터 내 고장을 지키기 위란 향토방위체계를 시급히 보강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우리의 군비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선과 강화가 이룩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우리가 더욱 중시할 것은 건설의 파수꾼으로서 국방의 제일선에서 싸우는 우리들 군인은 물론, 후방에서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진력하고 있는 전 국민의 승공을 위한 마음가짐이 보다 강화· 쇄신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고, 안일에 빠져 무기력하다면 그 집단은 오합지졸에 지나지 못함은 우리가 수많은 고사(故事)에서 눈여겨온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국민이 한결같이 우리의 조국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스스로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위적인 향토방위의 국방의식과 투철한 승공정신을 갖출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정훈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겠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작년 6월, 다윗 소년이 거인 골리아드를 돌팔매로 간단히 쓰러뜨리듯이 이스라엘이 비교조차 안 되는 아랍 연합의 대군을 불과 엿새 만에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자주국방의식이 거두어들인 자랑스러운 실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정신교육의 문제점

조 용 철
〈국방부 정훈과〉

1. 서론

우리 국군은 창설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군의 각급 지휘관들이 꾸준히 노력한 바 있어 휘하 장병들은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왔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이 각급 지휘관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분산적이며 산발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교육운영과 그 범위의 통일을 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특히 북괴의 호전적인 군사정책에 대처하여 남한은 승공민주이념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장병에 대한 정신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또한 그 교육이 강력히 요망되고 있음은 곧 기본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승의 결정적 요소인 무형의 전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군을 제패(制覇)할 수 있는 무력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무엇보다도 철두철미한 반공사상(反共思想)을 통한 장병들의 정신무장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우리들은 정신무장 강화를 다짐하지만 그것이 한낱 구두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70년대에 이르러 통일의 비견을 내걸고 있는 이때에 기필코 그 실현을 위하여 정훈은 적기적(適期的) 판단 아래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와 온갖 예지를 경주(傾注)하여 전진하는 정신적 자세로서 업무를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그것을 통감하고 금번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공군장병들을 위해 그 개요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지면 관계로 요약 설명한다.)

가.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 개요

(1) 설치목적 및 운영부서

국군 장병에 대한 참신한 정신교육의 목표와 과학적인 지도원리 및 방법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1966년 1월 29일 「국방부 내규 제48」호로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의 설치를 공포하였으며, 1967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국방부 정훈섭외국 정훈과에서 운영).

(2) 기능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예거하는 바와 같은 사항을 심의 연구한다.

가. 국군 장병의 교양교육·정신교육(도의·민주 및 반공사상)에 관한 기본방침과 지도방법 연구

나. 군정신교육을 위한 기구 및 교재에 관한 연구

다. 기타 군정신교육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직위는 생략하고 구성인원만 소개한다).

가. 각 군의 편제(編制)상에 군정신교육 지도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의 직위에 있는 장성급(14명 내외)

나. 정신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사계 권위자(민간인) 6명

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운영책임자로서 간사 1명(국방부 정훈과장)이 임명되어 있다.

※ 민간위원 명단을 소개한다(무순(無順)).

이선근 위원 - 역사학자

김형석 위원 - 연세대 철학과 교수

안해균 위원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김해동 위원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윤종현 워원 - 한국일보 논설위원

양홍모 위원 - 중앙일보 논설위원

(4) 운영

(가) 목적(본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

(나) 방침

- 정신교육의 지도 목표와 방침 수립
- 교재편찬 방침 수립
- 시청각교육 강화를 위한 각 군의 시청각교육 교재 제작 방침 및 교육수단 검토 조정
- 정훈 및 정신교육제도 연구 개선

나, 일반 계획

(이 일반 계획은 67년 2월 22일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시 회의 자료로서 각 위원에게 설명한 바 있음)

(1) 국방부 정훈섭외국 정훈과에서 시달하는 연간 및 분기별 정훈교육 목표 심의

(2) 정신교육 교재 내용 검토 및 작성

(3) 시청각교육 교재(방송·영서(映書)·정훈간행물 등)에 대한 내용 분석 평가 및 기본방침 조정

(4) 각 군 정훈교육 지도 연구

(5) 예하(隸下) 정훈교육기관의 교육방침 검토 및 강화책 강구

(6) 정신교육 업무 지도 및 교육 실적 분석

(7) 각 군 및 예하부대의 정신교육기구 강화에 대한 연구

(8) 각종 문화활동 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

- 세부 계획(장병에겐 직접 관계가 없는 업무의 기술면을 다룬 것이므로 생략)
- 기타

* 장병에게 참고 될 대목 및 몇 가지만 설명한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연4회) 실시하며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회의 - 국방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회의를 개최한다.

(3) 본 위원회의 성격 - 본 지도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3군의 지도체계에는 무영향(無影響)이다.

다. 분과위원 운영

(1) 설치

1967년 2월 22일 제1차 정기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설치 제안에 따라 동년 6월 29일 제2차 정기회의 개최시 분과위원 운영요강을 각 위원에게 설명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운영단계에 이르게 된 것임.

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는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 규정 제9조 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한 것이며, 이는 군정신교육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분야별로 과제를 연구 심의케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정신교육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⑵ 구성 및 임무

국방부 정훈섭외국 정훈과는 본 위원회의 운영만을 전담하고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교육제도 분과위원회

① 정훈교육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 정훈교육기구 강화책
- 편제상의 정훈요원 확보책

② 정신교육 기본정책에 관한 연구

③ 정신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④ 예하 기구 정훈실무교육 강화책 강구

이상 부여된 직능(職能)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 - 5명(장성급 3명과 이선근 · 양홍모 위원)

간사 - 국방부 보도과장, 육군 정훈감실 정훈과장

서기 - 국방부 정훈과 직원 2명

(나) 교재 분과위원회

① 정신교재 편멱(編冪) 연구

② 정훈교재 내용 연구 개선

③ 전우신문(반공교육 교재) 편집 연구 개선

④ 기타 간행물의 효과적 지원 문제

이상 부여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다음과 같다.

위원 - 4명(장성급 3명과 김형석 위원)

간사 - 국방부 정훈과 신문계장, 해군 정훈감실 정훈과장

서기 - 국방부 정훈과 직원 2명

(다) 시청각교재 분과위원회

① 현행 시청각교육 교재 제작 지원의 효과적 수행방법 연구

② 시청각교육 교재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책 강구

③ 기타 교육적 효과를 위한 각종 시청각 교재의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

이상 부여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다음과 같다.

위원 - 4명(장성급 3명과 윤종현 위원)

간사 - 국방부 군영서 제작소장, 공군 정훈감실 정훈과장

서기 - 국방부 정훈과 직원 2명

(라) 교육 평가 분과위원회

① 교육의 목적 · 목표 및 교과과정의 적합성 검토

② 학습방법과 학습능률 향상을 위한 연구 개선

③ 교수법의 향상과 교육보조 재료의 효과적인 활용문제

④ 교육성과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선책 강구

이상 부여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다음과 같다.

위원 - 5명(장성급 3명과 김해동 · 안해균 위원)

간사 - 국방부 방송실장, 해병대 정훈감실 교육과장

서기 - 국방부 정훈과 직원 2명

이상이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개요지만 요컨대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는 앞의 서론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지도 연구 기권을 국방부에 설치함으로써 보다 쇄신되고 효율적인 정신교육의 성과를 내다보고자 하는데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을까 한다.

3. 결론

포성(砲聲)없는 전쟁의 승인(勝因)은 현대화된 신형 장비가 북괴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능가하여야 하겠지만 그 요인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것은 평시(平時)부터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 배양도 무시 못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진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공산침략 세력이 이 지구상에서 몰살되는 날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워 이기는 기백과 정신을 견지하기 위하여 정훈을 통한 정신교육의 쇄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고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면에서 북괴군을 제압하고 장비 및 병력면에서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전의 새로운 전쟁기술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필승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새로운 군사과학지식의 습득 및 원리의 숙지 이해와 병행하여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정훈을 통한 대공인식(對共認識) 강화도 필연적이며 아울러 승공정신의 태세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도 재언(再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병의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는데 기틀이 될 군정신교육 지도위원회의 임무의 중차대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동시에 동 위원회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는 각 위원 및 관계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앞서야하고 또한 과제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단 그럴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 바이며, 아울러 각 군 정훈요원(특히 정훈장교)의 보다 전문화 기술화된 정훈교육의 향상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기구(위원회)는 기저작업을 마친다면 그 후로부터 본격화되어 사업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므로 각 군의 장병도 보조(步調)를 같이 하여 승공의 기개 드높이 가일층(加一層)의 정신무장을 공고히 견지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소화(笑話)

돌림뺨

정만서가 화창한 봄날 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봄놀이를 하는 선비들을 보자 심심풀이로 슬쩍 그 좌석에서 읊조리는 한 선비의 노래가 하도 흥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좋다."하고 소리를 질렀다. 난데없는 이 무례한 정만서의 소행을 보고 불결하게 여긴 성미 급한 한 선비가 "이 자식, 넌 누군데 여길 왔느냐."고 벌컥 고함을 지르면서 만서의 뺨을 철썩 때렸다.

그러자 눈에 불이 난 정만서는 다짜고짜 자기 옆에 앉은 다른 선비의 뺨을 철썩 후려갈겼다. 뺨맞은 선비가 노발대발하여 "이놈, 네가 뭔데 날 때려?"하고 만서에게 덤벼들자, 만서는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난 돌려가며 때리는 돌림뺨인줄 알았소."

이상한 풍속

한 국가의 왕이라고 하면 그 국가에서는 누구보다도 으뜸가는 지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따라서 왕의 생활이 호화롭고 평안한 것으로 누구나 단정해 버린다.

그러나 이와는 정 반대로 왕이 가장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하는 나라가 있다. 즉 베지이·콩고에 있는 쿤도우라는 국가의 왕은 항시 시종의 어깨 위에 앉아 있어야 하며 왕은 자신의 발로는 손수 땅을 밟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왕이 취침할 때는 시종은 침낭이 되어야 하고 시종이 사망하면 왕은 왕관을 벗어야 한다고 한다.

백의민족의 사상

이 상 욱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얼의 흐름
1. 단군시조의 뜻
2. 화랑도(花郎道)
3. 외국의 침략과 구국정신
4. 동학혁명 사상
제3장 국민사상의 바탕
1. 독립정신
2.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상
제4장 결론

제1장 서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만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란 물질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의 작용이다. 생각이라면 우선 인생에 대한 생각을 비롯하여 기쁘고 즐거운 것 그리고 슬프고 노여운 것과 또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인류의 역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의 흐름이요,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 생각이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개인이나 민족은 생각이 모자란 다른 사람이나 민족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생각에는 건전하고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해롭고 나쁜 생각이 또 허다하다. 때에 따라서는 나쁜 생각이 앞서서 이롭고 좋은 생각을 짓밟는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가지는 못하였었다.

그처럼 한 민족이나 인류에 있어서도 좋건 나쁘건 간에 애당초부터 하나의 생각이 영글어 온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현실도 따지고 보면 그 옛날로부터의 생각이 이루어 놓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으며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진 것일까 하는 것을 간추려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를 빛나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첫째가는 조건일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상상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사상이란 오래토록 생각하고 또 이루어온 것들을 생활의 현실과 비끄로 매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정표로 삼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 사는 동물이다.

이 말은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되 살기 위한 뜻 깊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족도 반만년의 역사를 엮어온 훌륭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아무도 지워버릴 수 없는 한국민족의 독특한 사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혼란하고 어려운 현대라는 때에 살고 있으면서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의 값을 찾아야 한다.

삶의 값을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겨레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조용히 우리들의 가슴까지 전해 온 사랑의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된 것이다.

제2장 우리나라 얼의 흐름

1. 단군시조의 뜻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일찍이 아사달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아사달은 아침 햇살이 평화롭게 비치는 동녘을 뜻하는 말이다. 이 따사롭고 아담한 곳에 하늘의 신이 내려 한 도성을 이룩하였다는 아름다운 신화에 뿌리박고 유유한 5천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하늘의 뜻은 밝고 올바름이요 힘과 영원을 상징한다.

하늘은 태초로부터 영원의 훗날까지 있는 것이며 거기 있는 태양은 모든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든 자기들의 처음 조상을 하늘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지바른 들녘에는 푸른 숲이 무성하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의 떼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름 모를 꽃들이 어울려 피어 나비와 꿀벌을 희롱했을 것이다.

여기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환웅천왕이 강림하여 한 아기를 두었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검 이라고 했던 것이다.

단군은 하늘을 뫼시고 제사를 드리는 신단을 쌓고 뭇 사람들을 거느리며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산천, 풍성한 먹이, 즐거운 삶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 하여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느님을 믿고 섬기기를 생활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하늘의 뜻과 명령을 좇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그 후 한 나라나 겨레를 이룩하는데 중심사상이 되었고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하늘의 뜻을 전하고 받드는 이가 단군이므로 단군은 왕으로 숭배되고 백성들의 한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해와 같이 밝음으로 바로 하느님은 해가 될 수 있었다. 해와 같이 밝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생활의 이념이 되었다.

해는 온 천하 만물 위에 고루고루 빛과 따사로움을 내려 사랑하고 길러준다.

그러므로 사람도 온 천하 만물을 고루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먼저 자연을 사랑했다.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했다.

떠들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았다.

단군의 치세원리였던 홍익인간이란 사상도 햇볕처럼 사람도 만인을 고루 유익하게 보살핀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평화로운 땅에 북쪽의 민족들이 여러 번 쳐내려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 안에서 남을 해치는 침략의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것은 전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원시의 사상을 버리지 않은 증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밝혀진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 가운데는 만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만일 남의 몸을 상하게 하면 많은 곡식으로 갚아야 하며 또 남의 물건을 탐내어 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잡혀가서 그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밝지 못한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는지 알만하다.

그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맑음의 법은 주책을 잃는 사람들에게 엄한 계율이 되어 지킬 것이 강요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해치지 않는 것을 버릇삼고 밤에 잠을 잘지라도 문을 걸지 아니했으며,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남자는 음탕한 생각마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여하튼 밝음의 사랑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생활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며 해는 아직도 민족의 신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때에 와서는 역대 임금의 성이 해(解)로써 불리어지기까지 강조되고 신라를 창건함에도 광명이세(光明理世)라는

이념으로 백성을 다스림에 근본을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서양문화에서 말하는 평화정치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5천년 전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줄뿐더러 특히 평화적인 정권의 이양이 신라시대의 제도나 백제, 고구려의 역사에도 뚜렷이 남게된 것이다.

신라는 최초의 시조인 박혁거세를 추대할 때에도 육촌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선거의 형식을 밟았고 고구려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군공평의(郡公評議)를 열었으며, 백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두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사상은 신을 모시는 제사나 혹은 엄한 법이나 민주적인 정치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입고 다니는 옷부터 밝고 티 없음을 상징하는 흰옷(白衣)으로 통일했던 것을 보아도 알만하다.

이 흰옷은 부여시대부터의 풍습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잘 입는 터이다.

이런 우리나라를 가리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군자의 나라'라거나 '큰 사람 나라'라고 칭하고 여기 사는 사람을 일컬어 선비니 선인이니 혹은 별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2. 화랑도

우리 민족의 사상을 가장 뚜렷이 나타낸 실적을 화랑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랑도는 신라 진흥왕(眞興王 24대) 27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신라청년의 모임이다.

신라는 일찍부터 서로 돕고 아끼며 힘을 모아 일하는 정신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일어난 나라이다.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서나 또 물건을 만드는데도 어디까지나 임금의 뜻을 화합함으로써 받드는 풍급을 지니고 있었다.

집안의 명예나 나라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용맹스럽고도 희생할 수 있는 기풍이 강하였으며,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임금을 위하여 쾌활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 신라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나라 안에서 화랑은 하나의 수양단체로서 원래는 그 이름을 '원화'라 하고 어여쁜 소녀를 뽑아 단장을 삼았던 것인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귀족 소년 중에서 인물이 맑고 품행이 좋은 사람을 뽑아 단장을 삼아 화랑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화랑은 충성과 의리를 존중하여 각 가지 훈련을 쌓아 그 중에서도 진흥왕 23년 사다함(斯多含)이라는 화랑이

나타나 대가야정벌 싸움에 큰 공을 세웠던 것이다.

사다함의 무리는 무려 일 천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그의 출중한 인품을 따르고 있었다.

사다함의 나이 16세에 신라군의 선봉장이 되어 대가야의 병사들을 무찔러 크게 이긴 공으로 왕은 그에게 가야의 집 삼백기구를 주었으나 받자마자 놓아주고 또 왕이 넓은 땅을 주었으나 사양하고 말았다.

그가 평소에 '무관랑'이라는 소년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차에 무관랑이 병이 위중해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몹시 슬퍼하며 음식을 들지 않았던 사다함도 마침내 그 후 열흘이 못가 따라 죽고 말았다.

신라의 이러한 화랑정신은 공을 위해 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과히 지니지 아니하며, 의로운 일이나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강한 겨레사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화랑의 기상은 민족사상의 한 전통을 이룸과 아울러 겨레의 명예와 생명을 지킴에 용감하게 앞장을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화랑의 중심사상이던 원광법사의 다섯 가지 계율은 유교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화랑의 정신도 멀리는 개국이념과 그 뜻이 일치하는 것이요 그 시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태도에서 우러나온 것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3. 외국의 침략과 구국정신

(1) 외적 침략의 자취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때 헤아릴 수 없는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일찍이 지금부터 이천 백 여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륙에서 자리 잡은 한 나라가 그세력을 우리나라 반도에까지 뻗혀 영토를 차지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대륙민족의 번다한 침입과 몽고인이나 일본 민족의 침입은 항상 우리나라를 불안 속에서 떨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다한 외국의 침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또 한 번 이나마 고유의 사상이 변질하지는 아니했던 것은 특히 기록할만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옛 역사는 한족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가득해 있다.

북쪽에 이룩된 고구려도 이러한 한민족의 침략에서 평화와 행복을 원하던 우리 민족의 힘을 뭉쳐 만든 나라였다.

고구려의 건국이념은 우리 민족을 안녕하게 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는데 그 첫째 뜻이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도 그 이름이 뜻하는바 동녘의 밝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밝힘으로써 하늘의 평화와 힘 그리고 영원한 번영을 넓게 외쳤던 것이다.

고구려 건국 초에는 선비라는 유목민족이 나라를 침범했으나 고구려 명장 부분노(扶芬奴)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대무신왕 때는 요동태수가, 그 후 신대왕 때는 한나라, 고국천왕 때는 다시 요동태수가, 동천왕 때는 위나라 관구검이. 중천왕 때는 위나라 위지가, 봉상왕 때는 연나라, 영양왕 때는 수나라의 삼십만 대군이 침범하였으나 모두가 크게 지고 돌아갔다.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일어났으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적국이었던 것이다.

고려조에는 글안과 여진족을 위시해서 몽고족까지가 넘보았으며, 이조시대는 북방민족과의 오랜 싸움에 지친 나머지 영원히 씻지 못할 망국사상을 퍼뜨리고 말았으니 그것이 곧 사대모화사상이었던 것이다.

이조 5백년은 민족정기의 망실시대며 또 민족사상의 분과시기이기도 했다.

밝음처럼 바르고 용맹스러운 민족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비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평화스러울 줄 알았다. 그러나 밖으로 뻗지 못한 용맹은 안으로 굶어들어 드디어 사색당쟁으로 동족 간에 패를 갈라 모략, 중상, 도살을 일삼는 부끄러운 역사를 피와 눈물로 물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⑵ 구국사상의 자취

특히 알만한 구국사상의 상징으로는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 같은 대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지만 고려조의 삼별초의 자취만큼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대목도 드물 것이다.

때는 고려 고종, 대륙의 흑룡강 유역에서 일어난 몽고족이 차츰 그 세력을 넓혀 마지막에는 고려에까지 그 위세로 덮게 되었다.

겉으로는 고려를 보호한다 하고 앞으로는 강화의 명목아래서 착취를 일삼게 되었다.

그 발단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몽고가 글안을 없이한 이후 때때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과중한 선물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 언동이 오만불손하기 비할 데 없었다. 그러던 고종 12년에 '저고여'라는 몽고 사신이 고려를 다녀가는 길에 도적에게 맞아 죽게 되어 몽고의 구실은 더욱 든든한 것이 되어 드디어 고종 18년에 국사를 보내어

싸움을 걸어 왔던 것이다. 고려 왕조는 안으로 문무(文武)의 다툼이 심한데다가 워낙 강한 몽고에 이길 수는 없어 강화조약을 맺는바 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완전한 항복이 아님을 안 몽고는 계속하여 두 차례, 세 차례의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마침내 왕자를 볼모로 까지 하여 데려가고 말았다.

고종 46년에는 도읍을 강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원종 때에는 반도의 땅 북쪽은 모두 몽고의 것이 되어 버렸고 고려는 명색만이 남게 되었다.

고려의 왕도를 39년간이나 강황에 옮긴 이유도 따지고 보면 험준하고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끝까지 몽고와 겨루어 보고자 한 강한 민족사상 즉 독립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섬에 머물러 있는 사이 옛 도읍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논의되어 신하들 사이에 이론이 만만치 않게 대립되었다. 섬을 벗어나면 즉시로 몽고의 지배를 받아 드리게 될 것임이 완연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임금을 중심으로 한 문신들은 대개 몽고와 강화하여 뭍으로 나가기를 원하였으나 무관들은 이와 반대로 끝까지 머물러 몽고와 싸우기를 고집했던 것이다.

힘이 약한 고려는 30년을 몽고의 대군과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옛 도읍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무관을 이끌던 임연(林衍)이 병들어 죽자 문신들은 무관을 거세하고 왕을 뫼시고 몽고와 강화하는 길을 택하여 뭍으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에 반발한 것이 삼별초이다.

삼별초는 최씨가 세도할 때 만든 특별조직이었다.

이 반항에 대하여 왕은 그 명부를 빼앗아가게 되고 배종선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병들은 그 후 4년 동안 진도와 제주도로 몰려다니며, 정부군과 몽고 연합군의 추격을 견디어 끝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70여인이 남았을 때 산중 깊이 들어가 조국의 망함을 울분하면서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왕명을 거스린 죄라 할지라도 오랑캐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그 정신이야 말로 끈기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맨주먹으로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라 안에서는 네 차례의 사화(士禍)를 거치는 사이 조야의 신하들은 나라 생각보다는 자기 당의 오랜 세도와 반대당의 멸족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다.

이때 나라 안팎의 일을 염려한 사람 중에서 출중한 이로서는 이황, 이이 같은 분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이이 율곡 선생 같은 분은 왜구와 오랑캐들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장차 이 나라에 큰 변란이 닥칠 것을 알고 임금께 품하여 십만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모든 신하들의 한결같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씨조선이 연산군 이후 당쟁에 몰두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는 태평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여러 장수들이 곳곳에 일어나 자리 잡고 서로의 위세를 겨루다가 이씨조선의 부패와 분열이 가장 심할 때 '오다 노부나가'란 사람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이룩되고 그가 죽은 후 그의 부하이던 '도요도미 히메요시'란 사람에 의해서 완전한 통일을 하였던 것이다.

새로이 통일된 일본은 최신식 무기로 장비를 갖추고 그 힘으로 한반도와 중국의 대륙까지 노리게 되었다.

드디어 선조 25년(임신년)에 20만 병력을 거느리고 왜구는 이 땅을 짓밟기 시작했던 것이다.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나라와 국민은 겉잡을 수 없이 혼란한 지경에 빠지고 훈련된 왜군은 조총을 쏘면서 질풍처럼 나라와 백성을 짓밟아 갔다.

부녀자는 능욕당하고 장부는 참살 당하였다. 당황한 선조는 애통소를 내리기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한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웠다.

우리나라 역사상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왜적과의 싸움에 나선 것은 실로 이때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도를 타고 몰려드는 왜구를 쳐 부신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싸움은 크나큰 성공을 거두고 마침내 나라를 건질 수 있었으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그의 백의종군(白衣從軍)이다.

그의 공로를 탐한 원균이라는 자가 임금께 이순신이 모반을 꾀한다고 간하여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옥에 내리기까지 했다.

이때 왜병은 더욱 그 기세가 충전하여 원균이 이끄는 우리 해군뿐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이에 감연히 이순신 장군은 왕께 아뢰되 어차피 죽일 몸이면 흰옷 한 벌만 입혀 왜놈과 싸우게 해줄 것을 간언하였다. 이에 그가 다시 수군통제사가 되기까지 아무런 관직 없이 일개 장부의 신분으로 싸움에 임하였던 것이다.

나라를 사랑함에는 반드시 높은 벼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이순신 장군의 높은 애국애족심은 그 옛날 신라 화랑들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라면 사사로움을 돌보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정녕 수천 년을 살아 움직이는 밝은 사상의 증거였던 것이다.

그는 무술년 8월에 왜란이 원흉인 '도요도미'가 병들어 죽고 그의 유언을 받들어 철퇴하는 적병을 노량 앞 바다에서 전멸시키고 적의 대부대와 만나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적의 탄환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발표되지 아니하였다가 완전히 적을 무찌른 다음에야 알려지니 이는 혹시 군사 간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것을 염려한 장군의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진양성의 기생 논개가 왜장의 목을 껴안고 남강 푸른 물결 속으로 꽃처럼 떨어져간 일이며 행주대첩에서 세운 권율 장군의 장한 기록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얼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임진란을 치른 다음 전조는 임금의 자리에 머물기 41년에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15년 동안 위에 있은 다음 인조가 혁명을 성취했으나 뒤미처 이괄이 인조가 일으킨 혁명 유공자에게 상을 내림에 대하여 그 불공평함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얼마 가지 못하여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 난리는 역사상 가장 큰 내란으로 나라 안은 물론 당시 후금(後金)이라는 오랑캐 나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넘보려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마침내 인조 5년에 후금의 왕자 아민(阿敏)이 3만 병졸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종 14년에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씨조선의 굴복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조정은 명나라와 친교를 맺었던 터이므로 이에 복종치 아니 하였더니 드디어 청나라 태종은 친히 1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 왔던 것이다.

모든 중신들과 더불어 남한산성에 피신하였던 왕은 좀체 성문을 열지 아니했으나 신하들 사이에는 항복하여 화합하자는 파와 싸우자는 편으로 갈리어 옥신각신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왕족들이 피난 가있던 강화도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있자 임금은 주화파(主和派)를 앞세워 항복을 하였던 것이다.

청 태종은 임금으로 하여금 사대(事大)의 예를 갖추게 하는 한편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나중에 효종이 됨)을 볼모로 데려가고 또 항복을 배척하던 홍익한, 유집, 오달제 등 삼학사(三學士)를 잡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끝까지 버티어 끝내는 무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나라의 걷잡을 수 없는 소란과 불행이 겹쳐도 한줄기 핏줄은 살아서 이 민족의 혈맥 속에 그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혼을 불어 넣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3. 동학혁명 사상

우리나라 사상의 전통을 살필 때 앞서 말한바 대로 단군의 건국사상을 처음으로 신화의 화랑도 그리고 영원히 굴하지 아니하는 독립정신으로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씨조선의 큰 난리가 몇 차례 지난 뒤 우리 민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잃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론에만 그친 학문의 범위를 넓혀 그것이 실생활에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수광(李睟光), 유형원(柳馨遠), 박세당(朴世堂) 같은 여러 학자가 이러한 실학사상의 중심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상 문예부흥기라고 일컫는 영조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물질문명도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양반제도에 대한 비판이 학자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였고 지리학, 역사학, 수경학(수산학), 금석학 등을 비롯하여 농림, 의약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의 연구까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는 한국사상의 최초의 개화기라고 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학문의 새로운 개척보다는 세도가 더욱 판을 쳐 경향 각지에는 탐관오리가 날뛰어 인심은 극히 사나워지고 있었다.

순조 11년(1811년)에 세도정치와 차별대우에 반발을 품은 홍경래 일파의 난이 일어나고 나라살림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거듭하다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소란케 하였던 것이다.

그 후 이씨조선은 말기에 접어들자 대원군이 집정하고 그의 집정에 이어 일본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의 민중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곧 동학혁명이다.

동학의 사상은 예부터 우리 민족이 섬기던 하느님(밝음)사상에 유교, 불교, 선교의 특징을 합쳐 만들어진 것이다.

동학의 선구자인 최제우가 죽은 뒤에도 밝음의 영원을 믿는 민중들은 한결같이 이 사상에 뜻을 모아 고종 27년경부터는 어둡고 썩은 세도정치를 향하여 수많은 민중이 동학의 이름으로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조정이 이 소란을 진압시키기 위하여 청국에 원병을 청하여 분노한 민중을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 운동은 그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문화운동인 갑오갱장의 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단 동학혁명이 옛날의 낡고 썩은 것을 완전히 부시지는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민권주의적 사상은 동학에 있어서 가장 앞장을 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족이나 또 일부 귀족들에 의해서 짓밟히던 사람들에게 사람 된 권리와 생활의 자유를 찾게 한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상의 산 모습이었던 것이다.

만 사람을 이롭게 다스리던 밝음의 뜻은 그것을 지키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민족생활의 발전과 이익을 부르짖던 이조 중엽이 실학사상이 동학혁명으로 민중의 운동이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예부터의 명백히 끊이지 않았음이 들어나게 된 것이다.

제3장 국민사상의 바탕

(1) 3 · 1 독립정신

서기 1910년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므로 이를 합쳐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나라를 파하고 민족을 소멸하기 위한 조약을 강요하였다.

우리의 오랜 역사는 무시되고 백성이 지켜온 삶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 더러는 옥에 갇히고 더러는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수많은 왜적의 침략에도 견디고 이긴 전통의 민족은 하늘의 빛이 있는 한 영원히 살아질 수는 없었다.

악독한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문화와 성품은 빼앗기지 않은 채 어느 때고 한번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대통령이던 윌슨씨가 민족자결주의의 사상을 소리높이 외치게 되자 거기에 호응한 나라 안팎의 애국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주독립과 조국해방을 위한 궐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때는 1919년 3월 1일 각계 대표가 은밀하게 연락하여 이날 오정 때를 같이하여 일시에 일어났던 것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2천만 민족의 분노에 찬 고함소리는 세계만방에 한국의 힘과 기백을 들어내었던 것이다.

흰 옷깃을 여며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처럼 순박한 연고로 한번도 남을 해친 일 없는 밝음의 백성은 이제야말로 오래 쌓인 왜적에의 설분을 위하여 분기하였던 것이다.

3·1정신으로 나타난 사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오직 한 핏줄이다.

밝음을 사랑하고 순결을 자랑하고 만백성을 이롭게 하기에 한뜻이 되어 살아왔다. 하늘이 내신 이 겨레는 저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의 사상이 깃들어 있다.

둘째, 예부터 우리는 어떠한 독재도 허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백성이었다. 자유는 하늘이 내린 은혜요 권리이므로 이는 짓밟힐 수 없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사상

셋째, 백성이 원하고 백성의 행복이 중심이던 건국의 사상과 이를 계승한 삼국시대의 민본주의 그리고 동학혁명에서 크게 주장되던 민주주의 사상

넷째. 오직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만 싸우던 화랑의 넋을 받들어 만 인류는 싸우지 말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평화사상

다섯째, 모든 나라와 국민은 모두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하며 어떠한 다른 세력도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이 길만이 세계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자주사상

여섯째, 예부터의 밝음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으며 고로 어떠한 폭력도 행하지 않으며 또 용납할 수 없다는 비폭력의 사상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토록 갸륵한 사상의 줄기는 하루아침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니라 5천년의 긴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켜지고 다듬어진 것이었다.

이는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온 세계가 없어질 그날까지 이 민족의 가슴 깊숙이 영원히 남아 있을 사상인 것이다.

(2)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상

1948년 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대한민국은 그후 또 하나의 사상적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생각할수록 가슴에 사무치는 6·25의 참극이다.

4천년을 오랑캐나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많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켜온 이 나라에 역사와 민족을 팔고자하는 반역의 무리가 나타났으니 곧 공산당이 그것이다.

이들은 조국과 민족보다 공산주의의 사상을 더욱 더 크게 받들고 있다.

민족은 이제 철통같이 단결하여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뒤떨어진 나라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살을 베고 뼈를 깎아 팔고자 하는 공산당은

지금도 우리의 바로 눈앞에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3·1정신과 한 핏줄을 이어받은 겨레의 안녕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열의 무덤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려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공산당과 타협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도 없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다. 아무리 억센 적이 우리를 짓밟았을지라도 우리들의 얼은 죽은 일없이 우리 민족의 피는 깨끗이 지켜져 온 것이다.

우리는 소련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에겐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풍습이 있는 것이며, 한국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상과 바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못살게 된 것은 자유주의 때문도 아니고 자본주의 때문은 더욱 아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재산을 불태우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침략주의요, 제국주의요 또 공산주의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은 공산주의를 제국주의와 같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런 공산주의를 말로만 배격하고 실제는 그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공산당은 어둠 속에서 날뛰는 아귀처럼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이 나라 백성들의 행복한 생활을 훼방해왔다.

공산당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다. 부정과 부패의 병마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로부터 거의 모든 관리 심지어는 일부 장사치나 일반국민에게까지 전염되어 눈과 귀를 멀게 함으로써 공산당이 바로 등 뒤에서 비수를 휘둘러도 알 수 없을 지경을 만들었다. 우리는 밝음의 나라에 사는 민족이라 하였다.

밝음이란 깨끗함과 정직함과 남을 도움과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런데 깨끗함을 잊고 정직을 버리었으니 우리의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가? 6·25때 공산당은 이 어둠을 교묘히 뚫고 들어왔으며 4·19 전후, 5·16혁명이 있기 그 전날 밤까지 우리는 희망마저 잃은 불쌍한 겨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밝음을 다시 찾기 위하여 화랑을 배우고 이순신을 아는 조국의 어린 아들, 딸들이 맨주먹으로 빛을 가리 운 모둔 권세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4 · 19라면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술에 취하듯 살아온 우리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잘못된 과거의 뉘우침으로 피땀 흘려 속죄의 일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 5 · 16 혁명이었던 것이다.

4 · 19와 5 · 16은 이 나라의 겨레가 잊은 밝음을 다시 찾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공산당과 또 그에 못지않게 낡고 썩은 이기주의, 권위주의, 사대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궐기였던 것이다. 꺼져가던 반만년의 횃불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사상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 번 밝힌 혁명은 지금 모든 겨레의 한결같은 힘과 애쓰므로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내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하나만의 세도를 오래 누리려고 이 사회를 어지러운 어둠으로 휘몰아가던 자칭 애국자도 이 빛나는 횃불의 밝음 아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땅의 역사가 있은 처음 날 온 천지에 가득히 내렸던 밝음은 지금도 우리를 젊은이의 가슴마다 살아있다.

이 빛은 아무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공산당이 총칼로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죽이고 없앤다 할지라도 마지막 살아남는 민족의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라도 밝음은 빛나고 있을 것이다. 재건되는 조국과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들에겐 반공민주주의의 굳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무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민족이 되려는 굳은 결의로 황폐한 땅이 개척되고 세계평화를 위해 그 힘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4장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듬으며 생각하고 믿어온 바의 사상의 줄거리를 찾아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만년 전 그 옛날 아름다운 이 강산에 살던 백성들은 하늘을 섬기며 그처럼 밝고 깨끗한 백성이 되고자 흰 옷깃을 여며 만인을 고루 사랑하고 도우는 것을 생활의 보람으로 삼아왔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멀리하였다. 그런 나머지 악독한 침략 앞에서 오랫동안 많은 수고와 서러움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끝내 명망하지 않는 한 핏줄의 얼을 지키며 오늘을 맞이하였다. 큰 나라를 섬기었으나 그것은 어질고 순한 연고일 뿐…… 그러나 결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이 처음 나라를 세운 이 땅에서 깨끗함과 정직함과 사랑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물려가며 오순도순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서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세계평화의 앞장을 서고 있다.

우리의 사상은 광명한 햇빛처럼 모든 생명과 정의를 사랑하는 그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비극

마 동 호

제1장 서론

남의 나라를 침략하며 못살게 굴던 제국주의가 사라진 이 체계 위에 또 하나 두드러진 자유 인류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공산주의라 일컫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연합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토가 두 쪽이 된 이래 그 북쪽 땅에는 공산당이 허수아비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운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로 하여금 또 한번 비극 속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한 슬픈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 겨레가 한 나라를 세워 짓밟혔던 과거를 잊고 새 세계의 새 역사를 만들려던 꿈은 산산이 깨어졌으며 붉은 제국주의는 조국과 민족도 아랑곳없이 이유도 없는 미움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음으로써 마침내 민족의 얼과 더 나아가 조국의 통일 독립의 길을 막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공의 자취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세계는 모든 인간을 노동노예로 만들려는 공산주의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유민의 무리로 크게 갈라지고 그 싸움이 가장 사나운 곳에서 우리는 반공을 더욱 다짐하는 혁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리와 같이 새로운 삶을 찾아 놓여 난 사람들 안으로 숨어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켰고 피를 흘리게 했으며 조국이나 민족보다 공산당을 찾는 것이 더욱 행복한 길이라는 거짓된 선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불안 속에서 멀게 하였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떡을 주고 그들의 생활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그 대가로 빼앗아갔으며 인간의 머리에서 희망과 이상을 노략질해갔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불행한 원인을 개인의 자유에 있다고 말하며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권리까지 모두 공산당이라는 하나뿐인 기관에 맡기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수다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계급과 불평들이 없도록 해준다는 공상당의 유혹대로 먼저는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삶의 자유마저 잃고 말았던 것이다. 공산당의 진실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먼저 가난한 까닭을 모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몰수한 재산은 공동의 소유라는 명분만 세운 채 공산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이지 말라'라는 구호를 내걸어 하루를 일하면 그 날만 먹이를 줌으로써 남는 돈으로는 무기를 만들거나 공산당의 높은 간부들이 함부로 썼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쉴 날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사람은 그 날 그 날 먹고 사는데서만 만족해야하고 감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본가적 생각'이며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민의 적이 되려는 것이라고 떠들면서 파괴와 살인을 예사로 저질렀던 것이다.

공산당은 이 세계가 반드시 공산주의까지만 발전하고 그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다가 저절로 죽을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 때는 오직 공산당원만이 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야릇한 사교(邪敎)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 빨리 오도록 하려면 가족이나 민족, 조국, 인권따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공의 모택동은 세계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는 두 가지의 큰 소득을 본다고 했는데 그 첫째가 공산주의가 그 만큼 빨리 온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인구가 많으므로 전쟁이 사람을 동시에 많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던 것이다.

공산주의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인민이 고루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일을 지지한 노동자들'의 행복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여 그 구실아래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폭력기구의 간부들의 생활만 날로 호화스러워져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침략주의에 불과하다. 이제 세계의 자유민들은 공산당의 거짓과 잔인스러움에 넘치는 자취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만을 위하여 사는 동물이기 보다 내일의 희망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깊이 공산주의의 노리는 바를

알아야 하겠고 그 어두운 마음에 새롭고 밝은 자유의 빛을 던져 스스로의 죄악을 뉘우치게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먼저 공산주의의 몇 가지 사상을 알아보고 자유 민주주의의 참뜻을 밝혀야 할 줄 안다.

제2장 공산주의의 몇 가지 사항

1. 공산주의와 인간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가치를 다른 동물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먹고 자식을 낳는 일을 할 뿐 오직 다르다는 것은 다만 기계를 쓸 줄 아는 동물이라고만 해석한다. 고로 사람의 정신도 결과에 있어서는 물질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과 물질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먹는 문제와 성욕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모두 자본주의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라고 본다.

개인의 재산 소유를 못하게 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사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서 식량을 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중공이나 북한 괴뢰집단 아래 얽매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과 옷감을 배급받고 있을 뿐이다.

중공에서 실시된 인민공사에서는 남녀를 별거하게 하고 부부생활도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밥은 공동식당에서 나누어 준다. 남편은 아래를 위하여 일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자유스럽고 행복하며 아내는 남편에게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가 하고 선전을 하였다. 중공 치하 인민공사에서 일하는 부부들은 자기의 자식을 기를 염려까지 없게 되면 그만큼 노동하는데 태만해지므로 우선 가정부터 없애야 하겠다는 정책 밑에 모든 개인 가옥은 집단숙소로 개조되고 부부는 따로 수용되고 낳은 자식은 탁아소라는 이름의 고아원 같은데서 길러가는 것이다.

이 인민공사 운동은 실시한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많은 중공치하 인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지금은 지극히 몽매한 농촌에만 실시하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사람은 빵과 성욕의 충족만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인간의 마음과 그 생각까지 기계처럼 같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공동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건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꼭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노동하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어찌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다. 만일 생각이 다르다던 그는 분명 반동분자거나 공상을 많이 하는 태만한 분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남녀의 교제를 최대한 이용한다.

연애는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 교섭을 위한 물질적(육체적) 본능적 욕망일 뿐 아무런 귀하고 또 갸륵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육욕적인 연애는 인정하지만 순수한 정신적 연애감정은 끝없이 불순하게 보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도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끝없이 용솟음치는 성욕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6·25때 준공의 괴뢰군을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총 한 자루 주지 않은 채 피리와 괭가리를 울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전선을 뚫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물리치려 하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사람은 예부터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일컬어 왔다. 사람은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야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만을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사람은 빵과 정욕만으로 그 날 그날만의 목숨을 이어가는 동물이 아니라 높은 이상(理想)을 이루기 위하여 뜻과 희망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사는 것이다. 비록 헐벗고 굶주려 죽을망정 정의가 아니면 좇지 아니하고 남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것이다.

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립되는 말일 뿐이다. 고대광실에 앉아 호의회식하면서도 불평과 슬픔을 느낄 줄 알며 가난한 초막사리에서 하루 한 그릇의 죽을 먹을망정 즐겁게 웃을 줄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인류사회의 역사가 되었고 문명이 된 것이다. 인간은 본능만으로 낳은 생산품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맺어진 사랑의 열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값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다. 인간의 타고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모두가 아내와 남편을 맞아들이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남편이 가족을 위하고 아내가 남편과 자식에게 봉사하는 것은 구속이나 괴로움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보람이요 기쁨인 것이다. 만일 이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는 새나 짐승만 같지 못한 인간일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귀한 값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2. 공산주의와 종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한 것은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주장한 마르크스이다. 이 세상엔 오직 물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사회에서 인정하는 종교와 신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 나라의 헌법으로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종교와 신앙을 박해할 자유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감퇴시킬 뿐 아니라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의 감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공공연한 박해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신이고 또 용서함과 사랑을 주장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공산주의의 적까지 모두 사랑해야 하므로 이는 마땅히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산 치하 지역의 교회는 모두 농기구 창고로 쓰이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여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노동의 태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하나님이나 또 성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앞잡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아가므로 자연 노동자들의 반항이 있게 되고 자본가들은 이 반항을 달래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라든가 기타 종교적인 책을 만들어 풀이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노동자들로부터 반항의 힘을 빼앗는 달콤한 마약이라는 것이다. 종교를 오래 가질수록 노동자는 그만큼 오래도록 빼앗김을 당하고 또 급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진리는 그토록 물질적인 타산에서 속이기 위하여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불교를 일으킨 석가모니 같은 이는 재물과 권세가 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찾고 얻으려 한 것은 결코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이나 큰 권세가 아닌 인간 영혼의 참된 안식이었을 뿐이다.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려 괴로움과 슬픔을 생각하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값을 알기 위하여 오히려 명예나 권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내버렸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본가나 권세 있는 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처럼 무식한

이도 없을 것이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가 만백성에게 준 것은 한없이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증거 한 그것이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참된 삶의 태도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러한 성자의 주장을 물질을 신으로 받드는 그들 공산당이 좋아할 리 없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인류사회의 문화가 발전한데에는 그 뒷받침으로써 종교와 신앙의 힘이 지극히 큰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자들의 무식은 뚜렷이 나타는 것이다.

종교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고 그 줄기찬 힘은 세월이 거듭할수록 더욱 넓고 깊이 뿌리를 뻗어왔다. 예부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 지어 종교를 가지는 동물이라고 말해온 것은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굴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또 성실하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 된 값이 있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부자의 것이거나 가난뱅이의 것이 아닐뿐더러 세도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은 더욱 아닌 것이다.

종교는 계급의 차별이나 부귀의 한계를 두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만백성의 영혼 위에 있는 것이다. 종교는 현실의 빵과 영화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그들의 헌법상의 조문으로만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듯이 그것을 박해할 자유도 용납한다는 궤변 아래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높고 갸륵한 마음을 낮고 천한 본능의 노예를 떨어뜨려 산다는 것은 다른 짐승과 같다고 우겨댐으로써 인간을 강제로 소나 말 같이 부려먹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종교적 강화로 갸륵한 마음을 가진다면 세계를 공산당의 독재아래 두고자 전쟁마당으로 물고가 악귀처럼 날뛰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공산주의와 혁명

'오직 폭력만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와 다른 모든 계급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도하는 구호로써 백년이 지나도록 인류의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의 불씨를 심어 왔다. 혁명이라 함은 파괴에서 그치는 혁명이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설적인 혁명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만들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부술 것을 선동함으로써 혁명을 위한 혁명을 주장한다. 공산철학에 의하면 혁명은 자본가의 착취가 극도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궁핍한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영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태여 혁명을 선동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혁명을 떠드는 이유는 정녕 혁명을 위한 길일뿐인 것이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산당이 생긴 것은 1948년의 일이었고 그해를 전후하여 세상에 발표된 마라크스나 엥젤스의 이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에 의한 혁명의 선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자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던 자본가를 타도할 때에는 자비도 인정도 돌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주먹으로 이긴 노동자 계급만이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917년 로서아에서 무지막지한 폭력배를 앞장세워 크레믈린 궁전 앞 넓은 마당을 붉은 피의 바다로 만들었다. 노동자도 아니고 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깡패 같은 무리들이 한바탕 살인을 하고 사라진 뒤 넓은 마당의 산더미 같은 시체 사이에는 낫이나 망치 등이 흩어져 있었다. 오늘날 공산당의 우두머리 나라인 소련의 국기가 붉은색 바탕에 낫과 망치를 그려 붙인 것은 그날의 비참했던 것을 과장하려는 파괴와 죽음의 혁명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앞선 조건으로는 우선 그가 인정이라든지 동정심 같은 것을 버리고 아무런 가책 없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이나 지식 혹은 인격이나 도덕은 오히려 혁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혁명기의 혁명가에게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도덕과 원수를 식별하는 복수에 불타는 눈이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더욱 소름 끼치는 이론은 혁명을 치르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일지라도 가림 없이 써야 하며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자본가를 남김없이 하나라도 더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최고의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사랑의 의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것이므로 서로 같지 않다고 말한다. 혁명은 으레 오고 말 자본가들의 죽음을 좀 더 빨리 가지고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본가를 하루 빨리 평안한 죽음에서 쉬게 하는 가장 자비스러운 일이므로 조금이라도 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여 가장 신사적인 보루라고 주장한다.

만일 이런 혁명과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이든 자본가보다 먼저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혁명 시에는 지시나 이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여 이기는 그것이 곧 정의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그들의 중심인물을 제외하고는 직접 혁명을 위한 전투원들을 조직할 때에는 지식인이나 그 밖에 도덕과 인간의 값을 말하는 사람들을 넣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원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식의 전부이며 공산주의자는 그것만으로 능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식을 굳게 믿고 소리 높이 외칠수록 그는 열성당원이요 영웅이라고 칭찬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떤 종교이든 그것이 사교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살인이나 방화를 비롯한 복수나 미움의 행위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일 몽매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옳게 여겨졌을 때는 공산주의는 그들이 원하는 피의 혁명을 시원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노동자라고 불려서 강제로 혁명에 끌려온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아껴 뒤로 물러선다면 그들은 당장 그를 무서운 인민재판에 붙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무는 노동자들 전체가 잘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원수인 자본주의를 죽이는 거룩한 혁명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겨 비겁하게 물러섰으니 이는 마치 노동자를 착취하여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아끼는 자본가의 태도와 다를 바 없으며 또 원수를 향하여 복수를 할 만큼 강한 적개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 그들과 내통하였거나 동무의 성분이 좋지 못한 증거일 것이오, 이미 당과 여러 노동자 동무들의 공동의 소유가 된 목숨을 아직도 자기 개인 것으로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 또한 자본가의 심보이므로 단호히 용서할 수 없소"라고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가는 곳마다 자본가들의 피로써 더 많은 붉은 깃발을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고 죽였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6·25 동란 때만하더라도 이미 당에게 그 목숨의 권리까지 몰수당한 중공군이 방망이 수류탄만 차고 우리 강토를 짓밟아 와서 시체의 산을 이루게 했던 것은 너무나 뚜렷한 죄악의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사된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오십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억울한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밝힐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실제는 혁명이 일어나고 권력을 잡는데 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억지소리로 가득하다. 그들이 말하는 혁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실행되는 나라에서 자본가들은 너무 많이 착취하여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 되고 노동자는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죽음의 한 걸음 앞까지 왔을 때 저절로 일어난다고 했으나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떠들어댄 것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그토록 죽일 만한 감정으로 혁명을 일으킨 예는 한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의 혁명만 하더라도 혁명을 선동한 처음 공산당 지도자들 중에 노동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는 온 국민의 9할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목축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노동자는 물론 노동자를 그만큼 착취하고 또 배가 불러 터질 만큼 된 자본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제 겨우 작은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기 보다는 가소로운 거짓이라고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꼭 그것을 우긴다면 러시아의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망치를 들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 몇 사람의 노동자를 위하여 농민들이 거들어 준 강제혁명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북한괴뢰집단에서도 자기들이 혁명을 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소련군과 중공군대가 들어와서 공산주의의 공자도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을 총대로 우겨 공산당으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공산혁명은 우리 한국 같이 국민 거의가 가난한 농민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기 전에 배부른 자본가가 많고 세계 제일의 공업 국가이므로 노동자의 수효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먼저 일어나야 했을 것이다. 어찌 되었던 공산주의는 어제와 같이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까지 혁명을 위하여 그들의 권력으로 인간을 죽이는 반 미친 열성당원을 더 많이 만들어 알맹이 없는 선동적 구호로 무모하고 잔인한 폭동을 계속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 폭동을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살인과 약탈을 배우고 또 멀지 않아 그것을 실습하기를 원하는 공산주의를 평화를 사랑하는 정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오직 하나뿐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여 그보다 더 귀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뭉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위에서 밝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평화스럽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생길래야 생길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발생하여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할 수 없이 잔인한 폭동이 지난 후 그 피 묻은 시체 위에서만 싹트고 또 자라난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위에 생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처럼 완전한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크게 강조하는 그 까닭을 분명히 알고 그럼으로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닮지 아니했고 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행세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살펴본 그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나 다름없이 국민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의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거기로부터 나온 사상이 아니라 자본가에 대한 지나친 미움을 가진 지극히 좁은 감정적 계급적 분파주의자들의 독선적인 소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만에 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이념을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중의 일부인 노동자들만을 위한다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말하는 국민이라면 노동자이어야 하고 그들만이 국민이며 다른 자본가나 기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들의 억지를 구태여 정의 내린다면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들이 하는 정치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미 그것은 공산주의인 것이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 아닌 다른 사람은 자본가가 아닌 바에는 무조건 노동자로 불러야 하는 어색한 고집을 또 세운 후에 주장을 문제일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

이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 사회에는 국가보다 당(黨)이 위에 있으므로 국민보다 당원이 높아지고 당원이 하는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개인은 아무런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자격이 없고 당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전당수의 전체주의이지 개개인의 인격적, 우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근본이 틀리는 역설인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사를 국가나 정부에 내놓을 기회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오직 당의 의사가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것이 그대로 모든 인민에게 적용됨으로써 의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겉치레에 지나지 못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산당의 무리한 정책을 모든 국민 대표인 것이지 실은 허수아비들인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뽑힌 대의원인가를 본다면 당에서 공천하는 한 사람씩의 후보자로서 선거라는 형식을 건성으로 거친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에서 입후보시킨 사람이 선거에서 낙선된 예는 투표 전에 죽지 않았으면 지금껏 없었을 것이다. 공산당식 선거는 여러 사람을 내세우고 그 가운데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내놓고 좋으냐(흰 통) 나쁘냐(검정 통)를 묻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제도를 가지는 공산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고집할 근거는 찾을 길 없다.

2. 계급과 평등

민주주의는 사람마다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그들의 목표가 노동자 계급을 자본가 계급과 분리를 시켜 적은 수효의 자본가를 위하여 많은 인원의 노동자가 고생하여야 하는 자본주의를 거꾸로 뒤집어 자본가가 노동자를 위하여 고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가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요 노동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첫째로 자본가 없는 노동자는 물론 노동자가 없는 자본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무식한 말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둘째로 착취를 말하기 전에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별다른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기 싫은 노동을 억지로 시켰다고 구실을 만들어야 했을 것이며 셋째는 사회 사람의 계급이 구태여 경제적 조건만으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와 아울러 넷째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선전하는 공산주의가 혁명 후까지 남은 다른 계급이나 혁명을 반대하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뚜렷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잘못을 변명하기 전에 우리들

은 벌써 그들의 목적이 만 사람의 평등을 위한 참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재산을 가진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코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차별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재산을 못가지게 하는 그 길 뿐이라고 말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된 평등'이상을 줄 수 없고 또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 된 평등'보다 '재산을 가지지 않는 데서의 평등'이 완전하다는 증명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재산을 가짐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된 평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갖지 않는 두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당원이요 또 한 사람은 과거 그의 가문의 성분 때문에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차별을 둔다면 함께 먹고 같이 잠잘지라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데서 받는 불평등은 아름다운 여인을 앞에 두고 두 남자 중 한 사람을 거세한 다음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목표는 '사람 된 평등'과 '삶에의 평등'이 주어지는 한 아무리 큰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지라도 그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법률의 적용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재산의 불평등을 구실로 사람의 성분을 나누고 '삶에의 평등'마저 빼앗아버리는 것이 공산당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만으로 나눌 수 없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재산에 따라 평등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본가 계급이 이 나라의 패권과 아울러 모든 일을 좌우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민주국가의 지배권은 '사람 된 평등'과 '정치를 하는 평등'을 지닌 전 국민에 의해서 좌우될 뿐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인간관계는 재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이나 값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진실로 숭고한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공산주의자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는 계급 없는 사회라면 지배계급이 지금이나 앞으로나 없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 지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계급의식이 살아 있는 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뿐인 것이다.

그들은 혁명을 반대하던 사람을 그의 재산이 있고 없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숙청하였던 것이다. 공상당의 혁명이 일어난 초기 소련에서 있었던 공산소련 단원이 저지른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혁명을 일으킨 공산당은 그들의 장차사회에서의 반동 세력을 없앨 목적으로 모든 소년들을 교육시켰다. 이 가운데에는 노동자의 자식은 물론 농민이나 지주 혹은 귀족의 자식들도 강제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은 공산당원으로부터 아직도 인민 앞에 그 재산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자본가나 지주들은 인민의 영원한 원수라고 배우게 되었다.

순진한 소년은 그날부터 지주인 자기 아버지의 계급과 자기의 계급은 이미 같을 수 없고 또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땅을 공산당에게 바치고 하루 속히 혁명 계급이 된다고 말했으나 완강한 꾸지람만 들었다. 그는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반동분자는 숙청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교훈을 되새겨가며 어느 날 밤 푸르게 날이 선 낫을 들고 자기 아버지가 잠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치고 말았다.

이른 새벽 그는 피 묻은 머리를 안고 공산당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백하였다. 공산당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를 벌주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칭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모든 당원이 본받아야 할 가장 영웅적인 혁명주의자라고 떠들었다.

이것이 공산당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로 맺어진 인간의 인연도 계급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기의 소속한 계급을 깨닫고 그 원수를 죽여 없앤 다음 공산주의를 이루는 길만이 참 행복에의 길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3. 자유의 참 뜻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란 말조차 필요 없게 된다고 말한다. 부자유한 자본가의 구속을 받는 상태이므로 자본가가 없어진 사회에선 자유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며 착취할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란 말은 건전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치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유라는 말을 잘못 내버려 두었다가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유는 아예 없는 것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평등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의 원인이던 재산의 자유로운 소유가 금지됨으로써 이미 평등은 이루어진 것이며 재산의 자유가 없는 한 평등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요구하는 까닭은 단순한 경제적 평등뿐만 아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불행한 때에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장 중대한 보장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이요 알맞도록 쓰고 아껴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여 자기의 몫을 가져야할 것이다. 가난을 먹고 입고 집을 갖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인생의 희망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정신의 빈곤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짐승 모양 본능만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사람은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다. 만일 먹지 못하고 헐벗을지라도 빵과 자유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빵보다 자유를 원할 것이다. 빵은 인간의 마음과 몸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없으나 자유로운 생활과 자유로운 말과 생각은 능히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찍이 모든 제국주의와 싸웠을 민주주의의 선구자들은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빈곤할지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길은 막혀있다. 자기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의 뜻에 어긋나거나 그 개인만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엄하게 금지되고 만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며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사람에게는 본능충족(本能充足)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신의 자유란 사상의 자유 즉, 생각하는 자유와 말하는 자유일 것이다. 생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말과 글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모든 사람이 가진 말과 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가진 말과 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비로소 생겨난 것인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그밖에 넘치는 요구나 현실의 불평일 것이므로 이것은 허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범위 안에서 말과 글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당원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열 사람이 모여 말을 해도 그 말이 틀리지 않으며 여러 가지의 글이 있으되 그 글이 한결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고 아무리 같은 원만한 생활을 할지라도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이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이나. 오늘날 북한

괴뢰집단에서만 하더라도 생각을 자유롭게 한 죄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허다할 뿐 아니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민간방송이 하나 없고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신문 잡지조차 하나도 없다. 있다면 모두가 공산당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들인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 그 나라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 가며 싸운 것은 헐벗고 굶주려서라기보다는 정신의 자유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적어도 사람 된 사람이 이 지구 위에 단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그는 이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유는 행동을 원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자유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생각의 자유 뒤에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이미 공산당이 먹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동하고 있는 터에 다른 행동을 할 필요도 여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감방 안에서 정해진 규칙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대답할 것이지만 그 자유가 곧 행복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 세상에 대한 자유이다. 물론 아무 나라에서나 민주주의의 자유에 무제한의 자유(이것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반종이라고 해야 한다)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의와 진리에 입각한 자유는 무한정하게 허용된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적인 것만이 정의이며 진리이지 다른 어떠한 선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무덤과 같이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들이 말하는 자유나 평등 같은 것은 무덤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덤은 평등하고 그 속에 누운 시체에게도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평등은 움직이지 않는 그 이상의 발전을 원하지 않고 어떠한 요구도 죽음이라는 사슬로 묶여 있을 수 없는 시체들의 죽음 안의 평등인 것이며 살아서 필요한 자유이지 죽어서 자유가 무덤 안에서 주어질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자유의 힘은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자유만이 필요할 뿐일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인민들에게 이와 같은 무덤에 갇혀있을 강제된 자유는 아무리 주어도 그것은 자유도 아니며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오직 그것을 반대하고 싸우고 또 뛰어나올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자유를 준다. 자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무덤의 사회로 만드는 힘에 언제라도 대항하여 싸울 자유가 법과 제도의 밑바탕에 심어져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강한 무리들이 이 기초를 뽑아 버린다면 그 위에는 국민이 참으로 잘 살 수 있는 법도 제도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은 다시 강조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4장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가지는 대략의 의미와 주장을 알게 되었고 민주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가 범한 가장 기초적인 잘못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왜 물리쳐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결심 그리고 실제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의 주장은 우리가 불행한 경황에 빠질수록 그럴 듯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하루 속히 없애야 하겠고 그러기 위한 인간적 존엄을 지키며 교묘한 공산당의 침략 앞에서 행복의 열쇠인 국민의 권리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워야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공산당은 새로운 평등과 자유를 건설하여 서로 도와 부흥의 길을 달리고 있는 자유세계 인민들 앞에 감히 바로 나설 수 없어 그들의 전술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속에서 평등하고 평등 안에서 자유스럽고 행복한 날을 향하여 달리는 인민들, 죽이기 위한 독약은 평화라는 사탕발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내어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평화는 저들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것처럼 떠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먹을 휘두르며 직접 집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면서 달려오던 것을 이제는 말쑥하게 예절을 차리는척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다정히 이야기하자거나 또한 잘 지나가자고 손까지 내밀며 많은 선물을 내놓기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품안에 든 칼자루를 잡은 채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간첩침략이라는 말이다.

남북한 평화협상을 내건 며칠 후 불법하게 처 들어왔던 6·25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첫째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빈틈없는 우리 생활을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단속을 심히 하는 집안에 도둑이 들지 못하는 것처럼 더욱 자세한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왕좌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족도 국가도 경제재건도 그것이 아무데서나 있어지고 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일 공산당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인민의 권리, 생활의 자유, 훌륭한 민족, 전통 있는 국가

사회 따위가 그대로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5·16 혁명의 맨 처음 구호도 반공의 재인식을 다짐한 것이었다. 빈틈없는 반공생활은 진실로 자유와 평화의 생활을 바라기에 앞선 전재조건인 것이다. 공산당은 개인의 가정이나 국가의 어느 기관이나 사회의 어떤 일을 가림하지 않고 파고든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민,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 분열하는 국민, 실속 없이 분에 넘치는 허영, 도의가 문란한 사회'등을 틈타서 공산당은 불평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와서 흔드는 일을 한다. 돈이 아니면 사치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가장 애국 애족한 것처럼 말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참된 반공은 민주주의에의 큰 믿음과 또 민주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하여 책임을 지고 단결하여 실속 있고 소박하게 사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몸에 병균이 달라붙기 어렵듯이 건전하게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공산당이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 된 권리와 사람 된 자유와 평등을 노리기 위한 반공의 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고 국민혁명이라는 높고 빛나는 건물을 그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

마음의 양식

- 훌륭한 선장은 육지에 앉아서 될 수는 없다. 바다에 나가 무서운 폭풍을 만난 경험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격전의 들판에 나서야 비로소 전쟁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참된 용기는 인생의 가장 곤란한 또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 다니엘 -

-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통솔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솔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의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기를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 이기는 길이다. - 힐리이 -

-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부정한 것은 외부에서 찾아올 수는 없다. 사람들은 만족과 위안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 공백을 메워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우리의 내부의 생명력의 새로운 발동으로서만 치료되고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 속의 공허는 내 마음 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을 뿐이다. -파스칼-

수필선(隨筆選)

자전차의 거리

성 경 린
〈국악원장〉

이젠 정말 먼 나라가 없게 된 것 같다. 한 시간 반이면 일본 동경(東京)에 날아가고 대만도 불과 네 시간에 당도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은 비교적 느린 편이요 제트기면 두 시간 반이라니 놀랍다.

모두들 그렇게 느낀다고 하지만 대북 땅에 내려서서도 도무지 이국에 온 생각이 아니 드는 것이다. 그야 남국의 야자나무라든가 불상화, 그 거리를 누비는 삼륜차 등 조금 이색적인 것이 눈에 띄어도 도무지 외로운 나그네의 심정은 아닌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저와 나 사이에 무슨 간격을 느껴야 스스러운 법인데 우리가 저들 속에 섞여 있어도 일향 분별을 찾을 수 없다면 이건 너무 어울리는 국민과 국민이다.

여관엘 들러도 이발관엘 가도 얄미운 눈으로 대하는 일본인의 근성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었다.

경도(京都)에선가 우리들 일행이 들어섰을 때 여관 여급의 눈은 확실히 고맙지 않은 손이 들었다는 낭패의 기색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대판(大阪)역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고 있을 때였는데 거울에 비치는 종업원의 말 않는 입의 대화에서 한국인이란 모멸의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불쾌하기 이를 데 없으면서 이것이 어디로 좇아오는 것인 것쯤 요량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곳 대만은 달랐다. 나를 누가 우러러 보지도 않았지만 낮춰 대하는 비례도 없었으니 고맙지 아니한가. 대만의 거리는 진정 우리의 눈을 흐뭇하게 하는 부러운 광경의 거리였다. 지금도 서울의 어지러운 교통을 보면 자연 대만에서의 화기에 찬 거리를 연상하고 망연 하는 버릇이 있다.

자전거의 물결, 오토바이의 물결, 삼륜차의 물결, 거기에 택시, 버스, 트럭 등이 정말 의좋게 거리를 달리는 것이다.

자전거의 보급은 자전거 홍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남학생, 여학생, 소학교 남녀 아동까지도 자전거 통학이다. 공무원, 회사원, 직공, 군인 하다못해 가정주부까지도 자전거는 다 탈 줄 아는 모양이다.

아침 상학 출근시간이요, 저녁 하학 퇴근시간의 거리는 그야말로 자전거의 범람이다. 오토바이도 끼어 있지만 자전거의 대세에는 멀리 미급이다.

그런데 택시요, 버스요 트럭들도 함께 움직이건만 전혀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게 실로 못 믿을 정도인 것이다.

거기에 두발로 휘젓고 사람 둘을 태우고

갸우뚱대는 세 발 자전거 양차가 끼어있다.

달리는 차량 속에 적지 않게 걸리적대는 존재이겠지만 그렇다고 양차가 자동차에 겁질려 위축하는 태를 우리는 일찍이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국에서도 교통에 장애일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보아 양차의 폐지조치를 고려하기도 한다는데 양차의 차부들이 거개 대륙에서 건너온 국부군의 장교요 사병들이어서 그 역시 단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개재한다고 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통순경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비교적 전세버스로 시내요 장거리를 주파하고 하였지만 거리에서 통제하는 교통순경 또는 위반을 단속하는 광경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대만의 교통이 우리의 교통량에는 많이 못 미쳐 그런대로 사고 없이 해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중국인의 서두르지 않고 덤비지 않는 그러면서 겸양을 덕으로 하는 장자의 풍도가 아니면 대만의 교통질서는 스스로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국민학교의 어린이가 서울의 거리를 어떻게 무서워서 한 신을 자전거로 통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보면 자명한 일이다.

그 농촌에 가도 길은 잘 다듬어져 있는데 남편은 오토바이를 몰고, 젊은 아낙은 젖먹이를 안고 뒤에 매달려 가는 정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그것은 또 엄마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건강한 풍속이었다.

요즘 더욱 많고 심해진 서울의 자동차 홍수와 그 폭력을 대할 때마다 교통순경 없이도 질서와 화기를 유지하는 대만의 자전거 주체의 거리를 나는 부럽게 회상하곤 한다.

서창기

양 명 문
〈시인〉

지금은 작고한 시인 월파(月坡) 김상용의 시에 「남으로 창을 내겠오」라는 유명한 한편이 있지만, 나는 지금 서창을 향하여 마주 앉아 이 글을 쓴다.

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서쪽을 향하여 앉으면 무슨 조용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겨울날이고 보면 서쪽 하늘에 서리는 가지가지의 영상(映像)이 재미있다.

우선 창밖에 놓인 나의 작은 뜰. 그 뜰 구석에 서있는 수양버들이 내 시야를 멋지게 수놓는다. 내가 이 집을 사려고 맨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집도 아담하게 보였지만 그 보다도 이 큼직한 수양버들이 대번에 맘에 들었던 것이다. 수령(樹齡)이 아마 한 40년은 넘었으리라. 아름이 넘는 밋밋한 밑 둥에 키는 약 15미터 가량의 높이를 가지고 솟아 있다. 사방으로 골고루 가지를

뻗고 그 뻗은 가지들이 또한 덥수룩이 보기 좋게 실가지들을 늘어뜨려 항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수양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리에선 제일 큰 나무라 우리 집을 버드나무집이라고도 할 정도로 눈에 띈다.

나는 이 집으로 이사 온 날부터 이 수양과는 매우 친해졌다. 아닌 게 아니라 나에게 집을 팔고 나가는 저번 주인 신사도 마냥 이 수양을 칭찬하고 못내 섭섭해 하며, 선생님이 이 수양이야말로 백만 불짜립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나무를 퍽 좋아하는 성질이어서 늙은 느티나무 밑 둥을 어루만지며 그 나무의 얘기를 주고받는 때가 더러 있다. 나무는 무슨 종류의 나무고 대개 다 좋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나무는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회나무, 모과나무, 수양 등등이겠는데 보통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나무를 나도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나무 중 몇 그루가 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나무는 말이 없어서 좋다. 춘하추동 저 혼자 자기 나름의 몸단장을 하고 탈바꿈을 하면서 없는 듯이 가진 재주를 부리며 나를 위안해 주는 것이다. 나이가 좀 든 탓이어서인지 왜 이렇듯이 나무가 좋아지는 것일까.

지금 내 서창 바로 앞에 수양은(사실은 능수버들이 옳다) 잎이 다 떨어져 실가지만 남은 그 자리한 실가지들은 무슨 발(簾)처럼, 또는 하프(Harp) 줄처럼 느리우고 있다.

조용히 지나가는 바람에 평화스럽게 살래살래 꼬리를 젓듯 흔들리고 있다. 잎 새가 무성할 땐 그 실가지들의 흔들림은 마치 아리따운 여인의 청초한 차림의 옷자락이나 옷고름이 나부끼듯 나불거렸었는데, 이제 실가지만 남은 이것들은 튕기면 무슨 기막힌 소리라도 울려나올 것 같은 그런 정겨운 가지들이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옛날 도연명(陶淵明)은 집 앞에서 다섯 그루의 수양을 심어 놓고 이것을 사랑하고 즐겼다 해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란 별칭을 갖고 있었다 하거니와 나는 한 그루의 이 수양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수양이 드리우고 있는 실가지 저쪽으로 서편하늘이 시원스레 열려 있는 것이다. 그 하늘에 나의 신묘한 이미지들이 떠들고 있어 때로 나는 얼이 빠진 사랑마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다. 이러한 나의 포즈를 나는 이 서창을 향하고 취하는 것이다.

인생. 얼마 길지도 않은 이 역정(驛程), 내가 걸어온 나의 지난날들을 또한 이 서창 안에서 정리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나의 을들을 역시 이 서창을 향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새들도 날이 저물면 서쪽으로 귀소(歸巢)하듯이 이렇게 서쪽을 향하는 마음은 조용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방향인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새들 뿐이랴 달도, 해도 별들도 모두 서쪽으로 기울여지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다.

밤이면, 특히 달이 있는 밤이면 나는 우리 수양버들 가지에 와 걸리는 달구경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폭의 멋진 동양화 그대로의 풍물이다. 이럴 때 공초(空超)의 시귀(詩句)도 떠오르는 것이다.

수양은 말이 없고 달이 둥근데 한 잔 한 잔 또 한잔 채우는 마음.

실로 수양은 동양의 운치(韻致)를 지닌 나무인 동시에 동양적인 향수(鄕愁)를 자아내는 나무라고도 하겠다. 나는 서창을 향하여 나의 수양을 바라보며 이 겨울날을 즐기는 것이다.

사모님 족(族)

김 자 림
<극작가>

거기는 모 고관의 차 안이었다. 지금 아이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엄마들이 서넛 모여 앉았다. 나만 빼놓고는 모두 고관부인들이었다. 밖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그 광경이 퍽이나 낭만적이긴 하나 지금의 이 초조한 심정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밖에서 눈을 맞아 가면서 서성대는 어머니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붕붕 돌아가는 히터로 하여 차 안은 좀 지나칠 정도로 후끈하다. 약 서너 시간을 그렇게 갇혀 있을 라니까 뭔가 지껄이지 않으면 더 견딜 수 없어 우리는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떠들어대는 거다. 차임자인 고간부인하고는 같은 학교 자모라 벌써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지만, 다른 부인네들과는 거기서 비로소 인사를 교환한 사이였다.

그 부인네들은 서로가 사모님 사모님하며 부르는 것이었다. 비슷한 지위의 부인네들이라 그래야만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서로가 예절을 지키는 듯한 그 호칭이 나로서는 퍽 호감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고관부인들 다운 그 점잖음에 끼어 있는 내 자신이 좀 어색할 정도였는데 웬걸, 그 부인네들도 별 수 없는 속물들임에는 틀림없다.

남편 출세 얘기, 동료들 가족얘기, 그러다가는 곗돈 얘기, 강짜얘기 등등이건 옆에서 듣고 있노라니 나로서는 하나도 흥미 없어 하품이 나고 가뜩이나 옹색한 자리에서 몸이 비비 뒤틀리기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서 더욱 가소로운 것은 시종 사모님, 사모님 하는 서로의 그 존칭이었다. 어쩐지 그 사모님이란 존칭이 그 여인네들 언저리에 따로 뒹굴어 마치 발에라도 채이고 있는 듯 싶었다. 얼마 전 나는 교수 촌에서 살았었다. 그때 우리는 동료의 부인들을 서로 사모님 사모님하고 불러댔다.

그 당시 그 부인들끼리도 모여 앉으면 으레 주고받는 얘기란 항시 잡스런 세상일이며 그러다 그것에 지치면 남편 아니면 시집식구의 허물 들추는 일, 또는 서로를 헐뜯는 일 등등으로 번져가곤 했다. 그렇게 하여 서로가 피부를 맞대어 살아가는 동안 흉허물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되니까 자연 인격도 존경심도 엷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차라리 서로가 얘, 쟤,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또는 미국식으로 유(You)로 통하든지. 입으론 그토록 존칭으로써 불러대면서 속으론 조소와 경멸로 대한다면 얼마나 거리가 먼 얘긴가 말이다.

존칭이란 존경으로 대해야지 도리어 욕이 될 수도 있다. 소위 사모님이란 존칭은 스승의 부인을 두고 부르는 칭호인데 어쩌다 동료들 부인간의 호칭이 되었는지 납득이 안 간다. 그 값들도 못 치루면서 대접에 치어 죽을 지경이라면 차라리 쓰지 않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때 나도 나중엔 동리아이 이름 부르듯 가볍게 오르내리게끔 됐었지만 엄격히 따져 생각한다면 사모님처럼 부담을 느껴야 하는 이름은 또 없을 줄 안다. 매우 부자유스럽고 피곤을 심신이 아울러 느껴야 마땅한 호칭임을 나는 지금이 차 속 분위기에서 더욱 실감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사모님 족이 이렇게 많아서야……

한국 도처에 사모님 족이 수십만은 헤아리리라. 사실 나는 그 사모님 족이 싫어 그것으로부터 이탈되어 시내로 이사해 나왔다. 아직도 엄연한 교수부인이기는 하나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동리부인한테서 아무개 어머니로 통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르겠다.

엄격히 따지면 나는 아직 아무개 어머니라는 그 호칭의 값어치도 충분히 치루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그러한 나에게 그 위에 또 다른 칭호에 대한 부담이란 생각만 해도 지겨울 뿐이다. 차 밖은 아까보다 눈이 더 심하게 오고 있다. 불안한 어머니들은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돼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있다.

진정 눈물겨운 정경이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을 다 하기 위해 아니 그 이름의 값을 호되게 치루 노라 지금 혹한 속을 떨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 하나의 명칭의 대가만 해도 이리 아프고 매운데 그 위의 것을 어찌 더 감당해 나가랴. 송구스럽고 고될 뿐이다.

운상운하(雲上雲下)

박 목 월
〈시인〉

한 달쯤 전이다. 자아르(J.A.R)의 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4박 5일간의 짧은 여행이기는 하지만, 다시 공중을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무척 즐거웠다. 갈 때는 김포에서 제트기를 타고 오사카로 직행하게 되었다. 아침 11시 정각에 김포공항을 출발한 것이다.

그날은 가을날씨답게 흐리고 추웠다. 추적추적 가랑비조차 뿌렸다. 말하자면 지상에는 늦가을의 으스스하고 춥고 걷잡을 수 없는 우울한 적막감이 덮여 있었다. 여행하는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런 날에 길을 떠나는 것은 비록 잠시 다녀오는 관광여행이라 하지만 기분이 갈아 앉고 마음이 무거웠다. 보내는 사람도 우울해 보였다. 전송대에서 손을 휘젓는 가족들의 모습이 어두운 보랏빛으로 멀어져갔다. 이대로 영영 떠난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 만일 이것이 지상에 대한 영 이별을 뜻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것일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버렸다. 괜히 불길한 생각으로 마음을 어둡게 할 필요가 없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본격적으로 달려 이륙을 하였다. 그러자 이내 시야가 가려지고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주위가 컴컴해지며 졸라맨 밴드가 허리에 파고들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운해(雲海)위로 솟아올랐다. 어느 여류화가의 수필에 '부운(浮雲)의 바다'라는 수필이 있었지만 천상에서 굽어보는 구름의 바다야말로 장관이었다. 겹겹이 물결치는 솜같이 의고 부드러운 구름덩이가 무한으로 깔려 있었다. 구름바다가 갈라진 틈서리로 지상은 하나의 다채로운 모자이크처럼 한없이 평화롭게 전개되었다.

한강이 보였다. 한 줄기의 푸른 띠처럼 굽이치는 한강 줄기는 지상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망에 불과했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자의 숨 가쁜 생활의 절박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혀진 애달픈 애환의 잔물결을 말끔하게 승화된 지상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로웠다.

여전히 비행기는 운해 위로 날고 있었다. 또한 여전히 구름이 갈라진 틈서리로 지상의 풍경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골격만 커다랗게 나타나는 산악(山岳)도 결코 지상에서 우러러보던 산줄기가 아니었다. 8천 피트의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산줄기는 한 마리의 순한 짐승처럼 우리들 눈앞에 유유낙낙하게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그 가슴에 서려있는 신비에의 동경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의 육신에 돋아난 날개가 아닌 기계의 힘을 빌려 지금 하늘을 날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비롯되던 그날부터 간직한 꿈의 실현이요, 그 소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으로 지금 내가 8천 피트의 높이를 날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의 엄청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거대한 산악이 우리들 발아래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제 내게는 지상의 우울한 날씨도 목마른 삶에의 조바심도 사라져버렸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위치는 바로 신이 계실 자리며 지상을 굽어보는 나의 눈동자는 인간 본래의 눈동자가 아니다. 구름 틈서리로 흘러가는 지상의 저처럼 평화스러운 풍경은 신의 눈동자에만 비칠 풍경이다. 말하자면 내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상한 해탈감을 느끼는 것도 인간이상의 높이에서 굽어볼 수 있는 천상적 감정세계일 것이다.

비행기는 동해를 가로질러 날게 되었다. 파도 높은 동해도 한 폭의 비단에 불과했다. 그 한 자락을 잘라내어 옷이라도 해입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김포에서 오사카까지는 불과 한 시간 남짓 걸렸다. 이 단축된 거리감은 일본 민족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나 우리 민족이 겪은 수모의 역사조차도 잠시 잊게 하고 지극히 담담한 마음으로 일본을

대하게 하였고, 오사카 공항에 내리는 나의 발걸음을 홀가분하게 하였다.

창가의 비(雨)

OSI본부 중위 김 기 완

비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요람처럼, 포근한 행복감과 안식과 낭만뿐이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잠이 들면 더러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좇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피할 길 없어 천인단애(千仞斷崖)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다 소스라쳐 잠이 깰 때 인자스런 어머님의 모습에 얼마나 다행함을 느꼈던지, 저녁상 옆에는 등잔불이 졸고 있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비는 내게서 행복의 밀어(密語)를 영영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회한과 우수가 말려드는 날엔 약속이나 하듯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던 초여름 나는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낙향(落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여름방학을 앞둔 희망에 부푼 동료들의 모습을 뒤에 두고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몹시도 바람이 불고 비가 뿌렸다 실의에 젖어 하숙방에서 이불깃을 따고 있을 때 같은 방 친우(親友)는 말없이 울먹이고 있었다.

밤 10시 차를 탔다. 차창에 부딪쳐 부서지는 비를 바라보며 비처럼 지향 없는 마음의 갈등을 잊을 길 없어 했다. 시간은 말없이 정체된 연륜만을 더해 갔지만 이것은 비와 내 결정적 좌절과의 첫 교류며 언제까지나 잊혀 지지 않는 상처다.

공부를 한다고 산사(山寺)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었다. 구름이 낀 날엔 뿌연 안개가 산허리에 펼쳐져 있고, 내려다 보느라면 산사는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였다. 비가 온종일 내리는 날은 아랫마을 사람들이 무던히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했다. 이런 날엔 학우들은 어둑한 촛불 밑에서 '섰다'판을 벌이거나 아랫마을로 막걸리를 곧잘 마시러 갔다. 산사의 밤이 깊고 법당에 촛불이 켜진지 오랜 후에야 고갯길에 왁자지껄한 벗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인정(人情)있는 사람들의 편지라도 있는 날이면 몽상 속의 잠은 한결 감미로웠다. 짧았던 산사의 생활, 그리고 기다림 속에 가버린 한 해의 봄, 정신병원을 찾던 불안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산사를 떠나던 날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렸다.

좁다란 산길을 간신히 찾아 내려오며 정든 산사에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내겐 무척이나 다정했던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가 유학을 떠나던 날도 비가 내렸다. 공항은 향수(鄕愁)를 싣고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보내는 사람들도 떠나는 순간을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트랩에 오르면서 그는 손을 흔들었다. 몇 년을 발전 없는 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맴돌았던 탈출의 찰나, 그녀에게도 잔잔한 슬픔은 체념처럼 번지고 있었다. 안경이 갑자기 흐려왔던 것은 공항에 내리는 서글픈 비 때문이었을까.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짧지 않은 세월의 경과가 파노라마같이 스쳐갔다. 너무나 오랫동안의 침묵, 사화산(死火山)처럼 정지하고 있는 내 형해(形骸) 그리고 여태껏 헤어나지 못한 소용돌이 또 작별……

잔인한 8월은 이렇게 종언을 고하는 것일까.

기적의 여운만큼 한 여백도 주지 않은 채 비행기는 그를 삼킨 채 떠나버렸다.

비는 드디어 내 마음이 되어 회상의 창가를 흐르고 있었다.

어느 해 봄날 기교포(技敎團) 연병장(練兵場)에서 하룻밤 봄비에 갑자기 파릇이 돋아난 잔디와 수양버들의 움을 외경과 감격으로 바라보았다. 계절이 윤회하면 봄이 오고 호흡이 중지된 듯한 고목은 또 새싹을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 생명의 환희를 기다리는 지루한 동면(冬眠)은 다시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날, 다시 돋아나지 않았던가. 그 날엔 내 회상의 창가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변소론(便所論)

항공의료원 중위 허 상 진

변소 하면 시골 야외에다 큰 구멍을 파고 나무판자가 두 개로 겨우 다리를 놓고 통풍이 잘 되랍시고 벽 구멍이 아무렇게 뚫어져 있으며 주먹만 한 시커먼 F-5A가 요란한 폭음을 울리고 용자를 엄호해 주노라고 왔다 갔다 하며 화염보다 진한 Gas가 골고루 코를 찔러주는 곳을 연상하고, 도시에는 변소 차(?)가 가가호호 다니며 고가(高價)로 구매하려 멀리 산에다 또는 가까운 바다에다 쏟아버리는 것을 모처럼 휴일에 등산 또는 해수욕 때 다시 재회하는 것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으리라.

속담에 '변소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과 같이 들어갈 때는 집을 잡히더라도 나올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양 하는 것이 또한 변소 용변이다. 인간의 생리적 욕망 다섯 가지 중 배설의 자유가 기아해방의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좌우지간 변소에 갔다 나와야(一日一便) 속이 시원하고 명쾌해지므로 손해될 것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에서는 변소를 Comfort 또는 Rest라 하고 독일에서도 Rest로도 통한다 하니 모두 안식처, 안락처, 휴식처 등으로 통하는 샘이다. 여자가 손 씻고 화장 고치는 곳이라 해서 화장실이라고 하고 수세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Water Closet라 한다면 가마니 조각 문짝에 '화장실'또는 'W.C'라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Washington나 Winston Churchil로도 통하니 엉터리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국문자에 '便'자는 똥오줌 변이라기보다 편할 편으로도 읽혀지니 동서를 불문하고 '편안한 곳'으로 의미 상통한다 하겠다. 대변은 크게 편하고 소변은 조금 편한 것인지 또는 대변은 장시간 편하고 소변은 잠시 편한 것인지?

어째서 명칭 구분을 그렇게 교묘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누가 나에게 여태껏 경험을 통해 가장 평안하고 극도의 자유가 보장된 곳을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변소'라 답하겠다. 그것은 수년 전 군사훈련을 받을 때 이층 내무반 옆 수세식 변소를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애용(?)했던 까닭이다. 마루보다 깨끗하고 선풍기보다 시원한 바닥에 시원한 물을 콸콸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상쾌해서 만이 아니다. 아침 기상에서 세면, 식사, 학과 중, 휴식 등 취침시간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이것도 언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체육적인 어퍼 커트 펀치가 뺨에 작열하기 때문이고 지나간 후면 시원하더라도 그때까지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자니 귀찮아서이다. 그러나 변소에 들어 앉아 있을 때는 집합이 없는 한 용변유무를 불문하고 극도의 자유가 보장되고 절대타의 간섭으로부터 배제된다. 금지된 감미품(甘味品)이나 빵을 친우 R과 나눠먹는 다과점이며 연애편지도 수완껏 써낼 수 있고 허리춤에 숨겨둔 오백 원 권 화폐를 꺼내어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도 하는 곳이다. 사역이나 잡역이 귀찮을 때 배탈을 핑계로 이곳 시원한 곳에 와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물소리를 드는 것도 아쉬운 대로 신선경(神仙境)에 이른 것 같았다. 휴식시간에 재미있는 책을 들고 문에 '고장'이라 써 붙여 놓고 안벽을 기대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과히 고생되지 않았다. 포케트에 굴러다니는 드롭프스는 보통 이곳에서 처리된다. 다만 껍질을 잘못 버려 기합을 받기는 하나 그때까지는 편안해서 좋았다.

이러한 Utopia적인 변소만을 이용하다 시내 외출을 나와 공중변소에 들어가면 웬 비양심적인 시민이 그렇게 많은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낙서는 그날 신문 3면기사보다 읽을거리가 많다. 또 국민학교 시설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제트조종사는 수천피트 상공에서 점 같은 표적물을 로케트 포로 정확히 명중시키는 제군은 불과 3~4cm 떨어진 항문(肛門)에서 수십 배 넓이의 구멍에도 정확히 명중(大便)시키지 못하고 겉에 나와 있거나 발리거나 묻어 있는 양이 속에 들어있는 양보다 많아서야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연상시킨다. 남자라면 다 군복무를 했기에 그 정도 사격술로는 명중에 충분하다면 군대와 먼 여자들의 소행이란 말인가? 그러나 남자용 여자용 할 것 없이 똑같다. 그렇다면 항문이 비뚤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럴까? 공동변소라면 으레 입장할 때 세계적인 불안, 고민, 불쾌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인상을 긋고 ○찍어 먹는 시늉으로 통변(痛便)을 하고 퇴장할 때는 Dante의 지옥문을 나오는 것처럼 천둥 같은 폭음과 동시 '콰악-탱'하고 침으로 아무렇게나 일격을 가하고 번개 치듯 부서져라하고 '콰당탕'문을 닫아 젖힌 다음 인상을 고쳐 편다.

나는 항상 언제 이러한 악습이 시정될까 하고 공중도덕심이 아쉽고 변소의 안식성을 그렇게 이해 못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은지 못내 안타까워한다. 백주 은행 강도도 잡고, 어린이 유괴범도 잡아야겠지만 범국민적인 변소 사용 정화운동도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기 앞서 우리 군인 장병들만이라도 합심 단결하여 모범되게 시정해 나갔으면 한다.

메모 광(狂)과 건망증

공군장병 정 락 훈

나는 메모광이다. 따라서 건망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에 배어버린 제2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누구는 메모광이라고 자처하는 나에게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망의 눈길을 돌리겠지만, 나로선 가장 수치스런 일이고, 하나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원래 머리가 나쁘다면 체념이란 편리한 말로, 장님이 귀먹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듯이 메모광이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터이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수석을 달려온 내가 사사건건 메모를 해야만 되는 슬픔을 생각할 때 이처럼 원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으랴 싶다.

메모 벽은 고등학교 때부터 붙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에서 우체국을 가려면 20리 길이나 되었기 때문에 동리 사람들도 읍 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심부름 가운데 매일 있다시피한 편지는 큰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학교만 끝나면 가장 상쾌한 기분으로 자전거로 냅다 달려오는 것이다. 저만치서 동리 사람이 보였을 때 나는 아차! 하고 주머니 속의 구겨진 편지를 생각한다.

"편지 부쳤니?"

"네, 부쳤어요."

능청스런 대답이지만 우선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내일 다시 부치리라 생각한다.

이튿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머리가 아찔해 오는 양심을 느끼게 되며 이것은 며칠씩 계속될 때가 있다 하여 고민 끝에 좋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다. 즉, 손바닥에 큰 글씨로 '편지'라고 적어 넣는 것이다. 아침에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지만 학과 후 맑은 날씨는 우산을 잊게 하고, 내일 작업이 있으니 삽을 가지고 오라 하면 적어도 이튿날 아침 삽을 질질 끌고 가는 학생을 보기 전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다.

이때부터 나의 손바닥은 나의 노트였고 머리였고 시각적인 기억기계가 되고만 것이다. 문학적 영상이 떠오르면 그걸 손바닥에 적었고 여자를 알고부터는 때와 장소의 약속시간을 적게 되었다. 때문에 볼펜은 항상 주머니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하시하소(何時何所)를 막론하고 창피를 무릎 쓰고 손바닥에 낙서를 했다. 참으로 편리하고 고마운 존재,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무척 불편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다. 한번은 애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다방엘 들렀다. 텔레비전까지 장치해 놓은 영화관 같은 구조를 했으면서 다방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장식해 놓은 무척 마음에 드는 다방이었다.

다음엔 이리로 약속하려니 생각하면서 다방이름을 알려고 했으나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들어올 땐 애인에게 XX다방이라 하며 풍월을 읊듯이 떠들며 들어 왔는데 그 XX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여봐. 이 다방 멋있는데, 근데 다방이름이 멋이 없어 ○○다방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니에요. XX다방이 더 좋아요. ○○다방은 너무 화려해요."

유도 심문 끝에 "아 그렇군! XX다방이었군."하는 멍텅구리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 들어오고부터다. 세면장에 세면도 하고 세탁도 할 겸 들어가 보면 나올 땐 세탁물이나 세면 박스 중 한 가지는 꼭 놔두고 나오게 마련이다. "아 참 비누 곽을 놔두고 왔군! 메리야스를 안 가져 왔어,"하고 열나게 뛰어가 보면 깨끗이 청소된 세면장엔 수돗물만 졸졸 나온다. 한번은 목욕을 하고 기분이 좋아 크림을 바른다, 콧노래를 부른다 하는데 주변 하사의 전달이 들린다.

"전달, 전달, 방금 세면장에서 시계를 잃은 사병은 주번사관실로 오라."

아차, 또! 상쾌했던 내 마음은 별안간 푸른 멍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참이 되었는데도 내무검사 받을 때마다 암기목적을 새로 외워야 하는 고통이 있다. 동료들은 신병대에서 외운 밑천으로 지금도 술술 외우고 있는데 나만은 신병 기분으로 다시 외워야 하는 슬픔을 가져야만 된다.

건망증이여, 머리에 더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잊혀 져야 되는가, 제발 메모를 하지 않고라도 머리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기를.

이제는 정말 메모광이 되었다고 자신한다. 침구정돈을 하다가도 손바닥에 급히 메모하게 되었고 변소에 가서도 어둠 속에서 메모하게 되었다. 외출 때는 외출 전까지 외출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메모를 하고 외출 나가선 메모장에 붉은 선을 그어가며 시장 나가신 어머니처럼 외출의 유효화를 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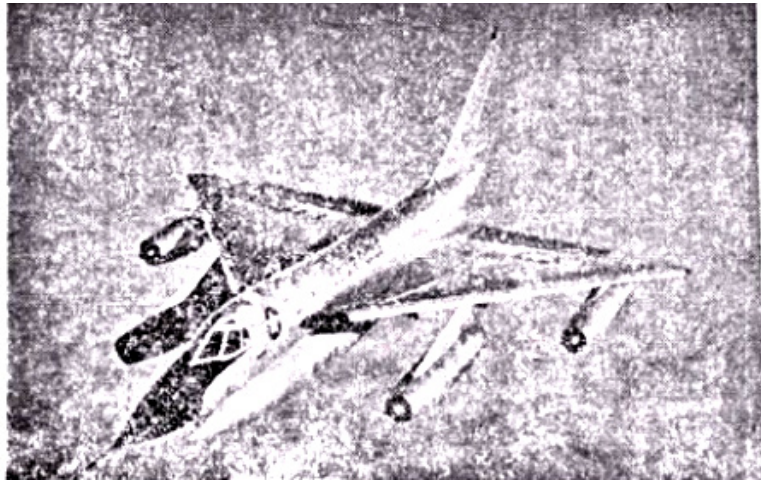
요사인 언어의 장벽 이외로는 별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국장님 계시냐? 뭐 안 계셔? 나 예비역 김 대령인데, 국장님 오시면 전화 왔었다고 전하고 그리고 지금 작전국장이 누구시지?"

"저…… 알았었는데……."

"그만 잊어 먹었단 말이지, 당번이면 그런 것쯤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방금 전화에서 당한 자신의 넌센스다. 건망증은 비단 나뿐이 아니라고 본다. 건망증의 사실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이 내게 있음은 결코 건망증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지만 건망증 자체마저 건망하는 사람들에겐 메모가 가장 좋은 처방일 것이다. 지금 책상 위 메모장엔 국장님 K씨로부터 전화 09시 35분이라고 메모되어 있고 손바닥엔 내일 외출시 김 일병으로부터 찬송가 빌릴 것이라고 쓰여 있다.



B-58기의 진가

최신 장거리 중폭격기

문 갑 룡(역)

미공군의 B-58기는 자유세계의 최신형의 고속 장거리 중폭격기로서 핵폭탄을 탑재, 정확한 조준폭격을 할 수 있다. 동체는 그 길이가 97피트로써 바늘 끝 같이 뾰족하다. 4기의 제트 추진기를 갖고 있는 이 비행기는 장변(長邊)의 길이가 57피트인 날카로운 삼각익을 갖는 게 특징이다. 승무원은 단 세 명에 불과하다.

-임무-

자유세계 수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전략공군사령부(SAC)가 서방의 안전을 위해 방위책임을 진 것은 1940년대 이후가 된다. 이 SAC의 주요작전용 병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B-47, B-52 이종의 유인폭격기와 대륙간탄도(大陵間彈道) 미사일 아트라스이다.

SAC 산하 항공기중 최신예기인 이 콘베어 B-58은 세계최초의 초음속 폭격기로서 크기라든가, 구조, 폭탄창의 위치, 공격목표 지점을 정확히 조준, 폭격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는 점에서 종래의 폭격기가 따를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1961년 1월 14일 SAC 산하 B-58은 1천 킬로의 거리를 시속 1284·73마일을 달려 3개의 세계기록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보다 이를 앞서 또 다른 SAC B-58이 2천 킬로를 시속 1061·808마일로 비행함으로써 또 다른 3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 미사일의 효용가치와 항공기의 의미 -

일반적으로는 미사일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유인폭격기는 그 존재가치성을 잃어 가게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오히려 양자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피상적인 이론은 반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SAC의 이론은 정당한 것이다.

1. 폭격기는 적의 기습공격에서 입는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각 기지로 분산 기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공중경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면 그것으로 그치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반해 폭격기는 언제든지 판단에 따른 신축성과 융통성을 갖고 있어서 우발사고에 의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3. SAC 사령관 토마스·S·파우워 장군이 말했듯이 유인폭격기는 그때그때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혹은 정찰 혹은 공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전략공군이 존재하는 한 유인폭격기의 진가는 조금도 감소될 염려가 없게 되었다.

- B-58의 설계와 제작 -

1949년 제네랄 다이나믹의 콘베어 회사가 경쟁을 물리치고 미 공군으로부터 일반 폭격기의 초음속화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 여기서 삼각익의 초음속 설계시안이 작성 검토되었는데 미 공군은 이를 수락 1951년 계속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B-58의 설계가 확정된 것이다.

B-58의 생산에 관계한 회사만도 15,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B-58은 예정보다 빨리 설계초안이 생산에 회부된 지 2년 2개월만인 1956년 초 비행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허스러 B-58은 삼각익에다 마치 벌의 허리처럼 가는 동체를 갖고 있으며 랜딩기어가 보통 항공기보다 길어서 배 밑에 부착한 폭탄 창을 수시로 장착 또는 제거시키는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삼각익을 처음으로 가진 비행기는 F-106 조금 앞서 나온 콘베어 XF-92A이었다.

B-58은 어느 비행기보다도 속도와 고도유지에 안정성이 있으며 삼각익은 음속 2배 이상의 속도에서 오는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얄팍하게 되어 있지만 큰 연로 저장 탱크의 구실을 하고 있다.

종래의 폭격기들이랑 마치 짐마차가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자꾸 크기를 늘리던 것과 같은 원칙 하에서 제작되었지만 B-58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말았다.

이동식 폭탄 창은 외부에 달려 있어서 고속을 요할 경우 공중 투하할 수 있다.

- 추진력 -

신형 폭격기에 요구되는 특수 동력장치의 개발심사 결과 B-58은 '제네랄 일렉트릭'에서 특수 개발한 J-79제트 엔진 4기를 갖고 있다.

J-79제트 엔진은 추진력과 연로소모량이라든가 가변스테이더, 변조재연소장치 등 근본적인 개선점을 갖고 있다.

- 보조기구 -

B-58을 조종하는데 있어서는 신(新)전자 보조기구에 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자연 폭탄투하에 따르는 문제점과 초음속 또는 저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행제동기구가 필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수탐색 레이더가 장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계산기구가 갖추어졌었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상시의 K-3A 비행폭격장치와 비교해 볼 때 B-58의 핵 장치는 무게가 K-3A에 반, 1/3의 장소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10대 1의 비율로 정확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에 개최된 SAC 전투 훈련 시범대회에서 B-58은 B-48이나 B-52를 물리치고 음속 2배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면서도 정확한 조준으로 폭탄을 투하 명중시켰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을 갖고 있다.

B-58의 구조설계는 '콘베어'포트워스'회사로 하여금 생산개념, 기구 및 기술에 혁신을 초래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례(一例)로 B-58날개 전단부는 음속 비행시는 화씨 260도까지 가열되는 것이다.

보통 비행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는 곧 녹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피해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샌드위치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철로 된 격막으로 연결된 벌집 모양의 수많은 세포조직을 말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B-58날개 표면의 90%를 점하고 있다.

전 날개가 연로 탱크로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고속에서 생기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불량도체인 섬유유리가 샌드위치 패널에 쓰이고 있다.

- 기타임무 -

B-58은 적의 탐색 레이더가 커버할 수 없는 나무 높이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고속 침투기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폭격기로서 초저공비행을 한 것은 1959년 시속 700마일로, 1400마일을 날은 것이지만 이때의 고도는 500피트였다.

"우리들은 45구경 카리버 권총 알이 튀어나가는 것보다 그저 약간 빠르게 날았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간 후에야 눈치를 채는 것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B-58조종사 B·A에릭슨씨는 이같이 말하고 있다.

B-58은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는(연로절약 상) 저음속으로 비행하지만 적진이나 적국상공에 있을 때는 음속 2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기의 J-58 또는 J-93 엔진을 갖는 초음속 장거리 요격기가 기획되고 있다.

B-58의 자매 항공기로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수송기일 것이다. B-58초음속 수송기는 3, 4년 내에 취역이 가능할 것이다.

B-58의 제원(諸元)

- 형태 : 삼각익 전략 제트 폭격기
- 최대 속도 : 시속 1300마일 이상(마하2)
- 항속 범위 : 대륙 간(공중급유를 도중에서 받아야한다)
- 상승고도 : 60,000피트 이상
- 전장(全長) : 96피트 9인치
- 익장 : 56피트 10인치
- 날개 면적 : 1542평방 피트
- 이륙 허용 최대중량 : 160,000mmibs
- 연로 : 15,000G/LGals
- 승무원 : 조종사, 폭격항법사를 포함하여 3명
- 엔진 : '제네랄, 일렉트릭'J-79 터보제트엔진 4기

소화(笑話)

- 절약 -

시골샌님 두 사람이 오다가다 서로 만나서 주고받는 말이,

갑 : 여, 자네 오래간만일세.

을 : 자네, 참 오래간만이야.

갑 : 자네, 그 집신 얼마 동안이나 신었나?

을 : 한 3년 신었으니까 한 2년은 더 신을걸.

을 : 자네는 몇 해나 신나?

갑 : 나는 적어도 10년은 신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신길래 그렇게 쉽사리 해지나. 단 5년 밖에 못 신으니.

을 : 나는 집신을 벗어들고 가다가 사람이 오면 다시 신고 가지.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 가면 또 벗어들고 가지.

갑 : 나는 집신을 벗어들고 가다가 사람이 오면 집신을 신고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간 뒤에 다시 벗어들고 가지. 그러면 10년은 넉넉하지.

<신형 항공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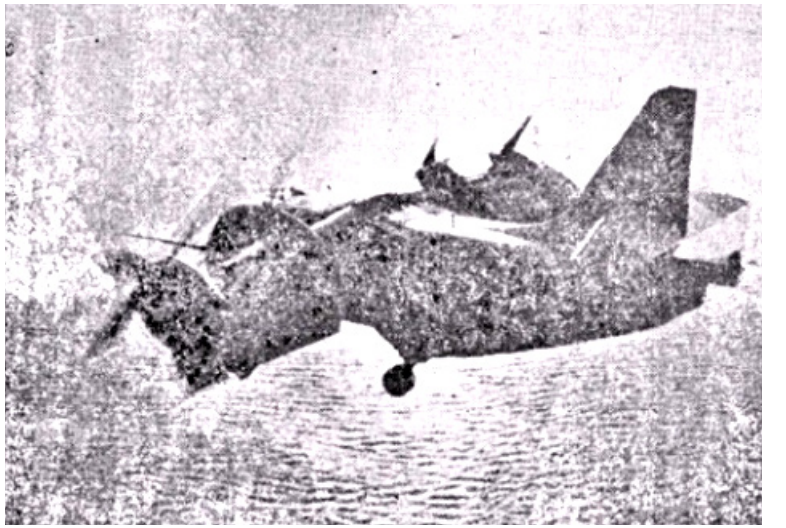
XC-142

전 양 경(역)

이 비행기는 T형 단거리 수직이착륙(VSTOL) 항공기라고 하지만 아직 그 기술의 개발에 여기가 많은 항공기이다. 이 비행기는 정비사들에게는 큰 골칫덩이지만 기동성이라든가 화물수송능력을 다 구비하고 있어서 재래식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거뜬히 해치울 수 있다.

이 항공기는 대단히 소리가 시끄럽지만, 느린 대단히 큰 올빼미가 먹이를 움켜쥐려고 잔뜩 날개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소극적인 인상은 깨끗이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항공기랑 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은 바로 아직 엄밀한 삼군 공용기 개발계획연구 시험단계에 있는 XC-142A 단거리수직이착륙차보의 개념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 단거리 수직이착륙 즉 'VSTOL'은 Vertical or short Ta



ke off and Landing의 두문자(頭文字)를 딴 것이다. XC-142A는 그 활주거리가 200피트 이내로서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도 뜰 수 있다. VSTOL의 개념은 VTOL(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즉 수직이착륙과 STOL(Short take off and Landing) 즉 단거리 이착륙으로 분류되는데 C-7A 캐리부나 보조제트엔진을 장착한 C-123K 프로바이더기 등 몇 종류의 항공기들은 STOL 개념에 속하지만 XC-142A는 양 개념을 다 충족시키는 유일의 단거리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관련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 XC-142A를 알았지만 그나마도 일반적으로는 시험단계에 있었던 F-11A나 XB-70 등에 대해서 대폭 지면을 할애하였던 관계로 흥미꺼리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XC-142의 정체

이 단거리 수직이착륙 항공기는 이미 1940년대에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고 1950년에 접어들면서 테일·시터라는 수직이착륙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거리 수직이착륙 수송기에는 C-18 힐러, X-19 커티스 롸잇, X-23 벨 및 링 템코 보트, 틸트 윙, XC-142A등 4개의 원형이 있다.

XC-142A는 이보다 훨씬 늦은 1960년에 들어서서 단거리 수직이착륙이란 삼중(三重) 작용을 하는 수송기에 대한 요구에서 생겨난 산물인 것이다. 그리하여 주요항공기장작업자들에게 그 설계가 의뢰 되었던바 링 템코 보트사(社)가 마침내 경쟁을 물리치고 1961년 말 그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계약에 의해 틸트 윙, 측면활하 단거리 수직이착륙 수송기의 여러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쓰일 다섯 대의 항공기가 제작되었다. 이 단거리 수직이착륙 수송기 제작계획은 틸트 윙의 안전비행 가능여부, 군용-흥부(軍用興否)라든가 행동구역 및 반경 등 쇠붙이 조작이란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평가부터 하였다.

1964년 6월 17일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LTV공장에서 최초의 XC-142A가 첫 선을 보였는데 그 때의 모양은 60피트의 동체와 뭉툭한 날개, 현상권투선수의 넓적한 얼굴을 연상시키는 기수(機首)를 갖고 있었다. 네 개의 엔진이 시동되어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뭉툭한 날개가 90도 위로 들리더니 수직으로 곧장 뜨는 게 아닌가!

이로부터 3개월 후 XC-142A는 수백 피트를 활주하더니 하늘 높이 상승하였다. 필자는 단거리 수직이착륙을 개발계획 감독관인 국방총성소속 리차드·H·소렌슨 중령을 찾았다. 그는 이 비행기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단거리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제작을 위해서 시험 설계된 XC-142A는 바로 이 목적에 적중하였다.

XC-142A 개발계획에 참가했던 윌리엄·F·칼 중령은 다음과 같이 극구 XC-142A에 대해서 열을 올렸다.

어떤 헬리콥터도 따를 수 없는 비행안전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상에서 불과 수 피트 위에 기체를 고정시키고서 물자를 지상으로 운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비행기도 흉내 낼 수 없는

이 비행기만이 가진 특징이다. 예상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필자는 이 괴상하고도 신기한 새 XC-142A(지칭)를 살펴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찾았다.

사막 하늘의 괴조(怪鳥)

필자를 태운 C-47수송기가 에드워드 기지 내 공군시험비행센터에 닿을 무렵에는 비가 내리고 있을 때였다. 모하뷔 사막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가 격납고를 향해 활주하고 있을 무렵 관제탑에서는 다른 비행기가 착륙할 예정이니 곧 길을 비켜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막 바삐 주기장으로 들어온 찰라 네모져 보이는 한 대의 비행기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서서히 우리들 옆으로 미끄러져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연동장치를 개량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첫 번째 시험비행을 시작하는 XC-142A기였다.

수분 후 나는 구니를 벗어나 가랑비를 맞으면서 비행광경을 바라다보았다. 얼핏 보아 퍽 평범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수평면에서부터 약 30도 가량 위로 들렸다. 엔진시동 소리가 더욱 커지더니 비행기는 앞으로 구르기 시작하였다. 재채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궂은 하늘 저쪽으로 시야를 벗어났는가 했더니 내 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착륙한 비행기가 재시동을 걸고 있는 동안 나는 유심히 시찰해 보기 시작하였다. 날개가 수평면에서부터 90도 각도로 똑바로 세워지더니 XC-142A는 수직으로 뜨기 시작하였다. 하늘이란 말조차도 어색할 정도로 약 70피트 상공에서 중력의 법칙이나 공기동력학에 나오는 모든 법칙이란 도무지 존재하지도 않는 듯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잠시 후 가볍게 땅으로 다시 내려 앉았다.

삼군(三軍)공용기 개발계획

필자는 삼군공용기 개발계획 연구소장 제스·제이콥스 대령의 사무실을 찾았다. "오늘 아침 개량된 연동장치를 검사하고 있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내일 다시 성능시험비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능 테스트에 있어서 베테랑인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XC-142A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특이한 외양은 해군용에 적합한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화물 운반실 내부구조는 육군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짜여 졌고 엔진이나 동체의 골격은 공군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당초부터 XC-142A는 삼군공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로 이것은 최초의 삼군공용기가 되는 셈이다. XC-142A 개발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세 명의 조종사 중의 하나인 보보·춰보이 육군 소령은 이 신기종의 기술적 발전상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례로 프로펠러 하나만을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금속심에 섬유유리를 입힌 것입니다. 금속제 프로펠러보다 가볍습니다. 엔진 또한 종래(從來)것과는 류(類)가 다르지요.

무게는 600파운드에 불과하지만 이 제너랄 일렉트릭 T-64형 엔진의 마력은 3,000마력이나 됩니다." 최초로 걸린 엔진이 시동됨에 따라 모든 네 대의 프로펠러들이 몰아가게 되어 있는 교차축계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XC-142A는 수평, 수직의 안정유지 장치가 되어 있으며 동체 후미에 있는 작은 프로펠러는 비행시 안정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어 있다. 필자는 비행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행거로 달려갔다. 동체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금속성 소리가 아니었다. 나무에 얇은 금속판을 입혀 배합한 특수제품이기 때문이었다. 뒷문을 통해 조종석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위에 복잡한 안정유지 장치가 있다.

이튿날 필자는 XC-142A의 비행모습을 보았다. 여러 각도로 날개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는 일련의 STOL(단거리 이착륙) 비행이었다. 두 번째로 수직이착륙 비행으로서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재치더니 평상 비행기처럼 전진한 후 수직으로 착륙하는 광경이었다. 그 다음으로 발레를 출 때처럼 좌우로 움직이는가 했더니 뒤로 움직여가고 있는 신기한 광경과 우아스런 급선회도 목격하였다.

현재 XC-142A는 여러 방면에 걸쳐 개량되어 가고 있다. 일분의 실수도 없이 정확한 조준으로 물자를 수백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하든 또는 5피트 또는 10피트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투하하든 그 낙하지점은 대단히 정확한 것이다. 이는 구조용으로 쓰일 수 있다.

이 XC-142A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비행장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공중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병의 투하에 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여타의 항공기가 해내지 못할 것을 해치울 수 있지만 아직 공군이나 또는 타군에서 작전임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상금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개량만 끝난다면 XC-142A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특수하게 사용될 이상적인 항공기로 꼽을 만 하다.

공군조달관이나 기술자들은 정비 상의 난점(難點)이라든가 시험비행시에 밝혀진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시하고 있다.

XC-142A는 링·템코·보트(LTV)사에서 제작하여 붙인 일련번호를 가진 최초의 비행기는 아닌 것이다. LVT사의 전신인 챈스 보트사는 1937년 V-142A를 제작한 바 있다. 700마력의 프래트 앤드 휘트니 엔진을 가진 단발 복엽기는 항속이 200마일 이상 15대의 V-142A기를 아르헨티나 정부가 사들였다.

독불장군은 없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속담은 '백지장도 마주 들어야한다'는 속담의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해내었다고 생각되는 일도 다시 생각해보면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고 몇 사람의 협조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몇 사람의 협력자를 발견할 수 있다. 정말 아무리 뛰어난 용기와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단신, 혼자서는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다. 보불전쟁(普佛戰爭)의 저 뛰어난 군략가 몰트케 장군의 전략의 중심이 언제나 각 군○, 각 부대의 협동작전을 멋있게 짜내는데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재상이었던 비스말크의 회고기(回顧記) 속에 특히 지적되어 있다 고대전(戰)이나 현대전(戰)에서나 이 원리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닐까.

'리틀 · 타이거' 작전의 전훈(戰訓)

월남전에서의 F-5A 전투 평가

장 용 순

계획적인 실전 심사 - 2664회까지 출격

월남전에 있어서의 미군기의 운용을 볼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투폭격기의 역할이다. 여기서 얻어진 수많은 전훈은, 국지전 이하의 한정작전을 전제로 한 오늘날의 전투폭격기의 개발과 개선에 크게 반영되어 실전기로서 갖추어야 할 시스템과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간다.

그리고 군용기의 숙명적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그 운용효과가 늘 평가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 공군이 이미 장비하고 있고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인동체(機人同體)가 되어 전기(戰技)를 연마하면서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F-5A 전투폭격기의 실전 운용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월남전선에 투입되어 운용 평가된 미군기의 F-5A 초음

속 전술전투기의 리틀·타이거 작전에 있어서의 전훈을 중심으로 장래의 경(輕)전술전투기의 경향을 고찰함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기도 할 것이다. 미 공군은 1965년 10월부터 1966년 3월 9일까지 월남전에 있어서의 F-100, F-4C, F-104C 등 전술공군 예하의 전투폭격기와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리틀·타이거 작전이라 이름 붙여서, F-5A전술전투기 13대를 월남에 투입하여 계획적인 실전 심사를 하였다. 동 작전이 끝난 후 F-5A기는 월남공군에 인도되어 현재 2개 비행대의 F-5A기가 전투임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리틀·타이거 작전에 참가하였던 비행대장 및 운용반장 등 24명의 조종사 중에 9명은 현재 미국 애리조나 주의 윌리엄스 공군기지에 있는 전술공군 예하의 제4441 전투실원훈련대대의 교관이 되어 있다.

그들로부터 리틀·타이거스 작전의 귀중한 체험과 전훈, 전과(戰果) 및 피해의 자료 등을 중심으로, 또는 전투폭격기의 장래에 대하여 '월남의 전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하는 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리틀·타이거스 작전

윌리엄스 공군기지에서 편성된 리틀·타이거스 작전 파견 비행대대는, 1965년 7월 26일부터 10월 초까지 수령한 F-5A(단좌) 초음속 제트 전술폭격기에 의한 특별훈련(1인 평균 91시간 20분)이 실시되어 월남전 참가의 운용 심사에 전폭기준 등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A·H홉킨스(2세) 공군 중령은 비행대대장으로 하는 4503 비행대대의 F-5A 12대는 도중에서 공중 급유를 받아 3개소의 중계 기지를 경유하여 윌리엄스 공군기지로부터 일거(一擧)에 월남전선에 이동하여 갔다.

리틀 타이거 작전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서 작전이 행하여졌다. 제1차는 1965년 10월 23일부터 동월 31일까지와, 익년 2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월남전선에서 작전을 하였다. 제2차는 1966년 1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와,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를 월맹(越盟)에서 작전을 하여 운용 심시가 엄격히 반복하여 실시되었다고 한다.

제1차 작전(월남전선) 2,093회
- (10월 23일~10월 31일)
- (2월 1일~2월 20일)

비행시간 2,164시간
제2차 작전(월남전선)
출격회수 571회
- (1월 1일~1월 31일)
- (2월 21일~3월 9일)

비행시간 952시간
총 출격회수 2,664회
총 비행시간 2,116시간
이상 제1차, 제2차 작전을 통한 에어·커버·미션은 825회에 달한다.

작전 실적
출격회수 2,664회
지상 아뽀트 42회
켄슬 95회
(기상 불기(不氣)에 의한 작전 중지)

공격 장비
20M/M포 614,192발
소이탄(BLU-1B)2,295발
로케트탄(LAU-3)
보트 수 259개
탄 수 4,918발
통상 폭탄 5,496발
MK-81 70발
MK-82 2,210발
MK-83 4발
M-117 3,212발

명중 실적
KBA(지상군) 231발
KBA(추정실적) 163발
가옥파괴 1, 963호(戶)
가옥격파 1,713호
선박격침 105척
선박격파 55척
공격에 의한 유폭 71개소
도치카 파괴 181개소
트럭 7량
교량 파괴 8개소
육교 파괴 15개소
기타 잡선 격파 13척

피해 실적
피탄기 9대
추락 1대(탈출좌석의 고장으로 탈출시 수직미익(垂直尾翼)에 두부를 강타하여 전사)

이상의 각 실적 자료는 F-5A 12대에 의한 리틀 타이거 작전의 전부를 말하여 주는 것이며, 그 전과는 예상을 훨씬 넘는 것으로서, 미공군성 내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동 작전에 참가한 24명의 조종사들의 제트기의 경험은, 평균 2,000~2,500시간인데, 이 중에 F-5A의 경험은 100시간 이내(출발시)이고, 전체 조종사의 평균연령은 30.55세이다.

2. 신속히 할 수 있는 전력회복(戰力回復)
(사격에 최적인 전투기)
1. F-5A의 운용 평가

리틀 타이거스 작전을 한 제4503비행대대의 당시의 작전반장이며, 현재 윌리엄스 공군기지의 제4441 전투승원훈련

대대의 작전반장(교관)으로 있는 로버트 P 와이너 소령의 개인적인 소견은 다음과 같다.

F-5A는 국지전의 대지공격에 있어서는 실로 효과적인 전술전투기이다. 또한 전투 정비의 면에서도, 비행기자체가 간소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정비원들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고, 턴 어라운드(전력회복) 타임도 짧고, 고장도 의외라고 할 정도로 적었다. 또한 우리 조종사들에게는 사격에 있어서 최적의 전투기이다.

그것은 조종성능이 극히 양호하다는 것이 된다. 그 점에서 F-5A 좌익(左翼)의 빠이론에 폭탄을 달은 채로 급상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전투기로는 그리 간단히 될 수 없다.

또한 선회성(旋回性)이 대단히 좋은 것과 겸해서 F-5A는 지상공격 때에 크로즈 섹션(정면에서 본 기체의 단면)이 좁은 것으로 지상에서 발현하기 힘들다. 또한 엔진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 점도 지상에서 발연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점이 되고 있다.

2. 제한사항과 문제점

(1) 대지공격에서는 폭탄이나 로케트탄, 20M/M포 등의 작열로 그의 파편이 엔진의 에어 인대크로부터 날아오는 것으로, 300피트(100M) 이하를 비행하지 말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작전하고 있다.

(2) F-5A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적은 파편 정도는 흡수하여도 엔진은 회전하지만, 로케트의 콘이 발사시에 엔진에 날아오는 것으로 현지에서 콘을 떼어 놓았다.

(3) 또한 20M/M포의 작열에 그 파편이 캐노피의 차풍판에 맞아서 상처가 생긴다는 것도 알았다. 그 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통상의 사격훈련에서는 그다지 작열 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로 하여 보지 않으면 판명되지 않는 점이다.

3. 요구제안 즉시채택
(개선 또 개선으로 향상)

(4) 다음은 작전당초 빠이론에 장착하고 있는 경량의 폭탄이 용이하게 멀어지지 않는 고장이 생겼다. 이것은 빠이론에서 폭탄을 밀어내는 2개의 핀이 약하여, 목탄이 용이하게 풀어지지 않았으나 이것도 현지에서 개선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5) 다음은 F-5A의 엔진의 트라스트(추력)인데, 페이로드 5,500파운드(최대 6,300파운드) 이상이 되면 이륙활주거리가 약간 길게 되는 것으로, 좀 더 트라스트업 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노스톱의 노루에어로서 즈 보지손 기야(전차륜)를 고찰하여 병용하고 이륙시의 주익영각을 업 시켜서 이륙거리를 단축시킨다고 하나,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지만 엔진의 파워 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반면 착륙은 조작이 대단히 용이하므로 훌륭한 전투기이다.

3. 요구사항

(1) 무엇보다 먼저 탑재 엔진의 추력 업이다. 이것은 즈 보지손 기야 및 테이크 업 도아 등의 대책도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륙시에 추력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전장에 있어서 고도 300피트 이하가 되면 작열 파편이 날아드는 것으로, 에어 인데이크의 개선을 하여야 한다.

(3) 저항에서 작전하면 적어도 조류가 차풍판에 맞는 것으로 좀 더 차풍판의 강도를 더하게 할 것.

(4) 우중 비행을 하면 차풍판이 흐려지는 것으로, 늘 맑게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나, 그 후에 화학약품으로써 맑게 하는 대책이 완료되었다.

(5) 빠이론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은 완전히 개선되었다.

(6) 웨뽄의 콘비네이숀을 다시 폭을 넓혀 작전에 따라서 현지에서 자유로이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점은 특히 미공군성에 대하여 요구 제안되고 있다.

4. 권고사항

(1) 공대공 건 사이트를 탑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2) 마뉴우바 후라프를 장착하면 한 층 F-5A의 마뉴우바비리티는 크게 향상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전선 후라프를 내는데 13초가 걸리는데, 이것을 3초 정도에 조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공대공 전투의 경우의 급 선회시에 있어서 필요하다.

(4) 대지공격에는 VHF의 라디오를 탑재함으로써 아방(我方)의 지상부대와의 연락이 긴밀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TACAN을 탑재하고 있으나, 이 이외에 예비의 내비케숀 시스템의 탑재를 희망한다.

(6) 승강타의 액추에이터를 내부로 옮기는 것이 피탄 된 경우의 위험한 상태가 없어진다.

(7) 텔 후크(아르뎅 기야와 같은 것)가 필요하다. 이륙시의 중량이 무거울 경우에 싸뽀트한 때에, 오버 런의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다. 주(註) 이상과 같은 요망 및 권고사항은 그 후 그의 대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4. 훌륭한 타(舵)의 효과
(피탄 회피의 조작이 용이)

한편 호프킨즈 중령(현 제4441전투요원훈련대대장)과 와이트너 소령과의 일문일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5A의 특징

질문 : 리틀 타이거 작전이란 무슨 뜻인가?

답변 : 작은 호랑이 작전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질문 : F-5A의 대지공격에 있어서의 저공성능은 어떠한가?

답변 : 이 타이프의 전투기로서는 미공군이 생긴 이래 가장 훌륭한 전술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치켜 올리는 것이 대단히 용이하여서 조종간을 잡아당김과 동시에 기수가 위로 올라서,

재빨리 상승할 수가 있다. 이 훌륭한 잡아채기 상승성능은 피탄에 대한 신속한 회피조작도 된다. 특히 잡아채기의 타(舵)의 효과는 250 노트의 스피드 이상이면 아주 대단히 잘 듣는다.

질문 : 페이로드가 콘(重武裝) 때에 잡아채기에 있어서 조종상의 제한이 있는가?

답변 : 750파운드 폭탄을 한편 날개의 빠이론에 달고서도 70도의 급상승을 무난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방향타의 스피드에 의한 타각제한을 해제한 후에 특히 좋아졌다.

질문 : 아머멘트 시스템에 대한 특징은?

답변 : FCS와 레이더 콘피유타, 파넬, 컨트롤 시스템, 화기(火器)의 컨트롤 시스템 등에 있어서는 특히 컨트롤 시스템이 대단히 간소하게 되어 있고, 더욱이 신뢰성이 높고 현재까지 빠이론에서 폭탄이 멀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즉 와이어 링이 가장 교묘하게 되어 있다. 총화기(銃火器)의 컨트롤 스위치는 전부 8개뿐인데 공중에서의 조작절차도 가장 간단하다. 그러나 건 사이트의 개선을 요망하고 싶다.

그렇지만 노련한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휘크스 사이트편이 오히려 사격하기 좋다는 의견도 많다.

질문 : 저고도에 있어서 조타성이 지나치게 경쾌하면 라프 에야에 들면 컨트롤이 오히려 어렵게 되지 않는가?

답변 : 요탄차가 달려 있는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

질문 : 지상에서의 대공포화에 대한 사격회피의 마뉴우바비리티는 어떠한가?

답변 : 이것은 전술전투기의 국지공격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월남전에서도 저고도에서 중전투기가 대공포화로 격추되는 것도 실로 이 마뉴우바비리티의 여하에 달려있다.

이것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크로스 섹션이 좁은 것, 또 하나는 선회성이 훌륭한 것, 또 하나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 점 F-5A는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어떠한 조작을 하여도 실속(失速)하지 않는 것으로, 늘 과격하게 기민한 조작을 필요로 하는 저고도에 있어서의 대지공격도 F-5A보다 좋은 전술전투기는 없다. 따라서 저고도에 있어서의 대지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전투기는 F-5A와 같은 조타성능을 갖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선회성이 나쁘고 둔한 전술전투기는 조종상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사자(死者)의 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조종간을 잡아당겨서 기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은 전투기나, 급히 방크를 주어 선회조작을 하여도 대형기와 같은 둔중한 선회성을 갖는 전투기는 저공의 대지공격에는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월남전에서 우리는 절실히 느꼈고 또한 배웠다.

5. 예상을 상회하는 작전가동 (늘 공격목표를 '키이프')

질문 : 전투기에 의한 대지공격은 레시푸로기(機)의 옛날부터 모두 조종사의 목측공격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제트전투기가 된 현재에도 그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견해에

있어서 우리 전술전투기의 조종사는 동감이며, 더욱이 그것을 새로이 강조하고 싶은 정도이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전투기에 의한 대지공격은 전장상동에 진입하여 공격목표를 확인하면 제1격부터 최후의 공격을 완료하여 전장상공을 이탈할 때까지 공격목표를 시종 키이프하여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격의 공격시부터 반복공격을 가할 때에 늘 공격목표를 키이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즉 마뉴우바비리티가 높은 전투기라는 것이 된다.

질문 : 작전 중의 라인 멘테넌스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답변 : F-5A는 경량소형의 대표적인 전투기로서 더욱이 대단히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콘프리트에 대단히 작업이 하기 쉽고 작전가동률도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높아서 생각한 것보다 좋은 실적을 내었다.

질문 : 1일 평균 1대당 출격회수는 어느 정도인가?

답변 : 1일 평균 1대당 4·7회라는 출격을 반복하였다.

질문 : 1대 1개월간의 유대리티 아워는 어느 정도나 되나?

답변 : 70시간이 된다.

질문 : 1비행시간에 대한 멘테넌스 아워는 어느 정도인가?

답변 : 정비원의 작업 맨 아워는 10시간이다.

1. 전훈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과 같이 실전경험자들의 체험담을 듣고 스고시 다이가 작전에 있어서 F-5A에 관한 종합평가를, 그의 포인트를 경(輕)전투기에 대한 전훈으로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 국지전 이하의 한정작전(제한된 공격목표의 공격 등)에 있어서 경(輕)전술전투기의 용도는 대단히 넓고 중(重)전투폭격기 및 요격(邀擊)전투기와 같이 전투기체계에 없어서는 안 될 작전가치를 갖고 있다.

(2) 저고도에서 하는 대지공격에 있어서 전술전투기가 구비하여야 할 최대의 조건은 전투행동력의 훌륭한 경쾌성을 필요로 하고 늘 공격목표를 키이프 할 수 있는 최고의 마뉴우바비리티와 조종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6. 중전과 소형경전 병용 (참고하여야 할 실적자료)

(3) 저고도에서 하는 전술전투기의 대지공격은, 기관포 및 로케트탄 등의 작열에 의한 파편은 공격전투기의 에어 인대에크에 날아 들던가 차풍판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책이 필요하다.

(4) 폭탄 등을 달고 발사하는 빠이론과 보트의 구조는 극력간단한 장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전술전투기의 대지공격은 제트기로 된 오늘 날에도 조종사의 목측공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6) 라인 멘테넌스는 간략 용이하게 될 수 있고 더욱이 턴 어라운드 타임은 30분 이내가 되기를 바란다.

(7) 작전가동률은 늘 80% 이내로 확보하지 못하면 1일 3회 이상의 공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웨폰 시스템의 전체가 각 시스템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8) 아마멘트 시스템의 신뢰성 및 내용성(耐用性)이 대단히 높고 더욱 각종 웨폰의 조립이 대폭적으로 자유로이 장비할 수 있고, 빠이론 등의 착탈(着脫)교환과 조화가 용이하고 신속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9) 탑재 엔진은 신뢰성이 높고, 더욱이 쌍발로 연기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10) 코크피트에서 전방 시각이 넓고 또한 컨트롤 시스템이 간소화 되어 있어 조작절차가 간단한 것.
이상의 전훈은, 그 주요한 것을 요약한 것으로써 앞으로 새로이 개발하는 전술전투기에 대한 요구 성능 상에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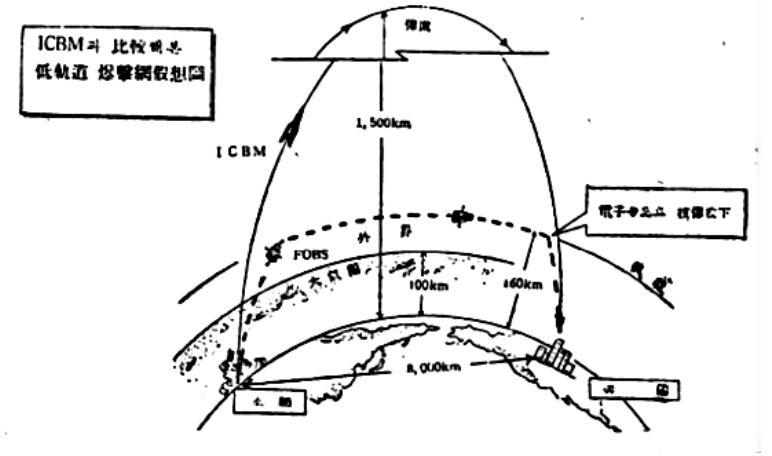
<양서(良書) 선택방법>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도서의 총 수는 약 300억 권 이상으로 추정된다. 귀중한 시간과 가난한 구공력(購貢力)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서 선택에의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철학가 에머슨의 양서 선택법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 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책은 어떠한 책이든지 읽지 말라.
② 서적의 정평이 결정되지 않은 책이 읽지 말라.
③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면 읽지 말라.
쇼펜하워는 양서를 읽기 위해서는 악서(惡書)를 읽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국의 콘리어는 악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① 그 책에 구하던 것을 못 얻었을 경우
② 그 책이 인생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책일 경우
③ 그 책이 우리의 정신을 앙양(昻揚)시키지 않고 오히려 저속화하는 것일 경우

전술전투기의 장래
이와 같은 새로운 전술전투기는 대형의 중전투기와 소형의 경전투기의 두 기종 병용이 또 다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요구 성능은 점차로 시바아로 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경량소형화를 전제로 한 고속화와 항적거리의 연장, 체이로드의 증대, 고속과 저속시의 안전성과 조종성의 향상이라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가 강요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장래의 상식에서 볼 때 이러한 강요라 할지라도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면에 개발이 점차로 행하여 가고 있다.
그의 전제조건은 늘 반복되는 기초연구와 실험비행 작전운용에 의한 전훈(또는 실적데이터)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술적 해명과 대책효과라는 실적이며 부단한 기술능력의 개발을 하고 있다.

군사무기화한 부분괘도 폭격체제란?

홍 성 표
〈소령 군정보국〉

FOBS의 출현
미국의 맥나말라 국방장관은 67년 11월 3일 밤 기자회견을 통하여 소련이 FOBS(부분괘도 폭격체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맥 장관은 소련이 1968년에 이 FOBS를 실전에 사용할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기를 완전한 괘도에 올려놓은 것이 우주평화이용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체제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맥 장관은 소련의 이 FOBS는 1 내지 3메가톤(MT)급의 핵폭탄을 지상 160km 상공 괘도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FOBS를 풀이하는 가운데 공격 개시점은 목표물에서 약 800km 거리이며 불과 3분 전인 감속 로케트 점화시까지 판명되지 않으며 그것은 ICBM보다 비행시간이 10분간이나 짧다고 하였다.
맨 장관은 부언(附言)하기를 미국의 지평선 너머를 넘겨다보는 레이더망(OVER THE HORIZON RADAR)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2개월 전에 실용화했으며 앞으로 68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새로운 레이더망은 FOBS의 공격이 있을 경우 종래의 레이더망이 적(敵)대륙간탄도탄에 대해 발하는 것과 같이 15분 만에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맥 장관이 직접 상세히 소련의 FOBS에 대해 설명하게 된 이면(裏面)에는 1962년에 이와 유사한 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세상을 놀라게 한 후에 약간의 계적적인 보도가 흘러나왔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잠잠하던 새로운 소련의 공격무기에 대해 자유세계와 더불어 중립국까지도 50주년 혁명 기념일에 출현시키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까 우려한 나머지 선수를 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들은 왕왕 새로이 출현하는 무기에 대하여 명칭을 알려면 매스컴마다 상이하므로 어떤 것을 표준 해야 옳을지 분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FOBS가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호칭하면 될 것인가를 풀이하겠다.

FOBS는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의 약자로써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다만 Fractional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Fractional은 사전에 보면 형용사로 '조각의', '얼치기의', '분수의'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FOBS 단어 자체를 위주로 해석한다면 특이한 표현이 될 것으로 좀 더 그 무기가 내포하고 있는 뜻의 낱말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Mass Com에서 발표한 바로는 '저(低)괘도', '준(準)괘도', '부분적 괘도'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면 부분 괘도가 좋을 것 같다.

저 괘도라는 뜻은 ICBM이 5,000리를 비행하려면 고도 800리까지 상승했다가 낙하되는데 반하여 FOBS는 고도 100리

에서 비행하면서 목표지까지 도달하니까 붙인 이름인 것 같다.

그러나 저괘도라는 뜻은 FOBS만이 비행할 수 있는 고도가 100리가 아니라 타 위성(他衛星)도 100리 내외에서 비행하므로 괘도를 회전하는 위성에서 FOBS만 저고도라고 특별히 붙일 이유는 없다.

준괘도라는 뜻은 준자(字)는 영어의 Quasi라고 붙어 있어 Fractional과는 거리가 먼 감이 있고 FOBS에도 내포된 의미가 뜻하는 것과는 역시 만족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부분괘도가 좋다는 뜻은 위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어떤 물체(지구)를 주축으로 1회전을 안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서 북극이나 남극을 통하여 일부분만을 회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또 하나는 원어에 가장 가까운 뜻이라고 하는데서 타당하다고 본다.

출현한, FOBS

소련은 FOBS를 왜 출현시키게 되었을까를 알아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겠다. 소련의 궁극목표는 미국본토에 대한 공격무기 또는 보복기지, 나가서는 대도시를 일시에 괴멸시켜 재기불능하게 될 경우 소련은 자유세계를 타도할 수 있다는 대서 나왔음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소련의 대전략은 끊임없이 미국목표에 대해서 기습 공격할 수 없을까 하고 있으나 소련으로 볼 때 지정학적 견지에서 볼 때 미국의 목표를 손쉽게 공격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전후(戰後)까지 소급해 올라갈 필요는 느끼지 않으나 독일이 개발했을 유도탄에 대한 제작품과 기술자를 혈안이 되어 선수를 쳐서 노획하다가 계속 개발한 것도 실은 이미 그때에 미국의 목표를 공격할 계획 하에 착착 준비 중에 있었던 것만 사실이다.

그 이유는 1957년 8월 20일 소련에서 사상 최초로 ICBM을 발사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이어 흐루시초프 전수상이 미국전략공군의 대형폭격기들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호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SAC기들은 아직도 건재해 있으며 궁극무기로 자처하던 ICBM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현되었고 미국에 공격을 가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961년 4월 유리 가가린 소령이 보스토크 1호를 탑승하고 지구를 1회전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착륙했을 때 흐루시초프 전수상은 이 인공 위성이 핵무장한 군사무기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1962년 3월에 들어와서 소련은 크로바리아(지구라는 뜻)라는 반괘도탄도탄 또는 코스 변경가능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한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탄도탄은 소련에서 발사하여 남극을 통해서 미국남쪽에서 공격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공격방향이 일정한 탄도탄의 코스를 중도에서 갑자기 변경시켜 미국의 방어무기를 혼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탄도탄으로 그의 고도가 800리 내외이므로 CBM보다 실전에서 약간 우수할지 모르나 기술적인 문제와 경비를

감암해 볼 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여 폐기한 것 같다.

다음은 1965년 7월 브레즈네프 제1서기는 소련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소련은 핵탄을 적재한 위성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발설함으로써 이미 소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암시해주었다.

그러나 핵탄을 적재한 인공위성을 지구상에 회선시키면 폭격위성으로 가능하지만 항상 회전하고 있는 핵폭격위성은 미국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많은 이외에 무인핵위성은 그의 지령부호를 미국정보당국이 탐지하는 날 미국이 오히려 소련의 핵위성을 소련상공에서 핵폭발시켜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역이용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어 자신을 갖지 못한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일련의 보도를 중심으로 추리하건대 소련은 다분히 미국을 기습 공격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핵공격무기를 연구 발전시켜온 것만은 사실이나 별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67년 11월 4일에 맥나말라 장관이 발표한 소련의 FOBS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렸는데 불행히 미국이 선수를 침으로써 불발탄이 되고 말아 소련은 뒷수습의 일환책으로 FOBS를 부인하는 대신 투탄 정확성이 큰 새로운 로케트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하여 얼버무리고 말았다.

FOBS 출현의 증거

소련은 정체불명의 위성 중 특히 코스모스 위성은 가장 많이 괘도에 진입시킨 것이다. 코스모스 위성은 최초에는 미국의 진찰위성인 사모스 위성과 같은 임무를 띠고 주로 미국영토와 중공 영토를 진찰할 목적 하에 2주에 1회씩 괘도에 진입시켰다가 지상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그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그의 목적이 단순히 진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새로운 임무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특히 진찰위성이 발사하는 예를 보면 대체적으로 62년부터 발사되어 매1회당 72일간을 요하면서 회전하다가 그의 횟수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63년에는 매1회당 46일간이었고 64년에는 2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나 1966년에는 22개가 6~8일간 소요하였는데 회수율은 62%나 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FOBS라고 인정되는 어성이 회전한 것은 67년 12월 11일까지 194호의 코스모스 위성 중 67년 1월 25일 코스모스 139호가 경도 50도로 발사하여 저고도 143km, 고고도 210km로 회전한 것을 비롯하여 하기와 같이 회전했음이 밝혀졌다.

일자	위성호수	저고도(km)	고고도(km)	경도 67,
1. 25	139	142	210	50. 0
5. 17	160	144	205	49. 6
7. 17	169	145	208	50. 0
7. 31	170	145	208	50. 0
8. 8	170	145	220	50. 0
9. 19	178	145	205	50. 0
9. 22	179	125	208	50. 0
10. 18	183	145	212	50. 0
10. 28	187	145	210	50. 0

상기한 바와 같이 67년 중에 9개의 FOBS가 회전했는데 여기에서 공통성을 발견하면 발사각도가 50도라는 것과 그의 회전고도가 저고도가 145km이고 고고도는 210km 내외라는 타원형 고도로 회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도는 대체적으로 위성으로서는 비교적 저고도에 속하는 회전고도로써 이때 회전한 위성의 크기로 보면 추정가에 가까운 것이지만 길이가 6.6ft이고 직경이 4ft인데 여기에 적재할 수 있는 핵 위력은 1~3MT(TNT 100만~300만 톤)으로 이 위성을 발사하는 로케트는 Scrag(NATO의 Code name)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다.

Scrag 로케트는 1965년 5월 9일 모스크바 시위에 최초로 출현한 3단계 액체 로케트로 단계마다 Truss형으로 연결한 것이 특이하다.

이 Scrag 로케트는 전신이 약 36m이고 전 중량이 약 90톤으로 그의 추력은 RD-107 엔진이 4개로써 매 개당 22만5천 파운드이며 전체는 90만 파운드(409톤)인데 이 Scrag 로케트는 주로 인간위성인 VOSTOK와 VOSKHOD를 발사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크기와 추력을 가진 Scrag 로케트는 5,000리 거리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데는 그의 핵 위력이 30MT(TNT 3천만 톤)급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이 Scrag 로케트는 괘도 회전용 위성을 발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아 FOBS를 괘도에 진입시켜 남극을 통하여 미국남부로부터 공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지구의 4분의 3을 비행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BMEWS(Ballastic Missile Early Warming System) Radar를 서방(西方)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방(東方) 아프리카에 설치하면 현재의 경보시간 15~20분간이 45~60분간으로 연장된다고 한다.

이렇듯 경보시간을 연장하려면 미국은 남쪽 공격의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와 대공요격무기체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고가의 비용이 투입된다.

FOBS 출현에 따른 장단점

소련이 굳이 FOBS를 출현시킨 저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이미 논술하였거니와 그보다는 FOBS가 작전화할 경우의 ICBM와 비교해서 우열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점으로서는 FOBS가 출현한 것은 회전이라기보다 비행하는 고도가 145km에서 220km의 타원괘도이니까 항공기의 비행원리이면 저공기습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FOBS의 고도가 낮은데도 연유하겠으나 그와 동시에 FOBS가 5,000리 거리를 비행하는 시간은 ICBM이 30분간에 비하여 20분간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고도도 ICBM은 800리인데 FOBS는 100리 내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바로 조기경보시간이 ICBM은 15~20분간인데 FOBS는 3분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조기경보시간이 정말 3분간이라면 미국으로서는 탐지하고 요격할 시간이 최소한 7분간이 요해야 할 시간적인 차와 비교할 때 FOBS는 요격해서 격추하기 곤란한 핵 적재위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조기경보시간이 3분간밖에 안 되느냐는 후술(後述)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만하겠다.

여하튼 저고도비행은 바로 목표지까지 비행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과 경보시간은 제쳐놓고서라도 요격시간이 단축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비행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ICBM과 FOBS의 비행원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어떤 물체이든 지구상에 다시 낙하하려면 비행속도가 초속7,9km 이상이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ICBM이 5,000리를 비행하는데 30분간을 훨씬 단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반면 FOBS는 초속 7,9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야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저고도로 비행하므로 고고도로 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FOBS는 초속 7,9k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상공에서 역 퇴진 로케트(Retro charge)를 분사시켜 더 이상 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상에 낙하해서 핵폭발시키도록 되어 있다.

둘째의 장점은 소련이 ICBM으로 미국남부에서 공격하려면 그의 추력도 현 ICBM보다 몇 배나 커야 하겠지만 또한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서방 호주나 동방 아프리카에 BMEWS RADAR를 설치하면 조기경보시간이 45~60분간으로 훨씬 연장하여 미국으로 볼 때에는 설혹 비용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요격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격추율을 많이 제고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하여 FOBS는 추력이 필요 없이 4분의 3까지의 거리를 비행시켜 미국남부부터의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저공괘도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는 FOBS에 대한 탐지 및 요격할 체제를 추가로 남부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의 장점은 인공위성은 평화목적이라는 것이 상식화되어 괘도상에서 회전할 때에도 탐지했다 해서 별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없겠거니와 발사할 때에도 순수한 인공위성의 발사로 위장할 수 있다. 수많은 인공위성 중 어느 것이 핵탄을 적재했느냐를 구별한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은 보편타당한 말이 된다.

그러나 FOBS가 ICBM보다 우수한 기습공격으로서의 절대성을 가졌느냐는 장점과 비유하면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FOBS는 인공위성에 핵탄을 적재하고 목표상공에서 역추진 로케트를 분사하여 낙하하게 하는데 그의 정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아야 무방하다. 현재 ICBM의 정도가 5,000리에서 1,0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5리의 오차를 가져 오는데 실은 이와 같은 오차는 보복력으로 된 지하 ICBM기지를 파괴시키려면 반경 1,2km 이내에 명중해야 한다.

FOBS가 과연 5,000리를 비행하는데 1,000분의 1의 오차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냐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거늘 1,2km의 오차는 7,000분의 1의 오차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고 앞으로는 더욱 정도가 향상되어 반경 600ft(약175m)의 오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대조해 볼 때

FOBS는 정도를 요하는 핵공격무기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본다.

둘째는 탄두의 위력이 1~3MT급이면 추력이 490톤 급의 Scrag 로케트가 필요한데 이는 5,000리 거리를 비행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大)추력은 비경제적이나 물론 남방으로부터 공격하는데는 유효성이 있으나 꼭 남방에서 공격하는데만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고 5,000리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불량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공위성은 로케트에 의하여 진입했을 때 탐지되면 전자계산기가 삼각측법으로 계산하여 곧 그의 일정한 괘도를 산출해낼 수 있다.

이 같은 일정한 괘도는 미국의 요격유도탄의 정확한 명중대상이 되어 격추당할 비율이 크다고 본다.

이상의 단점은 FOBS가 바로 실전용으로 취역시키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FOBS의 방어문제

소련이 비록 FOBS에서 단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장점을 중시한 나머지 실전에 출현시킨다면 미국도 이에 대한 방어문제를 안전 무결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기탐지 및 요격에서 미국이 어떠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가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군사위성탐지조기로 SPADATS(Space Dection & tracking System) 또는 Space Tracking Radar System이라고도 부르는 조시경보망이 있다.

이 안에는 3,000리 전방의 ICBM탄두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공군의 BMEWS RADAR망이 알래스카, 그린랜드 그리고 미국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미본토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동서로 횡단한 무선송수신소인 해군의 SPASUR(Space surveilance)가 있어서 미영토 상공을 회전하는 물체는 직경 수m/m이고 길이가 4m 이내이면 탐지되도록 정밀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번 FOBS를 발견할 때 맥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지평선 너머를 넘겨다 볼 수 있는 신형 레이더'인 OVER THE HORIZON RADAR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는 이온층을 이용하여 HF전파를 레이더 빔으로 복사하여 적의 로케트 발사 기지들을 항상 주사하고 있다가 발사와 동시에 탐지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토이기국경선(土耳其國境線)을 연하여 고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소련이 로케트를 발사하기 위하여 Count down하는 것부터 도청하고 또 하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설치한 것으로 소련의 로케트 발사를 탐지한다.

위에 있는 SPADATS조직 내의 모든 자료는 클로라도 NORAD본부에 있는 전자계산기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삼백측법(三百測法)에 의하여 로케트의 위치를 비롯한 속도 심지어는 몇 일, 몇 시, 어느 장소에 낙하한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낸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주로 고감도 도청소에서 알아내는데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이 1961년 4월 유리 가가린 소령이 탑승한 인간위성이 발사되어 괘도에 진입했을 때 탐지해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을 요했으나 62년 8월 11일과 12일에 보스토크 3호와 4화가 괘도상에서 5km까지 랑데부했을 때에는 로케트 발사 후 2분 만에 모든 의도를 탐지해냈고 5km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자체도 SPADATS 조직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1966년 8월 소련의 대형 로케트 실험이 태평양상 하와이 섬 부근을 목표로 발사했을 때 소련발사대에서 로케트 이륙 후 29초 만에 탐지해서 소련의 로케트 탄두를 서부태평양에 있는 KWAJELEIN도에 배치한 NIKE-Zeus로 격투했는바 격투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소련이 여하한 로케트라도 발사하던 그의 목적하는바 저의와 도착시각과 장소를 탐지해 낸다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조기경보망은 FOBS가 출현했다고 해서 새로운 체제를 보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격투능력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은 자국의 인공위성을 괘도에 회선시켜 이를 공격목표로 격투하는 실험을 쌓아올렸다.

1963년 8월 1일에는 NIKE-Zeus가 그리고 1964년 5월 29일에는 미공군의 IRBM이었던 THOR를 고공핵폭발의 형식으로 격투해서 파괴시키는데 성공을 보았다고 64년 9월 18일 존슨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우주전(戰)에 대비하여 격투무기는 NIKE-X체제로써 고고도용은 NIKE-SPARTAN과 저공용 NIKE-SPRINT 이외에 X선을 이용한 격투방법도 개발하고 있는가 하면 적의 로케트 발사 직후 폭발하기 위한 BAMBI System으로써 TITANIIIC에 100개의 소형핵탄을 고공에 산포해서 격투하게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creening type라고 해서 적의 핵 공격무기가 진행해올 코스에 미리 고공핵폭발로 방사능대를 형성하여 적의 핵탄두가 이 대를 통과하면 불발탄으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

결론

소련은 FOBS를 등장시켜 우주무기에 대한 자유 및 중공진영의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현혹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으나 미국은 FOBS의 출현의 관계없이 우주전에 대비한 MOL(Manned Orbital Laboratory)를 그대로 개발하여 1969년에 인간이 탑승하고 실험회선한 후 1971년에는 작전용으로 취역시킬 것이라고 한다.

FOBS는 무인위성이나 MOL는 유인위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고 한다.

즉 인간의 두뇌는 200억 개나 인공적인 전자두뇌의 세포는 1억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없다고 하니 인간은 역시 모든 기계를 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인공두뇌의 FOBS보다 인간두뇌의 MOL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은 결국 만물의 영장임을 다시 말해준다.

달 표면의 성질

인공위성이 보낸 달의 사진을 중심으로

양 형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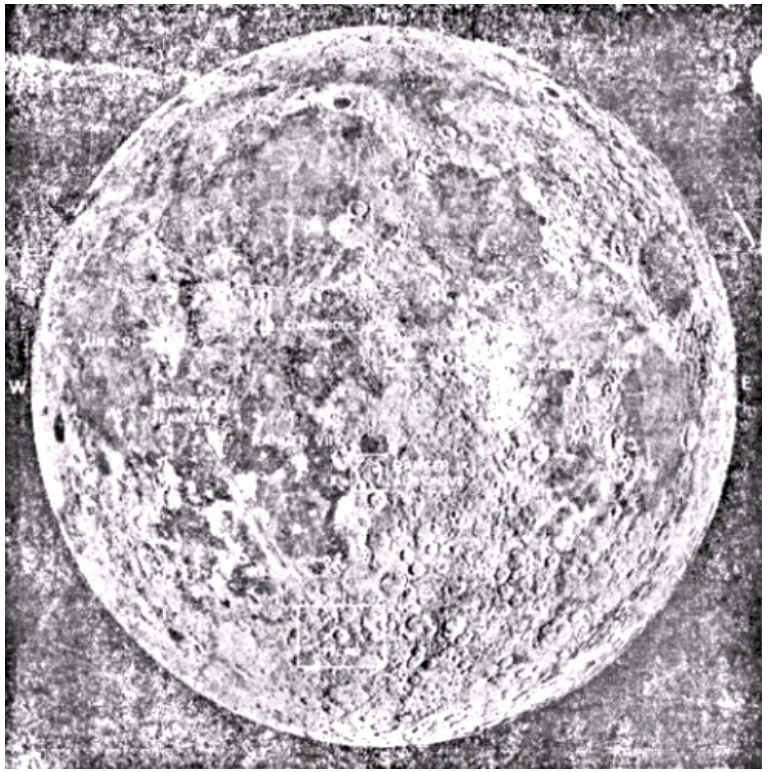
공허한 우주공간을 정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인류의 소망은 인공의 별로 하여금 공간을 선회하게 했으며 그 초점은 바야흐로 달에 집중되었다.

이미 달의 표면을 찍은 수천 매의 사진이 지구에 보내졌으나 달의 발생기원과 본질 그 성질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의문은 아직껏 풀려지지 않고 있다.

소련의 인공위성인 루나 9호와 미국의 인공위성인 서베리어 1호는 무려 17,000매에 달하는 달 표면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고, 다시 달 주위괘도를 비행하였던 오비터 1, 2, 3호가 수백 매의 달 표면사진을 보내왔다.

위성에 의해 얻은 달 표면사진은 망원경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사진보다 훨씬 정밀하여 달 표면에 산재한 직경 1밀리미터의 입자들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면 이처럼 정밀한 사진을 얻은 지금의 우리는 달 표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가? 달에 대한 구구한 천문학자들의 가설 가운데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지? 혹 달의 발생기원에 대해 다소라도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없는지? 이와 같은 질문은



<달의 표면. 3개의 레인저와 서베이어 1호, 소련의 루나 9호의 표적이 표시되어 있다. 이 사진에서 직경 18인치의 작은 분화구도 식별할 수 있다.>

변함없는 인류의 수수께끼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달을 향해 쏘아 올려 진 인공위성의 주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다. 레이저, 서베이어, 오비터들은 1970년 내로 인간을 안전히 달에 착륙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은 처음부터 과학개발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태껏 발사된 인공위성은 더 크고 더 복잡한 위성을 달에 안전히 착륙시키는데 요구되는 종합적 기술에 대한 지식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진찰임무를 띠고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백해진다. 지난 수년 동안 발전시켜온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1. 적어도 달 표면의 몇 부분에 대한 역학적인 성질과
2. 유인 인공위성 아폴로가

안전히 착륙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아폴로 계획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드럽고 충분히 단단한 표면을 찾아내는데 있다.

달 전문가들은 여러 위성이 보내온 정보에 대단한 흥미를 보였다. 위성에서 보내온 사진들은 달 표면의 모양과 내부 구조, 달의 기원과 그 이력을 환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더 정밀한 달 사진만 얻을 수 있다면 달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논란점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1964년 7월 지난 백 년 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달 표면에 대한 지식은 인공위성이 대단히 정밀한 달 표면의 사진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달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이제껏 달에 대하여 논란되어 왔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의 업적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 달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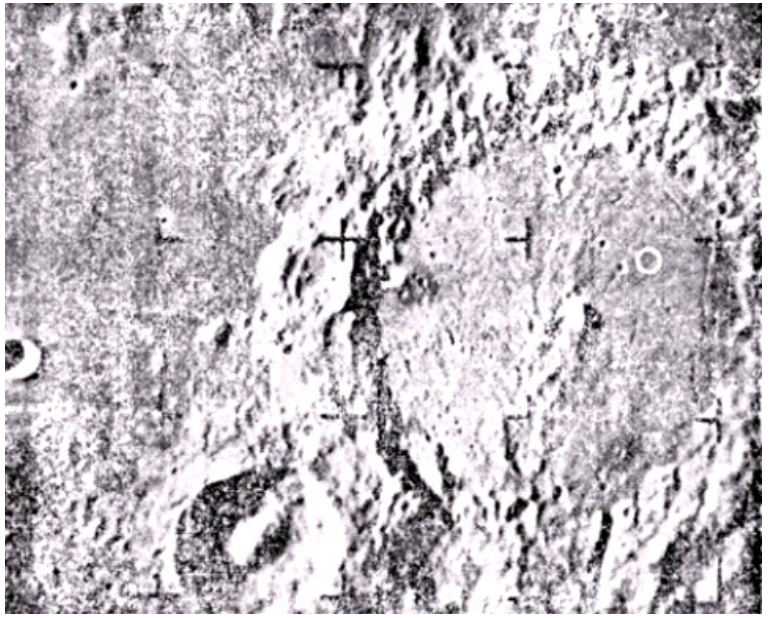
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가설이 있다.

1. 달은 처음에 지구의 한 부분이었고 지구가 현재보다 더 빨리 자전하였을 때 지구의 일부가 우주공간 속으로 떨어져 나가 지구와 달간의 상호작용(밀물과 썰물)으로 현재의 괘도에 오르게 되었을 것이다.
2. 지구가 창조된 것처럼 달은 처음부터 지구의 위성으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즉 기체나 먼지 운(雲)이 점차 모여서 달이 형성되었다.
3. 달은 지구위성으로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지구 가까운 괘도를 회전하는 독립된 별이다.

이들 세 가지 가설은 각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처음 가설은 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적어도 달이 지구의 일부였다가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의 지구의 자전변화모습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에 의하면 달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의 달의 전 에너지와 각운동량을 측정하면 계산된 것보다 훨씬 적어서 에너지는 가설에 의한 계획치의 6%밖에 되지 않으며 각운동량은 27%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밀물 썰물의 운동에 의한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할지라도 최초 에너지의 94%가 소모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두 번째 가설은 같은 질량의 기체와 먼지가 일부는 지구로 되고 일부는 달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달과 지구의 평균밀도가 거의 동일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달의 평균밀도는 지구평균밀도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밀도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지구와 달이 서로 다른 반응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무도 이러한 반응을 적절하게 발명할 수 없다.



<우측 레인저 9호가 시속 5,600마일로 표적을 향해 전진하면서 258마일 상공에서 충돌직전에 촬영한 것이다. ○표가 레인저 9호가 착륙한 지점인데 예측한 계산에 비해 3마일 오차밖에 나지 않았다.>

첫 번째 가설은 이와 같은 밀도의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 즉 달은 지구의 일부로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달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대부분 지구의 지곡물질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지곡의 평균밀도와 달 전체의 평균밀도는 대략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또 다시 역학적인 논쟁애서 막혀버리지만 첫 번째 가설처럼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달 괘도가 지구주위에 오게 되었느냐는 포획 과정에 논란점이 있다.

◀ 달의 이력

달이 창조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이 밟아온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이 있다.

1. HOT THEORY
2. WARM THEORY
3. COLD THEORY

HOT THEORY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용해된 암석의 활성과 같은 달 물질의 활성이 달 표면과 그 내부 깊숙한 곳에까지도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달 표면의 분화구는 대부분

화산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분출구는 칼데라(Caldera-분화구 반충)라고 설명하고 있다.

HOT THEORY에 의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달 표면에 있는 크고 검은 이른바 바다라는 부분은 용암이나 재가 흐른다는 것이다. 최근 이와 비슷한 물질이 달 표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몇 가지 근거가 발견되기는 하였다.

COLD THEORY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달 표면에서 화산작용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달 표면의 모양과 표면물질의 성질은 달이 형성되었을 때 기여했던 물질 간의 충돌과 상호작용 및 그로 인하여 부스러져 떨어진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 표면의 물질은 얼음일지 모른다고 제안한다. 얼음은 먼지에 쌓여 있어서 태양복사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얼음의 얼마간은 달의 내부 열에 의하여 녹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얼음과 먼지의 층은 아주 낮은 온도상태에 있고 낮은 기체의 역력이 달의 수명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WARM THEORY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달 표면의 모양은 화산, 분화구이며, 얼마 동안 용암이 흘러내렸을 것이나 대부분의 분화구는 충돌에 의한 것이요 현 표면의 물질은 충돌에 의해 부스러진 돌조각일 것이라고 한다. 이상 세 가지 가설보다 더 복잡한 가설도 있다. 이 가설은 달의 기원과 이력을 운석의 광물 내지 화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데 달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진행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 태양계 내의 수많은 별 가운데 달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별은 최초 몇 개의 먼지 운이 축적되어 형성되었고,

둘째, 이 축적된 먼지 운이 여러 다른 물체에 의해 충돌됨으로써 대부분이 파괴되고 작은 운석이 만들어졌을 것이며,

셋째, 그 대부분의 부스러기가 다시 재결합하여 지금의 달로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가설은 처음부터 지구괘도영역에 있는 많은 별들이 현재의 달과 비슷한 밀도와 성분을 갖고 있었다고 전제함으로써 밀도와 비중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달의 온도

이상의 가설을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가설이 주장하는 바를 반대하거나 또는 동조해서 더 굳건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3차원 직각좌표계에 따른 달의 세 가지 관성질량에 대한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달이 완전 구형(球形)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면 양 옆으로 괘도상에서 동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동요를 달의 칭동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 칭동의 원인인 세 가지 관성질량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의 칭동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측정했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하다. 부정확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지구방향

쪽으로 자소 길고, 북과 남이 평평한 매우 비대칭적인 물체의 사진이 된다. 만일 이 사진을 얻은 측정 결과가 옳고 달 내부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다면 달은 지구 달 계 내에서 중력적 평행을 이룰 수 없다. 평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중력적 변형력이 달의 중심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달 내부의 액체 심(心)은 이처럼 큰 중력적 변형을 견디어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달의 이력에 대한 HOT MOON THEORY나 WARM MOON THEORY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측정이 잘못 될 수도 있거나 혹은 달의 질량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수학적 계산속에 부정확한 요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달이 액체의 심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중력적으로 안정할 수도 있기는 하다. 달 주위괘도를 선회하는 위성들이 이점에 대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겠지만 아마도 그 문제 자체는 풀려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한편 달의 내부온도에 대해서 이론적 계산이 가능하다. 그 계산방법은 달의 조기온도에 대한 가정(假定)과 방사능 물질의 농축도 달의 열전도도에 의존하는 다소 직설적인 방법이기는 한다. 만일 달의 최초온도가 섭씨 0도였다고 가정하고 방사능 물질의 농축도가 대략 운석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정도라고 한다면 (지표의 방사능 물질 농축도는 설운의 방사능 물질보다 약간 많다) 또 열전도도가 SILICON과 대강 비슷하다고 한다면 달 중심의 온도는 3억 년 동안에 철을 녹일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되었을 것이다. 가정을 바꾸어 최초 달의 온도가 섭씨 600도이었다면 달이 형성되어서부터 1억 5천만 년 후에는 달 표면으로부터 300마일 깊이 이하에 있는 철은 모두 녹였을 것이다(달의 반경은 1,080마일). 달의 온도계산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은 달을 형성하고 달 지운을 일으키며 표면을 형성하였을 지도 모르는 내부변형력에 대한 계산이다. 만일 달이 온도에 의하여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면 그 효과가 달 표면에 나타날 것이고 이 결과가 시찰될 수 있을 것이다. 달의 분화구는 측면운동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좋은 비교물이 될 것이다. 아직 그와 같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온도계산 결과는 달이 생겨나서부터 처음 3억 년 동안 팽창되고 지난 1억 5천만 년 동안 거의 같은 크기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달의 연령을 지구의 연령과 같다고 하면 4억 5천만 년이다). 그러나 열은 아직도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내부변형력은 아직도 작용하여 심한 지진을 일으키고 있다.

만일 달이 운석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방사능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철뿐만 아니라 바위까지고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내부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표면은 더 규모가 큰 분화구가 있어야겠고 화산활동을 보여주는 효과가 나타나야할 것이다.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 충돌로 인한 크고 많은 분화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결론은 HOT THEORY에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 광학적 측정 및 단파측정

달 표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원은 광과 단파의 전자파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면에서 반사한 태양광선은 편광되고 편광각은 표면물질의 미세구조에 따른다. 편광각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달 표면 바로 위는 아주 작은 고운가루로 덮여 있음을 보여준다. 달은 만월일 때가 다른 때보다 단위면적당 반사하는 태양광선량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달 표면의 입자들이 아주 구멍이 많고 요철이 심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와 같은 표면에 태양광선이 닿았을 때 구멍은 엷은 그림자를 만들고 이 그림자가 표면을 밝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광선이 시선과 서의 평행할 때만 이들 깊은 부분이 빛나 보이고 표면전체가 더 한층 밝게 보이는 것이다.

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이나 단파장 영역의 열복사에 대한 측정의 결과는 표면물질이 열적 부도체이고 밀도가 아주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측정에 기여한 달 표면물질의 깊이는 복사파장과 대략 같은 정도이다. 실험에 사용된 단파영역은 달 표면의 1~2인치 두께의 구조를 가리켜준다.

레이더 파는 파장이 더 길으므로 달 표면으로부터 더 깊은 곳까지의 구조를 규명할 수 있으나 이 실험에서도 달 표면으로부터 1~2미터 까지도 구멍이 많고 밀도가 작은 물질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면으로부터 1인치 또는 이하의 깊이에 있는 물질이 달의 다른 표면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곳이 군데 있기는 하나 표면의 95%가 균일하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적어도 수 피트까지는 구멍이 많고 밀도가 낮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표면의 성질은 COLD MOON THEORY를 뒷받침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HOT MOON THEORY 주장자들은 그 표면물질이 재의 흐름이거나 화산암의 재가 축적된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전술한 바대로 달 표면은 달에 착륙하는 어떠한 위성도 삼켜버릴지 모르는 두꺼운 먼지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달 전문가들은 달 표면에 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의 먼지는 지구의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더러운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대기 속에 있는 먼지 입자는 입자들끼리 서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을 것이고 대기가 없다면 입자는 서로 굳게 뭉쳐져서 방금 내린 눈과 비교할 수 있는 스폰지 구조를 형성하고 있게 될 것이다.

◀ 레인저 사진

여러 가지 달의 가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레인저 위성으로부터의 사진을 고대하였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용납되지 않은 점을 밝히는 것이 레인저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인저 7, 8, 9호가 아주 훌륭한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표면성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다. 사진을 검사한 후에 달 표면이 용암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나 용암은 없다는 사람이나 물질의 부스러기로 달이 쌓여있다고 한 사람들은 계속 신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느 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다.

레인저 사진은, 마치 겨울 같아서 모든 사람은 겨울에 의해 반사된 자기 자신의 이론을 보고 있을 뿐이다.

어려움은 레인저 위성이나 위성이 보낸 사진에 있지 않다. 마지막 3개의 레인저는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보낸 사진은 카메라 설계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분해능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달 표면사진을 가지고 내부를 시찰하여야 하는데 있었다. 확대된 사진만으로 표면의 강도나 성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레인저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달 표면 위에 유인인공위성 아폴로가 안전히 착륙하는데 충분한 평평한 장소를 찾아주었다.

달 표면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었던 다음 기회는 작은 분화구 Reiner 가까이 소련의 루나 9호가 1966년 2월 3일 안전하게 착륙한 때이다. 달에 착륙한 루나 9호의 사진에 의하면 작은 크기의 거친 물질과 분화구의 가장자리일지도 모르는 수 센티미터 높이의 기상이 보였고 기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평한 평야처럼 보였다. 대단히 큰 분화구가 수평선 가까이 보이고 그 주위에 몇 개의 바위가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루나 9호를 비롯한 소련의 인공위성으로부터 표면이 딱딱한지 아니면 작은 입자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확실한 것은 루나 9호가 달 표면의 허술한 먼지 층 깊이 갈아 앉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이 사실은 기본적인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달 표면이 하중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다.

또 다시 표면이 단단한 용암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용암을 예로 들면서 루나 9호의 사진과 비슷함을 지적하였다.

◀ 서베이어 사진

달 표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던 그 다음 기회는 측정 기구를 달 표면에 안전히 운반하고 착륙지점의 사진을 보내주도록 설계된 서베이어 1호의 달 착륙이다.

1966년 6월 2일 서베이어 1호는 Flamsteed 분화구 안쪽에 안전히 착륙하였다. 이 지점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선정되었다. 첫째, 그 지점에서는 거의 수직착륙이 가능하였으며 고속의 위성을 가볍게 착륙시키는 장치를 용이하게 조작하는데 수직착륙이 쉬운 방법이었다. 둘째, 겉으로 보기에 평평하게 보였으므로 아폴로의 착륙지점으로 선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레인저의 후계로서의 서베이어의 주요목적은 유인위성 아폴로가 착륙가능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서베이어의 TV카메라는 달나라의 하루 동안(지구의 14일과 동일함)의 여러 가지 명암의 조건 하에서 찍은 주위의 달 풍경을 수천 매의 사진으로 보내왔다. 이 사진 가운데에서 서베이어의 3개의 착륙용 다리 주위의 달 표면과 충격 흡수용 금속이 닿은 위성 표면 바로 밑의 달 표면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진에 의하면 달 표면은 작은 부스러기 물질로 되어있고 적어도 서베이어의 구조와 하중을 어느 깊이까지는 견뎌낼 수 있음이 명백하였던 것이다.

달에서의 둘째 날의 저녁쯤 착륙용 패트 꼭대기의 사진은 표면이 이상하게 얼룩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낮과 밤의 주기 동안 온도의 변화에 의한 일종의 침식일지 모르며 어쩌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변화에 의해 표면에 축적된 먼지 층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이들 사진은 HOT MOON THEORY가 바람을 맞는 것처럼 보였으나 화산의 폭발을 믿는 달 전문가들은 항복할 기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운암 조각에 의한 충돌이 용암표면을 가루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예측하기를 표면 밑에는 고체상태의 용암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서베이어 사진 속의 많은 바위들을 어떤 화산작용의 증거로서 지적한다.

먼지이론 주장자들은 표면에 먼지가 많은 것을 대단히 기뻐한다. 그들은 달 표면의 먼지의 상태가 진공 중에 있는 먼지의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다. 달 표면에 산재한 수없는 바위들은 먼지가 용암주장자들에게 던졌던 문제만큼 먼지 주장자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담하게도 먼지 주장자들은 Instant Rock라는 천재적 설명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베이어 사진에서 입자와 바위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큰 고체물질을 부수어 내린 어떤 과정에 얻을 수 있는 것과 대략 비슷한 크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달 표면의 입자들은 운석의 충돌과 같은 어떤 파괴의 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달 내부에 용암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의 열적 역사에 대한 어느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만일 서베이어가 애초에 계획했던 모든 장비를 운반할 수만 있었어도 물질의 원거리 화학적 분석을 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오비터 사진

소련의 루나 10호는 레인저에 장치했던 것과 비슷한 선분광기를 운반하였다. 루나 10호의 측정결과는 지구표면의 용암과 비교할 때 달 표면 물질의 방사능량이 적다고 나타났다. 주위복사가 너무 많았으므로 얼마나 적은 양인지 측정되지는 않았고 선 스펙트럼 가운데 독특한 선 스펙트럼도 발견되지 않았다. 만일 검출된 대부분의 방사능이 주위복사였다던 달 표면의 바위는 운석이 아니라는 생각을 부정하기 힘들다.

항공의학

초음속항공시대에 항공의학이 나아갈 길

전투조종사들의 항공위생관리를 중심으로

예비역 공군준장 계 원 길

1. 서론

-항공의학과 비행군의관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나 군대를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인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감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장구한 경제적 궁핍상과 인구과잉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 물자난에 허덕이던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식 가치관이 뿌리박혀 있어 이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자를 아끼고 병기를 목숨과 같이 귀히 여기는 애국심을 탓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계와 장비의 손실은 새로 보충하면 되지만 인간의 생명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 공군에 있어서 전투력의 기본요소인 공중 근무자(전투조종사)의 생명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고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작전 관리 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금전으로는 보충할 수 없는 전투 장비인 것이다. 만약에 이 전투조종사의 항공의학적 건강관리 면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면의 제약 기타의 사소한 이유로서 그 잠재적

사고 요인을 미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또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소홀히 해서 불행한 항공사고를 초래한다면 값 비싼 병기 전투기의 손실은 물론 다년간 막대한 경비와 물자를 들여 양성한 귀중한 전투병기 즉, 전투조종사를 순식간에 손실하게 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몇 배의 손실을 가져오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 전투력의 일부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공군의 목표는 전투태세완비이며 효과적인 전투력을 최고도로 유지함에 있다. 오늘날 이 목표 아래 전투태세완비를 증진시키며 전투조종사의 비행안전을 개선향상하기 위해 완전무결을 모토로 살고 전 공군이 일로매진하고 있다. 완전무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히 항공기를 정비함에 못지않게 이를 조종하는 공중근무자로 하여금 심신양면에 걸쳐 공중 근무에 최적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정비와 관리를 담당하며 전력증강, 비행안전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일이 군진 항공의학의 사명이며 이를 실천하는 인간정비사들이 즉, 공군의 비행군의관인 것이다.

2. 군진항공의학의 이념

이러한 항공의학은 일찍이 미국에서 1914년부터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항공기의 출현(라이트 형제의 초비행보다 11년 후)보다는 훨씬 뒤떨어져서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공 자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항공창시기에 있어서는 비행에 따르는 특수 환경의 모든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었거나 또는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했으며, 공군근무자의 선발만을 위주로 했고 일단 선발된 후에는 그들이 어떠한 비행환경 여건에 대하여서도 적당히 견뎌 나갈 것으로(마치 자동차운전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관적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절차적으로 경험을 거듭함에 따라 이러한 그릇된 개념은 바뀌어 지고 기계적인 훈련과 양차 대전과 한국동란 등의 실전경험을 통해 근자에 이르러서는 항공의학이란 공중근무자의 Homeostasis(항상성)을 모든 환경에 적합 시키는데 필요한 활동이란 개념으로 바뀌어 왔다. 특히 항공공학의 발달과 작전상의 요구로 고고도 및 초음속의 고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제작함이

가능하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종하는 인간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절차적으로 항공기의 계획 면과 특수보호방법과 장구의 고안에 적극참여하고 최선의 건강관리로서 조종사의 건강과 효율과 안전 면에 반영시키도록 되어있다.

초창기의 시속 불과 70리 상승한계 일만치 미만이라는 경비행기시대로부터 불과 20년이 못되는 오늘날 초음속 및 고고도성능, 비상한 화력, 광범한 비행반경, 조종의 복잡성 등등을 가진 고성능전투기로 대체되었으며, 이러한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괴물은 조종사로 하여금 사소한 실수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전투조종사의 효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함에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책은 오로지 우리 공군에서 제일 귀중한 의무자산인 비행군의관(Flight Surgeon)들의 어깨에 걸려 있는 것이다.

다행하게도 우리 공군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선구자들에 의해 이 비행군의관 제도가 제정되었고 국내외에서 양성되어 이 특수전투업무가 본 괘도에 올랐으며 세련되고 왕성한 의욕을 가진 우수한 군의관, 비행군의관들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음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즉, 각 비행기지에서는 기지병원에 항공의무진 비행군의관실이 있어 각 전투대대에 배속되어 소속전투 조종사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전투 지휘관과 더불어 한 팀을 이루고 훌륭한 참모보좌를 함으로써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일선 업무를 뒷받침하고 일선에서 당면하고 있는 항공의학적인 모든 문제를 연구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공중근무자의 특수건강관리, 의학적 자문 진료와 비행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또 비행군의관의 양성을 담당하는 항공의료원이 우수한 시설장비와 인재를 갖추고 있다.

공군의 비행군의관은 지상군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부대군진 의학업 즉, 상병자진료, 예방의무 급식급수 감독 및 개인위생을 담당 실천하는 전문의인 동시에 부가해서 자기가 예속되어 있는 단위비행부대 장병에 대하여 다른 일반 군의관들 보다 각별히 가깝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비행군의관은 전투조종사와 더불어 침식기거를 같이 하며 또한 비행을 할 수 있어야만 이상적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해결책 모색을 할 수 있는 산 교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전투조종사와 더불어 대화가 통하게끔 된다. 제아무리 임상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전문의라

도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즉, 소 눈에 안경의 격이 되고 만다. 비행군의관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각자의 헌신적인 열의와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최소한 일 년 이상의 공동생활을 거쳐야만 비로소 전투조종사 각자의 신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개성을 이해하며 좋은 친구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대비행군의관은 가급적이면 동일부대에서 수년간 계속 근무함이 이상적이며 전투대대의 이동에도 같이 행동함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적 실임은 각급전투지휘관에게 있으며 이 세부실천을 비행군의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투부대지휘관과 비행군의관의 팀워크 여하가 그 업무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비행군의관 업무운용의 묘(妙)

-전투조종사 건강관리를 위해서-

현대초음속 항공전투기의 비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장애와 조종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정밀하고 우수한 진단능력과 판단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스트레스에는 고공비행에 의해서 생기는 저산소증, 저기압증, 극심한 온도의 변화, 우주방사선, 시각에 관한 문제 등등과 고속비행에 의한 가속도 문제, 시력소실문제 그 외에 기상탈출, 불시착시의 충격문제, 생환구조 시의 의학적 문제 등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유해가스, 진동 및 소음에 대한 폭로, 화재에 대한 위험, 비행착각 등등이다.

따라서 비행군의관은 전투조종사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는 각종 개인 장구 보호피복 등에 대해서 그 효능과 점검법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 사용법을 교육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비행군의관은 전투훈련, 비상대기근무 등의 지속적인 정서면의 긴장으로 인한 장시간의 육체적,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영향의 결과로서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 즉, 급만성의 비행피로와 이에 대한 대책 또는 전투 비행임무에 의한 임전피로의 징조를 신속히 발견하고 충분히 시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상태는 비행군의관의 밀접한 감시감독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비행군의관은 전투조종사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긴밀하고 적극적인 시찰을 해야 한다. 이 피로예방과 회복을 위해 전투조종사의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언론

언론의 자유와 보안

대한공론사 이사장 김 봉 기

현대와 같이 매스컴의 역할이 중대해지면 해질수록 그 기능의 자유로운 달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매스컴의 자유수호 내지는 그 방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또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뿐더러 이 권리는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언론의 자유라 함은 무제한한 것 같이 주장되면서도 인간의 자유가 양식의 도는 벗어날 수 없듯이 결코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시대와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다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 함은 인간의 행동성을 1. 외부로부터의 제한과 지배받음이 없이 2. 또 행동에 필요로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자유에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혹은 강제로 강요당하는 것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 또는 어느 누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무엇인가에 욕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는데 있어 자유에 대한 강렬한 관심을 시현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찰나적인 것이며 그러면서 행동이 어떤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한다면 자유의 핵심은 그 목적을 자유로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수단과 방법을 행사함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목적달성도 불가능한데 단순히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자유의 위만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즉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이며 행동하기 위한 수단과 지배의 자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독립하여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항상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부단히 타인의 존립과 존재를 전제로 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회 환경 속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자유라 하더라도 결코 그 사회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고 항상 타인의 동등한 자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인간사회의 법률, 인습, 습관을 뜻하고 우리의 자유가 우리들 속에 있고 또 소유하고 향유하는 사회, 그 자체의 존재로 인해서 조건 지워지는 것이다. 즉 우리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자유인 것으로서 결코 절대적인 자유를 뜻함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 인간이 불완전한데서 오는 우연의 일치인지 또는 자유로운 행동을 위한 사회의 여러 매체의 명백한 타협 필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건간에 하여튼 우리들의 사회 환경에 있어서 완전한 무제한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시 자유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자유가 적극적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인 한에 있어서 그 행동하는 힘 자체가 언제나 얼마간의 불가피한 저항을 내포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저항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행동은 이를 뜻한 순간 즉각적으로 목적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저항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제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고찰한다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현실 사회에는 이미 절대적 자유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며 William Earnest Hocking이 말한바 제한 없는 자유는 괴물일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자유는 규율(순서)없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호흡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수단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규율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이 긍정될 것이다.

사회는 항상 변동하고 우리들은 부단히 복잡화 다양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더욱이 자유는 이와 같은 환경에 지배되고 제약받게 되는 한 자유 또한 그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부단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항상 그 내용은 변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원시적 또는 미개한 단계로부터 점차적으로 상당히 진부함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유는 보다 복잡한 사회 환경에 의해 조건 지워지고 보다 절대적이 아니게 되었다할 것이고 자유의 내용은 현대와 더불어 또 사회 환경과 더불어 변모를 계속하여온 것으로서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과 신문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인류의 자연, 본능적 기능으로서 인간의 사회생활의 호흡에 비유될 수 있으며 하등의 기계나 기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언론과 신문은 그 대가에게 주는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직접과 간접의, 그리고 매체의 유무로 그 자체에 과해지는 제약 면에서 더욱 다양성을 띠는 것이기는 하나 보편적 개념으로 언론과 신문은 본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적 기능인 언론의 자유가 존재 않는 곳에 인위적 제도인 신문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써 신문의 자유는 도리어 언론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언론의 자유의 가치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명사회는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사상을 소비하고 생존하여 변화되고 있다. 사회 그 자체는 어떤 의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표현하는 길 이외에 어떤 사상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개개 구성의 사상과 행동을 통해서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심적 과정으로서의 사고는 선천적인 자유이고 외적지배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되는 것이 외부로 표현됨이 없이는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사고에 끝난다.

표현을 제약한다 함은 사고 그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사고의 자유도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하겠다. 언론의 자유는 비단 사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를 주장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언쟁하는 자유마저 포함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이와 같은 비판과 언쟁을 자유롭게 하는데서만 진리는 발견된다. Henry W. Steed가 지적하듯 문명은

비판 없이 진보 안 되고 사회의 정체에서 탈피하려면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류의 진보의 역사가 반드시 대중의 사상보다 소수의 기여한바 공헌을 부정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자유의 가치는 개개인에서 그 무지와 오류의 해결에 경주하게 하고 진리를 탐구하게 하며 아무리 위험하다하더라도 그들이 발견한 진리를 증명하게 할 기회는 주는데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모험에의 시발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공에 봉사하게 하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을 대하고 불로하여 차지하는 불가침성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반대도 또한 하나의 비판으로서 그 한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쟁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체내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관용을 스스로 얻게 하려는데 있으며 자유로이 논의하게 함은 사회적 분쟁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결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가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 분쟁의 수준을 폭력의 단계로부터 논쟁의 단계로 승화시키려는데 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분쟁을 토론과 납득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게 하여 전쟁과 기타의 폭력을 억제하려는 장치이며 보장이기도 한 것이다. 여하튼 언론의 자유가 결여될 때 벌써 사상의 자유, 집합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일절의 자유는 전부가 보장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언론의 자유만이 어떤 다른 그리고 모든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리하여서만이 우리의 사회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집요하고 중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유는 결코 무제한으로 또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복지와 공익과의 관련 속에서 항상 어떤 제약이 과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공공의 복지에 합치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감히 부정을 못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을 공공의 복지라 하고 공익에 합치된다고 명확히 정의하기에는 이 또한 속단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공공의 복지에 합치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때그때의 국가나 정부가 취하는 정책에 순응한다고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도리어 양자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음이 오랜 역사는 증명하여 왔다. 실제 공공의 복지의 미명하에 언론의 활동이 부당히 압박받고 굴복

된 예는 허다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공공의 복지와 언론과의 관련 속에 언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의 계기가 숨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국가나 정부가 공공의 복지라는 기치(旗幟)를 들고 언론도 또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자유를 주장하여 공적기능을 표방하는 것이 통상이다. 여기서 국가와 언론과의 미묘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가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가 여하한 존재인가에 관해서 정치학자 간에는 이론이 많은 바로서 일치된 견해로 통일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그 혼란의 대부분이 하나의 정치기능집단으로서의 국가와 그 정치의 대상이 되는 일대공동사회를 혼동하는데서 유래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다종다양한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데 재론의 여기는 없으나 여기에 이들 모든 집단의 Complex요 대규모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 전체로서의 하나의 가치의 대상이 될 만한 공동사회, 소위 국가사회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동사회야말로 정치의 객체이며 그 유지발전을 위해 형성되고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기능집단으로서의 국가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복지란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 그 자체가 그 객체인 공동사회 내지 그 구성원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적어도 민주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니고 도리어 여기에서 말하는 대공동사회의 순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의 안녕을 보지(保持)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능집단이요 어디까지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의 정치결정과 집행을 위한 중심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가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국가나 정부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의 계급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며 더욱이 소수의 위정자(爲政者)도 아닌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일대공동사회요 그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가 아니고서는 안 될 것이다.

근대적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헌법, 기타 기본법규에 의거,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여 많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현대 민주사회의 국가는 이와 같은 것을 제약하는 면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장에 임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며 그 대책으로 하는 공동사회의 순서유지와 복지증진과 그리고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도리어 국가에 기탁된 중대한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그 대상으로 삼는 공동사회와 그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언론 또한 같은 대상을 위해 기능을 하는 공적존재라 한다면 벌써 양자 간에는 기능적 의미에서 하등 상하,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 같은 동례에서 같은 대상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 양자 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모르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혹은 왜곡되게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그 구성원의 복지를 손상하게 할 만한 경향을 띠운다면 사회의 순서유지와 안녕, 복지에 중대한 관심과 책무를 지는 국가나 정부는 묵인할 수 없이 반드시 어떤 대책을 취하려 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당위적인 처사라고 보며 동시에 당연한 근원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때라도 국가나 정부가 공연히 지나치게 언론을 통제하고 그 활동에 간섭과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회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정부는 언론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유로이 그리고 적절하게 그 본래적 기능을 다하도록 또 가능할 수 있게 조건의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민주사회 국가의 언론에 대한 기본적 자세인 동시에 이는 또한 국가에 기탁된 책임에 충실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Fred S. Siebert가 말하는 조정기관, 조성기관, 공동기관으로서의 국가 정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하겠다. 이점에 대하여 미국의 신문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 'The Commission on the Freedom of the Press'도 정부조치의 증가를 위한 권고보다는 오직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는데 불과하다는 기본적 태도를 표시하면서도 정부가 언론의 활동결함을 보완하는데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 국가가 언론에 대하여 간섭 강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 적절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국가 그 자체의 존립의미와 합치되는 것이며 국가의 그와 같은 태도야말로 언론의 자율적 태도와 함께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하는 처사이며 국가에 기탁된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이 선진 영·미 기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에 대한 국가의 자세 내지 태도의 기본적 근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적기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William Earnest Hocking이 설파하듯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은 또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설적 진리를 간과할 수 없다.

국가나 정부 그리고 언론에 다 같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사회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공동사회의 촉진과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의 국가나 정부와 근원적 억제 수간이며 조정을 자부하는 언론의 자율적 관계는 언론의 역사와 더불어 생감되어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알 권리와 알려야 할 보도의 자유의 한계는 공공복지의 최대신장과 폐단의 최소치라 할 탓인바 주제인 보안은 언론과 국가나 정부와의 상호견제와 상호보완적 존재로의 승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우리의 과학적, 군사적, 산업적 내지 행정적 능력, 기술계획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동사회의 복지의 증진과 보장을 위한 결과적 성과를 예견할 수 있을 때에만 알 권리의 발전적 보도라는 형태의 자유에도 직결되고 수중에 들어가 도움을 주는 것 이상 우리의 적에 들어갔을 경우에 일어날 공공이익에의 정책적 역효과와 공격은 왕왕 역사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그 공공사회의 붕괴마저 초래한 예가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안의 대상을 엄격히 규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애매하다. 바로 이 애매성 때문에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일단 공공복지가 평화적 공존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국제적 협조정신의 막연한 개념 아래 공동사회의 붕괴마저 초래할 전쟁수단의 결과적 포기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하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띠운다 하겠다. 소수집단의 침략적 행위에로의 선도적 또는 이용당하는 등 모든 문제점의 교도가 그 자체 순서의 공익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간의 이해가 그 국가가 포옹하는 공동사회의 공익성과 반드시 일치된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허다하다.

특히 이념적 동서냉전의 현대화에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하겠고 더욱이 남북으로 양 분단 하에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보안이라는 대상의 핵의 성격 자체가 보안 그 자체를 규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보안 없이 공동사회의 보장은 바랄 수 없고 공동사회의 복지에 대한 보장 없는 보안은 결국 합리화의 도구로 타락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결언으로 삼는다.

국가법

국가안전보장 상으로 본

한미상호방어조약의 의의

연세대 교수 박 관 숙

1. 의의 및 체결경위

한미상호방어조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추적인 지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약은 한국동란의 휴전을 계기로 하여 당시 명분 없는 휴전을 강력히 반대한 한국정부로 하여금 휴전을 수락하게 하는 대상으로서 체결되었다는 점과 또 당시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침략으로부터의 한국자체의 안전 보장보다는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을 축으로 하는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일환으로 삼으려는데 더 중점을 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 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치른 휴전수락의 대가라는 점에 있어서 NATO를 위시한 다른 조약에 비해 볼 때 안전보장조약으로서의 특이성과 취약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점은 조약의 체결경위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한국동란을 국지적인 제한 전쟁으로 추진하고 있던 미국정부의 정책은 1951년 5월의 맥아더 사령관 해임을 가져왔고 또 동년 6월 UN에서의 말리크 휴전제의를 수락하기까지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국토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남북분단의 현상유지를 강요하는 이러한 굴욕적인 휴전에는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1953년 5월 30일에는 이러한 유화적인 휴전협정의 체결대신 한미상호방어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 하에 유엔군과 중공군의 동시철퇴를 제의하는 공한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 공한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어조약의 삼대 원칙으로서 (1) 한반도에 대한 적의 침략이 재발할 때에는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할 것 (2)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무기·탄약 등의 군사물자를 제공할 것 (3) 한국군이 공산군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될 때까지 미해공군은 계속 주류(駐留)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만일 이것이 수락되지 않을 때에는 이 이상 더 국토분할을 참을 수 없으므로 한국은 표명하였던 것이다. 공한에 대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동년 6월 6일부의 회한에서 한미상호방어조약에는 찬성하나 그 체결은 휴전성립 후로 미룰 것과 한국의 통일문제 역시 휴전 후의 정치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을 무마하는 한편 휴전수락을 강권하였다. 이리하여 7월 17일에는 드디어 휴전협정의 조인을 보았으며 8월 7일에는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내한하여 한미상호방어조약의 가조인을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어조약의 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보다는 한국군의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견제하려는데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미국의 태도는 수동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조약의 내용도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이 조약은 미국이 한국 자체의 안전보장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보다는 2차 대전 후의 공산세력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대소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망의 일익으로 삼으려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는데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6·25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서는 1950년 1월의 애치슨 연설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극동방어선을 아류산,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선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은 이 방어선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였고 이것이 6·25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동란의 휴전을 계기로 이미 성립을 본 미일(美日) 조약(1951·9)와 연결시켜(1954·12) SEATO(1954·9)와 연결시켜 한미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에 있어서의 미국의 의도는 처음부터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망의 일환으로 하려는 이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연히 NATO와 같은 강력한 동맹 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도 또한 우리는 이 조약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 문제점

첫째로 이 조약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양국의 운명공동체적인 동맹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 취약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조약에서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오늘 이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로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이 조약의 방어구역을 당사국의 행정적 지배(Administrative Control)하에 있는 영토 및 행정적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오늘 이후의 영토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약이 예정하고 있는 방어구역은 현재 한국이 사실상으로 행정적 지배를 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의 지역뿐이며 휴선선 이북의 지역은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인정할 때에 한하여서만 방어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비록 휴전선으로 양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휴전선 이북도 엄연히 한국의 영토로 되어있는 이상 이러한 방어구역의 한정을 한다는 것은 동맹조약의 체제상 타당하지 않다. 다음에 이 규정에서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

정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의 신속성, 한국의 수도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120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육해공군의 통수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선전포고권은 국회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 조약의 존재의의를 거의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점을 주고 있는 NATO 조약이나 RIO조약(전미상호원조조약)에서는 체약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이를 전체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유엔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즉각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NATO조약 제5조·AIO조약 제3조) 이것은 동맹조약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일조약, 미중조약, 미필조약, ANZUS, SEATO 등도 헌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형식상으로는 한미조약과 동일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를 전 조약에서는 체약국이 취한 조치를 곧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첨가함으로써(미일조약 제5조·미중조약 제5조·미필조약 제4조·ANZUS 제4조SEATO 제4조) NATO형을 따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ANZUS와 SEATO는 조약실시를 위한 이사회, 군사위원회 등을 두어 더욱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조약에서는 이러한 유엔헌장과의 연결규정도 두지 않고 또 조약실시를 위한 아무런 상설기구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확실히 다른 전 조약에 비하여 안전보장조약으로서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로 이 조약에서는 한국에 미군을 배비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주류군의 군사적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 한계가 극히 애매하게 되어있다. 즉, 이 조약 제4조에서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조약에서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제6조)라고 규정하였고 또 미중조약에서는 '대만, 팽호, 모든 섬 및 그 주변을 방어하기 위하여……'(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미필군사기지협정에서는 '필리핀군의 강화와 상호안전을 위하여……'(전문)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미조약에서만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이 조약의 미비점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군의 지휘권이 1950년 7월의 교환서한으로 유엔사령관에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도로 주한 미군의 군사적 의무에 관한 문제는 명백히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극단의 경우를 상정하여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충돌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군이 공동방어의 여부를 그의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약의 전문에서는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독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포망하고 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문면(文面)으로 보아 잠재적인 침략에 대한 경고적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주류군의 군사적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이 조약에서는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되 일방적인 통고 후 1년 후에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점 또한 NATO나 미일조약에 비하여 볼 때 이 조약의 불안정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NATO에서는 일단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미일조약에서는 10년으로 하여 놓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한국보다는 유럽이나 일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3. 개정방안

이 조약의 개정방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이 조약을 한미간의 이변조약으로 존속시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과 또 하나는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을 축으로 하는 다변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첫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을 취한다는 규정만은 적어도 NATO형으로 개정하여 즉각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대공 공동방어전선에 있어서의 한국의 미국으로 하여금 똑똑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에 둘째 방안은 현재 미국이 이변조약으로 맺고 있는 미일, 미중, 미필조약을 통합하여 한, 미, 일, 중, 필간의 다변조약으로서 동북아조약(NEATO)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구상은 이미 미국에 의하여 추진된 바 있고 또 한미, 미중, 미필조약의 전문에서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안전모장의 한층 더 포괄적인 제도가 발달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어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포망하여……'라고 밝힘으로써 이를 뚜렷이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한중, 필, 일 4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아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한, 중, 필 3개국과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좀처럼 일치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그 실현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이 각각 국토통일과 본토수복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고 필리핀의 대일(對日)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은 반면에 일본은 이른바 정경분리의 원칙 밑에 공산국과 중립제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일본까지 포함하는 다변조약의 조속한 실현은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산침략으로부터의 자유의 수호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일본까지 포함하는 NEATO가 실현된다면 지금까지의 이변조약의 연쇄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방어조직이 될 것이며 한국의 안전보장도 그만큼 지금보다는 안정되게 될 것이다.

-꼬마 상식-

구급법의 요령

구급법에는 3대 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는 지혈, 둘째 처보호(處保護), 셋째 오한의 예방을 들 수 있다.

지혈법에는 압박법, 각상법(상처를 높이 드는 것), 지압법(손가락으로 핏줄을 누르는 것), 지혈대 사용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지혈대 사용시에 특히 주의할 것은 상처 위를 끈으로 잘라매더라도 20분 만에 한 번씩 풀어놓아서 피가 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독가스를 피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람이 부는 45도 반대방향으로 갈 것과 되도록 높은 지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투 시 부상병이 있다는 표식은 보병소총에다가 칼을 꽂아 거꾸로 땅에 박고 흰 수건을 달아매어 놓는다.

약이 되는 말

세상이란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일신의 영광을 얻는다.

몸을 아끼기 바쁜 사람은 오히려 그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일신을 내던지고 쓰러질 결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를 얻는다.

- 동양명언-

사회학

속칭, 군대적 사고방식의 소고(小考)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 승 면

우리나라는 지방이 각도(道)로 분할되어 있는데 도에 따라 사람들의 기질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경중명월(鏡中明月)이니 맹호출림(猛虎出林)이니 이전투구(泥田鬪狗)니 하는 따위의 객담까지 생겼다. 이러한 비교는 지방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그것이 과연 진실에 가까운 비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논자도 있다. 그것이 조잡한 비교론이라고 하더라도 출신지방을 달리하면 사회적 성격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감지하고는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도 학자에 따라 구구한 바 있으나 편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필자는 제시해보고 싶다.

① 특별에 의한 사회적 성격-성(性)을 달리하면 사회적 성격도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다. 남자는 역시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② 연령별에 의한 사회적 성격-아동에게는 아동의 성격이 있고 청년에게는 청년의 성격, 중년에게는 중년의 성격, 노인에게는 노인의 성격이 있다.
③ 기초적 집단별에 의한 사회적 성격-민족이 다르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흔히 영국인의 성격이 어떻고 프랑스인의 성격은 어떻고 독일인의 성격은 어떻다고 민족적 성격을 비교하기도 한다. 어떤 마을은 인심이 좋다든지 서울 사람은 깍쟁이라든지 하는 말도 한다. 어떤 집안은 성격이 사납다든지 사치스럽다든지 해서 친족이나 민족의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민족, 촌락, 도시, 지방, 친족, 가족에 따라 성격이 있는 것이다.
④ 기능적 집단별에 의한 사회적 성격-이것은 사회적 분화에 기인하는 사회적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천주교도나 신교도나 불교도나 각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 성격이 달라서 S대는 어떻고, Y대는 어떻고, K대는 어떻다는 식으로 성격이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 백화점에도 각각 성격이 있고, 음식점이나 술집에도 각각 성격이 있다. 직업에도 성격이 있어서 우리는 관료적 기질을 논하기도 하고 택시 운전사의 기질을 말하기도 한다. 군인에는 군인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군인도 세분하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각각 성격이 있다. 같은 공군이라도 공중근무가ㅏ와 지상근무자와 또한 기질이 다른 것이다.
⑤ 계급별에 의한 사회적 성격-우리나라에는 계급이 아직도 유동적인 편이지만 그런대로 상류계급이나 중류계급이나 하류계급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에는 노동자의 성격이 있고 농민의 성격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성격은 그 사회집단 내부의 단결과 이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군인적인 성격은 군대 내부의 단결과 이해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그 사회집단의 내부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무이해와 적의의 원인이 되기가 쉽다. 민간인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나 행동에 군인이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적의를 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군인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나 행동에 민간인이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적의를 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회적 성격은 이질적인 사고방식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의 구실을 한다. 예를 들면 군대는 정당인이 군대의 장이 되어 마치 정당을 운영하듯이 군대를 정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한편 정당인들은 군인이 군대정치의 장이 되어 마치 군대를 통솔하듯이 국가정치를 지휘하고 통솔하려고 하는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사회집단에는 이렇게 각각 사회적 성격이 있다.

2. 개인과 사회적 성격

R.린튼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있다. 그의 저서인 「사람의 연구」(1936년) 가운데 적혀있는 말을 소개하려고 한다.

많은 숙련된 문화인류학자가 실지조사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바이지만 어떤 미개인집단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모든 미개인들이 누구나 똑같이 보이고 느껴진다고 한다. 얼굴도 비슷하고 말소리도 비슷하고 성격조차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오래 동안 그들과 생활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린튼은 이러한 개인적 성격을 심리적 성격이라고 불렀다. 미개인 가운데도 내향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은 문명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문명사회와 다를 바 없이 미개인사회에서도 사람의 성격은 각인각생인 것이다.

개인의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도 학자에 따라 같지가 않다. E.크레츠머는 체격에 의하여 분류해서 협장형을 분열질이라고 했고 역사(力士)형과 비만형을 순환질이라고 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이다. 햄레트형과 돈키호테형이라고도 표현된다. 이것은 사회적 성격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의 성격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군인을 예로 들어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의 체격은 협장해서 개인의 성격은 분열질이라고 내향적이라고 해둔다. 이 성격은 그가 군대를 그만 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는 20대이기 때문에 청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성격을 사진다. 그는 특정지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성격을 가지고, 그는 인심이 좋은 마을에서 자랐기에 그 마을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의 집안은 성실하기로 이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는 농가출신이기 때문에 농민적 성격의 영향이 있고, 그의 집은 중농이고 자작농이었기에 지주적 성격이나 소작인적 성격도 없다. 그의 집은 독실하게 불교를 믿기에 그에게는 불교도의 성격이 있고, 그가 취업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성격도 그는 지니고 있다.

그는 군대에 들어온 지 3년이 되는 동안에 군인다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공군이기 때문에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병대와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상근무자이기 때문에 공중근무자와도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장교이기 때문에 장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성격이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다. 다기다양(多岐多樣)한 여러 사회적 성격이 한 사람의 성격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교착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그늘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인이라고 해서 서로 공통되는 성격의 요소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은 군인이라고 해서 결코 전반적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군대의 외부에서 군대를 볼 때는 모든 군인이 얼굴도 말소리도 성격도 비슷한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군대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반적인 성격이 같은 군인이란 없다. 군인도 어떤 사회집단과 마찬가지로 각인각색인 것이다. 이렇게 성격이라는 문제는 착잡하다. 군인의 성격 또는 군대의 사고방식을 논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에 마련인 것은 개인이거나 사회집단이거나 성격이라는 문제는 관념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격연구는 사람의 연구이고 현재과학에서도 사람의 연구에는 너무나도 미개척의 광야가 넓다.

심지어 G.W.올포트라는 사회심리학자는 어차피 개성의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중간인 것이고 결코 그 이상의 것이 못 된다고 말했다. 성격을 분류하는 방법이 너무나 조잡하고 동서고금의 수 백 억의 사람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신뢰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성격분류가 토종비결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분류가 조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단계에서는 일단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성격분유 그 자체의 제한된 유용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분류가 없느니 보다는 조잡한 분류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다. 군인의 성격 또는 군대의 사고방식을 논하는 것도 그것이 조잡한 성격분류인 줄은 알면서 그러한 논구가 없느니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수행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다.

3. 군인의 성격과 사고방식

군인의 성격 또는 사고방식에 관해 초보적이나마 간명하게 그 특징을 설명하려면 군인의 성격 또는 사고방식이 지지하는 것 다섯 가지와 그것이 배격하는 것 다섯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군인의 성격 또는 사고방식이 지지하는 것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① 권위주의-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경은 군인의 생리라고 말할 수 있다. 권위는 군대에서 계급 또는 직책에 의해 상징된다. 이러한 권위를 존경하고 이러한 권위에 복종하도록 군인은 요구되어 있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반항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② 질서-군인은 질서를 존중한다. 정연한 분열행진이 군대의 성격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칫하면 자유스러운 것도 군인에게는 무질서하고 방자한 것으로 비치기가 쉽다. 군인은 군대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도 정연한 질서를 요구하게 된다.

③ 규정-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으로서 군인은 기성 규정을 존중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라도 기성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회피하게 마련이다. 한편 아무리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그것이 규정이라면 규정대로 하게 마련이다. 비합리적인 점이 지적된 규정이라도 그것을 개혁하고 시정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④ 명쾌·단순-군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명쾌하고 단순하게 제정하기를 원한다. 무엇이 흑이고 백인가를 명쾌하고 단순하게 가리기를 원한다.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군인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군인은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⑤ 정복-군인은 완전한 정복을 원한다. 부하거나 여성이거나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려는 잠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경쟁자 또는 적대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한편 군인의 성격 또는 사고방식이 배격하는 것에서 으뜸가는 다섯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① 타협-군인에게는 타협은 죄악이다. 군인에게는 의도의 관철만이 미덕인 것이며 타협은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뜻하거나 또는 비열과 거의 동의어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② 회의(懷疑)-군인은 회의하는 것을 배격한다. 정해진 일이라면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신념과 용기가 미덕으로 생각된다. 회의를 일삼는 자는 회색분자로 다루어진다.
③ 신중-군인은 신중보다는 졸속(拙速)을 존중한다. 신중은 무능 또는 비겁의 탓으로 생각되고 속결이 속 시원한 결단으로서 찬양된다. 우물쭈물하는 것을 군인은 죄악으로 여긴다.
④ 예외-군인은 예외를 좋아하지 않는 획일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일을 하는데 융통성이 없는 것이 큰 미덕으로 생각된다. 융통성이 있는 것은 군인에게는 기율이 없고 기강이 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⑤ 이질-군인은 이질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앞서 그것을 백안시하기가 쉽다. 이질적인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이질적인 것을 동화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하지를 않고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군대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군인의 성격 또는 사고방식을 소묘해보았지만 이것은 결코 군인을 찬양하거나 또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군인에게는 군인특유의 직업적 특성이 있다. 군인의 성격 또는 사고방식은 이러한 직업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군인이 군대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이러한 성격 또는 사고방식도 새로운 직업적 환경에 적응하여 적절한 조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전과 심리전

전 CIA 제7국장 강 두 형

1. 심리전이란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전쟁이란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최초에는 손이나 발 그리고 돌이나 활을 사용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하였던 원자탄과 같은 가공(可恐)할만한 무기를 사용하게끔 되었다. 동시에 전쟁은 이와 같은 외적인 폭력수단과 병행하여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내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각양의 수단을 사용하여 왔으니 이것이 곧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란 전쟁에는 물론이려니와 전쟁전후에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어떠한 규범이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패를 명백하게 판가름 해주는 폭력적인 전쟁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정한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인간을 제압함으로써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이 통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구적인 승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단 한 가지 자기만의 주자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는 사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이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심리전이란 항상 행해지고 있으나 승패를 판가름하기가 아주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심리전을 실시한 후

수 개월 수 개년이 경과된 뒤에야 그 결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심리전이 과연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의 심리전방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판단을 하는데 대한 곤란성은 모든 심리전이 가지는 하나의 커다란 제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심리전은 결코 대답해 주지 않는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심리전의 선례

심리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인간이란 본래 남의 것을 자기 것보다 좋게 보는 본능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탐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꾀를 쓰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욕망은 질투를 낳게 되며 상호 간에 오해가 형성되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건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범죄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를 확대해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존폐문제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가. Gideon의 공포전술(고대)

기원전 1245년 이스라엘의 영웅 Gideon은 약 3백 명의 정예병을 선발 각 장병에게 횃불과 나팔을 주어 밤중에 적군주위에 적절히 배치한 후 불의의 습격을 감행하여 자기 병력의 백배에 해당하는 3만 명의 Midianites인을 완멸시켰다. 당시엔 백 명에 한 명씩 횃불잡이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Midianites군의 지휘관은 이를 역이용한 Gideon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 고기통조림 작전(2차 대전)

히틀러는 정식으로 폴란드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구실을 마련하고자 고기통조림(폴란드인의 시체) 작전이라는 일종의 모략수단을 사용하였다. 히틀러는 비밀공작원들을 폴란드 정규군으로 가장시켜 폴란드와의 국경에 있는 독일의 그라이빗쯔 방송국을 공격하여 이것을 폴란드 측의 도발행위로 조작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것이다.

1939년 8월 31일 히틀러의 부하들도 케슈타포 강제수용소에서 12명의 재감자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군에 실은 다음 가장된 공작원으로 하여금 그라빗쯔 방송국을 공격,

방송중인 마이크를 탈취하여 지금이야말로 독일과 전쟁할 시기가 왔다. 모든 애국적인 폴란드인은 독일인을 죽여라 라고 방송하였으며 효과를 돋우기 위하여 방송 중 총성을 냄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이 공작원들은 방송을 끝내고 돌아가는 도중 싣고 온 수용자를 사살한 후 아직도 몸이 식지 않은 시체를 남겨두고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1939년 9월 1일 오전 5시 11분 히틀러는 독일국방군에 대한 포고를 통해 이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즉 '일련의 국경침범사건은 대국에 있어서는 참기 어려운 처사이며 폴란드인은 이제는 독일국경을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힘에는 힘을 가지고 대항할 이외의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것은 바로 2차 대전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다. MIG 현상(한국전쟁)

1952년 초 한 UN군 종군기자는 부란디를 마시면서 공산군에게 금전의 총알을 사용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실재하지 않은 익명의 공군사령관과의 가상적인 회견기에서 MIG의 현상 기사를 썼는데 이를 보게 된 당시의 공군당국은 이것은 시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여 이 현상 안(案)에 살을 붙여서 워싱턴에 있는 공군성에 회부하였다. 이 안은 공군성을 통하여 국무성과 국방성에서 채택되어 당시의 UN군사령관이었던 크라크 장군은 최초로 가져오는 공산조종사에게는 10만 불의 상금과 정치적 망명지를 부여하며 다음에 가져오는 조종사에게는 5만 불과 정치적 망명지를 부여하겠다고 1953년 4월에 발표하였다.

이 현상 제안은 한, 중, 노어로 단파 방송되었고 3개 국어로 인쇄된 전단이 압록강까지 살포되었다. 이 제안이 있은 후 공산 측에 의해서 나타난 최초의 반응은 MIG 전부가 8일간이나 뜨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일기 까닭이거나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조종사들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원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8일간의 MIG작전이 불가능하였음은 물론 그 후의 MIG작전을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송이 이 현안 보도 방송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출격회수가 줄어들은 반면 미군의 세이버제트기 수는 3대의 손실에 비하여 실로 165대의 MIG를 즉, 55대 1의 기록적인 비율로 격추시켰던 것이다.

3. 심리전의 주요수단(매개체)

어떠한 형태의 심리전이건 중간매개체를 갖게 된다. 매개체란 일종의 통신방법을 말하며 이는 어떤 특수한 방법도 아니고 기존의 보편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방송과 출판이다.

심리전에서 라디오를 사용하기는 약 30여 년 전이다. 맨 처음 이용한 곳은 소련이다.

주로 2차 대전 시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영국의 BBC 영국방송협회는 전평 시를 막론하고 심리전에 있어서의 확고한 지도권을 보지하여 왔다. 그것은 문화적이면서도 표면은 객관적인 방송형식의 배후에 선전목적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BC는 방송의 정확성과 고도의 지식수준에 특징이 있다. 전투 중 BBC는 영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체인의 역할을 하였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이 행한 방송 중 GI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Tokyo Rose는 Nazi Lorelei는 지금도 유명하다.

라디오 다음의 주요 수단은 출판물이다. 여기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소책자, 전단 등이 있다. 특히 전단은 전시(戰時)에 광범하게 활용되었으며 1차 대전 중에 제작된 전단은 수천 만부, 2차 대전 시 살포한 총수는 수십 억에 달한다. 1951년 9월 중에 자유유럽위원회는 1,300만의 전단을 체코에 뿌렸는데 이 수는 1차 대전 중에 연합군에 독일이 투하한 총수의 약 25%에 상당한다.

영화도 선전공작의 한 수단으로 오늘날에는 미국과 소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선전공작의 쟁쟁한 제창자의 한 사람인 Jackson은 구라파와 기타의 지역에서는 미국 본토보다도 미국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매주 해외에서 미국영화를 보는 관중의 총수는 1억 1천 만 명이며 미국의 국내 관객 총수는 주에 9천만 명이다. 철의 장막 배후에서의 소련의 선전의 대부분은 영화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공산국가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반드시 선전 문구를 삽입하게끔 되어 있다.

4. 심리전 활동 수행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건 심리전 활동은 다음 7개의 원칙에 유의하여 끈기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심리활동이 공세적으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항상 문제의 논란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중점을 두지 않으

면 안 된다. 사람에 중점을 집중하면은 문제는 단순화 된다. 왜냐하면 문제의 논점을 너무 강조하면 복잡 난해하게 되며 심리전 활동이 효과적으로 널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단순성을 잃기 때문이다. '이름이 뉴스를 만든다'고 신문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심리전 활동이란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위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전이라고 알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며 또한 그것만 분리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심리전 활동은 정보와 첩보 특히 심리전 공작의 목표가 되는 국가나 국민에 관한 정치, 문화, 군사, 경제, 국민감정의 경향 등에 정통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각 국어에 정통한다는 것은 첫째 조건이다. 청중은 외국의 방송인에 의하여 자국어가 오용되는 것을 알게 되면 불결한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라. 심리전 활동은 논제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대신 현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가장 유리하게 처리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논점으로서는 공산주의 그 자체를 운운하지 않지만 그 대신 실업, 국내의 분쟁, 정치 불안 등의 목표가 되는 국가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문제점을 왜곡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해석 위에서 의논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마. 심리전 활동은 딱딱하고 고정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일 매일의 발전과정에 적응해야만 되며 항상 변화하는 정세에 적합하도록 문제점의 해석을 움직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 심리전 활동은 원거리 조작에 의해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의 심리전 기관이 지령이나 지시를 내게 되는 것이지만 선전물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것을 살포하는 자의 판단에 위임해야 된다.

사. 심리전 활동은 현존하는 모든 편의와 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공작의 목표가 되는 국가의 시민을 무의식전파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전 활동 계획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하고 단조해지지 않도록 동일한 관념을 되풀이하는 반복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전 활동은 때로는 이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심리전 활동에서는 증오에 대해서는 사악에 대해서는 정의를, 허위

에 대해서는 진실을 각각 대항시킨다. 선전의 테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슬로건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흉악한 성격도 때때로 기묘한 심리전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성격은 힘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가장 잘 사람의 주의를 끌기 때문이다. '선전과 공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폭력은 심리전의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독일의 전문가 Eugen Hadamovsky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의 역할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 주의를 심리전 공작원의 의도에 알맞게 조종해 간다는, 즉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 활동은 힘과 목적달성에 대해서 대상자를 직접 굴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저항을 붕괴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상인들이 라디오, 광고를 이용할 때 제품의 구조를 상세히 말하는 것보다 주로 그 장점을 강조하는 것과 같으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론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나 평판이 나쁜 상태의 개선을 약속함으로써 동조자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5. 결론

심리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3자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인 활동이다. 왜냐하면 대중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평 시를 막론하고 수행되는 심리전은 현재와 같이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유일한 무기이며 간접침략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다. 고로 이에 종사하는 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항시 적의 심리전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재인식하여 적의 심리전의 방어 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가상

소 · 중공항공전의 전망

홍 준 표

★ 미사일 공격의 차

소련과 중공 간의 사이는 점차 악화일로에 있다. 중공 측이 소련에 대하여 도전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련은 이 도전을 받는 측에 있다고 하겠다. 만약 소련과 중공이 전쟁을 하였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정보에 의하면 소련의 현재 인구는 2억 3천 2백 만, 병역 제도는 육군이 2년에서 3년, 해군은 4년, 공군이 3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중공 측은 인구 7억, 병역 제도는 육군이 4년에서 5년, 해군은 5년에서 7년, 공군이 5년으로 되어 있다.

정규군은 소련이 316만 5천, 중공은 246만 8천으로 소련 측이 중공보다 다소 많은 편이며 소련은 이 뿐만 아니라 중공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전략 로케트 부대가 있다.

소련은 제1선에다 ICBM 3백 발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1965년보다 30발을 더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미사일의 반수 이상은 제2세대에 속하는 것으로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제1세대의 미사일 보다는 더욱 비밀의 기지에 설치되고 있다.

또한 제2세대의 미사일은 제1세대의 미사일과 같이 강력한 부스타와 파괴력이 강한 탄두를 가지고 있다. 소련은 1965년도에 그들의 붉은 광장에서 행한 시위에서 3단계의 거대한 로케트를 과시한 적이 있다.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이 로케트는 메가톤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험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이 서구진영에서는 간주하고 있다. 소련의 미사일은 한결같이 견고한 진지에 설치돼 있으며 대 미사일의 방공망 ABM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도시 주변에 있다.

MRBM와 IRBM 즉, 중거리 탄두 미사일은 700발 내지 750발로서 대략 전년과 다름없는 숫자이다.

이 미사일의 대부분은 구라파 또는 극동에 배치돼 있는 전투기의 기지를 방어

하기 위하여 설치돼 있는 것이다. 소련이 가지고 있는 산탈이란 명칭의 1단계 미사일은 1천 9백 7십KM의 항속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IRBM인 스킨은 역시 1단께 미사일로서 액체 연료를 사용, 3천 2백 2십KM를 항속한다. 이들은 다 같이 소련국경의 서, 남, 동쪽에 배치돼 있으며 병력은 약 20만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비하여 중공 측은 1966년 5월에 제3회째의 핵폭발시험을 하였는바 중공은 적어도 여기서 2백 킬로 톤의 핵폭탄이 폭발된 것 같으며 이후 2년 내에는 핵병기의 중심이 될 우라늄의 양산이 본 괘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또한 핵탄두 운반의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공으로서는 현재 핵병기의 운반은 TU04 프로펠러식 폭격기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소련과 중공 간의 미사일 세력을 비교할 것 같으면 소련이 단연 우세하다고 하겠다.

★ 약 1만의 소련 공군기

소련 공군은 장거리공군(전략폭격기)과 전술공군(이 중에는 전투기와 경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음), 방공공군(요격전투기뿐), 해군항공부대(전부가 육상에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 항공수송부대 이상 다섯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수는 약 1만기, 병력은 50만으로 보인다.

장거리공군은 서부 소련과 중공 우크라이나, 극동 등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 곁들여 북극지구에는 특별이동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소련의 대륙간폭격기는 최고로 간주하여 2백 5십 기로 추측되며 이 반수 이하의 항공기들은 미공군의 B-52보다 성능이 훨씬 못하다.

그러나 유라시아 지구에는 가장 강력한 중거리폭격기대가 장비돼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약 110기의 4발 제트 엔진의 바이손(MYA-4)과 약 100기의 4발 폭격기인 베아(TU-16), 이 베아의 반수 이상은 유익식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음.

그리고 약 900기의 쌍발 제트엔진의 중거리폭격기인 바쟈(TU-16)와 부라인더(TU-22), 이 부라인더는 초음속의 성능을 갖고 있으며 바쟈 3기를 부라인더 1기 비율로 차차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부라인더 기에는 새로이 공대지 미사일이 장비돼 있다.

소련의 전술공군 세력은 근래 약 6년간에는 별 변화가 없었으며 기수는 약 4천기, 이 중에는 경폭격기, 대지공격기, 요격전투기, 수송기, 헬리콥터, 진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중고기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 것 같으면 MIG-15, MIG-17, MIG-19, IL-28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소련은 구라파의 전장을 중시하는 가운데 구식기를 점차 새로운 전술기로 대체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휘타 SU-7, 요격기 휘슈베트 MIG-21, 초음속경폭격기인 부류와 등이 점차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방공공군은 서서히 그 성능을 높여가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넓혀가고 있다. 병력은 약 25만으로 간주되며 지대

공미사일의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대공미사일로서, 부스타가 붙어 있다.

도달거리는 50km, 고도 24, 385미터의 목표를 포착할 수 있다.

구리휜, 2단계의 부스타 부 대공미사일의 유효거리는 가이드라인보다도 길며, 도달고도도 가이드라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핵병기도 탄두에다 장비할 수 있다.

또한 이 미사일은 트럭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며 야전용으로 쓰이고 있는 대공미사일이기도 하다. 한편 소련은 새로운 미사일 가로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방공능력이 있으며, 한때 모스크바의 광장에 전시된 적이 있다.

소련공군 취역 전투기는 도합 4,500기 정도로서 그 대부분이 MIG71, MIG19이다. 신형기로서는 SU-9와 MIG-21, YAK-25들이 있으며 이들 3기종의 최고속도는 1,930km, 순항고도는 18, 290미터 이상이다. YAK-25는 최근에 취역하였으나 MIG-23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 중공의 공군기는 약 2천 3백기

중공공군의 병력은 약 10만, 기수는 약 2천 3백으로서 소련의 공군세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다. 더욱이 중공 공군의 전략폭격기는 제2차 대전 중에 미군이 사용하던 B-29이다. 그 외에는 TU-4가 약 12기, 경폭격기 IL-28이 150기 정도이며 그 나머지는 거의가 MIG-15와 17이다. 이 외에는 소수의 MIG-19와 MIG-21기가 있다.

한편 수송기 역시도 충분하지 못하며 간항공기 350기의 지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거의 기종이 부속품의 보급이 없으므로 그 취역률이란 극히 불량한 상태이다.

한편 중공의 방공계통은 조기경보망은 있으나 MIG-21의 기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도 아직까지 근대화되기까지에는 요원한 바가 있으며 소련 공군력보다는 훨씬 우세한 편이다.

소련의 육군세력은 2백만, 140개 사단으로 편성돼 있으며 적어도 그 반수 이상이 제1선의 세력이다. 이 중 75개 사간은 구라파, 22개 사단은 중공 러시아, 17개 사단은 극동, 26개 사단은 동구라파에 배치돼 있으며 동독에는 20개 사단, 2개 사단은 폴란드, 4개 사단은 헝가리에 주둔해 있다.

그리고 소련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 미사일은 후록구와 스가트, 시리즈인데 이들은 모두 전차 혹은 특수 차량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는 거의가 240km정도이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련은 480km의 사정거리를 유지하는 샤독구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중공의 육군세력은 225만, 소련에 비해 약 25만이 상회하고 있다. 중공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를 위시하여 라이플 총 등은 거의가 소련제이며 레이더나 일렉트로닉스 등의 통신시설은 아주 원시적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중공군은 야전용의 전술미사일은 전연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간의 로케트 병기가 있는데 이는 전에 소련이 공여했던 것이다. 중공의 공수능력을 살펴볼 것 같으면 기껏해야 2, 3개 대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소 · 중공의 해군과 해군항공력 비교

소련의 해군과 해군항공력은 46만 5천으로 편성되어 있다. 소련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등의 세력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 제2라고 하며 그들의 주력은 잠수함이라고 한다. 이들이 최근 전략상 그 중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미사일 장비의 잠수함과 해군항공부대이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사부라고 하며 사부 미사일은 한때 모스크바에서 전시된 적이 있는데 사정거리는 1,046km이다.

소련의 전술미사일은 처음에는 함선공격용이었으나 최근에는 연암의 표적사격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잠수함의 경우에는 해상에 떠올라 와서 발사를 한다. 소련 해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육지에서 약 500기의 폭격기가 출격하게 되어 있다.

그 외 350기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태반의 폭격기는 소련영토의 북서와 흑해연암에 배치돼 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은 TU-16 바쟈인데 이 바쟈는 5,635km의 항적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로 부라인다기로 갱신해가고 있다. 또한 TU-95 베아는 진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수의 IL-28 비글은 어뢰공격기로서 사용되고 있다.

ASW(대잠수함용기)에는 마제 비행정과 하운드 헬리콥터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중공해군은 13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군항공부대의 병력은 1만 5천, 해병대는 2만 8천, 중공해군기수는 약 5백기이다.

이 중 IL-28 비글 어뢰 공격 겸 경폭격기는 150기, 이외에 다수의 MIG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전투기들은 중공해군에 소속하고 있으나 다 같이 방공임무를 맡고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소련은 중공이 제아무리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게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호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소련이 염려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공이 1958년부터 1970년에 걸쳐 핵병기 운반기관인 대륙간 탄두미사일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였을 경우일 것이다.

만약 소련과 중공이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 장소는 몽고 근방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중공이 소련에 대하여 국경근방에서 대지공격 등을 하겠으나 점차로 전세는 역세하여 매도적인 소련의 전략공군 또는 전술 공군의 공격을 받고 궤멸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모택동이 말한 정신적인 이른바 사상전이란 맥을 못 출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역시 중공은 한국동란시 경험했듯이 어떤 제3의 근대적 국가의 원조를 호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소련과 중공 간에 전쟁이 발발했다면 소련은 미합중국과 손을 잡고 행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것이 사실화한다면 중공은 더욱 세계에서 독립화 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안전살롱

항적요란

김 유 완
중령 11전비단

서언

김포공항을 한번 다녀간 사람이면 수많은 대형의 외국 여객기가 그칠 새 없이 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중형 항공기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대부분이 대형 여객수송기로서 Boeing-707, vair-880과 군용기인 C-141 등이 굉장한 폭음을 터뜨리며 수시로 이륙, 착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활주로 통제장교 감독관으로서 이동 지휘탑에 나가 볼 때마다 이들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거창한 후류가 항공기 뒤에 남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들 귀를 따라 경비행기나 우리 전투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더구나 수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일지라도, 대단히 불안한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다. Final에서 착륙 접근하는 항공기가 저고도에서 심하게 경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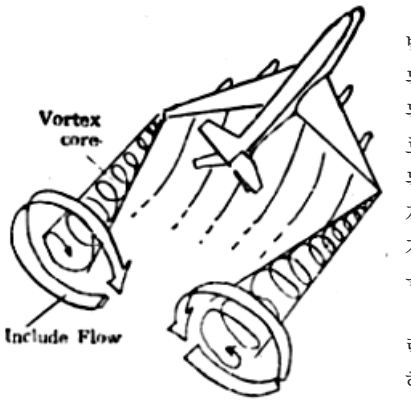
진다든가 이륙 직후의 저고도 저속에서 심하게 경사가 지면서 순간적으로 조종에 곤란을 느끼는 장면을 목격하고 혼히들 후류에 들어간 상태라고들 말한다. 우리는 단지 후류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오로지 후류 하나만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비행 생활에 있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비행안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외국 안전지 Aero Space Safety, 66년 5월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다.

다년간 항공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란은 PROP WASH(Propeller로 인한 후면의 공기유동)로 간주되었었다. 다른 항공기의 뒤에서 발생하는 이 PROP WASH는 대단히 거친 비행, 복행(Goarourd), 그리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HANGAR FLYING에 관한 중요한 과제였었다.

대형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출현과 더불어 공기 소용돌이 요란(Vortex Turbulence)으로 인한 위험이 크게 강조되어 왔으며, 소위 PROP WASH에 대한 문제가 JET WASH와 헬리콥터의 DOWN WASH TURBULENCE를 포함해서 확대됐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항적요란((Wake Turbulence))이 2개의 종류, 즉 추력 흐름 요란(Thrust stream Turbulence)과 날개 끝 소용돌이(Wing tip vortices)로 분류됐다.

한때 PROP WASH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상 소용돌이 요란((Vortex Turbulence)이었다. PROP/JET WASH, 즉 추력 흐름 요란은 지상에서 작동 중인 항공기에 위험하며 대형 항공기 뒤에 바짝 붙어서 작은 항공기가 ENGINE RUN UP을 하거나 또는 빠른 속도로 TAXIING(이륙 또는 착륙시)하는 바로 뒤에 소형 항공기가 있거나 활주하는 것은 조종사들의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PROP 또는 JET WASH는 400-500 feet 떨어진 거리에서 정상작동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단한 위험을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지상 작동(Ground run up)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중인 항공기에는 위험을 주지 않는다.

공기 소용돌이의 중심부는 항공기의 날개가 양력을 일으킬 때 항공기의 날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정 된 공기의 뻗힌 덩어리의 한 가운데에 있다. 1대의 항공기가 이 같은 회전하는 공기의 운동을 동반하는 2개의 꼭 같은 공기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양력을 발생하게 하는 AIR FOIL이 대기를 지나갈 때 날개 끝에 발생하는 AIR FOIL의 늘어진 끝머리 뒤로 잇닿아진 불안정한 공기의 막이 남게 되며 이 날개 끝의 공기의 흐름 때문에 날개 끝마다 뒤로 1개씩 따르는 2개의 완연한 공기 소용돌이 속으로 대기가 말려 들어간다. 말려 들어가는 과정은 항공기의 날개 또는 회전익 전폭의 2-4배로서 항공기 후방 약 200-600feet의 동일한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공기 소용들이의 형태는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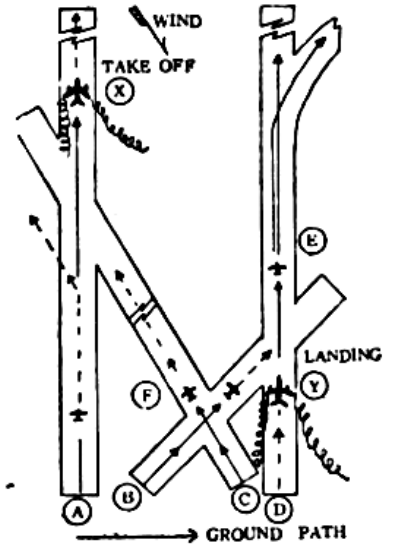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기의 소용돌이도 고정된 날개를 가진 항공기에 의해 발생된 공기의 소용돌이와 같은 모양으로 항공기의 항적 뒤에 잇닿아 남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날개를 가진 항공기에 의해 발생된 공기 소용돌이처럼 내부에 공기 회전을 일으킨다.

AIR FOIL이 대기를 횡당하면서 양력을 만들 때 부양되는 무게에 비례하는 힘이 요란의 형태로 되어 대기에 전파된다. 이 요란은 항공기의 전비 중량, 날개의 전폭 그리고 속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요란의 강도는 항공기의 전비중량에 정비례하고 속도와 날개의 전폭에 반비례한다. 항공기의 전비중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공기 소용돌이의 중심부에 일어나는 공기의 환류는 크다. 그러므로 최신형의 대형 항공기가 최대 전비중량이나 근사한 무게로서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 최대의 내부 회전속도를 가진 공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 소용돌이가 언제쯤(발생시기로 보아서) 항공기에 위험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야아드 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를 아직 갖지 못했다. 계속적인 연구로서 대형 항공기가 지나간 후 약 3분 동안 공기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는 공기의 속도와 공기 소용돌이의 크기는 측정되었다. 조종사로부터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항공기가 지나간 후 5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공기 소용돌이들이 요란이 존재한다고 한 시간 간격을 주어서 따르게 하는 실질적이 아닌 방법이라면 첫 항공기에 의해 발생된 공기 소용돌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항공기 공기 소용돌이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을 피하는 다른 방법들이 알려져 있으며 조종사들이 이들을 적용하고 있다.

왜 나는 큰 항공기 뒤에 생기는 공기 소용돌이 요란 속을 지나거나 그 속에서 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비록 단발 또는 쌍발의 경비행기에 의해 발생된 요란을 경험한 바 있는 조종사라 하더라도 알고 싶어 하는 과제이다. 아마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감명을 줄 수 있는 대답은 공기 소용돌이에 의해 항공역학적인 힘이 경비행기에 가해지는데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조종사의 시도가 결국 항공기 기체 설계의 제한치를 넘어 구조상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가 PROP WASH에 직면해서도 능히 비행기를 조종해온 조종사가 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은 무거운 하중을 가진 대형 항공기의 뒤에서 그가 조우한 힘이 그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능력을 압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전, 낙하 또는 이들 둘이 배합되었을 때 비록 최대의 출력이 주어지고 최대한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공기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공기가 회전하는 율을 본다면 경비행기가 보조익으로 최대한으로 경사를 줄 때의 선회능력의 두 배에 가까운 초당 80 ° (80 ° /sec)의 선회율을 일으킨다. 만약 경비행기가, 무거운 대형 제트 항공기가 일으킨 공기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계속 머무른다면 1500ft/Min에 가까운 하락 기류를 만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분당 1,000~1,200ft의 상승 능력을 가진 경비행기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상승은커녕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그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한 좌우로



LAGE AIRCRAFT	SMALL AIRCRAFT TAKE OFF	LANDING
TAKE OFF at X	B, D, C, A	D, C, B, A
LAND at Y	A, C, E, B	A, B, E, F

FIGURE 2—Example Take off/Landing Alterna tive courses of action.

경사지는 힘, 또는 하락하려는 힘과 경사지려는 힘의 배합으로 인해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그 힘이라는 것은 항공기를 한번 또는 그 이상으로 Roll 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 소용돌이로 인한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곳을 미리 아는 것과 공기 소용돌이에 조우했을 때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 공기 소용돌이는 항공기가 부양하기 전까지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환류는 부양하기 직전 즉 이륙할 때 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기 소용돌이가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공기의 날개가 양력 발생을 멈출 때, 즉 실제로 착륙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히 소멸된다. 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공기

소용돌이가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지표면으로부터 100feet 이상의 높이에서 발생된 공기 소용돌이는 무풍상태에서 공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항공기 날개의 전폭의 반에 가까운 두께로 밑으로 쳐져 있다. 이 지점에서의 공기 소용돌이는 항공기의 항적에서 바깥쪽으로 뒤틀리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한 가지는 소용돌이 중심부에서의 상하, 좌우로의 유동이 대기를 휩싸여 대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바람이 분다면 그대로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공기 소용돌이의 횡적이동을 좌우하는 4-6KTS의 측풍은 풍상 쪽의 VORTEX CORE를 믿고 와서 풍하 쪽 VORTEX CORE가 있던 위치로 오게 하며 활주로 위를 완전히 덮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항적요란을 피하는 방법(How to avoid wake Turbulence)

불행하게도 최선의 조언은 언제나 가장 실용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공기 소용돌이 요란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100%의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종사, 특히 비교적 소형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달려 있다. 초대형의 무거운 항공기가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 소형 항공기를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반드시 효과적인, 최선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항적요란(Wake turbulence)를 피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법칙

대형, 중항공기 후방에서 반드시 비행해야 할 때는 그 항공기의 비행경로 상방에 머물러야 한다. 공기 소용돌이는 지표면 쪽으로 뻗혀 간다는 것과 공기 소용돌이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개가 서로 옆으로 퍼져 합쳐지기 전에 지상 100 feet 가까이 이르기까지는 기단(air mass)을 따라 움직이고 바람이 그것을 소산시킬 때까지는 VORTEX CORE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존재 가능한 수많은 다른 상태 때문에 굳건한 법칙을 세워 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약술된 몇 개의 가능한 절차와 당면되는 조건과 항공기의 형태에 따라서 조종사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공기 소용돌이의 표시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이륙과 이륙

(A) 동일한 또는 평행된 활주로

활주로 제일 끝에서 이륙 활주를 시작하라. 앞서 이륙한 항공기가 이륙한 지점 이전에 이륙할 수 있도록. 정상 이륙하여 상승하라. 그리고 앞선 항공기가 남겨 놓은 공기 소용돌이보다 위에, 그리고 뒤에 위치해야 한다. 몇 분 뒤에 이륙하거나 10~15KTS의 바람이 불 때를 제외하고는 VORTEX CORE내의 공기 환류 현상이 바람에 비록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또한 무풍 상태에서 공기 소용돌이의 횡적인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행된 활주로

위에는 VORTEX CORE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약한 측풍이 분다고 해도 공기 소용돌이는 얼마 동안 땅 위에 멈추어 남아있다.
(B) 교차된 활주로
만약 대형 항공기가 활주로의 교차점을 지났다면 당신은 그 교차점을 지나기 전에 100ft나 그 이상을 상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공기 소용돌이나 얼마간의 추력 흐름 요란에 조우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 든 일반법칙과 대형 항공기의 비행경로 상방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대형 항공기는 대개 전비중량으로 이륙하기 때문에 최대로 강한 공기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의 횡적 운동과 바람의 효과가 추가된다는 것도 기억하라.

이륙과 착륙
(A) 동일한 또는 평행된 활주로
비행기가 착륙한 바로 후에 이륙할 때는 착륙한 비행기가 접지한 지점을 지나서 부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 교차점으로부터 이륙을 시작했을 때에는 바로 착륙한 항공기에 의해서 발생된 공기 소용돌이를 벗어나도록 하라. 몇 분 전에 착륙한 비행기가 남긴 공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B) 교차된 활주로
교차된 활주로 상에 항공기가 착륙한 바로 다음에 이륙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A)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륙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장주(場周, TRAFFIC PATTERN)
장주에서는 재형 항공기의 뒤에서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지 말라. 만약 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몇 백 피트 옆으로 떨어져서 비행하도록 하라. FINAL APPROACH 중일 때는 앞서가는 비행기에 의해서 발생된 요란을 피할 수 있도록 뒤떨어져 높은 위치를 지켜야 한다.

착륙과 착륙
마찬가지로 FINAL APPROACH중에는 뒤쳐져서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활주로 길이가 허용한다면 대형 항공기가 접지한 지점을 지나서 접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VASI(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System이 되어 있는 활주로라면 비행경로를 RED and WHITE의 Slope을 유지, 또는 약간 Pink색을 나타내는 Top bar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인 Glide Slope보다 약간 높게 유지해야 한다.

착륙과 이륙
대형 항공기가 이륙한 뒤 착륙할 때에는 가능한 한 활주로 끝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정상 착륙하고 대형 항공기가 부양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활주로 상에 비행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비록 이륙한 항공기가 있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떠난 항공기로부터 공기 소용돌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요란이 당신 쪽으로 밀려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외국의 공항에 접근해서 비행할 때 CAUTION wake Turbulence! 라는 등의 이륙 또는 착륙한지 얼마 안 되는

항공기로 인해서 발생했을지 모르는 항적요란을 경고하는 조언을 이따금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조언을 들었을 때에는 만약 그것이 비행하려는 항로의 결정과 상황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면 앞으로의 정보를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비록 이·착륙을 위한 인가가 나왔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믿어지면 다른 활주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계획된 비행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인가(Revised Clearance)를 관제사에게 요구하도록 하라. 이따금 Air Traffic Clearance는 IMMEDIATE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Clear for immediate take off. 이와 같은 경우에는 Air Traffic Seperation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만약 당신의 계획된 비행에 보다 적합한 다른 착지를 취할 수 있는 절차라면 그 인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관제사의 기본 임무는 항공기 사이의 충돌방지를 돕는데 있다. 그러므로 관제사는 그의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그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종사를 도울 것이다.

공중전술

기동훈련의 필요성

중령 10전비단 박 홍 순

최근 엄밀한 감독 하에 진행된 공중전투 기동훈련에 참가했던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 때문에 이 훈련이 전 작전가능 조종사에게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유효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관심의 주 논지는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혹은 '훈련 중에 잃어버리는 항공기는 함의된 전투능률로서 이득 보는 것보다 값이 더 나가는가?'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문제를 적절한 제 위치에 두기 위하여 먼저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정의함이 필요하다. 현 공군 사전에는 이 정의가 없으므로 내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의를 내리겠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공중전기 훈련이란 '전투 조종사에게 공중전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훈련을 말하며 부가하여 공 대 공이나 공 대 지이든 그들의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조종하는데 필요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조종사들의 임무에 관계없이 적의 세력이 있는 공중에서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이 능률적인 힘이 되는데 요구되는 학술과 비행 훈련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훈련은 조종사들이 전투 지역에 도달하기 전이나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는 곳으로 침투하여 들어가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몇 가지 공중전기나 특수비행, 많은 G, 대단히 높은 예각이 요구되는 기동 중에 조종사가 그 항공기의 조종능력을 잃어버린 결과로 손실한 항공기를 포함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다. 여기서 관찰한 자료는 1962년에서 1966년 사이에 수집된 것이었는데 기종별로 나누어져 있다. 공표된 600가지 이상의 중 사고를 이 란을 위하여 찾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통계 수치는 적절한 명령서 속에 인가된 ACM계획이 있는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항공기가 포함된 것을 다시 조사해본 사고회수는 다음과 같다. 주 원인만 나타냈었다.
(도표 참조)

도표
1962~1966

기종	총 중사고수	조종상실 사고건수	기타 원인이 없는 통제된 ACM계획
A1E	30	2	0
F/RF-84	76	3	2
F-100	251	12	4
F-104	40	4	0
F-105	147	0	0
F-4	48	6	2
F05	3	1	0

'기타 주원인이 없는 통제된 공중 전기 계획'이라고 제목이 붙은 수치를 제하면 여러 가지 종별의 뜻은 자명하다. 이 종별에는 항공기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를 모아 놓았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ACM 임무라고 암호로 표시된 사고다. 그러나 그것은 엔진 고장, 기체 주요부분의 파손, 혹은 몇 가지의 뚜렷한 감독자 요소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 공중전기 훈련의 필요성을 토의해 보자. 환언해 본다면, 왜 공중 전기가 필요한가?

적성 지역에서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을 때, 목표지로 침투하여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돌아올 때는 종종 적의 공중방어를 피할 필요가 있음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공 대 공이나 공 대 지). 우리 전투기들은 생존하기 위해 적의 위협에 대항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공격을 계속ㅎ하여 목표를 파괴하기 위하여 적시에 기본전투전술을 적용하며 편대원과 협동하여 기동하여야 되고, 그리고 조종사의 고도의 기량이 요구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있다. 방공임무에 배당된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항공기와 적의 항공기를 알아야 하며 무장계통의 능력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부가해석 공중전과 기동술에 능숙하여야 한다. 기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방공작전 문제의 마지막으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발사할 수 있는 위치로 기동하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사활에 관계하는 중요한 것이다. '격추는 자리잡기에서 시작하여 조준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귀에 익은 명담이 있다. 조종사들이 조우하게 되는 공 대 공 충돌이란 통상 짤막한 것이고 승리나 패배는 불과 몇 초 사이에 결정될 수 있다.

이쯤 되면 공중방어임무를 위한 공중전기훈련계획에 대하여 짤막하게 논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공중전기훈련이란 대부분 초창기의 상태에 있다. 지금 이 시간은 항공기를 잃기 전에 어쩌면 그 조종사도 잃기 전에 그 계획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처럼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할 때이다. 이 보고서

에 포함되는 기간에 우리는 4대의 요격기를 잃었는데 이것은 조종사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과 항공기의 최대성능기동에서 조종불능상태에 빠진 결과다. 우리는 또 4대의 다른 항공기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것의 원인은 조심성이 없거나 무식한 기동의 소치인 듯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능력을 획득하는데 덧붙여 공중전기의 직접적인 결과의 하나로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이득이 있다. 조종사들은 그의 항공기에 관하여 전체에 걸쳐 능숙하게 된다. 따라서 조종사는 그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항공기가 조종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식의 사고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상 처리하는 것에 보다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공중전기의 결과로서 전 조종사의 함양된 실력은 네바다주, 넬리스에 있는 전투기사격학교에서 1959년에 뚜렷한 도표로 증명되었다. 전투기 사격교관 과정은 1958년에 다시 시작되었는데 첫 몇 개의 반은 공중전기 보다 대지사격을 먼저 끝냈고 그 뒤 그 계획은 대지사격보다 공중전기가 앞서도록 변경되었다. 이 변경의 결과로써 조종사들은 몇 번의 비행으로 사격에서 충분한 득점을 얻었으며 변경이 있기 전에 같은 회수의 비행에서 보다 더 높은 득점을 얻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계획 변경이 있은 후 그 과정을 수료하는 첫 2개 반의 평균은 그 전의 반, 즉 대지사격을 먼저 끝낸 반보다 20% 나 높았다. 이것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발사대로 이용하는 것에 배양된 실력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훈련조종사들이 변경된 계획 중에서는 대지사격 전에 10~15 시간의 부가적인 시간을 가졌음은 사실이나 이 과정을 받는 조종사들은 모두 이 항공기에 고도로 숙달되어 있으므로 얼마 되지 않는 부가적인 비행시간은 사격성적에 대하여 중요한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 여기에 참가자격은 제트전투기 1,500시간에 F-100 비행시간이 최소 500시간이 있어야 했다.

평시에는 그러한 것을 조종사들의 배양된 실력과 자신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전투의 결과로서 또는 일반에서 발간되는 주간이나 월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유효한 결론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수치가 완전하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노력하는 분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확신감을 준다. 그러한 자료출처에 의하면 동남에서 공중전으로 적기 60대가 파괴되는 반면, 적기의 공중공격으로 우리는 14대를 잃었을 뿐이다. 덧붙여 이 기간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공 대 공 충돌이 있었다. 이런 충돌이 있을 때마가 우리 조종사들은 살기 위하여, 혹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얼마의 기동이 필요했다. 우리 조종사들이 이런 조건에서 작전을 하기 전에 공중전기의 이득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전투손실은 극적으로 증가되었을 것은 뚜렷하다.

1967년 4월 말까지 1,500개가 넘었다. 이 유도탄에 우리는 33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이렇게 발사된 하나 하나의

유도탄에 2대 혹은 그 이상의 항공기가 이 위협에 응수하여 항공기 최대성능의 공중전기형 기동을 하였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다.

우리가 전술항공기로써 실행한 공격회수를 본다면 아무리 줄여서 이야기한대도 통계수치는 어마어마하여 인상적이다. 이 전투에서 전술전투기로써 우리는 225,000회 이상이나 출격한 것으로 보인다. 매 출격에서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최대성능으로서 기동하는 것이 필요하였거나 필요할 뻔했던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공중전기 훈련계획에 있어서 최대 성능이란 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토의해 봄이 적당하겠다. 최대 성능비행은 전 속도범위와 G를 포함하여, 기동의 대부분은 제법 고도에서 행하여지면서도 가할 수 있는 최대의 G보다는 적은대서 기동하는 것이다. 요약하여 1962년에서 1966년의 5주년 동안 인가를 받아 적절한 감독 하에 실행된 공중전기 훈련 중 우리는 8대의 전술전투기를 잃었다. 기간에 다른 모든 원인으로 이런 동기종의 항공기를 615대나 잃었다. 이것은 이 훈련으로 잃은 항공기는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이 투자의 결과는 60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능력과 조종사들에게 발사된 1,500개 이상이나 되는 유도탄의 위협에 안전하게 대처해나간 것과 우리 공격군에 대한 적 항공기의 수많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반격한 것이다. 적의 공중 위협은 주로 우군의 전폭기에 집중되었다는 것과 적의 유도탄 공격은 우군의 전공격력에 향하였음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적절히 감독된 공중전기 훈련계획에 임하는 조종사에게와 꼭 같이 전폭기 조종사에게도 요구된다. 앞의 토론에서, 적의 위협이 있는 상태 하에서 항공기를 작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모든 조종사에게는 공중전기훈련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부가하여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공격전술과 방어전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필요한 계획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층의 지휘관이나 감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본적인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각 기종에 따라서 최소 기동속도와 고도가 설정되어 엄격히 엄수되어야 한다.
2. 조종사에게 기본적인 기동을 가르치고 그의 기술을 최대성능 기동에 가까운 기동에서 인정할 만한 기준까지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공중전기 임무는 자격이 인정된 공중전기 교관 조종사와 함께 비행하거나 그의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3. 공 대 공 유도탄 전술을 하도록 외형이 갖추어진 때를 제외하고는 초기 공중전기 훈련은 외부장착물이 달리지 않은 항공기에 제한되어야 한다.
4. 모든 훈련조종사는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좀 더 어려운 기동으로 순서로 옮겨져야 하며 따라서 다음 간계로 옮아가기 전에 한 단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동을 만족하게 끝내야 한다.

5. 이 훈련 계획은 각 기종과 임무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이 다섯 가지의 제의가 우리 훈련 계획을 개량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의 안전과 효율을 즉시로 증가시키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적절한 감독과 모든 조종사가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임무를 끝내겠다는 책임감의 인식을 확실히 하면 이 필요한 훈련이 조종사에 가능하게 되며 동시에 귀중한 전투자원의 손실을 최소로 하여 줄 것이다.

조종사가 이 기간 동안에 상기한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세 가지만 들어보겠다.

○ 어느 날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어 있는 전투기가 다른 항공기에 대단히 가깝게 접근하여 바렐 로울식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그 후 수직 로울(Roll)을 하고 저고도 급강하에서 기수를 들려고 잡아 당겼으나 Spin에 들어가 Ejection 했음.

○ 아마 이 전형적인 예 안에는 저고도 항법훈련에 가담하고 있는 조종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저고도 항로상에서 장기는 기수를 들어 올려 배면을 만든 뒤 잠시 멈추고는 제 자세로 돌아왔다. 장기를 그대로 쫓으려 하던 중에 요기는 지면에 충돌하였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뚜렷하다. 장기는 자기 편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요기는 자신의 실력을 넘는 것을 하려다가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5년 동안 공중전기 훈련을 하는 중에 8대의 전술항공기를 잃은 대가를 위하여 우리는 적의 위협이 있는 공중에서 작전하며 생존하기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조종사의 기술 향상을 증명하여 보였고, 항공기 조작술에 대한 조종사의 지식을 통하여 비행안전을 강조했다. 이것에 대한 대가는 대단히 크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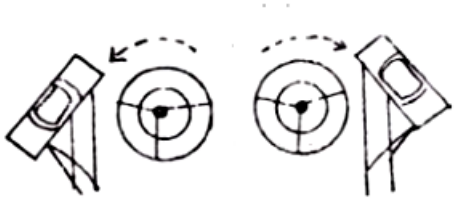
동계

차량사고 방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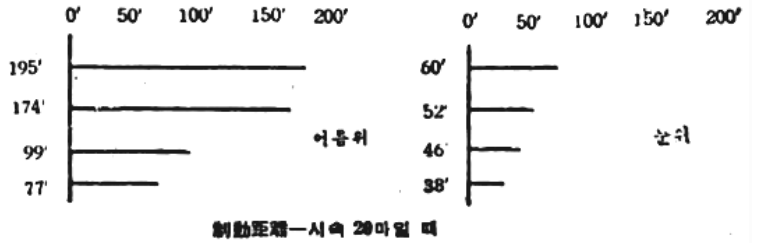
김 성 님
소령 안전감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춥고 길며 차량운행에는 여러 가지 장해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됩니다. 동장군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동계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겨울은 우리들 모두가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특히 운전병에게는 더욱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해를 극복하여 사고 없이 군무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운전병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명심하여 올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견인력 감소 : 얼음, 눈, 서리, 습기 등은 차의 견인력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차량운전을 곤란하게 합니다. 차량의 각 타이어는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의 마찰에 의존합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노면은 충분한 것이 못 됩니다.
2. 감속 : 발차할 때나 정차하고자 할 때 또는 미끄러운 노상에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는 서서히 하여야 합니다. 얼음이나 눈 위에서 발차하고자 할 때는 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2단이나 1단 기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도로상태에 따라 속도조절 : 눈, 얼음, 서리, 물이 덮인 도로에서는 속도제한 표식에 불구하고 도로상태에 따라 속도를 알맞게 조절하여야 합니다.
4. 추종거리를 넉넉히 : 얼음 위에서는 정차거리가 길어지므로 앞 차와의 추종거리는 따라서 늘려야 합니다. 추종거리를 늘림으로써 필요한 긴급정차와 안전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5. 펌프심 제동 : 긴급정차를 제외하고는 차를 세우고자 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에 힘껏 밟지 말고 약간씩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하면서 정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바퀴의 회전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6. 타이어체인 사용 : 타이어체인은 잘 정비하고 차바퀴에 알맞은 것을 늘 가지고 다닐 것이며 필요할 때는 즉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이어체인을 사용하면 차의 견인력을 늘리고 정차거리를 짧게 합니다.
7. 창문을 개방 : 차창을 약간 열어 놓음으로써 일산화탄소의 중독을 면할 수



있고 유리창에 얼음이 서리지 않습니다.
8. 차가 미끄러질 때 : 차의 후미가 왼쪽으로 미끄러질 때는 차의 앞바퀴가 왼쪽으로 가게 핸들을 왼쪽으로 틀고, 반대로 후미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바른쪽으로 틀어야 합니다.
9. 빙설노상에서는 제동거리 증가 : 눈이나 얼음이 쌓인 도로에서는 차량의 정체거리가 보통 건조한 도로보다도 3내지 11배나 길어집니다.
10.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여유를 : 다른 차량이나 보행인도 미끄러워 곤란 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게 주의하고 안전여유를 주며 운전함이 예의입니다.
11. 뜻밖의 사태를 예상하며 커브를 돌 때, 다리를 지날 때, 도랑을 건널 때, 한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들어갈 때는 뜻밖의 사태를 애기하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12. 윈도우와 와이퍼의 손질을 :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눈이 왔을 때나 노면이 젖었을 때는 더욱 눈이 부시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운전사를 돕기 위하여 얕은 등(Low beam)을 켜야 합니다.
13. 신호는 미리 : 신호는 미리 해줌으로써 상대방에게 행동을 취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14. 커브나 교량에서는 추월 금지 : 커브나 교량에서 선행차를 앞지른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어리석은 것이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고갯길 운전 : 고개를 올라가기 전에 충분한 탄력을 얻어서 낮은 기어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감속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개너머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6. 배기장치는 완전정비 : 배기장치가 잘못되어 가스가 차내로 들어오지 않은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 가스는 무색, 무취, 무미합니다. 맡으면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17. 동력 발생원리 공식
동력 발생원리=1/2 x 중량/32.2 x 속도 x 속도
동력은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직선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할 때 생깁니다. 그 힘은 물체의 중량과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에 따라 강해집니다. 한편 동력이 물체의 중량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변하지만 또 속도의 제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동력결정 공식은 위와 같으며 예를 들어 300파운드 무게의 차량이 시속 30마일(50km)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생기는 동력은 90,186파운드가 되며 같은 차량이 60마일로 달릴 때는 그 동력은 360, 745파운드가 됩니다. 이 힘은 차를 120피트 올리는 힘과 맞먹습니다. 만약 이 차가 시속 60말(약 100km)로 큰 나무나 개체에 부딪쳤을 때 2피트 이내에 선다면 그때의 동력은 180.372파운드나 됩니다. 또 150파운드의 사람이 그 차내에 타고 있었다면 그는 9,018파운드의 힘(9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힘과 동일)으로 윈도우에 부딪치고 맙니다. 이 힘을 충격력이라 합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력=동력/정차거리
18. 마찰력과 공식
마찰이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부딪칠 때 일어나는 저항력을 말합니다. 이 저항력이 곧 잡아당기는 힘은 물체표면의 성질에 따라 변합니다. 두 표면 사이에 이루어지는 저항력을 마찰계수라 합니다. 이것은 한 물체의 중량과 그 물체가 수평으로 미끄러져 나가는데 필요한 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어떤 물체를 일정한 물체를 일정한 표면에서 미끄러지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그 물체의 중량보다 적습니다. 그러므로 마찰계수는 언제나 0과 1사이가 됩니다. 이 마찰률은 두 물체의 잡아당기는 힘의 단위이므로 마찰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일 바닥에서 10파운드의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2파운드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때 마찰계수는 2/10=0.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파운드의 물체를 융단자리에서 잡아당기는데 8파운드의 힘이 필요하다면 e.F=8/10=.8이 됩니다. 그러므로 융단자리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타일 바닥보다 4배나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운전병들은 마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브에서 뒷바퀴가 얼음 위에 있는 차는 움직이기가 힘들므로 이때 모래를 뿌리는데 이는 마찰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눈길을 달릴 때 타이어체인을 감응 것도 마찰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 표면에 눈이나 얼음이 있는 곳을 과속으로 달려가면 차는 미끄러져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커브에서는 차를 도로 위에 멈추게 하는데 마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원심력은 차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며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은 차가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현명한 운전병은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19. 원심력 :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노면과의 횡방향의 마찰과 커브의 경사면에 걸리는 무게에 의하여 차량은 커브에 연하여 돌아갑니다. 속도와 커브의 곡률이 증가하면 원심력도 증대합니다. 원심력이 증대하여 측방의 마찰과 경사의 효율을 초과하면 차량은 커브의 단선방향으로 벗어납니다. 이 원심력의 요소 중에서 운전병으로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차량운행 속도뿐입니다. 커브에 접근했을 때 운전병이 속도의 조정을 잊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도로건설 기술이 발달되고 또한 커브의 구축에는 안전설계법을 적용하고,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전표식도 적절히 게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도로의 커브는 조심성 있는 운전병으로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로에는 커브가 급하고 또한 경사도 완화시키지 않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고속도로 커브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특히 노면이 미끄러운 눈길이나 얼음 위에서는 원심력에 의한 위험성이 대단합니다.

이상 기술한 것은 겨울철을 맞는 운전병 여러분에게 꼭 알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데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운전병 여러분의 평소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욱 공군임무 수행에 안전하게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서의 조류충돌방지

최 익 순
소령 안전감실

큰 프로펠러를 가진 왕복기관의 항공기는 비교적 조류에 대한 위험성이 적었다. 이러한 항공기들의 속도는 느리므로 큰 파손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트 엔진의 발전과 더불어 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대되었다.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항공기 주요부분의 파손 또는 방풍판이 파열되면서 뚫고 들어오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 되었다.

특히 제트 엔진의 강력한 흡인력은 움직이는 어떠한 물체라도 흡인하기에 좋은 상태에 있으며 사실상 현재까지 지상 작전 중에 사람을 인입하여 생명을 빼앗은 일도 드물지 않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Compressor Blade는 매우 부서지기 쉬운 것이며 외부물체로 인하여 하나가 파열되면 연찬반응을 일으켜 파손을 입는다.

이와 같이 한 마리의 새로 인하여 비록 한 개의 Blade가 파열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엔진 전체의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조류 충돌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NATO에서는 조류충돌 방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미국 내에는 Interagency Council이 구성되어 FAA와 미공군 기타 많은 기관이 행동과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1956년 1월부터 1966년 12월까지의 미공군에서 보고된 조류충돌 문제에 관한 연구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목적은 조류충돌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내 또는 국제적인 기관에 대하여 구성 있는 통계적 수자를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공군의 임무수행에 장해가 되는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며 또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위험요소를 탐지하도록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시간적으로 보아서 계절별과 일중별 조류충돌 사고의 분포이다. 가을에는 속도가 빠른 극전선(Polai front)의 이동에 따라 대조류군이 남쪽으로 이동한다. 12월과 1월에는 조류의 활동이 거의 없다.

봄이 되면 기상변화가 점차적으로 있으므로 조류의 이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하여 4월에 들어 최고가 되며 5월에 끝나게 된다.

그림 1은 미공군의 하루 24시간 중의 조류충돌 분포이다. 대부분의 조류충돌은 사람의 시력이 가장 좋은 낮에 일어난다. 그리고 충돌 전에 새를 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발견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경우도 거의 없으므로 시정(視程)은 조류충돌의 한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림 2는 비행단계 분류에 의한 조류충돌 발생 분포이다. 61%는 비행장의 1마일 이내에서 39%는 비행 중 항로상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14%는 저고도비행이었으며 25%는 정상비행중에 발생하였다.

조류충돌의 위험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더욱 증대된다. 고도 100피트 이내가 27%, 100~2,000피트 사이가 25%, 2,000~3,000사이가 21%이다.

그림 1. 조류충돌건수/일중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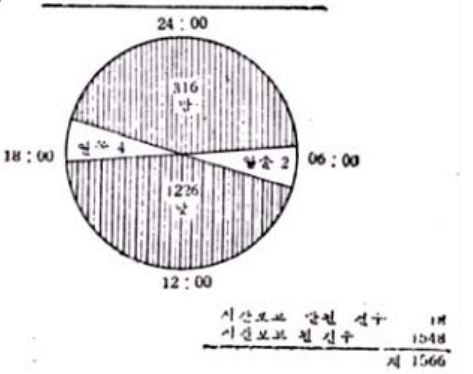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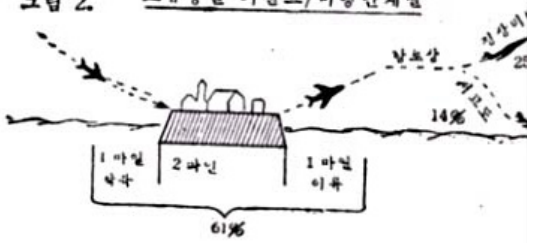


그림 2. 조류충돌 리센트/비행단계별



반면에 드물게 보는 고고도 조류충돌도 무시할 수 없으며 고도가 높을수록 더 큰 새가 충돌하므로 승무원에 대한 위험도 증대된다. 새는 고도 얼마까지 높이 날을 수 있는가.

항공역학적으로 이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러기는 20,000피트로 보고되었다. 생리학적으로 새는 사람보다 훨씬 고고도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캐나다에 있는 조류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청동오리는 저기역실 30,000피트에서도 답차(예: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를 잘 돌린다고 한다. 즉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조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 3은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제트 연습기 가운데 T-38은 매우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다. Century Series로서 After Burner를 가진 초음속 항공기로 아음속 항공기에 비하여 높은 율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초음속비행은 조류가 나는 고도

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차이는 가속의 비율에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된 대부분의 조류충돌에서 새의 종류를 정확하게 식별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 식별된 것으로는 갈매기, 찌르레기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비행장 부근에서 일어나는 조류 충돌을 보면 각 비행장마다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특수한 상태가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비행장 근방에 서식하는 조류의 수에 따라 충돌 위험성의 다소가 결정되며 또한 그곳에 서식하지 않으나 새떼의 이주에서 생기는 위험은 단연비행 중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림 4는 미공군에서 11년간에 걸쳐 보고된 조류 충돌건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1965년 이전에는 항공기 파손을 초래한 조류 충돌만의 6배에 해당할 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1966년에 조류충돌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고가 많아짐에 따라 조류충돌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저고도와 장주 내에서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비행은 더 짧고 더 빠르게 되어감에 따라 조류충돌의 가능성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미공군에 보고된 조류충돌 건수(1956—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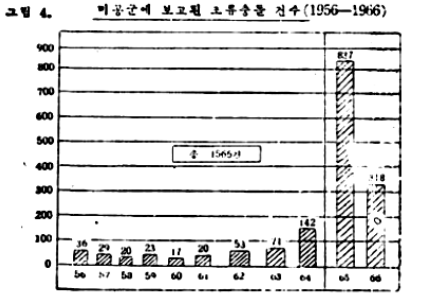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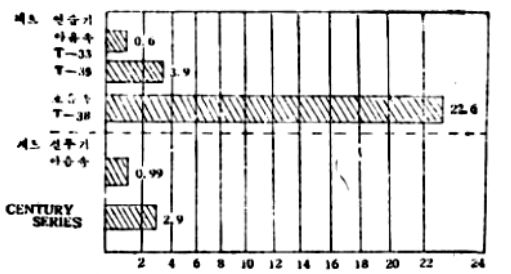


그림 3. 조류충돌율 속도, 비행유형



사고 요약(미공군)

1965년도에 보고된 839건의 조류 충돌 중 중사고나 경사고를 초래한 것은 없다. 이중 294건만이 항공기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고 545건은 전혀 손상이 없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조류충돌에서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경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 충돌마다 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써 1962년 Maryland의 Viscoant 여객기의 추락 사고를 들 수 있다. 이 대형 항공기는 백조와 충돌하여 수평안정판에 큰 파손을 입고 조종불능으로 추락되었다.

1965년과 1966년에 미공군에서는 조류충돌로 인한 중사고는 없었지만 과거에는 다음 같은 중대한 조류충돌 사고가 있었다.

○ T-38제트 연습기는 이륙 직후 바다 갈매기와 충돌하여 갈매기는 방풍판을 뚫고 조종사의 얼굴에 부딪쳤으나 헬멧과 visor로서 큰 손상을 면하고 F, O, D로 인한 양쪽 엔진의 파손으로 조종사는 탈출하였다.

○ T-37제트 연습기는 조기 비행 중 큰 학과 충돌하여 학은 방풍판을 뚫고 들어와 좌측 좌석의 조종사를 즉하게 하였으며 남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귀환 착륙시켰다.

○ F-100은 이륙시 바퀴다리를 올리기 직전 큰 갈매기와 충돌하여 착륙시 손상을 입은 바퀴다리가 들어가 버렸다.

○ F-104는 이륙 활주 중 기수를 들 무렵 갈매기가 인입되어 엔진 고장을 일으켰으며 활주로 초과저지망 접촉시 항공기는 파괴되었으며 조종사는 이탈하였다.

이들 사고 중 3건은 조류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항공기 기체 중요부분의 파괴, 흡입으로 인한 엔진 고장, 방풍판 침입으로 인한 승무원 파해 등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항공공업과 산업에 미치는 조류충돌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공군에서 매년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00만 불로 추산되고 있으며 1965년도 조류충돌로 인하여 13만 불짜리 엔진 75대를 교환하였다. 한편 한국공군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현황은 7건 중 6건이 제트 항공기에서 발생되었고 그중 4건이 350노트 이상의 고속에서 충돌되었으며 1965.5.29. 발생한 사고는 조종사가 비상탈출 할 뻔한 사고로서 조류충돌로 인한 중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비교적 높은 고도(5.000피트)에서는 큰 새가 부딪치므로 피해가 크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조류충돌은 2,000피트 이하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엔진 인입구에 방어 장치나 강한 방풍판의 제작 또는 조종사의 야간용 Clear Visor를 장치한 이중 Visor의 헬멧 등 보호 장구가 더욱 강화되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책으로서는

1. 쓰레기더미나 비위생적인 시설을 제거함으로써 곤충을 먹는 조류가 모이지 않게 할 것.
2. 무성한 잡초목을 제거하여 조류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조종사로서 조류충돌에 관하여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1. Visor가 큰 보호 역할을 하여 준다는 사실(특히 저고도 고속에서 위험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2. 조류는 자중을 이용하여 급 낙하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조류를 수평고도로 발견했을 때는 기수를 당겨 올리면서 피하도록 할 것.
3. 충돌 사고의 대소를 막론하고 철저히 보고함으로써 공군의 사고통계 자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조종사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자료는 미공군 Aerospace Safety 1967년 11월호 및 한국공군 조류충돌 사고 통계에서 발췌하였음)

활주로

가시거리

대위 11전비단 이 양 호

활주로 가시거리

-조종사 여러분은 악시정 때문에 모기지에서 착륙하지 못하고 예비기지로 기수를 돌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제 활주로 가시거리(Runway Visual Runge)는 최저 시정 이하에서도 착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계기접근을 하는데 곧 새로운 용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안개 낀 모기지에 착륙하려고 계기접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착륙 후 집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더구나 친구와 한잔하기로 약속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접근관제소에서 주는 기상통보는 '300 feet overcast 1/8 miles Visibility in fog, RVR 2,400feet'이었습니다.

이 기지의 최소한 시정이 1/4 마일이니까 부득이 예비기지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친구와 한찬 한다는 기분은 사라지고 불편할 잠자리와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예비기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지막 부분 RVR 2,400피트가 무엇일까?

새로 나온 AFR 60-27(미공군)은 착륙 최저치를 결정하는데 RVR라는 새로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정의하기를 활주로 가시거리(RVR)란 조종사가 활주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대표적 수평거리를 100피트 단위로 표시한 계기측정시정, 또는 간단히 착륙활주로의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시정(prevailing visibility)와 RVR에 의해서 두 가지 착륙 최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록 새로 나온 AFR 60-27에 그렇게 특별히 명시해 있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RVR을 포함시켜 접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조종사들에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정을 측정하는 것에 관하여 보다 철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이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용어이긴 합니다. 기상학자는 '시정이란 공기를 통한 빛의 전도 또는 단위거리당 빛의 감소량을 의미한다고 하며, 비행중인 조종사는 지상에 있는 물체 또는 타 항공기를 얼마나 멀리서도 식별할 있는가로 결정하여 착륙하려고 계기접근을 하고 있는 조종사는 활주로 접근등이나 활주로등을 얼마나 멀리까지로 볼 수 있는가로 정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시정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몇 개의 명칭과 약자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상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시정을 사용합니다. 우시정이란 '알고 있는 물체를 관측자가 식별할 수 있는 평균거리 또는 최소한 반수평선원 위의 25촉광을 식별할 수 있는 평균거리이다.'

미국 기상국에서도 활주로 시정을 사용합니다.

활주로 시정이란 '관측자가 알고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주어진 활주로 방향으로 바라보는 25촉광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공군에서는 활주로 시정-활주로등을 최대의 조명도로 했을 때 조종사가 볼 수 있는 거리를 Mile로 표시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현재 군 기상대에서 공히 사용하고 조종사에게 가장 요긴한 시정치를 제공하는 활주로 가시거리(RVR:조종사가 얼마나 멀리서 착륙방향 활주로의 활주로등을 볼 수 있는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상관측자가 조종사와 관제사에게 가장 완전한 기상통보를 해줘야 하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상보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공군기상대는 시정이 대단히 나쁠 때 우시정과 함께 활주로 가시거리(RVR)를 통보하는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RVR이 6,000피트이거나 우시정이 1마일 이하인 경우는 통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조종사가 활주로등을 얼마나 멀리서 볼 수 있는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의심할 것입니다.

확실히 기상대는 RVR조건을 통보하는 조종사를 매 수분마다 기대할 수 없으며 기상 관측자를 활주로 끝마다 배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대에서도 활주로

착륙지점 가까운 위치(500피트 되는 곳)에 빛의 감소량(희미해지는 광도)을 측정하는 전자시정 측정기라고 불리는 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시정 하에 몇 차례의 실험으로 착륙하는 조종사가 활주로등의 여러 가지 조명도를 볼 수 있는 거리와 이 계기로 측정한 것이 같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숫자적인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얻은 수치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받은 활주로 가시거리(RVR) 수치는 보통 조종사들이 보통 항공기에서 활주로등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비행 조건 하에서 완전한 가시거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보통 조종사라고 수긍이 가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C-141은 보통 항공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주로 가시거리가 정확해질 수 있겠는가? 답은 RVR이란 기상관측기가 모든 조건 하에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사치입니다. RVR이란 조종사가 활주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대표적 수평거리를 나타내는 수치를 기계적으로 산출해낸 것이라는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보통의 조건 하에서 보통 조종사들이 본 거리보다 거 정확하게 측정되었을 것이다.

활주로 가시거리(RVR)를 사용할 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다른 기억사항은 RVR이란 기상 관측자에 의해서 관측되어 조종사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지휘탑과 접근관측소에 보내지는 것이며 RVR이란 현재 활주로등의 조명도에 따른 일분간의 평균치이며 시정과 항공기 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륙이나 착륙하는 항공기가 없으면 전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빛은 낮은 광도(2내지 3)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당신이 어느 기지에 첫 번째 내리려는 조종사라면 낮은 조명도에 기준한 활주로 가시거리(RVR)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RVR이 아주 적다면(Below min 또는 Below min에 가까울 때) 착륙을 하거나 예비기지로 갈 최종결심을 하기 전에 보다 높은 조명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상 전문에 관측자가 수신하는 RVR은 핵기지 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높은 조명도(일반적으로 5)에 기초를 둔 10분간의 평균치입니다.

10분간의 평균치는 그것이 높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조명도의 사용은 통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와 관제사는 착륙할 때, 가장 높은 시정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VR 개념이 채택되기 전에 FAA에서 수천 번의 착륙 실험을 하고 그 이후도 많은 실험을 실시한 결과 RVR은 조종사에게 대단히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민간 여객기 조종사들도 O, HARE나 JFK 비행장 등 몇몇 활주로에서 활주로 가시거리(RVR)를 요구하여 착륙 결심을 하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RVR란 조종사가 활주로를 보고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지시기로서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에 FAA도 계기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데 활주로 가시거리만을 사용(Ceiling에 무관)하도록 인가하고 있습니다.

RVR 사용 경험을 더 얻은 후에는 FAA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조종사로서의 당신에게 RVR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높은 조명도의 활주로등은 우시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25촉광보다 더 멀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RVR은 일반적으로 우시정보다 높으며 이러한 관계로 우시정이 착륙 최저치 이하일지라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합니다.
(도표 1 참조)

둘째, RVR은 활주로의 착륙방향을 따라 측정해서 우시정보다 실제 착륙 조건을 더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FAA와 미공군에서 어떤 경우에는 활주로 가시거리 최저치를 우시정 최저치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접근등이 있는 계기착륙방식(ILS)의 최저치가 우시정은 1/2마일(2,640ft)이지만 활주로 가시거리는 2,400ft이다(도표 2 참조).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모기지에 표준접근등이 있고 정밀접근 Radar가 있으며 설정된 최저치가 ceiling 100ft, RVR 1,600ft라면 RVR 2,400ft의 조건으로 당신은 결정된 고도에 도달하면 활주로를 볼 수 있다는 충분한 기대를 갖고 PAR 접근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결국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친구와 만나서 술도 한잔하게 됐습니다.

우시정	RVR(낮)
1/8 miles 660 feet	3 4 5 900feet 1,500' 1,900'
1/4 " 1,320'	1,400' 1.500' 1.900'
1/2 " 2,640'	2,640' 2.640' 3,100'

도표 1. ※도표는 필요한 부분만 예시했음.

Type of Approach	Ceiling	VSBY	RVR
PAR with HIRL & US STANDARD (A) LIGHTS	100'	1/4	1,600'
ILS US STAND (A) APPROACH LIGHTS	200'	1/2	2,400'

도표 2. 미공군 착륙 최저치

안전과 각성

소위 30방관단 윤 석 태

시점의 흐름은 20세기의 과학만능시대로, 항공기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미·소의 냉전 속에서 중요한 군사무기로서 등장했다. 현재 냉전중의 수년간에도 미·소는 우수한 항공기 제작에 각축전을 벌였고 현재 확대일로의 월남전엔 이 경쟁이 더욱 치열한 감을 준다. 항공기 속도의 가속, 대수의 급증, 공중충돌 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비행안전이 무엇보다 공군 당국에서 중요과제로서 다루어졌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인은 비행의 필요 불가결한 교통편인 여객기에 대하여 대대한 관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나 사회에서 전투용 격투기나 여객기의 추락사고가 났다고 하면 각 신문에서는 대서특필, 경위 및 결과를 보도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항공기의 추락사고는 수없이 많으며 월남 공중전의 희생의 제물인 팬텀 미그기는 예외로 하더라도 평화시의 기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고는 종종 있다. 더구나 물질적으로 Underdeveloped country 문화적으로 Backward country 구미(歐美)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은혜적 구호인 Developing country라는 후진적 굴레를 벗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항공기의 자가생산은 염두도 못 내며 모든 것이 미국에서 제공되는 원조용 항공기에 의존하고 이들 항공기마저 노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비행기 하나의 손상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손실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재산상의 손실 인명피해는 더욱 막심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바 있었던 C-46 수송기의 추락사고, 수원에서 발생한 F-5A의 추락사고 등은 비행안전의 한 중요한 숙제이며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원인 분석 연구, 비행안전회의의 발족 등 여러 가지 요인봉철의 방법이 강구되었다. 비행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조종사에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보조적인 업무로 정비들의 비행정비, 관제사들의 관제 기타 각종 근무자들에게도 책임한계가 명백하며 비행안전을 support할 책임은 전 군에 미치는 것이며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 군 전 민간에게도 미친다. 전염병에도 방역이란 대책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매사를 운명에만 맡기는 역사적 필연성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1. 모든 규정 절차의 이행 및 재검토 복잡성의 회피, 나아가서는 군민간의 PR(Public Relations)의 강화에 비행안전의 요체가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행연석인 비행안전회의라는 모임이 있다. 다수인의 종합의견을 동원하여 비행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공중충돌로부터 야기되는 파생적인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안출해내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 하겠으나 서로의 책임한계만을 주장하는 나머지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비행안전회의가 공군 비행안전 발전사에 크게 기여하고 해마다 줄어가는 사고가 이 회의의 업적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현존하는 비행안전수칙 및 모든 규정 아래에서도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의 재검토와 나아가서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적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또한 안전이란 구호만 소리높이 외치지 말고 각종 매스미디어의 동원 이외 PR에 총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PR의 대상자는 군인, 군속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여야 할 것은 물론 각종 선전책자, 포스터, 방송,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이 유기적으로 동원되어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비행안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2.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및 기타 근무자들의 자각과 사기앙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공기 사고방지 업무의 실증과 교육상의 요구를 나타내고 항공기 사고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3M(Mam, Machine, Media)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람, 기계, 환경의 3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적요소로서의 Man의 역할, 책임 및 이의 조정문제가 극히 중요하다. 항공기의 자국 생산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추어 이의 장비실태의 재검토 및 이의 창의성 있는 정비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종사들은 조종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여 이들 기계에 대한 지식을 숙지함은 물론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연마하여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정비사들은 최대한의 창의성과 착실한 근무, 철저한 예방정비로서 노후화한 기재일망정 사고 발생요인을 철저히 봉철하여야 한다. 끝으로 벽고지에서 불철주야 방공의 임무를 다하는 관제사들의 착실한 근무 및 이들의 사기앙양이 중요하다. 관제사들은 모든 규정을 숙지하여 항공기의 관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관제를 피하여야 한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관제사가 항공기를 관제하다가 공중충돌을 야기하고 조난중의 항공기 구조에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조종사가 공중곡예비행을 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TRAINER나 ALERT 급 관제사가 어려운 요격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들 관제사들은 불철주야 벽고지에서 방공임무를 다하고 있다. 문화적인 혜택과

일반사회의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된 채 벽고지에서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다. 관제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인 만큼 이들은 앞으로 대우를 하여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충분한 오락시설, 건강문제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처우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방공에 대한 의식의 고조와 사기의 앙양으로 우리의 방공망은 철통같이 완벽을 기하고 비행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상기에서 비행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논하였거니와 사고의 발생원인은 사람, 기계, 환경(Mam, Machine, Media) 사이에 착잡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비행안전은 이들 사자간의 유기적인 분석 및 연구, 각 실무자들의 명백한 책임한계, 이들의 인간관계의 조정과 처우개선을 통하여서만 만전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비행안전은 일국의 공군전력의 척도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글을 맺는다.

정의의 병폐를 극복하자

병장 30방관단 이 길 원

안전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거나 적어도 상당한 기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측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아 무방하겠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을 위한 각종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의식의 고취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사고의 예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사고 후의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쓰고 있는 '안전무결'이란 용어는 그 개념이 너무 강경한 인상을 주어 하나의 불합리한 도구마(DOGMA)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어떤 조건하에서의 완전무결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인간능력의 100% 발휘라 일컬을 수 있다.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로 마련된 그 안전계획에 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계획은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극히 세부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규정하여 조그만 허점이나 과오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일단 채택된 것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안전계획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대체로 각종의 지시나 주의사항, 취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것과

표어, 표말, 표식과 경고문 등을 들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일정한 장소에 처한 사람이 어떤 일이나 물체를 수행하고 취급할 때, 성실히 준수하고 또한 참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의 준수는 곧 안전유지의 첫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한 안전유지의 개념은 사고의 원인이 인위적인 것에 국한하기로 하자.

사실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 불가항력적인 것과의 구별은 모호한 일면도 있으며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그 한계는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나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것은 대개 인간의 실수, 부주의 혹은 불성실에서 연유한다고 보아 대과 없겠다.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모든 계획은 이런 인간능력의 저조현상을 전제로 해서 마련되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불완전성을 그것이 보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전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안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지상, 비행사고는 물론 계획 그 자체에도 결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인간의 부주의, 불성실이 보다 많다는 사실을 간주할 수가 없다. 문제는 그런 계획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의 태도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부주의와 불성실은 근무의욕의 저하로 인한 방관과 태만이란 내적인 요인과 정의에 의한 타협과 타인과의 강제적 또는 변방 합의에서 이루어진 묵인 등의 외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겠는데 방관과 태만이란 내적요인은 근무의욕의 고취와 사기의 앙양, 환경과 작업조건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그 동기가 인간 상호간의 심리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극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이며 또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견지에서 보면 그것의 연쇄적 파급은 자칫하면 하나의 나쁜 인습을 유포시킬 염려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상하의 종적관계에서 자행될 때는 엄격한 계급적 구성마저 손상을 입히기가 일쑤다.

이렇듯 안전유지의 커다란 암적 요인인 타협과 묵인이란 불성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며 또한 그것의 극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은 그 행동이 자신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감정적 동물이고 그 감정 속에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 증오, 시기, 질투 등의 비건전한 것과 연민과 동정, 협조와 사랑, 우정 등의 선량한 것, 기타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예부터 감정의 방기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해서 그것의 방기가 주는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방지해 왔으나 강제력을 결여한 사회규범이 윤리의식이 마비된 행위로 파괴당할 경우 즉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날 때 그것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저해하고 인간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 질시의 나쁜 풍조를 조장시킴으로써 단체의 공동목표를 그르치게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타인에 대한 동정이나 사랑에서 우러나온, 동기적으로

지극히 순수한 것일지라도 개인과 순수한 것일지라도 개인과 그가 소속된 단체의 사명과 책임을 부정할 성질의 것이면 그것은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항간에 많이 유행하는 '봐준다'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속에 안전계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목의 불이행을 묵인하고 또한 금기조항의 자행을 은근히 허용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운명공동체에서 동고동락하는 상하의 계급인에겐 경미한 과실에 대한 문책이나 사소한 몇 조목의 불이행을 일일이 인정상 힘든 일임엔 틀림없다. 또 안전유지를 위한 계획이란 것은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극히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함으로써 중중첩첩, 반복되어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엔 정력과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양식 있는 사람도 그 중첩되는 몇 조목을 생략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는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계획 그 자체는 최대의 안전유지를 위해 가장 과학적인 세심한 배려로 마련된 것임을 상시할 필요가 있다. 차량이나 항공기 혹은 각종 계기의 작동이나 정비절차 또는 요격기의 요격 및 중첩관제 절차 등에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좋은 조목들이 많이 있다.

필요 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 거기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어떤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질 때 흔히 그것들은 형식적인 조목의 이수만으로도 무사히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적당히 지나버리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단정할지 모르나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할 점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주의사항이나 조목의 생략이나 불이행 혹은 무시는 장기간의 유행으로 '이렇게 해도 좋다'는 하나의 새로운 규율이나 습관으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짙고 그런 사고방식은 널리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매사에 적용되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바뀌어 질 때 그 변칙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사고가 방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급자의 그런 불성실을 묵인하는 상관이나 그 묵인의 해택을 입은 하급자가 타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나 또 자기 스스로 고안한 그런 방법을 스스로 새로운 규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그 적절한 예이며 또한 정실에 얽매어 어느 정도의 불성실을 방관하는 것은 기존의 규칙을 전복하고 함부로 비행을 책동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전유지에 대한 커다란 도전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마련된 그 모든 규칙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준수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데 그를 변조, 생략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방지를 위한 애초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불성실은 그 원인이 어디까지나 사람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며 그것은 또한

바로 사람의 감정이 다분히 정실과 인정에 흘러 대의를 그르치기 쉽다는 약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의욕의 저하로 인한 태만과 방관은 환경의 개조와 정신적인 태도의 개선으로 극복되어져야 하며 타인의 비행과 불성실을 묵인하는 것과 또 그 변칙적 방법을 인습적으로 허용하는 것 모두가 개인과 개인의 정실에서 연유한 것이며 정실은 감정의 약화를 틈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므로 엄격한 윤리의식과 이성으로 끊임없이 통제하여 그런 감정의 방기로 인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막중한 국가재산과 귀중한 인명을 확보하여 일단 유사시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아무런 지장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의의 사고로 야기되는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로 그치게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항상 가져야겠으며 안전의식은 먼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못지않게 중요한 계획운용에 임한 우리의 태도, 즉 정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정신혁명을 하루 속히 이룩해야 할 것이다.

동상예방

병장 공본본부대대 김 현 상

차가운 기온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피부가 얼어 동상을 입는다든가 또는 차가운 밖에서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뜨거운 난로나 화로에 덮쳐 뜻밖에 당하는 화상 같은 것은 모두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일어나는데 비해 큰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래서 동상 예방에 관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을 영위하여야겠다.

1. 동상 예방책

동상 예방의 성패는 장병 각 개인의 관심 여하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는 방한복의 충족 여부와 개인 및 집단적 예방 시책 적부와 관계된다.

① 동상에 대한 지휘관 및 참모의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② 지휘관에 의하여 충분히 동상 예방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③ 동상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충분한 방한복 특히 구두나 양말을 보급하여 필요한 경우 갈아 신음으로써 한랭에 발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정기적인 근무교대는 물론 부상을 입은 자는 동상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⑥ 환자의 분류, 신속한 후송, 치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포착하여 이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하다.

2. 동상의 경과

한랭으로 인한 손상은 특수한 부위에만 일어나는 것과 국소의 손상으로 이차적인 감염으로 인하여 전체에 대한 위험을 주는 것이 있다.

한랭으로 인한 손상에는 이종이 있는데 그 하나는 조직의 동결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빈혈에 따른 조직의 산소부족에 인한 것이다.

① 국부적 변화

혈관내피의 장해로 말미암아 혈관 벽의 투과성이 증대하여 혈장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고 혈액이 농축되고 따라서 그 후에 적발되는 충혈은 혈장의 참출을 더욱 증대하여 수포를 형성한다. 한랭으로 인한 손상의 회복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데 한랭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체표이기 때문에 피부나 피하조직에 가장 손상이 심함은 당연하다.

② 전신의 변화

가. 한랭의 보호적 작용

신진대사량을 줄임으로써 산소결핍에 대한 감수성을 낮춘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한랭이 병의 원인적 작용을 하는 것은 조직이 재차 가온될 때 조직의 산소요소가 공급가능양보다 초과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

나. 한랭의 병적인 작용

한랭은 소동맥과 모세혈관의 연축을 일으키고 따라서 빈혈이 온다. 혈류의 원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조직의 산소결핍을 초래하고 조직 호흡이 중단된 것.

3. 응급처치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하지에 동상을 입은 환자는 항상 들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보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꽁꽁 얼은 구두나 장갑을 벗긴다(이때 온수로 녹인 다음 조심스럽게 녹여야 한다).
③ 신체의 일부가 아직 동결된 경우에는 32도-40도의 온수로 녹이거나 또는 실내공기 온도에 방치하거나 따뜻한 손으로 덮어주어 신속히 재보온한다. 보행시키거나 문지르거나 하면 안 된다(재보온하기 위하여 불을 쪼이거나 냉수에 담그거나 눈으로 문지르는 등은 삼가야 한다).
④ 전신보온은 주의하고 안면 안정을 시키도록 노력한다.
⑤ 가급적 빨리 파상풍 예방주사와 30만 단위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⑥ 큰 수포는 건전하고 소독된 가스로 덮어 보온한다. 와셀린 가제 또는 연고를 발라서는 안 된다.
⑦ 흡연을 금한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동상을 악화시킨다.

4. 후 처리

환자가 응급처리를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① 족부 동상환자는 반드시 안정을 요한다. 환자를 약간 높이 올리고 제1도 제2도 동상시는 부종과 수포가 소실될 때까지 가만히 누어있어야 한다. 제3도 동상시에는 귀양이 된 부분에 상피가 재생될 때까지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누어있어야 한다.

② 제3도 동상에 있어서는 환부가 완전히 건전 될 때까지 항상 제요법을 계속한다.
③ 고단백 및 고비타민 함유음식은 치유를 촉진하므로 식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21도C-23도C로 병실 실온을 조절하고 환부를 개방한다.
제2도 및 제3도 동상은 매일 ZEPIRAN과 같은 약한 소독액으로 환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고 완전히 죽은 조직은 가급적 빨리 떼어낸다.
⑥ 연고류는 단순히 손발이 트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가 굳어지는데 사용되나 조금이라도 감염의 기색이 있을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전신감염 증상 또는 광범위한 괴조를 합병하는 경우에 절단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분개선이 명료해 질 때까지 기다리어 많은 조직을 구할 수 있다.
⑧ 환자 자유의사에 의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물의 요법을 꾸준히 시행하는 일방 손가락 및 발가락 기타 주요 관절에 대한 조직을 방지하는데 노력한다.

5. 동상의 구별

동상을 크게 나누면 부분적 동상과 전신체적 동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1.부분적 동상
<가. 제1도 동상>
한랭이 계속 피부에 작용하여 처음에는 혈관의 수축으로 피부가 가려우며 붉은 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 동상은 즉시 원인을 제거하면 자연 치료된다.
<나. 제2도 동상>
제1도 동상이 심하여져서 혈관에 마비가 오면 모세관으로부터 혈장이 피부밑에 모여서 수포를 형성하게 된다.
빛깔은 암적색으로 이루며 화상 수포보다는 아프지 않다.
<다. 제3도 동상>
이것은 동상을 입은 부분에 감각을 손실하여 근육 또는 골부까지 조직의 사멸을 초래한다.
2. 전신적 동상
이것은 과도의 한기가 전신에 작용함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것이며 장시간의 야간 행군 또는 보초 근무시 허약한 사병 또는 극도로 피곤한 사병 등에 흔히 보는 것이다. 증상은 처음에 춥고 떨리나 얼마 후에는 전신이 노근 해지며 잠이 몹시 오게 된다. 이때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의식이 흐려지며 물체가 과대 또는 과소하게 보인다. 이런 상태의 환자는 즉시 전신 동상 환자임을 생각하고 과히 덥지 않은 곳으로 옮겨 인공호흡 및 강심제 주사를 한다. 그리하여 점차로 전신을 덥게 한다. 이때 소량의 따뜻한 술을 주는 것은 좋으나 급히 너무 더운 방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목공소에서…

상병 106단 한 민 호

온 팔이 짓눌리는 것처럼 저리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의무실 문을 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마음속으로도 골백번은 더 생각하면서 일을 하였는데 기어코 이렇게 변을 당하고 말았다. 왼편 엄지와 인지가 각각 허옇게 뼈를 들어 내놓고 쉴 사이 없이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의무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강병장님은 얼른 가제와 탈지면을 꺼내어서 조심스러이 상처를 닦아내고 있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골똘히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너무도 의외의 어처구니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구사할 수조차 없었다.
실로 오래간만에 나는 목공실의 문을 열고 조심스러이 어두움에 대해서 눈을 익힌 다음 맞은 편 벽에 있는 전기 스위치에 손을 가져갔다.
갑자기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면서 돌기 시작한 모터에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연결된 전기톱날의 윙윙거리는 회전에 주의 깊게 관찰을 잃지는 않았다. 나는 가지고온 몇 개의 널빤지를 한쪽구석에 차례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에 톱날을 다시 한번 대충 살펴보았다. 나의 정확하다면 정확(?)할까 한 두 눈에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가지고 온 나무들의 결과 또 전체를 대방 훑어보았다.
'혹시 응이라도 있지나 않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지…'하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별로 눈에 띄일만한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하였던 대로 튀어나오거나 밀려나갈 만한 커다란 옹이는 없었기에 나는 안심하고서 제일 위의 큰 것을 들어 톱날에 다가섰다.
째앵하고 짜릿한 소리를 내면서 나무가 잘라지기 시작하고 톱날 밑으로 흰 톱밥이 눈싸라기처럼 뿌려 내려오고 사뭇 어느 산골짜기의 제재소에서 일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나하나 정성스러이 모두가 잘 잘려져 나가고 원하던 대로 되었기에 나는 한결 흥이 났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슴 속에 담았던 긴장의 숨을 나도 모르게 푸우 내어쉬었다.
'이제는 스위치만 끄고 이것들만 밖으로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하고 생각하며 이내 스위치를 내렸다. 그리고 말끔히

치워놓은 톱날주변을 너무 어질러 놓은 것 같아서 밑의 것들을 대충 발로 모아놓고 톱날 주변에 끼인 나무토막들을 빼려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생겼다. 스위치를 뺀 톱날이 아직도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무심코 톱날 앞에 놓인 나무쪼가리를 집어내려는 내 손가락을 어김없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잘라놓고 만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기름통을 메고 불 속에 뛰어들어 안전을 구하려 하는 그런 따위의 무모한 것과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 때에는 이미 두 손가락에서는 시뻘건 선혈이 흐르기 시작하였으니 말이다.
'아차!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조심하였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었다.
다시 하얀 가제와 붕대가 손가락에 뺑뺑하게 감아졌다.
소독약품 냄새가 콧가를 시큰거려주고 열심히 꼬매고 치료를 하던 강병장님도 이제는 거의 다 되었는지 내 표정을 힐끗 보곤 하였다.
나는 마치 무슨 귀중한 보물이라도 잃은 것처럼 바닥에 떨어져 엉킨 빨간 피의 점들을 아쉬웁게 쳐다만 보며 다시 한 번 후회의 밀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김병장님께 해달라고 할걸 공연히 내가 하겠다고 우기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 윙윙거리던 톱날 소리가 귀속에서 아직도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애당초 순전히 그 톱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벌써 여러 달 그 톱날은 날이 잘 들지 않아서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더더군다나 모터의 회전수가 일정하지 않아 김병장님께 자신도 항상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 달 가까이는 이 왼손은 또 쓰지 못하겠지'하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그 일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 그 성질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설비를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사정 이런 사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자신이 무턱대고 그 기계에 달라붙었던 것이 한편으로 우습게 느껴졌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김병장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들었다.
'왜 고장이 난걸 말해주지 못했을까?'
모든 사고가 일어난 후에 느껴지는 것이겠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의 책임은 모두 각자가 져야하는 것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야비하고 치사하게 느껴졌으니까……
다음부터는 고장이라는 단 두자와 사용가능이라는 넉자의 글이 쓰여져 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공구 내지 기구는 항상

잘 정비하여서 본인은 물론 타인이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모처럼의 내 목공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였던 내 모습이 비웃듯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무리 실력발휘가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목공실의 공구들은 관계자 이외에는 못 만진다는 것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어겨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사고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따금 쿡쿡거리며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다.
'이제 마취가 때는 모양인가?'
나는 쓸쓸한 기분으로 의무실을 나왔다. 밝은 태양이 또 한번 눈을 부시게 하여 무슨 악몽이라도 꾸고 난 것처럼 몸이 이상할 정도로 노곤하였다.
'제길…… 삼십분 전만 해도 멀쩡하였던 손이 지금은 이제 뭐람……'

완전하게 안전을 찾자

통전교 후보생 이 승 업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기 생명을 해치려 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제되고자 하며 평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소망한다. 그것은 하나의 본능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것을 지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처럼 자기 생명에 안전성을 기하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행동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흔히 실수라는 것을 저지르며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을 빈번하게 가져온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그렇다! 어찌 생각하면 어느 구석엔가 미숙하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간주해 버리거나 타당성 내지는 자기 합리화시키기 전에 왜 불완전한 생활을 탈피할 수가 없는가? 실수나 사고를 제거할 수는 없는가? 철저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우선 여기서 안전이라는 낱말의 개념을 내 나름대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안전이란 하나의 사이언스이며 테크니컬이다. 그러므로 안전과학 이론에 직면하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방법론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군이 안전계획에

실패한다면 그 영향에 따라서 막대한 인원, 장비, 시설 및 예산의 소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손실이 크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을 기하고 사고의 예방을 찾아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고의 원인부터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는 어떤 한 사람이 불안전한 행동을 했다거나 기타 기계나 물체가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내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인위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 더 강조하기로 하고 우선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똑같이 다루어 보기로 한다.

먼저 알기 쉽게 엮어가기 위해 하나의 예를 선정하고 계속 논해보기로 한다. 안전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던 공군소속 차량이 기어이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앞에서 말했듯 이 불안전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의 핸들 뒤에는 운전병의 손과 정신상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행동의 일반적인 분류를 개별적으로 진단해보자.

첫째, 허가 없이 운전을 했다거나 경고등을 확인하지 않고 태만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운전병은 경솔하였다.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심각한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위험한 속도로 조작 또는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먼저와 비슷한 행동이 되겠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다거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함부로 행동함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임을 뜻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정하여진 부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사용한다든가 기계를 불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즉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여기서 이 운전병이 위와 같은 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 젊은 세대, 즉 10대의 청년들은 드릴이라는 것을 굉장한 매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현대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젊은이들의 머릿속은 항상 많은 문제로 어지럽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순간이라도 잊고 경쾌해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조작하는지도 모른다. 뻔히 안전을 위한 제 규정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이탈해 보고 위험에 직면해본다는 것은 역시 찬양할 만한 행동은 되지 못한다. 이야기가 딴 반향으로 흘러가 버린 느낌이 들어 다시 환원하기로 하자.

넷째로는 위험하게 짐을 적하했다거나 적재정량을 초과했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얼른 생각하면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요인이 되는 성도 싶지만 이것 역시 행동의 경솔함에서 온 것이다.

끝으로 안전하지 못한 위치나 자세를 취하거나 타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남용적인 행동, 난폭한 장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모두가 하나 같이 경솔하고 근무(운전)를 장난처럼 시도했다는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본 결과,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성실한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다.

일반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대사회에서는 더없이 성실한 생활태도, 근면한 근무태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 군대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인원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태만하지 않고 지성으로 책임을 다한다면 '사고의 방지'같은 복잡한 문제는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불안전한 상태, 즉 물리적 내지 기계적인 원인을 같은 방법으로 규명해 보자.

첫째로는 기계와 그 부분의 방호장치가 없었다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불충분한 장비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우리 현실이 낳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 된다. 물론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즉시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뜻이 달리 해석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우리의 모든 기계가 튼튼하지 못하고 자주 고장이 생긴가는 점에서 위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적당한 조명, 환기의 불충분, 불안전한 의복의 착용 같은 것을 예로들 수가 있다. 이것 역시 위에서 말한바와 비슷한 요인이라 해두자.

셋째, 개인의 위생이 불량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물리적인 요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인위적인 요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상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테니까 말이다. 허약한 몸이나 병들은 몸으로는 운전병이 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이상으로 하나의 사고가 발생된 요인을 규명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사고방지를 위한 직무면의 관찰이다. 직무는 사고, 통계, 자료의 분석이나 사고 발생처, 사고의 원인인 사고현장, 사고발생시 관계된 인적 및 물적 사항, 증명자료, 사고 경향 등을 파악 검토하고 보고서 및 각종 통계를 관장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사고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사고 자료를 보관하고 분석하며 사고기록, 관리, 기타 문서를 분석하고 검토함의 목적은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직무가 차지하는 사고방지에 대한 비중을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요령이 생기고 해결책을 쉽게 얻는 법이다. 그렇다. 이미 일어나버린 사고지만 그것을 충분히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던 다음에 사고를 일으킬만한 것을 제거하는데 큰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위와 같은 예로 봐서 사고방지를 위한 또 하나의 해결책을 얻은 셈이 된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완전한 생활을 각오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생활의 문제 속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최대한도의 노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도 완전의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별 문제다. 그러나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얼마만큼 실수의 방지를 위해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는 말썽 없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 그것을 이루는 길을 물리적인 기계적인 조건이 충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실 근면한 태도!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공군 대공비소탕작전 <화보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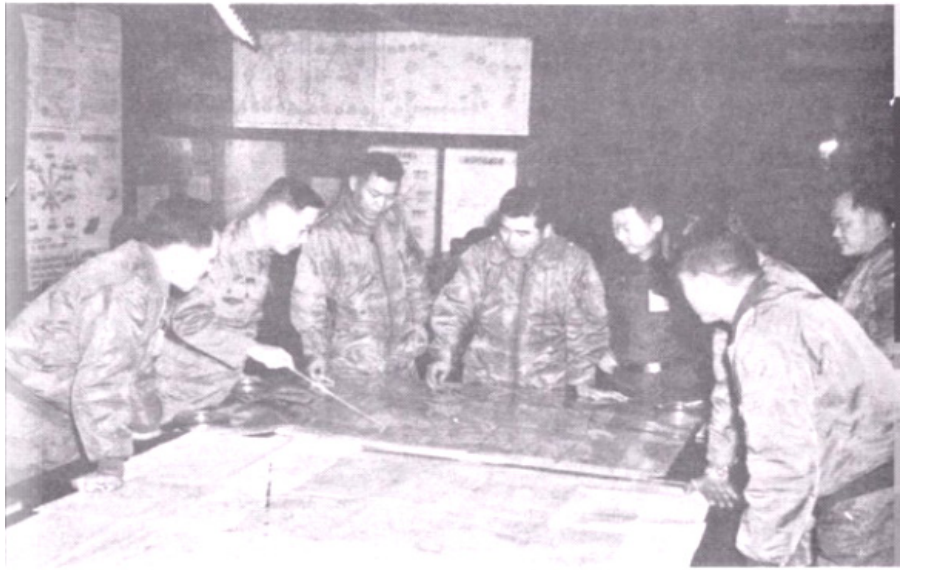
'한반도를 공산통일 하겠다.'는 망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괴뢰는 지난 1월 21일 31명이나 되는 무장공비들을 남침시켜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북괴무장공비들은 즉각 출동한 군경에 의해 일망타진되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우리 공군은 공중기동력을 십이분 발휘하여 도주하는 공비들을 소탕하는 수훈을 세웠다.

즉 1월 21일 무장공비가 서울에 침입하자 우리 공군은 즉각 OOO대의 항공기를 섬멸작전에 투입하여 정찰 및 공중연락을 전담하는 한편 지상군과 긴급물자를 신속히 공수하였으며 특히 우리 공군의 야간조명탄투하 작전은 야음을 틈타 도주하는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여 이들을 사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은 1 · 21사태발생시의 우리 공군의 활약상이다.

1 · 21 무장공비사건이 발생하자 공군본부에서는 즉각적인 소탕작전계획을 수립, 장지량 총장을 비롯한 각급 고위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소탕작전회의를 소집.

엄중히 경위되고 있는 작전통제실.



출동에 앞서 작전지도를 보면서 공비들의 퇴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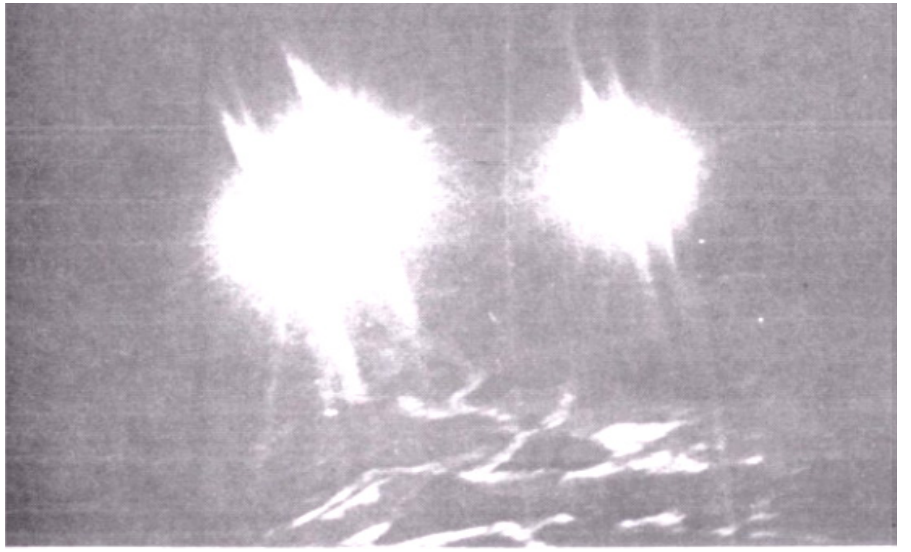
헬J기 조종사가 공비소탕작전 구역을 재확인.

망동하던 공비의 퇴로는 아군 수색대의 출동으로 착착 봉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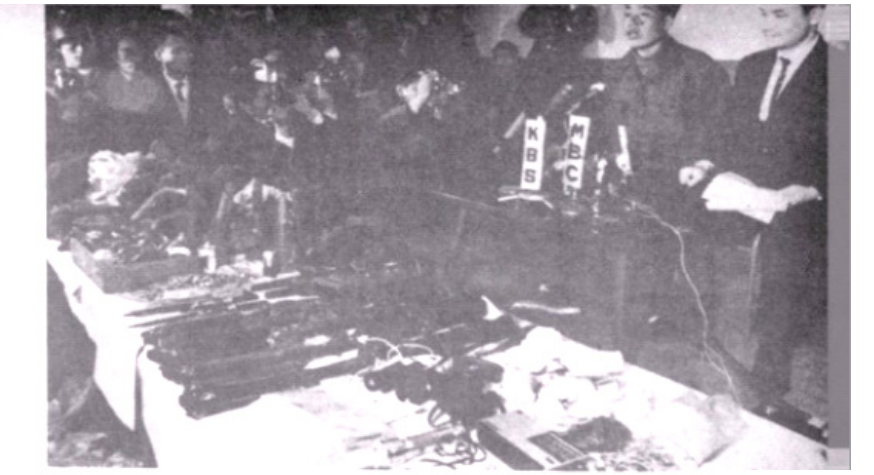
공중수색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공군'헬J기'

C-46기내의 장치된 기관포를 조작하고 있다.

공군 야간수색을 위하여 조명탄을 C-46기내에서 투하직전에 운반하고 있다.



드디어 조명탄은 투하 발사되었다.
도주 공비들은 심야에 백화와 같은 백광에 자지러져 산봉, 계곡에서 혼비백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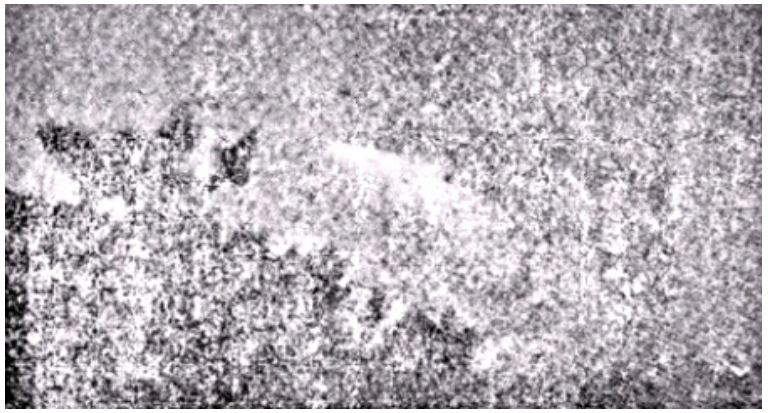
생포된 북괴 공비 김신조는 침투경로와 그들의 습격(襲擊)목적 등을 방송폭로하고 있다.

이 작전에서 아군에 의하여 사살된 북괴 공비들의 사체.

이 작전에서 아군에 의하여 사살된 북괴 공비들의 사체.

미공군은 비행접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조지 · W · 오그레스 소령>
김 중 무(역)



<1957년 촬영된 이런 혜성은 UFO나 비행접시로 오인되고 있다.>

역자(譯者)주…미공군에서는 지금까지 우주내의 다른 별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 또한 우주로의 여행가능성을 부정한 적도 없다. 그러나 미공군에서는 비행접시(Flying saucer)설에 관한 11,108건의 각종 보고서를 분석하고 19년간의 조사를 거친 오늘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공군은 우주로부터 날아왔다는 비행접시의 실물이나 사진, 필름 등을 단 1개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꽤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것으로 미공군의 공식적인 기관지실 소속 공보국에 근무하는 오그레스 소령에게 미확인비행물체(UFO)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미공군은 비행접시에 관해 진실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논제로 기고할 것을 요청했던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글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UFO나 비행접시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미공군에 접수된 숫자는 1965년의 887건에 비해 66년도에는 173건이 증가한 1060건에 달했다.

이 숫자는 UFO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지난 4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놀랠 것이 못된다. 1963년의 399건, 1964년의 562건을 생각할 때 비행접시의 출현보고는 감소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행접시를 소재로 한 만화나 풍자가 전 미국을 휩쓸었고 TV는 새로운 비행접시 연속물을 방송하기 시작했으며 영화 역시 외계로부터 비래한 우주인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신문, 잡지나 다른 출판물도 많은 지면을 비행접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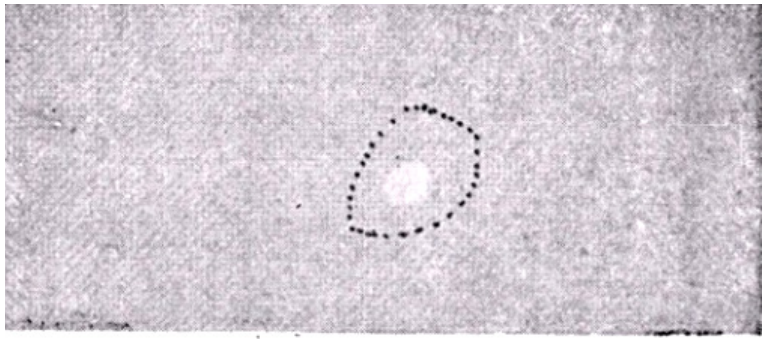
'미공군은 비행접시에 관해 진실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비행접시는 사실인가? 허구인가? ' 실상 미공군은 비행접시의 정체를 밝히는 견해를 수년간 표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사실일 수 없는 일에 헛된 노력을 쏟지 않으려는 때문이었다. 어느 인기 있는 TV스타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단지 정확한 사실만을……'하고 말해왔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결국 여러분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3년 전 버지니아주 색스튼시에 사는 스튜어트 맥매더웨이라는 사람이 집 근처에서 비행접시를 목격했다는 편지를 미공군에게 보내왔는데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주 밝은 빛을 발산하는 둥근 물체가 수 초 사이에 남쪽으로 급상승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66년 11월 맥매더웨이씨는 미공군에 또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 집에서 서북쪽으로 7백야드 떨어진 곳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있는데 명주실 같이 곱고 가벼우며 바람에도 잘 날아가는 솜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어느 맑게 개인 날에 저는 그 꽃잎들이 수 백 피트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더니 돌개바람을 만나 눈 깜짝할 사이에 급상승하면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저는 3년 전에 목격한 비행접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목격한 각도가 달랐지만 돌개바람을 만나 순식간에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이 꽃잎풀이 저에게는 바로 UFO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그 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UFO니 비행접시니 하는 말은 실상 잘못된 표현인 것이다. UFO라는 말은 '미지의 물체가 비행한다'와 '그것은 고체물질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비행접시라는 말은 더욱 센세이셔널하게 유행되어 접시모양이 아니라도 무조건 불리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비행접시 신봉자들은 UFO와 비행접시를 구별해서 말하지만 일반대중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이래 UFO에 관해 조사하고 있는 미공군은 'UFO는 발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기현상의 일종이다'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지식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명에 불만족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UFO가 이상적인 환경 하에서 목격된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통계학 상으로 봐서 우주내의 다른 곳에 고도의 지적수준을 가진 생물체가 있어 그들 중 일부가 지구를 방문하려들거나, 이미 방문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망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UFO는 과학자, 기술자, 아마추어 천문가, 법률가, 교육자, 점원, 기자, 민간방어대원, 민간 및 군조종사, 교수, 상인, 관사, 농부 등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들이 무엇인가 보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무엇을 보았을까? 사람들은 미공군이 우주내의 어느 별인가에 지적 수준이 높은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해서 놀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공군은 지난 20년간 11000여건의 UFO 출현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생물체의 존재자체는 물론 생물체가 우주 내를 비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1947년 이래 11,108건의 UFO출현보고 중 정말 미확인된 것은 불과 676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확인으로 남게 된 UFO는 모두가 그 모습이나 움직임이 이제까지 판명된 물체나 현상과는 하등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미공군 관계관은 'UFO를 목격했다는 보고의 대개가 자기 나름의 해석이 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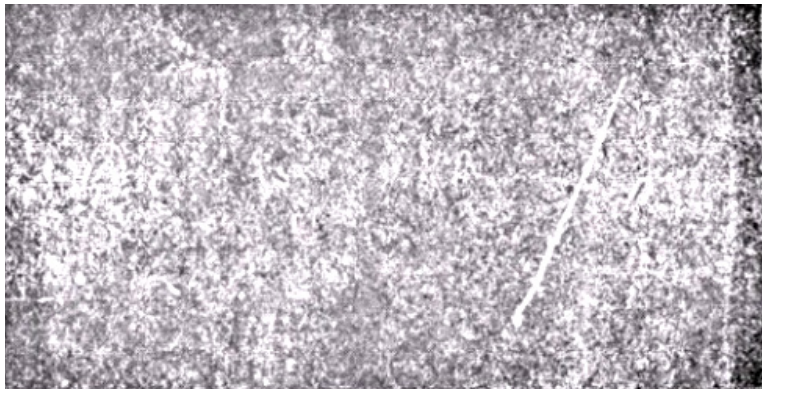
<한 사진가가 여러 필름을 암실에서 현상 중 사진과 같은 비행접시를 찍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비행접시라는 것은 암실에서 화학약품이 무의식중에 떨어져서 생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것이다. 또한 그 목격한 물체라는 것은 천체의 별, 인공위성, 신기루, 항공기, 레이더에 잘못 나타나는 시그널 등을 오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1966년 4월 미 하원군사위원회에서 UFO에 관해 증언하기 전 브라운 미공군장관은 '우리는 우성을 제외하고는 지구 밖에서 날아오는 어떤 운반체나 현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많은 수의 UFO목격자들은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목격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해설을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비행접시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며 사람들은 이상적인 대기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밝히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사실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스런 물체를 항상 보아왔으며 수백 년 동안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

「대기현상분석」의 저자이며 유명한 천문학자인 책키스 밸리는 옛날의

각종 신문과 기록철을 뒤져본 결과 20세기 이전에도 UFO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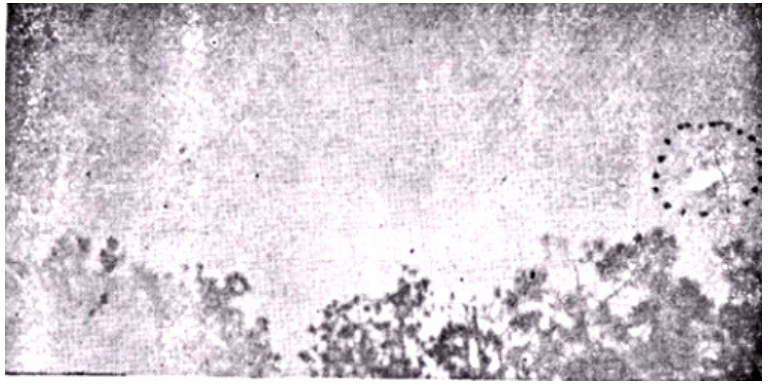
그는 UFO의 출현이 가장 심했던 해가 1882년~1887년, 1906년, 1909년이라고 지적하고 그 당시 UFO는 50개국 이상에서 목격되었다고 했다. 1947년 이전, 즉 비행접시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상적인 대기현상은 불타는 태양, 불붙는 바람개비, 비행원반, 불붙는 방패, 움직이는 불, 도깨비 불 등으로 표현되었다. UFO라는 말은 미공군이 1948년 한 이상스런 보고서를 조사하고 있을 때 생겨난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특히 유럽에서 이 이상적인 대기현상이 많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미국민의 관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것은 1947년 6월 24일, 실업가 케베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밝은 대낮에 이를 목격했다는 보고 때문이었다. 그는 워싱톤주 래니어산 부근을 자가용비행기로 비행하고 있던 중 접시모양의 물체들이 쇠고리와 같은 대형을 지어 날아가는 것을 목격



<1962 10월 오키나와에서 목격된 이 불줄기는 조사결과 인공위성 [에코 1]로 판명되었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물체를 비행접시라고 묘사해서 전 미국에 센세이셔널한 파문을 일으켰다.

신문과 라디오는 이 물체가 우주로부터 날아온 방문객이라는 암시로 사람들의 상상력에 부채질을 했다. 그 뒤 연달아 접시모양, 원반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물체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미국민의 호기심은 식을 줄을 몰랐던 것이다. 1947년 늦게 미국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공군성이 창설되었는데 이 기구는 UFO가 미국의 안전에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미국정부의 공식기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2월 UFO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류, 대조, 분석하는 임무를 띤 사인(Sign)이란 계획이 수립되고 11개월 동안 UFO에 관한 보고중 대표적인 243건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UFO가 비밀 항공기나 신형항공기라는 증명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948년 말 이 계획은 그런지(Grudge)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렌즈 플레어 현상은 사진과 같이 비행접시로 나타난다.>

243건의 새로운 보고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던 것이다. UFO는 미국의 안전보장에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으며 이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대시현상을 잘못 보았던 것이다. 한편 미 CIA는 1950년 초에 UFO란 것이 혹시 외국에서 날려 보낸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CIA에서 취급되는 모든 자료나 방법은 비밀 구분에서 빠져 과학자 등 UFO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다. 1952년 3월, 미공군의 그런지 계획은 다시 블루 북(Blue book)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며 둘째 UFO의 출현에서 과학기술상의 연구에 공헌할 어떤 독특한 과학정보나 진보된 기술을 얻을 수 없느냐는 것이다. 이 계획의 주관처는 미공군체제연구사령관(US Air Force Systems Command)예하 대기현상위원회(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내에 설치)이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는 공군장관실 소속 공보국에서 제공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UFO나 비행접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 토의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민간기구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공군은 여론을 잘못 인도하며 UFO에 관한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든가 UFO야말로 미국 자신이나 또는 지구상의 타 국가에서 극비리에 발전시키고 있는 극히 진보된 항공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즉 '왜 우리 지구인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UFO에 비하면 원시적이라 할 수 있는 로케트를 가지고 태양계를 탐험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편 미공군은 UFO보고서는 검열을 받지 않음을 밝히면서 UFO관측자의 이름이나 분석하는 방법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공군 대변인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서 비밀시설이 있는 장소, 항공기의 방어능력 등은 통상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음을 밝히고 UFO같은 것은 비밀이 될 수 없다고 언명했다. 미공군 규정

80-17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UFO에 관해 어떠한 행동이나 논평도 삼갈 것. 왜냐하면 미공군의 공식견해로 일반 대중이 오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미공군 관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군인에 의해 제출된 UFO보고서는 어느 것보다도 세밀한 분석을 받는다. 그 이유는 고의이든가 아니든 간에 민간인들에 의해 전해지거나 제출된 UFO보고 때문에 여론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다.' 미공군은 UFO가 출현했을 경우 그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군기지의 사령관이 그 장소를 조사하고 증인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블루 북 담당관 앞으로 보내져 엄밀한 분석을 받는데 만약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원이 다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 결과는 모두 대기현상연구소에 공군은 이 자료를 과학자나 기자들에게 공개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UFO는 여러 가지 모양, 크기, 색깔로 목격되어 왔다. 보고서를 보면 UFO는 여송연, 프로펠러, 중절모, 지짐 냄비, 접시 등의 모양과 흡사하다. 크기 역시 여러 가지여서 작은 것으로는 수 인치에서 큰 것으로는 직경이 250피트나 되는 우주선과 같은 것도 있다. 빛깔 역시 적색, 녹색, 청색, 백색 등인데 이 여러 빛깔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많다. 비행접시의 소리는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하며 불꽃이 배출되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UFO는 수직으로 떠오르거나 지그재그로 날거나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속도 역시 마음대로인데 어떤 보고서에는 시속 2만 5천마일 정도라고 했다.

UFO의 몸체는 단단한 고체물질 같기도 하고 전혀 안 보이기도 하며 1년 중 대개 사람들이 집 밖에 많이 나와 있는 봄과 여름밤에 많이 나타난다.

이 UFO의 정체에 관해 하버드대학과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칼 사간 박사는 아메리카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UFO는 다음과 같은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최신항공기, 이상기후 속을 비행하는 항공기, 기묘한 모양을 가진 항공기, 외계의 별, 기상관측기구 및 고공관측기구, 인공위성, 새의 무리, 구름에 반사된 서치라이트나 헤드라이트의 불빛, 매끄러운 지면에 반사된 햇빛, 발광생물(항공기의 조종석 앞 유리창 틈에 붙은 개똥벌레의 경우도 포함, 신기루, 수정체형상을 한 구름, 해 무리 위에 나타나는 광점, 유성(드물게 나타나는 청색 유성을 포함), 행성(특히 금성), 북극광 등에 기인되는 것이다.' 이 중 청색 유성은 보통 유성보다 대기 중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며 매우 밝은 빛을 내는 유성으로서 그 빛은 20내지 40마일 밖을 환히 비치는 낮게 떠 있을 때는 UFO로 보고되고 있다. 그 별이 지표에 낮게 떠 있을 때는 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며 빛깔도 달라진다. 기상관측기구 역시 UFO로 착각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각종기구가 군용 및 민간비행장, 기상대 기타 연구소중에서

하늘로 띄어지는데 그 크기와 종류도 가지각색으로 어떤 것은 직경이 300피트나 되는 것도 있다.

야간에는 기구에 등불이 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목격자에게는 이상한 물체로 보이게 되며 일몰이나 일출시에도 태양 빛에 반사되어 기묘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다형기구는 공중에 올라가 제트기류를 타면 1시간이 100마일을 날아간다. 이런 기구에는 태양광선을 받아 반짝이도록 한 표지 등이 달려 있어 가끔 접시 모양으로도 보이게 된다. 뉴 멕시코주 할로맨 공군기지에는 기류통제본부가 있어 모든 군사용 기구들을 통제하며 그 외 국립대기연구소 등 각종 연구소들이 기구를 전파로 추적하고 있다.

항공기 역시 상당한 수가 고공에 있을 때는 태양광선에 반사되어 원반모양에서부터 로케트 모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보이게 된다. 제트기의 경우에는 비행 중 수증기나 응결된 공기가 길게 꼬리처럼 생기게 되는 이것이 태양광선에 반사되어 적색이나 오렌지색의 불꽃으로 보이게 된다. 제트기의 아프터 버너 역시 상당히 높은 거리에서는 비행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UFO로 오인된다. 1965년 중에 887건의 UFO출현보고에서 210건이 항공기로 판명되었다. 조종사들은 UFO를 발견했을 때 사격하는 대신 카메라를 들이대라는 충고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 UFO라는 것이 사람이 탄 항공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역시 UFO로 오인되고 있다. 지구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추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미공군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인데 세계각처에 산재해 있는 추적소로부터 신속 정확한 자료들이 이곳으로 통보되고 있다. 북미방공사령부는 최근 1100개의 비행물체를 발견했는데 모두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1965년에는 152개의 비행물체를 에코 1호·2호, 피카서스 1호·2호·3호로 판별했다.

어떤 인공위성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이때 목격자의 눈에는 인공위성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착각은 인공위성을 보고 있는 동안 눈을 깜빡거리기 때문이다. 미국립항공우주국(NASA)은 재미니 계획 때 우주비행사들이 UFO를 목격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후에 판명된 바에 의하면 모두가 인공위성을 잘못 본 것이었다. 비록 비행접시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비행접시를 부정하는 사람들 역시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즉 '왜 비행접시는 그렇게 초음속으로 날아가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항공기나 고체물질은 음속을 돌파할 때 항상 사람의 뒤에 들릴 만한 소리를 낸다. 탄환이나 미사일 역시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껏 보고된 비행접시 중에 소리를 내고 비행했다는 것은 없었다. 또한 UFO는 어떻게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며 초음속으로 상규를 벗어난 대기비행과 직각비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항공기나 우주선은 도저히 지구중력법칙을 무시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비행접시는 또 어떻게 전 미국에

널려 있는 천문대와 레이더망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가? 미국은 수년래 전 미국 상공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레이더에는 신비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지의 표적이 걸려든다. 많은 비행접시 신봉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주내의 다른 지적 생물이 지구를 탐색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더 관제사들은 미리 기상대로부터 '그런 것은 대개 비구름의 급격한 에코우(Echo)현상이나 공기의 상층부가 하층부보다 더 따뜻할 경우 일어나는 기온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정보를 듣고 있다. 한 블루 북 계획 담당관은 1966년 4월 미하원군사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1947년 이래 UFO의 1.5%를 레이더에서 잡았는데 그것은 번부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비행접시 신봉자들은 비행접시가 군용항공기를 격추시킨 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한 예가 1948년 1월 17일에 일어났다. 그날 토마스 만텔 대위가 지휘하는 5대의 F-51전투기는 켄터어키주 고드맨 평원 상공에 나타난 UFO를 추적하고 있었다. 만텔 대위를 제외한 4명의 조종사들은 F-51기를 1만 5천 피트까지 상승시키다가 기체내의 산소가 부족한 것을 알고 도로 하강하면서 만텔 대위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어찌된 셈인지 무전이 통하질 않았다. 만텔 대위는 산소공급 장비가 없는 채 계속 상승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자 F-51은 속력을 잃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상에 추락한 F-51의 캐노피가 꼭 닫혀 있는 것을 봐서 만텔 대위는 그때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고는 만텔 대위가 산소공급 장비 없이 고공으로 올라갔기 때이다.

금성은 하늘에 떠있는 물체 중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는데 UFO와 비슷한 고도와 방위에 떠있을 때가 있으며 고공연구용 대형기구 역시 마찬가지다. 만텔 대위의 비행사고가 나던 같은 달에 미해군은 6만 피트 고공에 스카이혹이라는 직경 100피트짜리 기구를 올리는 비밀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오하이오주 크린튼 공군기지에서 올려 졌는데 만텔 대위가 UFO를 추적하던 그 위치에 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같은 달에 금성이 그 위치에 있었는데 대낮에도 보일만큼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 따라서 미공군은 금성이 때때로 그 지구상공에 나타날 때는 UFO로 오인된다는 결론을 지었고 만텔 대위가 추적하는 물체나 그 지방 사람들이 증언한 배(Pear) 모양의 금속성 물체는 바로 그 기구들이었던 것이다. 비행접시에 흥미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또 1953년에 비행접시 때문에 미공군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1953년 11월, 폭풍이 불고 뇌우가 치는 어느 날 밤, 미시간주 킨로스 공군기지의 레이더는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지의 비행체를 포착했다. 즉시 F-89기가 비상 출동하여 그 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F-89기의 조종사는 그 미지의 물체가 캐나다 소속 C-47 코디악기인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해 왔으나 조종사가 기지로 귀환하기 위하여 방향을 꺾었을 때부터 그로부터는 무전연란이 두절되었다. 지상에서

F-89기를 추적하고 있던 레이더 관제사는 스크린에 그 제트기의 뒤에 허상, 혹은 에코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두 현상은 합쳐진 채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ㅣ 공군은 이 F-89기를 수색한 결과 미시간호에 추락한 것을 발견했으며 추락원인은 조종사의 심한 현기증 현상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전화상태의 대기 상에서 제트기는 실상 에코우 현상이나 환상을 일으킨다. 이 외에도 공군조종사들이 UFO를 추적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952년 12월 6일 멕시코만 상공에서 1대의 B-29가 기체역학원칙을 전혀 무시한 듯한 한때의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다. 진한 청백색의 불빛을 발산하는 그 물체의 속도는 조종사들에 의해 시속 5천마일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되었으며 방향, 속도, 고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그때 그 지상에 있던 레이더의 스크린은 간헐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당시 그 지역 상공에는 다른 항공기도 없었다. 이런 경우가 미공군에서 별도로 뽑은 미확인의 경우이다.

1952년 12월 15일 라브라돌만에 있는 구스 공군기지 근방 상공에서 1대의 F-84와 또 1대의 T-33기 조종사들은 1개의 UFO를 목격했다. 조종사들은 그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를 분간할 수 없었는데 처음에는 밝은 적색을 띄고 있다가 사라질 때쯤에는 적 백색으로 변했다. 조종사들은 UFO가 기지 근처 30내지 40마일에서 사라지기까지 약 25분간이나 추적했는데 제트나 로케트 분사장치 같은 것도 없었으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같은 지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2대의 C-54기는 관제탑에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 했다. 이런 경우 역시 미공군은 미확인으로 남겨둔다.

민간항공기 조종사들도 역시 UFO를 많이 목격했다. 1957년 3월 9일 오전 3시경 뉴욕에서 푸에르토 리코를 향해 비행하던 한 여객기의 조종사는 거대한 탐조등과 흡사하며 밝은 녹색을 내는 물체가 자기의 항로상에 나타났다고 보고해 왔다. 조종사는 이 때문에 여객기를 급격하게 회피시키는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승객 몇 명이 부상하기까지 하였다.

군과 민간항공기관에서는 나중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 지역에서 175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2대의 여객기가 똑같은 물체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조종사와 여객의 진술, 민간항공협회와 해군으로부터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공군은 '그것은 실상 거대한 유성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결론은 전 학계에 공개되고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에 있는 저명한 과학자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UFO는 역시 지상으로부터 많이 목격된다. 뉴욕주의 한 농부는 1965년 8월 19일 두께가 20피트, 길이가 50피트 되어 보이는 비행접시가 그의 외양간 지붕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해 왔다. 그 빛깔은 적색, 황색, 녹색이었으며 자기 집 송아지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주 경찰 및 관계관들은 이 사건을 기후에 의한 현상이라고 규정지을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미공군 역시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확인으로 남겨두었다.

호수, 연못, 늪, 습지 등지에서는 밤중에 가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상스런 불빛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썩은 식물에서 나오는 가스가 자연적으로 발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공군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66년 3월 20일 미시간 주 덱스터와 21일 힐즈데일에 출현했던 UFO를 이 습지의 가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비행접시가 착륙했다거나 그 속에서 생물체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1966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펜실베이니아 주 에리 근처에 있는 주립공원 프레스크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는데 이날 그곳으로 피크닉 갔던 몇몇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사각형 혹은 육각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 내려와 백사장 상공 5~10피트 거리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그들이 진술한 당시의 광경은 다음과 같다.

'그 물체는 북쪽으로부터 날아와 수 초 사이에 지그재그로 착륙했다. 그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으며 터빈 돌아가는 소리 같은 크렁크렁 거리는 소리도 난 것 같았다. 그 물체의 둥근 지붕에서는 여러 갈래의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불빛이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5분 후 공원에 배치된 순경이 달려오자 그 불빛은 즉시 꺼져버렸다. 그 장소에 있던 3명의 목격자가 그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자 근처의 나무숲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중 한 사람이 그 물체 속에서 나오는 검은 물체를 발견했는데 머리와 어깨가 사람보다 크며 팔 같은 것이 달려 있고 마치 돌아서 있는 것처럼 손도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자동차가 크락션을 울렸기 때문에 그 검은 생물체는 급히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자리를 떠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돌아 왔을 때 야외용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음식이 없어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2명의 순경이 그 지점을 조사했을 때 모래 위에 V자형으로 우묵 파진 곳을 세군데 발견했으며 모래 위에는 습기가 배어 있었다. 미공군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습기에 젖어 있는 모래나 우묵하게 파진 자국은 그들이 목격했다는 물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미공군동력학연구소에서는 그 세 군데의 자국을 검사했으나 어떤 타입의 물체도 착륙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없어진 음식물은 그 근처에 있던 어떤 짐승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목격자들이 보았다는 불빛에 대해서는 미공군도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는 7월 31일 그 지역 상공에 유성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공원 경비 경관이나 부근의 해안 경비대에서도 공원 상동에 아무런 이상스런 불빛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966년 10월 3일 위스콘신 주 어느 삼림에서 한 간수가 단단하고 둥근 금속성물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몇 사람에게만 비행접시로 오인되었을 뿐 우주선 캡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1957년 5월 한 민간인이 무비 카메라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을 찍은 천연색 필름을 미공군에 보내면서 그 밝은 불빛이 비행접시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그 필름을 확대해 보니 불꽃, 날개, 꼬리 등이 나타났다. 결국 그 밝은 검은 아프터 버너를 가진 제트기였던 것이다. 또한 그 필름에 나타난 달의 모양과 위치를 검토해 보니 사진을 촬영한 날짜는 그 사람을 집 부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한 날과 일치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의로 촬영한 날짜를 속여 세상의 이목을 끌고 떠들썩하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런 예는 고의로 만든 장난의 하나이다.

'19년 동안 11,000여건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공군은 UFO라고 할 만 한 단 1개의 사진이나 필름도 갖고 있지 않다.' 블루 북 계획 담당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UFO라고 주장되는 모든 사진들은 단순히 유성, 기구, 렌즈 플레어 현상, 필름의 감광유제 결함, 이중인서, 등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UFO보고 중 장난은 그리 많지는 않다. 미공군은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제출된 사진이나 필름은 사용이 끝나면 도로 소유자에게 보낸다.

사진 분석가는 네거티브 필름이 없으면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다. 블루 북 계획 담당관은 UFO를 찍었다고 사진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필름을 동봉하는 것을 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때때로 몇몇 사람들이 이중촬영을 해서 장난을 하려 하지만 대부분 정직하고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필름과 함께 보내온다고 말한다. 미공군정훈감의 요청에 의해 미공군과학자문위원회에서는 UFO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UFO현상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위원회는 공군의 UFO조사계획을 확대해서 일반과학자들의 독자적인 연구를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 했다. 이 결과 미공군성은 1966년 10월 7일 코로라도 대학을 독자적인 UFO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차 계약기간인 15개월 동안 30만 불이 들었다. 이에 따라 클로라도 대학은 미공군의 블루 북 계획으로 얻어진 자료는 물론 기타 미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자유스럽게 발표하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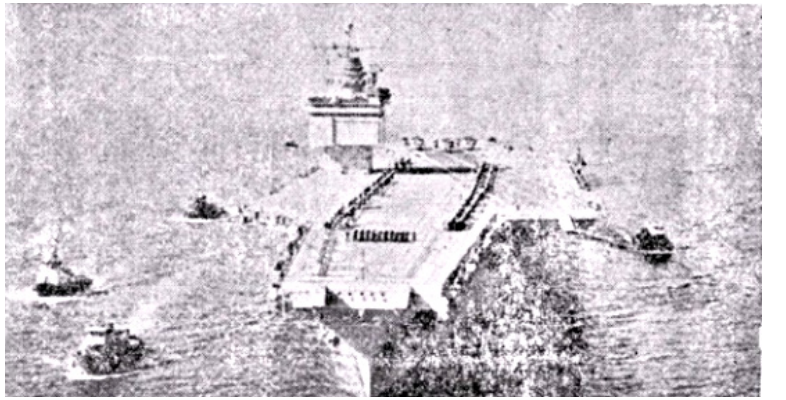
아마도 내년쯤에는 클로라도 대학의 연구의 과학분과 지도위원으로 저명한 물리학교수이며 전 국립표준국장이었던 에드워드 콘든 박사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UFO를 목격하면 즉시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나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블루 북 계획 담당관 앞으로 보낼 것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면 글로라도 대학교로 직접 보내도 좋다고 하였다.

'미공군은 비행접시에 관해 진실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인가? 허구인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될 것이다.

미공군참모총장 맥코넬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정부의 훈장, 명성, 미공군의 감사, 이런 것들이 비행접시를 가져오는 시민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THE AIRMAN'지 1967년 7월 및 8월 호에서)



미해군, 해병대의 항공력

세계 제3의 항공세력

김 진 환

기동성을 과시하는 미해군

월남전쟁에서 현재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미해군과 해병대의 기동력이다. 한국동란 시에 있어서도 미공군에 앞서 공산군을 저지한 것도 해군과 해병대였다.

미해군의 항공세력은 특유한 것으로 그 규모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의 상황으로는 8천 4백기, 미공군의 1만 2천 4백기, 소련공군의 1만 5백기를 제외하면 세계 제3의 막강한 세력으로 미해군은 기동력, 다양성, 융통성이란 면에서 해군만이 특유한 성격을 띄우고 있다. 미해군은 함재기는 물론 지상에 기지를 둔 해상정찰기, 함대지원기, 훈련기를 휘하에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해군은 작전상 자체의 지휘권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미해병대는 해군의 통솔하에 놓여 있는 항공세력을 가진 유일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미해군과 해병대의 학생 파일럿들의 기지비행교육은 같은 과정을 거쳐 이수하고 있으며, 해군기와 해병대기의 이착륙훈련은 항공모함에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과 비행관숙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단거리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다.

미해군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것은 F-6F, F-4U 콜세어로서 폭탄적재 중량 453·5킬로의 전투폭격기인 것이다.

이 외에 F-6F는 동체 밑에 어뢰를 장착할 수 있으며 1940년에 초비행을 마친 F-4U기는 한국동란 때에는 제일선(第一線)기로서 활약한 바 있으며 1964년까지는 불(佛)해군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재 A-1 스카이레이더로 불리우는 AD-5가 초비행을 끝낸 것이 1945년으로 속속 그 개발신형이 제작되고 있다. 월남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카이레이더는 프로펠러기로서 제트기인 MIG-17을 격추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개발된 더글라스사 제작 A-4 스카이호크기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소형기종으로서 현재 월남전에서 지상지원 작전에 사용되고 있다.

맥도넬 F-4 팬텀기는 미국의 제일선기로서 전투, 정찰, 공격을 동시에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만능기로서 제2차 대전 때의 폭격기 B-17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해군기도 제2차 대전 시에 있어서 시속 604킬로로 달리던 것이 현재는 1,820킬로로 그 속도가 급증하였고 기체중량만 해도 4,082킬로에서 31,751킬로로 늘어나게 되었다.

미해군은 타군에서 볼 수 없는 특유한 기동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기지자체가 해상에 떠 있고 활주로에서부터 탄약 연로무기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의 일체를 항공모함에 의존하고 있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20노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기지자체는 물론 그 탑재기들의 행동반경 역시 놀라운 것이다.

공격용의 항공모함은 전투기, 공격기, 특별임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해군은 예하의 15개의 항공모함항공부대를 갖고 있으며 각기의 소유기수는 70-90기에 이른다.

일례로 포레스탈의 경우 12대로 이루어지는 F-4B 2개 중대, 14대의 A-4로 구성된 2개 공격중대, 9대의 A-6A 인투루더로 편성되어 있는 1개 공격중대, RA-5C 6대의 1개 정찰공격중대를 갖고 있다. F-4 팬텀기는 영(英)해군의 F-4K와 같이 함재기로서 음속 2배 이상을 낼 수 있는 초음속기로서 처음에는 제공용전투기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장거리엄호 및 지상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F-4B는 공 대 공 미사일, 폭탄, 로케트탄 등 6042킬로의 무장을 할 수 있다. 소형의 단발기 A-4 스카이 호크기는 주로 목측에 의한 공격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에 한정된 전천후 야간비행능력을 가지고 있다. A-6 인투루더기는 쌍발 2인승기로서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전천후성능과 고도의 고저에 무관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RA-5C는 일렉트로닉스, 적외선, 사진촬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외에 마하 2의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다. 또한 포레스탈급의 항공모함 1척에는 3대 혹은 4대의 쌍발 터보 프롭기 E-1I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3대의 UH-2 헬리콥터가 배속되어 있다. 좀 더 소형화된 에섹스급으로 되면 기수는 물론 기종도 적어진다.

서태평양 방면에서는 흔히 쌍발 제트 폭격기인 4인승의 A-3B가 공격, 공중급유기로서 사용되고 있고, 3대의 RF-8G 정찰기, E-1B조기경보기 일반용 및 구조용 헬리콥터가 배속되어 있다.

나의 취미공개

소박한 대화

화가 박 근 자

흔히들 무 취미가 취미라든가, 취미가 다양하다라는 말을 듣는다. 취미의 한계란 그렇듯 모호하기 때문인 성 싶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면 먹는 취미라는 취미가 있겠고, 일반적인 것으로서 당구, 바둑, 낚시, 등산, 음악, 미술, 영화감상 또는 독서, 사냥, 승마 등 한이 없다. 요사이 어느 층에선가 유행인 듯 한 골프라든가도 여가선용의 취미인 것 같다.

이 막연한 취미라는 범주 속에서 나의 것을 골라 본다면 우선 연극, 영화, 미술, 음악 감상이나 독서는 나에겐 필수적인 것이어서 취미 속에 넣을 수 없고 더욱이 그림을 그린다는 내 유일한 창작행위를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모독인 성싶다.

그리고 취미란 것이 처해지는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극히 산만한 나의 취미론을 펼쳐볼 수밖에 없다.

변덕스레 발작되는 취미들 중에 뜨개질이나 옷 만들어 보기 등이 있으나 그것이 완성을 보기 전에 싫증이 나서 미완성 작품으로 굴러다니기 일쑤이나 취미인 것만은 확실하다.

몇 년 전엔가는 반지나 보석, 악세사리 등을 내 호주머니 사정이 용납하는 한도에서 수집한 고상(?)한 취미가 발동한 적도 있었으나 일년도 못되어

각 항공모함은 적어도 1대의 쌍발화물기는 C-1A 혹은 C—2A가 있어서 인원, 우편물 기타의 물자이동을 맡고 있다.

미해군은 8개의 헌터 킬러 클럽이라고 하는 대잠수함공격단이 에섹스급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있다. 각 클럽은 2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기 20대의 S-2, 16대의 SH-3A 헬리콥터 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S-2는 장거리 수색공격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동기(同機)에는 자기변측발견시스템, 레이더 방해 장치, 수동적 수색시스템, 능동적 수색시스템과 날개에 서치라이트기내에 장치되고 있는 폭탄 그리고 주 익에 로케트탄을 각각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해에 도달하면 발사되는 호밍 어뢰를 적재하고 있다. S-2와 SH-3A는 모두 전천후성능을 갖고 있지만, 속도 면에서 SH-3A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SH-3A는 필요에 따라서 해면에 착륙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위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ASW의 함대에는 반드시 4대의 E-1B와

싫증나 벌리고 말았다. 그 후 그런 수집물들엔 눈도 돌려보지 않고 있다.
내가 살던 아파트, 발코니와 방에 화초를 아름답게 열심히 가꾸어 오가는 사람들의 시각을 즐겨준 비교적 끈기 있는 취미가 계속되었던 몇 해인가도 있었고.
그래서 싫증 잘 내는 것이 곧 내 취미라는 말도 주변의 다정한 이들로부터 듣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덕스런 취미들은 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변치 않는 두 가지의 취미가 있다.
그 하나는 보는 취미이다.
타는 듯 여울지는 노을이나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즐거움과 소박한 우리 농촌의 구수한 마음씨와 모습을 가진 변함없는 사람들과 말벗이나 길벗 되기를 사양하지 않는다. 조상들의 맑음이 담겨진 민속공예품들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진 미술품을 보며 그들의 삶의 자취를 보는 것도 또한 뺄 수 없는 취미의 하나이다.
그리고 인사동 골동품상을 돌아보다. 적은 것이나마 소박함이 보이는 것이 있을 땐 수집해 보는 취미도 아울러 가끔 가져본다.
사색이란 낱말을 너무 무겁고 방황이라고 이름지어본 Wandering은 보는 취미와 같이 뺄 수 없는 취미이다.
이 방황으로서 내 살림과 안팎일들이 엉망인 채 압축 되어 가지만 이것을 버리고 나는 살 수 없겠다. 보는 취미와 원더링 하는 취미에 곁들인 지엽적인 취미는 앞으로 또 많이 변해질 것 같다.
뒤늦게 배운 구영이 그렇고 새로 장만한 집 앞에 놓여진 스케이트장은 올 겨울의 또 하나의 변덕스러운 취미를 부여해 줄 것 같다.

(필자 · 영화감독 유현목씨 부인)

화물기 2대의 UH-2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다. 또한 이 ASW함대에는 20밀리 기관포와 사이드와인더 공 대 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4대의 A-4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A-4C는 시속 1,041킬로의 고속성능이 있기 때문에 함대방공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육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상초계기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미해군에는 30개의 패트를 중대가 있는데 각기 O-2 넵춘 혹은 O-3A 오리오 및 3대의 P-5B 비행정을 갖고 있다. P-3A는 4발의 공 대 공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초계기에는 기관총을 장비하고 있지 않으나 월남전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관계상 P-5B 비행정은 7 · 62밀리의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해군 항공과 해병대

미해군의 기동성과 해병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해병대는 15개의 전투중대 혹은 전투폭격기중대, 12개의 공격기중대, 3개의 정찰중대, 18개의 헬리콥터 수송중대, 3개의 급유수송중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55개의 부대는 천2백 즉 미해군 항공세력의 15%를 점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전투기중대는 15대의 F-4B 혹은 동수의 F-8E로 편성되어 있다. 가까운 장래에 쿠루세이더가 대체되어 팬텀기가 이 중대의 주역을 담당한 것이다. 공격중대는 20대의 A-4 혹은 12대의 A-6기로 편성되어 있다.

각 정찰중대는 최근 24대의 UH-1E 헬리콥터를 세스나 O-1B, O-1C 및 OH-43C 헬리콥터와 대체시켰다. 정찰기로는 RF-4B와 EF-10B가 사용되고 있다.

헬리콥터 중대는 18개 중대가 있으며, CH-46과 CH-53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가 싣는 인원은 17인에서 33인이다.

미해병대의 육상기지는 미서동해안, 하와이, 일본, 스페인, 이태리 등으로서 각 80대의 수송기가 배치되어 있는 바 이의 대부분은 C-130F로 구성되고 있다. 제5중대는 항공모함과 육상연락임무수행에 35대의 C-1A, C-2A 화물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67년 이 공수부대는 모두 군사공수사단에 배속되어 48대의 C-130은 미공군 예하로 편입되었다.

나의 취미공개

녹슨 낚싯대

화가 이 순 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진부 Y씨는 지난 이른 봄부터

"이번 일요일엔 자 자리 나오는데 가니 꼭 같이 떠납시다. 회비는 대드릴 테니 염려 말고……"

이런 식으로 낚시가기를 권했었다.

이럴 때면

"글쎄…… 같이 가도 좋지만…… 다음 기회로 미룹시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 오다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갈 땐 붕어 입질이 왕성해진다는 Y씨의 조설(?)을 들으며 귀가 솔깃하고 한 번 떠나볼까 마음먹다가 결국은 가을이 다 가도록 낚싯대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채 넘기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Y씨의 꾸지람이 심해지게 되고 말았다.

"여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소? 봄부터 가을까지 한 번쯤은 같이 갈 것이지, 그래. 간다 간다 말만하고 단 한 번을 안 가니 그러려면 차라리 낚싯대를 꺾어버리든지 하쇼."

그러나

"지난 일은 그렇게 됐소만, 내년이 있지 않소. 내년엔 아주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따라 다닐 테니 좀 봐주슈……"

하고 받아 넘기기도 했다.
이렇게 된 데는 나대로의 까닭이 없지도 않다.
한 번 마음먹고 낚시회를 따라 나선다면 아무리 줄잡아도 7, 8백 원의 경비가 든다. 지금부터 4, 5년 전만 해도 경비가 그렇게 들지는 않았다. 고작해야 3백 원이면 낚시회를 따라갔다 올 수 있었다. 그러던 게 요즘은 낚시열이 더 심해졌는지 토요일에 떠나도 마리라고 불리우는 밤낚시까지 하며 기승을 떨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비가 2, 3천원 선까지 육박하게 마련이다.
에라 낚시 한 번 갔다 온 셈치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이나 사다 놓고 집안 식구들과 같이 먹으면 살로나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밤을 지내고 나면 일요일 아침엔 일어나는 대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에이 안 가길 잘했지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보기로 하나 가을 하늘이 청명하게 개리고 바람 한 점 없으면 무리해서라도 떠날걸 그랬지……하고 아쉬움을 억눌러 보기로 했었다. 그러고 나도 마음은 Y씨가 가서 앉아 있을 잔잔한 저수지 풍경을 그려 보면 찌가 물위로 솟구며 뿌듯하게 매달린 붕어, 그리고 만족한 웃음으로 활짝 핀 Y씨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던 일도 있었다.
아무리 경비가 든다 손치더라도 조금 무리하면 못 떠날거야 없었지만, 4, 5년 전 보다는 확실히 게을러진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서두르며 낚시터로 가는 것 보다는 늦잠이나 실컷 자고, 아침을 든 뒤에도 또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하루 해도 모르게 몸에 배고 말았다.
그렇게 굳게 Y씨와 내년에 같이 낚시가기를 약속했지만, 내 속셈으론 그리 실현될 것 같지도 않고 자신도 없다.
Y씨도
"내년? 내년에 잘도 가게 되겠수, 올해 단 한 번을 가지 않은 사람이 내년이라고 잘도 가겠수……"
이렇게 내년을 내다보며 공박을 해온다. 그러면
"할 수 없지. 가게 되면 가구 못 가게 되면 그 뿐이지. 아 그래 당신을 봄내 여름내 잠자리 잡으러 간다고 큰 소리만 치더니 그 놈의 잠자리 잘도 잡습디다." 이렇게 맞서 보기도 했다.
어쨌든 내게는 7, 8년 전에 장만해 놓은 헐어 빠진 낚시 대가 길고 짧은 거 합쳐 몇 벌은 있다. 그러나 일 년 동안 한 번도 풀어 보지도 못한 채 해를 넘기는 수가 있는가 하면 일 년에 한두 번 가는 게 고작이었다.
이러고 보면 내 생활에서 취미라는 게 점점 멀어져 가고 무취미 생활로 접어들고 있는 것만 같다. 그 만큼 시들어 가는 생활이 아닐까?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 고작 이런 소리를 늘어놓게 된 게 서글프며 한편 어떤 학자분이 60고개를 넘었어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른다는 분의 그 정력과 그 고상한 취미 생활이 한없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영공주권과 영공자위권

중위 법무감실 안 용 일

1. 서
2. 영공주권
 1) 영공의 의미
 2) 영공고권
 3) 타국항공기의 영공비행
 4) 영공상의 추적권
 5) 공공(公空)상의 자국항공기
3. 영공자위권
 1) 자위권의 연혁 · 의미
 2) 영공자위권(내용)

1. 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 소의 양극화(Bi-polarization)에 따른 냉전은 간헐적인 국지전쟁만을 유발시키며, 현지하고 있다. 국제역학상 동서 양대진영간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통합된 구주(歐洲)와 현대화한 중공에 의하여 바야흐로 다극화(Multi—polarization)의 명광로에 용해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평화(Uneasy peace)가 감도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부단한 시도를 감행해 왔다. 국제연합을 통한 토의적 분쟁해결, 핵무기사용금지 등의 군비축소회담, 국제법

의 발전을 통한 법적 상호규칙 등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열전화방지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한편 현대전에 있어서는 주요한 전장이 공역이요, 주요한 무기는 항공기 및 유도탄인 까닭에 전쟁의 승패는 제공권(Air superiority)이 어느 편에 속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국제사회에서 실력적 무력충돌의 주요장소는 공역이요, 전쟁도발의 최초적 방편은 영공침해와 공중기습이다. 따라서 국가의 영공은 국가의 배타적 통치영역인 동시에 자기보존을 위한 최전의 보루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위해 성장해 온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영공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기본권행사 및 무력적 제재로서의 국가 자위권 행사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Ⅰ. 영공주권

1. 영공의 의미

국가의 성립요소로서 국민생활의 근거가 되는 영역은 일정한 육지와 부속도서, 그리고 이들 주도의 일정범위의 해역과 그 상공을 포함한다. 국가영역은 곧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영공의 수평적 한계는 영토와 영해에 국한된다. 영해의 범위는 해양법(Sea Law) 상의 지상 문제인바, 빈커스후크((Bynkershoek)의 착탄거리설(說)(3해리설) 이래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국제법상의 통일된 원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세계 각국은 국토방어와 연암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상인국의 양해 하에 영해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영공의 수직적 한계는 한계설과 무한계설이 대립돼 있다. 이는 곧 공간법(space Law)의 문제로서 무한계설은 현실상 인정하기 곤란하며 한계설은 어느 한도의 한계를 영역으로 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현재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유도탄 등 초고공비행기의 발전은 영공의 수직적 한계가 무한일 수 없음을 현실로써 교시하고 있다. 한계설엔 현재 발행할 수 있는 최고비행고도로부터 300마일을 접속공으로하여 비군용항공기만의 통과권을 인정하자는 접속공설, 일정고도 이하를 영공으로 하고, 그 이상의 공역을 공공으로 하자는 자유공설과 영공의 수직적 한계를 지구의 중력의 작용이 미치는 대기권에 한정시키자는 대기권설 등이 있다. 현재 각 국제조약에 표기된 영공의 해석이나 국제관습을 보건대 현행국제법은 대기권설을 채택하고 있다.

2. 영공고권

국가는 국제법상으로 자국영역 전반에 대하여 최고의 권리를 행사한다. 즉 일정한 영공의 하토국은 영토, 영수와 함께 영공에 대하여 완전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국제민간항공조역 제1조 1944, Chicago, 국제항공조약 제1조 1919, Paris 참조). 영공에 대한 국가의 주권 행사는 곧 영공상의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한 주권 행사를 뜻한다. 따라서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해선 국가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거나, 일정한 업무를 부과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 제한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엄격한 입법을 요하나 그렇지 않으면, 명령 등의 국법형식을 취하든 개별적인 지시, 공고를 취하든 가할 것이다. 한국항공법상의 항공기에서의 물건투하금지, 낙하산강하, 곡기비행 등의 제한은 곧 국가의 자국영공에 대한 배타적, 단속적 관찰권에 근거한다.

영공국은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자국 또는 타국의 항공기가 자국의 영역 내에 일정구역상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 금지할 수 있다(국제민간항공조약 제9조, 중화민국 요새보루지대법 제7조 참조). 이러한 국가의 영공고권은 자국항공기 뿐만 아니라 타국항공기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으며, 타국항공기에 대한 통치권행사엔 국제법상 제한이 부수되며, 이는 차후 설명하기로 한다.

현실적으로 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고 있어 비행상의 제규칙 등에 관해 국제적 통일화를 기하고 있으며, 동 조약의 체약국은 동 조약상의 각종 규칙, 기준 등을 국내법으로 변형 수용하고 있다(한국항공법 제1조 참조).

3. 타국항공기의 영공비행

타국항공기는 영공국과의 국제조약 상의 권리에 의하거나, 영공국의 특별한 허가 또는 불가항력(악천후, 기체고장 등)에 의하여만 영공국의 상공을 비행 또는 영공국의 영역에 착륙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조는 체약국의 민간항공기는 사전허가 없이 타국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일반 국제법상의 확립된 권리는 아니며, 다만 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의 공동승인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군항공기는 타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타국영공을 비행하거나 타국영역에 착륙할 수 없다(국제민간항공조약 제3조, 국제항공조약 제32조 참조).

국제법상 타국민간선박이 연암국의 안전, 공서,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권리, 즉 무해항행권(The Right of Innocent passage)의 인정은 확립되어 있으나, 타국민간항공기의 영해상공상의 무해항행권은 잠수함의 영해하면 무해항행이 부인되는 것과

같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국군항공기에 대해선 영공뿐만 아니라, 국방을 위해 인정한 방어공역(Air Defense zone)에서의 무해항행도 인정되지 않는다,

군항공기는 민간항공기든 일단 타국의 영공을 비행할 시엔 하토국의 항공법 등 국내법규에 복종해야 한다. 만일 하토국이 비행 상의 규칙이나 항로에 관해 지시, 명령했음에도 평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하토국은 국가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여 타국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키거나, 때로는 격추시킬 수 있다. 타국민간항공기 및 그 승무원은 항공협정 기타 조약에 의거 영공국에 대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영공국은 이들에 대해 민사상 및 형사상의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한편 타국군항공기는 타국국가기관에 준하여 국제법상의 권익을 구유한다. 즉 타국군항공기가 영공국에 착륙하면 영공국은 항공기의 지체 및 부속물과 항공기내의 물품 서류 등에 대해 침해할 수 없으며(불가침권의 향유), 항공기 및 승무원은 영공국의 재판관할권, 경찰권, 일정과세권으로부터 면제 받는다(치외법권의 향유).

그러나 이와 같은 타국군항공기가 누리는 특권은 국제관습법 내지는 국제예양(Comitas Gentium)에 근거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확정적 특권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4. 영공상의 추적권

국가가 자국영역에 대하여 갖는 관찰권이 일정공역까지 확대되는 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국가의 추적권이다. 원래 추적권(The Right Hot Pursuit)의 타국선박이 영해 또는 접속수역(국가가 자국영해에 접속한 공해상에 특수한 국권행사를 위하여 설정한 일정범위의 해역)에서 연암국의 법령에 위반하고 공해로 도피하는 경우에 연암국가가 그 선박을 나포 처벌하기 위해 그의 군함, 군항공기 기타 국가기관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공해까지 중단하지 않고 추적하여 그 선박을 나포하여 자국으로 인치하거나, 격침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공해조약 제23조 참조).

이러한 추적권의 인정은 널리 공역에까지도 유추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자국의 영공 상에서 타국항공기가 영공국의 법률 기타 국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 영공국은 피의항공기에 대해 정지신호를 한 후에 군항공기 등을 출동시켜 피의항공기의 도피를 추적하여 자국영역에 강제착륙 시키거나 격추시킬 수 있다.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추적항공기가 영공내에 있든 영공 외에 있든 간에 피의타국항공기는 자국영공 내에 있을 때, 그리고 피의항공기가 도피를 개시할 때 추적을 개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추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추적은 피의항공기가 자국 또는 제3국의 영공에 진입함과 동시에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추적항공기가 피의항공기의 영공이나 제3국의 영공까지 추적을 계속한다면 추적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국가불법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추적국의 항공기가 피의항공기를 자국영역에 강제착륙 시키거나 격추한 경우에 추적당사국은 피의항공기관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고해야 한다.

5. 공공상의 자국항공기

제국가의 일정영해를 제외한 여하한 국가의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공해(High sea)라 한다면, 공공은 공해상의 상공전부를 지칭한다. 16세기 Grotius의 자유해론(Mare Liberum) 이래 공해 상에선 공해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러 공공자유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된다 하겠다. 공공자유의 원칙의 내용은 공공에서는 여하한 기국의 항공기라도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으며, 공공에 대한 권원은 어떠한 국민이나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에서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국이 일절의 민사상, 형사상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항공기 내의 인원과 화물은 그 국적여하를 막론하고 항공기소속국의 권한에 복종해야 한다. 어떠한 국가도 공공을 항행하는 타국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반적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혹 국제조약 등에 의해서 예외는 있다. 항공기가 공공을 항행할 시에는 국제법상의 항행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Ⅱ. 영공자위권

1. 자위권의 연혁 · 의미

일반적으로 합법적 전쟁이 인정되었던 전통국제법 하에서는 분쟁해결이나 국가정책수행을 위하여 자위권을 표방하여 전쟁행위를 정당화하여 왔다. 이는 미분화한 국제사회에서 '힘의 지배'(Rule of power) 원칙이 국제사회의 정의로서 신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후 Nuremberg 군사법정 및 극동군사법정은 국가의 자위권을 유보하는 판례를 남겼고 국제연합헌장 제51조도 국가의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규정,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위권의 성립과 그 요건을 결정하는 국제기관이었고

자위권의 국제적 합법성에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분화되고 국제법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나아가서는 국제분쟁 내지 사태에 대해 평화적 해결만의 합법성을 추구하는 국제법정신에서 볼 때, 국가의 자위권 행사엔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의 자위권(The Right of Self defense)의 의미는 자위권의 양면성에 기인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다. 즉 자위권은 일면으로는 타국의 무력적 침해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그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타면으로는 타국의 국제법상의 불법행위로 빚어진 국제책임에 대하여 무력적,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여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법 순서에 있어서는 이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에 있어서 피침해자의 실력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면에 일정한 가해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자력구제 내지 무력적 제재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법성이 부인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자위권 및 자유권행사의 의미는 자위의 대상 즉, 타국이다. 일정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타국의 침해행위를 단순히 무력적 사실행위로 파악하면 자위권의 합법성은 정당방위의 법리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자위권의 본질은 주권, 독립권, 평등권과 같이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권 내지 절대권으로 이해될 것이며, 한편으로 타국의 침해행위를 국제법상의 국가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자위권 발동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파악하면 자위권의 본질은 국제분쟁의 강제적, 무력적 해결수단에 불과한 비합리적, 실력적 제재행위로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자위권의 본질에 대한 양론에 대해서 자위권 자체를 국가의 기본권으로 본다하더라도 자위권의 실질적인 내용인 자위권의 행사는 이미 국제적 불법행위를 범한 침해자에 대한 무력적, 강제적 제재로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규정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자위권의 행사로 빚어지는 국제사태가 명백한 전쟁상태라는 것과 자위권 행사 자체가 국제법상의 평화적 분쟁 해결수단이 아닌 무력적, 실력적 해결수단이므로 국제법상 위법성이 성립되기 때문인 것이다.

2. 영공자위권(내용)

자위권이 비록 국제사회에서의 실력적 제재행위라 할지라도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 통설적으로 자위권은 자국의 긴박한 위해에 대하여 부득이한 한도 내에서 방위적 실력제재행위를 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UN 헌장 51조는 무력적 공격(Armed Attack)이 있는 경우에만 자위권발동을 인정함>. 따라서 영공 기타 공간에서의 자위권행사에 있어서도 자위권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

① 자위권은 자국의 보호만을 위해서 발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국을 보위하기 위한 무력적 제재는 자위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상으로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참조), 집단방위조약(NATO 참조) 등 집단적 자위를 체약한 국가 간에 있어서는 타방체약국의 피침해에 대한 공동방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자위권은 국가의 주권, 영역, 자국민의 신체와 재산 등 널리 자국에 대해서 여하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특별한 허가 없이 자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해하는 타국 또는 교전단체의 무장선박, 군항공기에 대한 무력적 제재는 당연한 자위권 발동이다. 물론 소속미상(unknown)의 항공기가 자국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기의 민첩한 기동력을 감안하여 일정한 방위공역을 설정하고 자국 방위공역에 대한 타국항공기의 불법침해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③ 자위권은 타국영공, 공공에서도 발동될 수 있다.

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타국의 영공을 침해하여 자국민의 공중수송이나 위해요인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해 상에서 항행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공공에서 비행중인 자국의 항공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공공이나 공해 상에서의 자위권 발동은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적대국의 항공기가 공공을 경유하여 자국의 영공을 침해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공공에서 공중전이나 적기격추는 응당 자위권에 포함된다 하겠다.

④ 자위권은 부득이한 한도 내에서 방위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자국영공 또는 공공에서 공중전을 전개하는 경우 상대방기국이나 제3국의 영공까지 추격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영공이 상접하거나 부득이하여 타국의 영공을 침입하게 되더라도 대지공격이나 폭약투하 등 적극적 침략행위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자위권의 의미는 상실되며 과잉방위가 되어 능동적인 침략전을 결과하게 되므로 차후에 자국에 국제책임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끝으로 자위권의 발동은 전쟁이란 국제적 불법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주의적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날틀로 처녀비행(處女飛行)한

<라이트>형제
이 언 순(역)

인류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한낱 꿈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라이트 형제는 실현에 옮겼다.
즉, 오빌과 윌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 라이트 형제는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이라는 촌읍에서 자전거 영업을 하면서 이른바 날틀(활공기)의 설계와 제작에 힘을 기울여 드디어 만들어 낸 것을 북 캐롤라이나 주 키티 호크로 운반하여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시험을 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1903년 12월 14일 또 다시 시험을 한바 단 3초간을 뜰 수 있었으나 수평비행을 속행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3일 후, 형 오빌은 동력비행으로 12초간을 공중에 머무르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바라던 꿈이 실현되었으며 현 항공사의 막이 열렸던 것이다.

□ 하늘을 나는 기계

기체를 와이어(철사줄)로 트럭에다 일단 걸어만 놀 것 같으면 제아무리 엔진이 잘 돈다 하더라도 뜰 수 없으며, 사람이 일일이 와이어를 출지 않으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이 하늘을 나는 기계의 시초의 상황이었다.
라이트 형제들은 1903년 12월 14일 역사적으로 이 날틀의 엔진을 최속으로 회전시켜 놓고 누가 최초로 타느냐 하는 것을 동전을 굴려서 결정지었다. 동생 윌바가 먼저 타기로 했다. 윌바는 익상으로 기어 올라가서 균형을 잡은 다음 배를 깔고 앞을 바라보았다. 와이어를 늦추면 날틀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간다. 익단을 잡고 있던 형 오빌은 1~2m정도 밖에 따라가지를 못했다.
10m에서 20m정도 미끄러져 갔을 때 날틀은 갑자기 머리를 들며 떠오르더니 실속을 하면서 33m 정도 밑에 골짜기에 접지했다.
그때 초침시계를 보았더니 체공(滯空)한 시간이 3초반이었고 접지할 때 좌측 익단이 땅에 닿아서 기체는 왼쪽으로 팽 돌아서 멈추고 약간의 부분품이 파손되기도 했으나 기체의 손상은 경미했다.

이 최초의 시험비행에서 엔진의 출력이 충분한가, 아닌가하는 알 길이 없었으나 이륙방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두 형제는 기쁨을 억제할 길 없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수리에는 2일이 걸렸다. 16일 오후 비행준비를 하기 위해 기체를 건물 밖으로 내 놓고 최후의 조정을 하고 있을 때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한참 이 기계(날틀)를 쳐다보더니 이들 라이트 형제들에게 무엇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슴치 않고 '나는 기계'라고 대답했다.
"무엇? 나는 기계라고?"
한참 중얼거리더니 "바람만 잘 불어주면 뜨겠군."한다.
그러나 그 사나이의 바람이란 뜻은 수일 전에 불었던 초속 40m의 강풍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이가 없는 말이었다.
1903년 12월 16일 밤은 북쪽에서 강풍이 불어왔다. 17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집 앞에 있는 연못이 모조리 얼어 버렸고 10m에서 20m의 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 했다.
이들 형제는 곧 바람이 잘 것으로 알고 건물 안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했다. 오전 10시 강풍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형제는 나는 기계를 내 놓고 비행해 볼 것을 결심했다.
구급대에게 연락을 하고 곧 이어 비행준비를 했다.
바람이 강하면 조종하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이륙은 손쉽게 될 것 같고 착륙시에는 속도가 떨어질 것만 같았다.

□ 바람으로 뜬 날틀

두 형제는 건물 앞에서 북쪽으로 향해 30m의 레일을 깔았다.
바람은 매섭고 작업은 힘이 들었다. 손발도 얼어왔다. 건물 안으로 들락날락하며 몸을 녹이면서 작업을 계속했다.
준비가 거의 끝날 때쯤 구급대원인 J·T 다니엘스와 W·S 다우, A·D 에세리지 그리고 너그스 헤트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죠니 몰과 먼테오에 살고 있는 W·C 보릭크레이라는 두 소년이 찾아왔다.
리챠드 식으로 된 풍속계로 바람을 재보니까 11m에서 12m이었다. 최후비행시의 풍속은 9m에서 10m이었고 키티 호크의 정부기상대 관측에 의하면 이날 10시 반에서 12시까지의 풍속은 최초가 12m, 최후가 11m이었다.
이 사이에 이 기계는 4회에 걸쳐 나는 시험을 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수천 회에 걸친 비행시험 기초로 해서 라이트 형제는 '동력비행'을 성공시켜 보려고 끈기 있게 싸웠다.
기계는 이미 비행을 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력비행은 처음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다.
그들 자신들이 만든 기압표와 조종장 치를 믿으면서 비행을 결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압표라고 해야 고작 원시적인 것으로 기속이 증가되면 그 동압을 판에서 받아 조종사에게 지시하는 이른바 오늘날의 구식 속도계 비슷한 것이다.
이날의 비행은 형 오빌의 차례였다.
엔진을 수분 간 돌리다가 기체에 걸려있는

와이어를 풀었다.
동생 월바는 익단을 잡고 날틀과 함께 뛰었다.
12m의 바람을 받으면서 날틀은 아주 서서히 전진했다. 3일 전의 시험비행 때와는 전연 달랐다.
월바가 익단을 잡고 12m를 달렸을 때 날틀은 떠올랐다. 구조대원의 한 사람이 이 광경을 사진 찍었다. 날틀은 레일의 말단까지 가서 떠올랐으며 지상 60m정도 떠올랐을 때의 사진을 보면 아주 쉽게 뜬 것이 증명되고 있다.

□ 비행거리 무려 30m

날틀의 비행 코스는 엉망진창이었다.
바람 잘이 센데도 있겠지만 오빌의 조작이 서투른데도 원인이 있었고, 타의 방향안정이 극히 불량한데도 있었다.
날틀은 상하 좌우 제멋대로이고 3m나 솟아올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슬아슬하게 하더니 출발점에서 36m, 부양점으로부터 30—지점에서 머리를 숙이고 접지비행을 끝냈다.
이때 풍속은 11m, 바람 방향을 향하여 날은 이때의 날틀의 대기속도는 3m이었으므로 무풍상태에서 비행을 한다면 14m속도로서 106m 이상을 날았다는 결과가 된다. 여기 소요된 시간은 단 12초로서 끝났으나 동력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사람을 태우고 자체의 힘으로 부상하여 자력으로 전진비행을 했고, 이륙지점보다 높은 장소에 착륙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시험비행 중에서 최초로 성공한 기록이며 문자 그대로 인류에 의한 공력비행에 눈부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 그릇된 판단의 요소는?

희망적 관측, 잘못을 알면서 자기의지로만 고집하는 것, 잘못된 선입관, 편견, 독단, 감정에 사로잡힌 태도, 공포, 식욕, 지나친 우월감, 당파적인 충성심, 인종적 또는 계급적 편견, 논리적 오류 이들은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에 대해 장님을 만들고 증오는 미운 사람의 결함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시하게 한다. 이러한 색안경으로 사물을 보아서는 바른 파악과 판단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한다.
사물의 판단을 70% 이상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둥근 원을 볼 때 어느 사람은 달로 본다. 어느 사람은 동전으로 본다. 어느 사람은 시험답안지의 0점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만 보더라도 자기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있는 상황에 감정을 투영하여 생각하게 된다. 감정이 급하면 합리성은 구축되고 높아지면 이성은 저하된다는 것을 더욱 명심하여야 한다.

마이크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문화방송 상무이사 임 택 근

'나의 취미'하고 막상 생각해 보면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최근에 마련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아내를 모델로 소위 예술사진을 찍는다고 법석도 떨어 보았으며 카메라 악세서리를 모으노라고 욕심을 부린 일도 생각이 난다.
최근 3, 4년에 체중이 부쩍 늘어 22관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한두 대를 피워봤으나 연기가 채 넘어가기도 전에 기침부터 나오니 담배는 도저히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양이다. 또 운동을 해 보느라고 해서 선친께서 물려주신 골프 클럽도 휘둘러보고 있으나 좀 해서 체중이 줄지 않아 걱정이다.
바쁜 회사업무와 그밖에 겹치는 스케줄 때문에 한가로이 취미를 즐길만한 시간도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마이크와 더불어 사는 내 생활 그 자체가 취미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수만 관중들의 환호성 속에 파묻혀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때면 나는 온갖 잡념이 없어지고 황홀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
나는 여기서 내 젊음과 정열의 연소를 느끼게 된다. 중계방송이 끝나면 몸이 몹시 탄다.
그럴 때 거품이 철철 넘쳐흐르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킬 때 아마 내 체중이 늘어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금년에는 중단했던 골프를 다시 시작 인도아에서 스윙 연습을 많이 하고 파란 잔디밭이 고운 시원한 들판에 나가서 골프를 마음껏 즐겨보고도 싶으며 낚시 줄에 몸을 걸고 기다리는 강태공도 되어 보고 싶다.

국제법 문제 학술세미나 참석보고

-비국, 아시아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중위 공사교 이 상 운

필리핀 국립대학교 법과대학과 필리핀 국제법학회가 주동이 되어 설립한 아시아국제문제연구소(The As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주최 국제문제에 관한 제2회 학술세미나가 1967년 6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에 걸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대학교 법과대학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의 국제문제 학술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제국(諸國)이 중심이 되어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혹은 정치적 문제 등에 관해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고 국제적인 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아직까지 소회되었던 아시아인의 정당한 주장을 반영시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이 회의의 성격은 아시아국제문제연구소의 의장인 로무로(Romulo) 박사의 본 세미나 개회사에 잘 나타나 있다. 전에 유엔 주재필리핀대사로서 우리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으며 현재에는 필리핀정부 문교부장관과 필리핀 국립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는 국제법을 비롯한 국제문제에 관한 연구 및 해석 등이 오랫동안 구라파인에 의해 구라파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아시아인에 의한 국제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아시아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국제법의 적용을 보편성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본 세미나의 성격을 명백히 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호주, 필리핀 등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제국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국제법 분야를 연구 담당하는 교수, 변호사, 국제문제담당 국가기관의 고위관사 그리고 필리핀 상원의원 등 약 30여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는데 필자는

이 세미나에 중앙대학교의 노계현 교수와 함께 대한국제법학회의 추천으로 참석하는 영광을 가졌으며 특히 이채로웠던 것은 이 회의에 필자 이외에도 호주와 필리핀의 군고급장교가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세 가지 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발표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원참가의 회의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세미나의 주 논제였던 '현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제 문제점'의 주제발표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인 박스타(Richard Baxter) 박사로서 그는 현대국제 사회에서 야기되는 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국제법의 의미와 세계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제 도전을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한편 프랑스 파리 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며 NATO의 법률고문으로 있는 라자레프(serge lazaref) 교수는 이번 세미나의 주 논제였던 '행정협정의 제 형태'에 대해 그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NATO의 행정협정과 타국의 행정협정을 비교검토하고 실제적인 운영과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법'이라는 부 논제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인 시아트(syataw)교수가 주제발표를 담당하였으며 그는 신생국에 의해 야기되는 제 분쟁 특히 국경분쟁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법 적용상의 제 분규를 논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뒤이어 매일 상하 오(午)에 나누어 각국대표 간에 광범한 의견교환이 시종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인 중심의 학술세미나로서 각기 상이한 국가이익을 배경으로 하는 각국대표들 간에 가끔 볼 수 있었던 이견은 대단히 흥미로웠던 일이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호이해를 통해 공통점을 모색하고자 하던 진지한 노력은 국제법 자체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권의 단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도 크나큰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며 더구나 주제발표까지도 아시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논제의 내용을 지면관계상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세미나의 주 논제였던 '현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제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 대표간의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논의를 종합하여 현대 국제법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와 그에 따른 국제법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신하겠다.

현대의 학자들은 초기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의 국제법은 새로운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 변화하여야 하고 또 변하고 있다.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정치조직과 구주공동시장과 같은 국제경제조직의 출현은 주권국가들의 구질서가 현대문제에 대응하는 만족할 만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나의 취미공개

바둑판 위의 백병전

화가 박 득 호

사람은 누구나 다 여하한 직업을 가졌을망정 의식주 이외에 각자가 다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게 마련이다. 그것도 시대성과 연령과 또는 경제적인 제 조건으로 변해지기도 한다. 내가 학생시대에 도쿄에서 여름방학 때 귀국하지 않고서 당구에 열중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당구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 시대적 풍조에도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마자도 삥뽕 등도 지금은 다 멀어지고 말았다. 나는 화가라는 직업이니까 야외로 사생하러 나가는 것이 나의 취미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역시 나의 취미는 바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둑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최상의 취미일 것이다.

처음 배우기는 백부님께서 바둑을 놓으실 때 곁에서 구경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아마 내 나이 10세 때 일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둑수가 14, 5급 정도로 짐작이 간다. 대부분이 줄 바둑이 많아서 어린 안목에도 알기 쉽고 참 재미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동무

들끼리 바둑을 두게 된 것이 나의 바둑의 시초라 하겠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백부님의 바둑을 관전하면 곁에서 훈수할 수도 없고 속이 안타까워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그때 보통 학교 4년 때 일이라 부친 몰래 서울 편에 부탁하여서 바둑 둘 원석을 구입해 가지고 동무하고 둘이서 틈만 나면 두곤 하였다. 그러다가 바둑만 둔다고 부친에게 눈 속에 내던져 버려서 눈이 다 녹은 다음에야 바둑들을 찾아냈다.

지금의 서울은 가는데 마다 기원이 있지만 40년 전의 서울은 기원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서 나의 중학 시절에는 서울서는 바둑을 못 두고 방학이 되어야 귀향하여서 두게 되었다. 더 상수도 없고 해서 바둑의 진보가 늦었다. 우리나라 바둑의 발전도 8·15 해방 후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차츰 기원도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여서 기원에서 김봉선씨도 그때 만났었다.

1·4후퇴로 부산에서 용중에 나갈 때다. 학교선생 가운데 상수가 있어서 그때 실컷 바둑을 둔 셈이다. 서울에서 환도해서 조남철씨가 각께 최상급수로부터 10명 이내로 명단을 발표됐었는데 그때 이달주군(지금은 작고)과 내가 화단에서는 최상급으로 6급이었다. 그래서 이군과 내가 만나기만 하면 기원에 가서 싸우기 마련이었다. 자웅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던가 여하간 밤을 새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7, 8년 전에 미술대학에 나갈 때 귀로에 김봉선기원을 지나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김봉선기원에는 바둑 친구들이 많았다. 바둑 두기나 2, 3급 상수의 기전을 관전하는 것이 나의유일하고도 최상의 취미였다. 아마 그때에 2급쯤은 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의 바둑은 4급으로 행세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이다. 광주에서 3급을 자처하는 화가 김군과 호선으로 싸워서 그를 눌러 이겼으나 근자에는 경주에서 2급을 자처하는 화가 박군과 싸워서 호선에 승부가 반반 이러고 보니 화단에서의 챔피언은 아직 미정된 셈이 된다. 지금은 하나의 나의 취미라기보다 챔피언을

아직도 과거의 관례를 주로 반영하고 있고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j의 해결능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법(實定法)도 만족스러운 것이 못된다.

현재 국제법은 개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외국의 지배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뉴렌버그(Nurenberg)재판 즉 인간 권리의 구주재판소는 이 경향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의 장래에 고무적이 아닌 몇 가지 다른 경향이 있다. 하나는 세계를 두 가지 질서로 분석하여 각기 자신의 독자적인 법 규율과 분쟁해결방법을 가직 있는 냉전의 존재이다. 다른 경향은 신생국이 급격히 증가한 법 규율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첫째로 신생국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탄생 시부터 자연스럽게 서구사회에 들어갔다. 서구사회는 미국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독립이후 곧 구주의 문명국에

서 성립된 학설, 도덕,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법체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국가성격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신생국과 일정 범위의 저개발구국가들은 자기들이 입법에 참가하지 않은 조약이나 관습법의 구속을 도덕이나 학설에 의해서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연합, 국제위원회의 인도위원인 팔(parl) 판사는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종말 후 새로 탄생한 30내지 40개의 신생국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만들지 않고 때로는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국제법에 어느 정도 그들이 구속을 받느냐는 것이다. 형식적인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된다. 즉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 속하게 될 때 이는 자동적으로 국제사회의 규율과 제도에 따른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훨씬 복잡다단하다. 만약 많은 국제법규가 국제사회의 다수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 기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신생국들이 서구뿐만이 아니고

유지 하는데 급급지사가 되고 말았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둑은 시간의 낭비라고도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도 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계와 같이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자기 직무 이외의 여가에서 일국의 바둑은 일미라 하겠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 바둑판 안에서 움직이고 희비애락이 이 바둑판 속에서 자아내고 있다. 이 바둑의 오묘한 진리는 무한한 것이어서 그 이치를 터득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 돌과 검은 돌의 나열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거짓도 아부도 부정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바둑의 철학이 바로 그것일 것으로 생각 된다.

바둑의 진리야 말로 우리 인생살이와 흡사해서 언제 어디서 6·25 전란과 같은 것이 일어날지 모르며, 수색전, 게릴라전 등이 이 바둑판 상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인생살이 사회생활 등 모든 것을 맛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바둑은 과욕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인내와 겸손과 지혜의 시련을 겪는 도장이기도 한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 못하듯이 바둑에서도 과한 욕심 때문에 패망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이다. 무욕의 경지라든가 적을 사랑할 수 있는 아량, 한 번 바둑에서 수양을 쌓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화살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나 호적수가 나타나면 한 두 판 두게 되는 예가 있으나 대개는 일요일에 나의 화실에서 친우들과 바둑 두기로 지내기 된다. 그 외의 취미로는 영화구경이라고나 할까?

전 세계에 통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참가하고자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인 것이다. 국제법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비록 그것이 몇 가지 법규를 수정하려는 것이지만 법의 장래를 위하여 고무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와 같은 관심의 비고무적인 면이 있다. 신생국들은 국제법이 부여하는 주권 같은 권리는 기꺼이 수용하려 하지만 국유화된 외국재산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와 같은 태도는 당연하다. 이것이 합리적인 법접근법이라고 용인되면 법의 희석화가 쉽게 될 것이며 심하면 신 · 구국가의 각각을 위한 이중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둘째로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분단에 있어 현 세계에는 두 역사적 평행선이 있는바 그 하나가 지구를 통치하는 공산주의 운동이다. 이것이 국제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당연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장된 법체계의 보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 도전의 결과는 서구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단합하여 초국가단위를 형성하는 것에 박차를 가했다.

분단은 또한 평화유지기구로서의 국제연합운영에 고안된 것과 전혀 다른 UN군이 생겨났으며 각국으로 하여금 집단방위문제와 지역협정에 의해서 안전보장을 꾀하게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공산국가가 분쟁해결절차로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제3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또한 모호한 국제조약을 서방의 이익에 반하는 법 내용으로 채우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불평등조약'과 제국주의는 국제적 불법행위로 선언되었다. 예를 들면 1962년에 소련외무성법제국의 일원인 잔킹(Junkin)은 '현대국제법'의 추세는 '반식민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현재학자나 입법가의 임무는 그로티우스(Grotius) 같은 일개인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로티우스처럼 국제관계에서 신시대의 초기에 놓여있다. 국제법에 대한 조소 대신에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가 급격히 축소되어 감에 따라 국제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위에서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각종 국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미 4백여 년 전에 구라파에서 구라파중심으로 성립된 국제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대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달 전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확인하였다. 즉 국제법이론이 국제사회의 권리정치 면에서 강대국의 이익보호의 시녀노릇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후진 아시아 제 국가는 아시아지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 및 국제문제연구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아울러 지역적인 협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아시아중심의 국제법이론의 연구와 판례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오늘날 국제법은 각 주권국가에 의해 자국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 사태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히 처리한다는 것은 각 국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기대하기 곤란하다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와 법규범으로의 국제법에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국제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아시아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며 필리핀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인 산로스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폐회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국제법 및 국제관계연구소에 있어서 아시아인들이 각성하여 국제정치 면에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각종사태에 대하여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법이론 보다는 아시아의 풍토에 맞는 법 이론의 적용으로 아시아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대등한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각제법의 창조라는 현대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인의 이니시어티브와 공통노력이 요구됨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상호국가 간에서 받고 있는 후진국이란 공통적인 고민과 국제법 및 국제관계연구의 방향과 경향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준 대한국제법학회와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하여준 아시아재단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지면관계상 국제법상에서 논의되었던 제 법이론을 생략하였음)

기 독 교 와 윤 리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 지 동 식

1. 종교와 윤리

종교 신앙은 그 어느 것이나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종교와 윤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교의 모든 교훈은 그 대부분이 윤리적 교훈으로 되어 있고 위대한 종교가들은 대개 높은 윤리적 가치를 보여주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종교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들은 대개 높은 윤리적 가치를 보여주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종교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들은 대개 그 발휘하는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평가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고상한 종교이면 종교일수록 그 발휘하는 윤리성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와 윤리 사이에는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종교인만이 순결한 윤리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하는 이들 가운데도 강한 윤리성을 발휘하는 이들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종교 신앙에는 퍽이나 열성이지만 윤리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결여를 보여주는 이들도 있다. 그런 만큼 종교적인 모두다 선인들이요 비종교인은 악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와 윤리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두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윤리에는 언제나 일정한 전제가 있으니 이는 곧 인간은 본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여기에서 이른 바 너는 할 수 있으니 행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의 문제가 생기거니와 이것이 바로 윤리 성립의 근거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종교의 힘을 힘입지 아니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종교적 겸비를 등한시 하고서는 올바른 의미의 윤리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윤리에서 엿볼 수 있음과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으리

만큼 회생적인 윤리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윤리적 우월성을 자랑할 따름이요 이웃에 대한 순결한 윤리는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구열과 상거가 생기게 되는데 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구열과 상거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열과 상거는 정치나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생물학적 조건을 해결하는 정도일 것이고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뿐더러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 역시 인간자신의 활동이니 만큼 정치에는 정치 윤리가 부수되고 경제에는 경제윤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날 희랍사람들은 윤리사상 중에 정치문제를 포함시켰었고 유교윤리에도 정치문제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자의 사회윤리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간혹 인간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자유와 책임으로써 그 사회를 건설해야 되느니만큼 신을 믿는 종교 신앙은 드디어 윤리생활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주장이거니와 이 주장대로 하면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하는 무신론이야 말로 순결한 윤리생활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것이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무신론이 성행되었었는데 언뜻 보면 이 무신론이 서양인이 신봉해오던 기독교에 대한 반박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인 즉 기독교 자체보다도 그것을 신봉하던 신도들과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대한 반박이었다.

그러나 동양인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특수 종교인 기독교만을 유일한 종교로 신봉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다신론적 혼합종교를 신봉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동양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윤리의 길을 찾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윤리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종교 신앙과 윤리생활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종교 신앙에서는 주로 미적이며 관능적인 만족을 구하는 수가 많다.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반종교적인 무신론적 윤리 사상이 성행되었다면 동양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극히 무관심한 무신론적 윤리사상이 생기게 되었고 윤리는 이 세상에 관한 일을 다루는데 반하여 종교는 저세상 일을 다루는 것처럼 인정되어 왔던 것인데 이와 같은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침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 신앙의 고저를 측정하는데에는 그 윤리성의 수준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자인데 저지경이라'느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 항의가 제기되는 것이다. 종교는 결코 윤리의 부속물이 아니지만은 윤리생명의 원천은 종교 신앙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도인은 결코 자기 자신의 덕성을 자랑하거나 그 윤리적 순결성을 자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뉘우침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리어 순수한 윤리생활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순결한 윤리생활은 결코 정치적 책략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룩되는데 M 쉘러의 말과 같이 가장 힘차고 보람 있는 윤리생활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정치적 부패나 사회적 부정의를 문제 삼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의 부패와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다.

2. 기독교와 윤리

지금까지 우리는 윤리학설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실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왔다. 왜냐하면 실지에 있어서는 아무 누구도 윤리학의 이론에 따라서 평소의 행위를 제약받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윤리와 구별 지어서 특히 기독교 윤리를 논할 때에는 아무래도 기독교의 교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교리와 윤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 와서도 K 바르트 같은 이는 교리와 윤리와의 관계는 마치 원리 반경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윤리적인 정항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어디엔가에 그 관점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혹은 이상주의적 입장에다가 정착시키든지 또는 신비주의적 입장에다가 정착시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실리주의적 입장에다가 정착시키든지 하여야 된다. 그런데 파스칼은 일찍이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다만의 인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어중간 입장에 놓인 인간의 위치가 있거니와 천사나 짐승에게서는 원리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지만 이 중간 위치에 서 있는 인간의 정함에서는 윤리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중간한 입장에서 짐승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천사에게 접근해 가고 지하세계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세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데에서 윤리성의 결단이 생기게 되는데 일반 윤리에서는 그 기초적인 이념으로서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예상되지만 그리도인은 그리스도 신앙을 윤리 행위의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앙 의인의 교리를 기초로 하고 그 터진 위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만 신념이나 감정에 의지하면서

윤리성의 약점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에 근거하면서 정의를 수행하여 가는 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새 소망 중에서 수치를 모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내와 용기 및 연란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인 현실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는 이 소명의 자각에서 윤리적인 생활력을 공급받는다. 이는 다만 이상을 추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일만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내적 충동을 느껴가면서 그 맡은바 소임에 충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소명의식이 확대되어서 직업의식까지 미쳐가는 것이다. 천직이란 많은 기독교 이외에서도 사용하여 왔지만 소명은 천직 이상으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내면적으로 형성하며 제약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압도함은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소명의식을 일으키는 데에서 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바로 동경과 기쁨이 된다.

소명을 의식하는 데에서는 또한 성결의 길이 열리거니와 이 성결의 길에 들어 선 이는 고답적인 길을 행하거나 도덕적인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와 달라서 참회와 감사 및 분발의 심정을 반복함과 동시에 공통생활에서는 언제나 사랑의 빛을 걸머지는 것이다(로마서 13:8). 거기에서는 자기실현의 윤리는 아니지만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이 이루어진다.

'나눠 먹지 아니하는 떡은 축복 받지 못한다.'는 가사와 같이 인간이 산산히 흩어져 있어서 공동생활을 위한 노력이 상실될 때에는 인간생활 전제가 무너지는 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지어 주인의 돈을 훔쳐낸 악한 청직이까지도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 공동체의 윤리

기독교적인 이해대로 하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인간생명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생활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세상생활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공동생활에서 유리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그가 기뻐하시는 공동생활을 이륙하며 발전시키는 생활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것이 곧 죄와 멸망인 것이다.

원만한 공동생활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현실 사회는 왕왕 원만한 공동생활 대신에 지리멸렬한 수가 많다. 그러기에 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관련을 계속함과 동시에 아무 누구도 저주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차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과 더불어 얼려 삶을 뜻하거니와 예수와 더불어 얼릴 때에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얼리기 마련이다. 복음신앙을 통해서 새출발을 하게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여기에서 서로 얼려 사는 생활이 전개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고독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고독을 통해서 죽음이 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정상적인 교섭을 가지는 데에서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 독소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다.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죄의 결과란 다름 아니라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그 동료들에게서 이탈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를 붕괴시킴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기주의를 가장 그릇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는 대인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를 고독에서 구해야 되고 생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기독교윤리에서는 공동생활을 해치는 질투를 경계한다.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공통된 원천에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는 생물학적 생활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정신생활에 있어서도 문자 그대로 해당된다. 기독교 윤리가 사회 윤리를 중요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의 교회거니와 이 교회는 요컨대 영적인 공동체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이념과 그 질서는 교회 밖의 공동체의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그들은 다 같이 인간의 현실과 생활을 문제 삼은 것이니 만큼 그것은 또한 일반사회의 윤리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사회가 아무리 인격적인 공동생활에서 멀다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오히려 유기적인 공동사회를 이룩하기에 노력하는데 미국의 R 니버나 벤네트 같은 이들은 이 방면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현대인은 신의 죽음을 구가하면서 자행까지 하는가 하면 과학과 그 응용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하고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는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파멸 앞에 불안과 공포로써 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불안 공포가 하나님과의 관련이 두절된 결과라고 봄과 동시에 신께서는 이 혼란한 역사 중에서도 오히려 그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사화를 이룩하기에 매진하는 것이다.

종교순례

성윤리 소고(小考)

군종감실 군목 최 원 진

연애대위법의 저자로 유명한 헉스리(Aldous Huxley)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고도의 도시문명은 모두 천연 그대로의 자연과 접촉을 잃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서 성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인공적인 세계, 물리적인 가공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벽들과 회반죽의 세계, 강철과 콘크리트의 세계, 거기에다 조직적인 세계는 시골과 같은 세계와는 다른 종류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 전원생활의 가장 가까운 접근으로는 사실상 성이다. 또 다시 우리는 도시를 위주로 한 문명 속에서 수세대를 살고난 결과, 즉 소를 본 적도 없고 꽃피는 들판이나 곡식이 무르익고 있는 들판을 본 적이 없는 수백 만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다. 그는 이상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도시화된 문명세계에서는 성의 문제가 절실하게 군림해 옴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던 것이다. 사실 성의 문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오던 것이지만 세계가 도시화하고 기계화하고 문명화할수록 정비례로 커져만 간다. 그러기에 성에 관한 윤리를 논해 보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며 도리어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먼저 성에 대한 극단적인 두 견해를 말한다면 첫째는 성을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존재로 보는 것과 성을 욕구의 방출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와 같은 입장은 극단의 청교도적인 견해로써 금욕주의적이며, 부정적인 삶의 태도요, 후자와 같은 입장은 극단적인 낭만주의적인 견해로써 자유개방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다.

이 두 견해를 분석해 본다면 거기에는 성을 곡해한 흔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을 공포나 불결이나 죄의 대상으로 여겨질 타부(Taboo)로 생각하는 것도 잘 못이며 한 자극제나 기호품이나 방종적인 게임(Game)을 위한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이다. 또 어디까지나 성적기능은 후손을 남기기 위한다는 면에서 일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파이크(James A. Pik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적 교제는 일종의 예전적(sacramental) 의미를 갖고 있다. 예전은 내면적, 정신적 은혜의 한 외부적 보이는 표시(visible sign)이다. 내면적, 정신적 요소는 소망과 두려움 강력과 연약 등의 전적 항구적인 본원지이다. 그리고 외부적 보이는 표적은 다른 여러 예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의 표현이요, 은혜의 방법이다. 결혼 이외에서의 성 생활은 불가하다. 그것은 성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에서 표시되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 없이 성 관계에 침륜(沈淪)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 나쁜 정도는 그 선한 정도에 정비례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인 경우에 그것을 잘못 다루는 것은 아주 나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파이크의 말을 음미해 본다면 정당한 부부관계 이외에서의 성관계와 부부관계 안에서의 산아제한 문제 등이 당면한 문제점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문제를 논평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안다.

첫째, 정당한 결혼을 한 부부관계 이외에서의 성생활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배재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고금의 건전한 종교가 가르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 경험에서도 그 부당성이 명백하게 지적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개인이나 사회나 정당한 결혼이외의 성 생활이 자행될 때 언제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영우호걸이 성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패북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고 여러 강대국둘이 성적 문란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모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인비는 '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멀지 아니해서 미국의 문명을 파멸, 아니면 그 부근까지 이끌어 갈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고의 강연을 한 적이 있다.

하여튼 성욕의 만족이나 부부의 반려적 관계나 생산 등은 정상적 결혼에만 들어 있는 실질적 요소이기에 다른 곳에서는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 결혼에서의 부부간에서만

성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정 논리나 법률 이전의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성서에서는 결혼은 신이 짝지어주신 이인일체의 신성한 남녀의 관계이며 사회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간음한 연고 없는 이혼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 심리학의 비조인 프로이드(Freud)의 학설에 따라 성적충돌을 억압하는 것이 신경병(Nsrssis)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성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금령들을 무시하여 결혼관계 이외에서의 성관계가 관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함으로 신경병은 더욱 늘어가고 있으며 불건전한 성행위는 행복한 가정을 수없이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인격까지도 산산이 깨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정당한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항구적 인간의 안전을 도모해주며 올바른 것임 재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심리분석학자들도 성적난행이 인격적 불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성행위는 인격적 존경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바른 성관계를 가져야만 온전한 인격자의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사회와 국가에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결혼생활 안에서의 산아제한 문제 등이 성 논리의 2차적 논평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삼스럽게 막사스의 '인구론'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인구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써 대두했기 때문에 산아제한에 관한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일부 프로테스 탄트교회에서는 인공적인 가정제한이 자연에 대한 위반임과 통시에 신의 섭리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 이유는 성적교제에 의한 생산 의 가능여부가 신의 섭리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의 기교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성관계가 정신적 연학의 결연행위로써 일종의 예전적((sacramental)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다만 후손을 번식한다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신뢰와 사랑 등 높은 정신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육과 영의 합성으로 된 존재로 본다면 육적인 동물과 같이 성적충돌을 생리적 본능으로 보고 성관계에서 종족의 계승을 목적하는 한편, 영적인 존재와 같이 일반 동물보다 높은 자원에서 진정한 사랑의 체험을 하고 책임져 존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성적결합에 있어서도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책임적인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부의 성적 교제에 의한 생산의 가능여부를 신께 돌린다든가 우연에 맡긴다면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책임적인 위치에서 적절한 가족계획을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일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가족계획

을 빙자하여 낙태수술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살인 행위를 방불케 하는 것이기에 삼가야겠지만 적당한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삶을 바로 잡기 위해 온갖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아무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가정의 안정을 가져오고 적당한 수의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의 섭리일 것이며 인간으로의 다행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부부의 성적관계에서 피임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며 비정신적인 성적 정욕에 전 관심이 쏠려서 마치 그것이 결혼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광분한다면 그것도 추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순전히 성욕만족을 중심으로 한 결혼생활은 결혼관계 이외에서의 성적난행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여튼 피임의 목적이 성행위의 광분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은 보다 고상하게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종교순례

새로운 윤리

장로교신학대학 철학 교수 도 양 술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새로운 윤리 이전의 윤리에 대해서 잠깐 고찰하기로 한다.

그럴 때에 자연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만 옛날의 윤리는 어떤 법칙을 세워 놓고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윤리가 있었다. 그것을 보통으로 법칙 표준주의윤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칙 표준주의 윤리에 있어서는 그 법칙을 누가 세우는가가 문제이다. 그 법칙을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대로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것을 학자들은 신명권력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는 달리 그 법칙을 임금이 명령하였으니 지켜야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이것을 또한 학자들은 군왕권력설이라고 한다. 앞에서 말한 신명권력설이나 군왕권력설에 있어서는 선과 악을 간단하게 구분한다. 신명권력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군왕권력설에

있어서도 군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성주의 윤리 학설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그 이성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런고로 인간이 이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이것을 희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래로 지덕일치설이라고도 한다.

즉 인간의 이성과 덕 혹은 선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몇 가지 윤리는 대체로 새로운 윤리가 나기전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권력설이나 군왕권력설은 대체로 윗사람이나 왕을 중심하는 윤리학설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옛날에 유행했던 윤리적 입장이다. 이와 같은 윗사람이나 왕을 중심하는 윤리는 또한 시대적으로는 중세기 이전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으로 봉건주의 윤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와는 달리 새로운 윤리가 유행하고 있다.

새로운 윤리로서 첫째는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는 쾌락설이 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신의 명령이나 군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유쾌하지 않은 것은 악이다.

표준이 신이나 왕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것이 잘못 하면 행락주의와 같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표준이 유쾌한 것뿐이니 인간이 깊이가 없고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여간에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쾌락설에 끌려가고 있다. 문화인과 청년과 학도가 끌려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쾌락주의 윤리는 어느덧 인간을 행복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세상은 물론 웃고 즐기고 살아야만 하지만 그 보다는 엄숙한 인생의 도장인 것도 알아야 한다. 인간들은 제 아무리 즐기고 유쾌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뜻하지 아니한 슬픈 일과 곤란한 일들이 있어 인간을 연단하고 시련하면서 깊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노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워 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슬픔을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어려움을 이길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정과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슬픔을 모르고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된 것 같지만 행복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큰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정도 없고 친구도 없어 사실 자기가 어려운 입을 당할 때에 하나도 돌아볼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처참하게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고로 쾌락주의 윤리는 십분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현대의 물결을 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숨은 난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로서 민주주의 윤리가 있다. 이 민주주의 윤리는 옛날의 신명권력설이나 군왕권력설에 전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봉건윤리는 왕이나 윗사람을 중심하여 그를 위하는 윤리였지만 민주주의 윤리는 그와 반대로 아랫사람을 중심하는 윤리이며 아랫사람을 위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대에 젊은이가 중요시되고 늙은이는 가치가 없어지고 젊은이 중에서도 틴에이저(Teenager) 즉 10대 청소년들이 중요시 된다. 옛날 봉건 윤리에서는 남존여비라고 하여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했으나 민주주의 윤리에 있어서는 이제 여존남비가 되어 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봉건주의 윤리에서는 관존민비라고 하여서 관리는 높고 백성은 천했으나 이제는 백성이 높고 관리가 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윤리는 새 시대의 물결을 타고 현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옛날의 윗사람 중심의 윤리에 항의하면서 봉건 윤리를 불태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변화는 현대 우리 한국사회에 두 개의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세계와 노인의 세계, 20대의 세계와 40이후의 세계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이념들을 가지고 있다. 즉 20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중요시하는 민주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고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중요하시는 봉건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어느 가정 어느 사회를 보든지 이 두 개의 세계가 나누어져서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 40대 이상은 누르는 것을 힘으로 삼고 있고 20대 사람들은 무조건 반항하는 것을 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편은 비정상적 형편이다. 이럴 때에 그 가정이나 사회가 안정될 리가 없다. 서로 누르고 반항하면서 풍파와 알력이 있어 평화와 협력이 없어질 것이 사실이다. 그런다고 하면 현대의 사회 불안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해서 문화가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 된 문화인이요, 지성인이라면 이런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출해야 한다. 각기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서로 누르고 반항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여서 거기에 어떤 일치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즉 늙은이는 젊은이를 위하고 또한 젊은이는 늙은이를 높이면서 서로 위하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 된 사회나 안정 된 가정이나 안정 된 직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윗사람만 위하는 봉건주의 윤리도 아니요 또한 그와 반대로 아랫사람만 위하려는, 요사이 소위 민주주의 윤리도 아니다.

본건 윤리와 민주 윤리가 서로 조화해서 늙은이와 젊은이가 서로 화친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아랫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인간사회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언제는 자기반성을 하고 자기 조절을 잘 하여야 한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겸손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남을 돕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기는 그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는 고상한 인격이 붙는 것이고 또한 그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줄을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 보다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면서 그 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나 남과 사회를 괴롭히면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이 볼 때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는 그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 친구가 없어지고 언제나 고독한 가운데 인생을 슬퍼하면서 지내고만 말 것이다. 하여간에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어떤 극단적 고집에 사로잡혀 자기와 가정과 친구와 사회와 만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후로 최근에 상황논리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표준윤리와는 정반대로 일체 표준을 무시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비추어서 좋을 대로 하자는 것이다. 즉 그때그때의 형편에 비추어서 너 좋고 나 좋으면 그것이 선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 상황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일체 원리를 무시한다. 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대로 만든 것이니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때에 서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무슨 원리보다 좋다는 것이다. 즉 원리 없는 원리이다. 이런 상황 윤리는 현대 미국과 구라파 각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까지 밀려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 윤리에도 모순이 있다. 일정한 표준도 없이 단지 그때그때의 형편대로 한다는 것이 그 사회나 그 국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방종한 생활을 즐기는 결과가 오기 쉬운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서로 좋게 하자는 사바사바 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무질서하게 부패하게 하고 유기적 질서와 공중의 규모를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사회가 부패해서 죽게 되고 상하가 불통하고 좌우가 구분이 없게 되어서 혼란한 사회가 되고 만다. 더욱이나 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 있어서는 질서를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서 까마귀떼와 같이 제멋대로 놀게 된다. 그러면

천명이 있어도 하나만 못하고 만 명이 있어도 하나만 못하게 된다. 그런고로 상황 윤리가 좋은 것도 같지만 위험한 점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특별한 정황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법이 있고 규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저지른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비추어서 십분 그 죄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군대에 규율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이나 병고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고려는 예로부터 상황 윤리가 나타나기 전부터서 우리 인류 사회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인정을 가진 자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법도 없이 어떤 사건이나 그때 형편과 상황대로만 하자고 하면 큰 혼돈이 온다는 것이다.

최후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서 결국 고양과 인격과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표준 윤리를 이해하고 그 표준대로 살줄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성주의에 입각해서 이성의 비판을 하면서도 삼아야할 것이다. 또한 자기를 즐길 줄도 알고 남을 즐겁게 할 줄도 알면서 그러면서도 향락주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한 늙은이를 섬길 줄도 알고 젊은이를 생각해줄 줄도 알면서 때로는 그 특별한 정황에 비추어서 비상한 조치를 해줄 줄도 알면서 풍부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원만한 인격자라고도 하고 혹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인정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면서 법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어느 모로 보든지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라고 높이 칭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명랑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격은 앞에서 말한 모든 인간 윤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될 것이다. 윤리와 인격 그것은 심히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윤리가 동물의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자신이 자신됨을 나타내는 것이 그는 가진 윤리관에 비추어서 나타내기 때문이다.

종교순례

술, 담배와 군인신자

군목 107기지단 한 학 수

Ⅰ. 술, 담배의 역사

1. 술의 역사

술은 인류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일이나 애급과 헬라의 신화 속에 술이 언급된 것이나 바벨론의 하무라비법전에 금주법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사기(史記) 속에 술에 대한 관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제 다루왕이 금주령을 내린 것을 보면 술은 고대부터 사람들이 즐겨 마심으로 그 피해가 심하였던 것이다.

2, 담배의 역사

담배는 원래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기호품이었다. 클럽버스가 제2회 미국 항해 시에 AD 1497년 통행했던 로마나 페인의 저서 「도먼의 습성」을 통하여 유럽에 알려졌고, 서양인으로 최초의 흡연하자는 헤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담배 피운 죄 까닭에 종교인들이 중국과 일본에 담배를 전하였고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때에 일본을 통하여 들어와 전국에 만연되어 '담방구'라는 이름으로 애연되었다. 술, 담배에 대하여 국가나 교회가 금령으로 막아 왔으나 만연의 속도는 속하여 현대의 젊은 신자들 중에는 술, 담배를 하는 자가 많이 생겨 문제꺼리가 되어 있다. 특히 군대생활에 있어서 신자들은 술, 담배 문제도 말미암아 고민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Ⅱ. 술, 담배의 영향

1.신체에 미치는 영향

술의 주성분은 메틸알콜(C_2H_5OH)이다. 알콜 함유량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명	알콜함유량(%)	주명	알콜함유량(%)
맥주	3.5	소주	25.4-5
탁주	8	위스키	30
약주	8	부란디	30
포도주	12	칵테일	30
청주	16	고량주	45
과로주	16	찡	45
합성 청주	16	배장	60
		주정	94

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파괴작용		마취작용
1. 수분흡수작용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남(빈혈, 비타민 결핍증, 간장갱화의 원인).	1. 신경마취작용	술이 위에 들어간지 15분 후에 마취작용이 일어난다(감각을 둔하게 만든다).
2. 지방질용해작용	세포막이 파괴되고 흰자질이 굳어진다. 열을 외부로 발산하여 몸이 식는다.	2. 뇌를 마취시킴	알콜이 뇌에 오래 남아 있어 마취작용을 한다(지능작용 생각, 판단, 추리를 잘못한다). 지능검사와 적성검사를 해보면 확실한 통계가 나타난다.
3. 혈관수축작용	(겨울주정꾼은) 동사자가 많음. 백혈구의 항생작용을 저해한다.		
4. 면역성파괴작용	술 1인 평균 7승 소비지방 1000/3의 결핵 사망. 술 평균 1인이 21승 소비지방 1000/11 결핵 사망.	3. 알콜 중독자를 만든다.	알콜 중독은 난치병이다.(비국의 술 마시는 인구 7,000만인 중 알콜 중독자는 500만인이다.)

5. 내장 파괴 작용	위벽과 장벽과 간벽을 파괴한다(중 10~20%), (간장염, 위암, 위궤양, 심장, 병발증, 알콜 중독자).	4. 시경병자를 만든다.	젊었을 적에 술을 많이 마신 자는 나중에 관절염, 류마티스, 중풍병자가 많다.
6. 내분비액의 억제작용	신체의 발육을 저해한다.		
7. 피부를 파괴 작용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긴다. Pellagra 병이 생김.		
8. 소화장애 작용	술은 소화가 안되고 직접 혈관으로 침투하는 까닭에 음식물의 소화를 지배한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은 음식물이나 자국제가 아니고 인체를 파괴하는 독약이며 마취제이다. 알콜은 약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이지 음식물에 사용할 것은 못 된다. 술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술의 해독은 유전된다. 술을 마시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병자를 낳은 예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매일 맥주 2잔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은 18%이고 가끔 술에 취하는 사람의 사망률은 50%이며 늘 술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은 80%이다.

2. 담배의 영향

담배의 학명은 Nicolian Tobacumlinne 이다. 리뽈토 형제가 1570년에 담배 속에 유독성분을 발견했다. 그것을 니코티아나라고 하였다.

이 성분을 니코틴이라 한다. 니코틴은 무색 휘발성 액상의 알카로이드이다. 열어 놓으면 점차 산화하여 갈색이 되어 산과 결합하여 열이 된다.

보통 담배 잎에는 0.6%~4%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 담배를 피우면 처음에는 분비작용이 활발하다가 점차 감퇴된다. 위나 장은 기관지 자궁, 방광 등과 같이 처음에는 수축되었다가 점차 마취되어 활발한 작용을 못하게 된다. 한 개의 권연 속에는 0.02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분량을 쥐에게 주사한즉 세 마리가 죽었다 한다. 그리고 담배 속에는 방사능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 영국의 한 방사능 전문가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람몬 박사의 '담배와 암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담배는 조로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파르 박사는 '담배와 수명에 관한 34분 36초씩 단축되어 간다고 하였다. 하루에 1갑 피운다면 5시간 46분씩이나 단축된다고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연구대상 암 환자수	그 중에 좋은 사람(8,015인)			연구기간
188,078인 188,078인	하루 1갑 피우는 사람으로 죽은 자	하루 2갑 피우는 사람 사망자	하루 2갑 이상 피우는 사람의 사망자	1952~1955.6.
	128인	227인	460인	

(1956.6. 미국의 의사대회에서 발표)

3.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술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술은 판단, 자제, 의지력, 지력, 정신적 활동을 주장하는 뇌를 침해하게 됨으로 주의심과 자기 반성력과 억제력은 둔화시켜서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술은 사람을 괴벽스럽게 만들어서 심적 불안 상태에 빠지도록 하며 자제력을 잃게 하며 잔인하게 만들고 횡설수설하게 만들고 마음을 부풀게 함으로 각종 사고와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범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술과 여자가 도사리도 있다. 교통사고의 40-55%는 운전사가 술을 마신 탓이라고 한다. 술은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술, 담배는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술값으로 소비된 금액은 약 60억 원에 달하며 소모된 양곡은 약 1500만 석이나 된다. 이것으로 2,000만 원 단위의 중소기업체를 세운다면 300개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이 곡식으로 먹는다면 약 120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동시에 그 많은 술(약 300만 석)은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사회적 불안과 범죄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미국의학협의회의 특별위원회가 1960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59년에 일어난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50%는 알콜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가정불화가 술 취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알콜 중독자가 30년 전에는 50세 이상인 노년에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33~40세의 청년들 중에 많다. 그리고 35~55세까지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할 청장년 중에 많다는 것은 비극이다. 세계적으로 알콜 환자가 격증하고 있으며 술로 인한 각종사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신병자가 점차 늘어나고 10대의 사생아가 출생되었고 미국의 자동차 사고로 1959년에 3만 7천 명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 반은 술 마심으로 죽었다고 한다. 실로 술은 현대인을 병들에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와 범죄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담배 소모량은 1953년에 약 150억 본이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이었다. 그러나 1964년도의 담배 소비량은 약 310억이었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8억 원이었다. 전매청제공에 의하면 담배 소비량은 11년간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돈으로는 약 14배로 급증하였다. 1년간에 우리국민들은 점잖게 앉아서 약 138억을 여기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막대한 돈으로 2,000만원 단위의 공장을 세운다면 690개나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담배는 우리나라 경제를 불태우고 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국방비의 약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다. 그 뿐만 아니라 312억의 담배 속에는 624t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 애연가들을 약 700만으로 본다면 매 인당 평균 1년에 담배 5,000본을 피우고 하루에 15본을 피운 셈이다. 애연가 1인이 하루에 니코틴을 0.02gx15=0.3g 씩을 마시고 있다. 이것은 쥐 45마리의 치사량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어리석은 자살행위이다. 1959년에 발생한 서울특별시의 화염 366건(재산, 5,780만원 손해 29명 사망) 중에 담뱃불로 인한 것이 13건이었고 1963년에 발생한 우리나라 전국 화염건수 1,784건(재산 43,800만원 103면 사망, 200명 부상) 중에 답배불과 성냥으로 원인 발생건수가 무려 272건으로 가장 많다(대한손해보험회사 제공). 우리나라 화염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데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5. 군에 미치는 영향

담배와 술이 군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군사기진작면에 있어서 기여할 경우에는 유익하고 사고와 범죄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군사기진작의 경우는 ① 격전이나 강행군 훈련을 치루고 난 후에 피우는 담배 ② 돌격이나 특공대로 파송할 때에 마시는 술 ③ 부대회식이나 파티를 베풀 때 쓰는 술, 담배 ④ 긴장과 초조와 우울이 풀리지 않았을 적에 하는 적당한 양의 주초 등은 일시적 기분전환의 역할을 함으로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적당한 양으로 통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진작의 경우보다 범죄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타군의 통계는 생략하고 우리 공군의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인별)

1961		1962		1964	
충전수	1225	충전수	1143	충전수	932
금욕	427	금욕	477	금욕	153
술주정	173	술주정	208	술주정	140
과실	172	과실	161	과실	126

(죄과별)

1961	1964
폭행상해로 인한 것(254)	근무이탈 188
명정으로 인한 것(181)	폭행(명정) 16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질에 대한 욕심(금욕) 다음으로 술이 우리 공군 장병을 범죄자로 만드는 주원인이 되어 있다. 과실이나 폭행, 음주난행, 술주정 등이 모두 술 마심으로 일어난 범죄이다. 그리고 우리공군의 차량사고 통계를 보면 1964년 1월~10월 총 건수 56건 중 경계부족 12건으로 수위이고 그 다음이 음주운전 7건으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공군 모 파견대장인 K 대위가 야유회를 열어 음주유흥타가 만취하여 귀대중 대행운전과 과속으로 3중 충돌 사고를 내어 2명 사망, 3명 중경상을 낸 참상을 빚어냈다.

우리 공군의 화염발생건수는 1962년도의 6건 중 1건, 1963년의 3건 중 1건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했다. 그리고 김상모 해군 군목이 5년간 33명의 자살자들을 연구해본 결과 그 중 99%가 음주 후에 자살을 단행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군에 있어서 범죄사고 자살사건 배후에는 술, 담배가 개재해 있다.

6.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자들이 술, 담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이 많은데 대개 ① 신자되기 전에 술, 담배 하던 것을 신자가 된 후에도 끊을 수 없어 계속하고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경우 ② 군대에 들어와서 술, 담배를 배운 경우 ③ 신자들이지만 동료들에게서 격리되지 않기 위한 참여의식으로 연회 회식 손님 대접 등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심심풀이로 적당히 술, 담배를 하는 경우 ④ 신자양심의 가책 없이 담대히 술, 담배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술, 담배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준다. ① 술, 담배를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② 술, 담배를 하면서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 ①의 경향과 ③의 경향은 한국교회가 술, 담배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취급하여 술, 담배 하는 자를 교회가 용납하지 않고 정죄한데 기인한다. 교회가 본래의 사명인 구령사업보다 절제 문제인 금주 금연을 중요하게 취급한 까닭에 술, 담배 하는 자는 불신자가 된 줄 알았고, 또한 그렇게 취급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술, 담배 하는 자는 이방인 취급 죄인 취급당하기 싫어서 교회생활에서 멀어지고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

술, 담배를 하면 불신자가 된 줄로 교육 받아 온 유명한 목사의 이 말이 군에 들어와서 친구들의 강권에 못 이겨 삥(바보) 취급 받기 싫어서 술, 담배를 하면서부터 자기는 불신자가 된 것으로 스스로 단정하여 신앙생활

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못할 짓이 없는 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 견딜 수 가 없다. 자기는 이제 술, 담배를 하므로 지옥 갈 것이니 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려고 하여도 아직 술, 담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신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아량이 없으므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찬송은 아무나 와도 좋소' 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성자가 다 된 후에 교회에 들어오는 자만 용납하겠다는 태도는 이중적인 태도이가. 교회는 죄인, 타락자, 알콜 중독자, 불량자 등을 용납해서 받아들인 후에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②의 경향은 술, 담배가 지닌 중독성으로 인하여 오는 폐습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풍조와 정신문제에서 오는 폐습 까닭에 생긴다. 한국사회에서는 술, 담배를 무질서하게 함으로써 방탕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폐습이 있다. 술을 마시면 주정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이것은 술 마시는 자를 타락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그리고 술, 담배에 대한 가정교회의 결핍을 들 수 있고, 또한 술, 담배가 정신적 고민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오인하는 폐습이 원인이 되어 있다.

III. 술, 담배를 하게 되는 이유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술, 담배가 심신과 행동과 혹은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해독과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1. 생리적 원인

갱년기에 이르면 선분비가 고르지 못할 경우에 술을 참지 못할 정도로 술을 찾게 된다. 그리고 신경계통의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도 바울도 술을 약용으로 쓰는 것은 허용하였다(딤전 5:23). 그리고 피로할 때 마시고 해장술이나 반주로 마시기도 한다. 그리고 포도는 오래 보관 해두면 자연히 술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물이 귀한 곳에서는 오래 저장해 주고 음료수로 마시게 된다(독일의 백주, 프랑스의 포도주, 파레스턴의 포도주).

2.심리적 원인

정신적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적에 술을 찾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현실 도피이다. 술은 언제나 싸게 또 손쉽게 구해지는 정신적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이다. ① 압력, 공포, 우수,

불요, 걱정 등 내면적 강등 ②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을 적에 ③ 과거의 과오나 실패를 잊어버리고 싶을 적에 ④ 죄악감,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을 적에 ⑤ 취기를 이용하여 결단을 내리고 싶을 적에 ⑥ 성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을 적에 ⑦ 자기의 이상과 현실과 불일치를 느낄 적에 ⑧ 자포자기의 수단으로 ⑨감정의 폭발의 발산수단으로 ⑩ 애정관계의 대체물로 ⑪ 원한이나 감정의 무마수단으로 술을 찾게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된다. 애연가의 말을 들어보면 담배 피우는 이유 중에 담배를 피움으로 근심 걱정을 잊게 되고 심심풀이가 되고 담배를 피우는 동안 착상이 되고 술, 담배는 사람의 마음을 활발하게 한다고 한다.

3. 사회적 원인

주초는 사교 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술, 담배를 해야 사람 측에 든다고 생각하여 대인관계에는 술, 담배를 하는 것을 하나의 예의인 줄로 오인하고 시작한다.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주초를 하는 것을 모방해서 배운다. 국가에서는 주세와 전매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담배 재배를 장려하고 곳곳에 대규모 연초공장을 장려함으로 술, 담배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모든 광고물이나 선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소개하고 담배피우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감염된다. 군대에 있어서는 사병들에게(1964년에 국군에 군납된 화랑담배의 양은 약 13억 본인데 그것은 약 2억 원이나 된다). 그리고 군대생활 속에는 항상 공포, 긴장, 초조, 부자유, 강압 등의 심리적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술, 담배를 못하는 자를 바보 취급함으로써 뺑이 취급받기 싫어서 술, 담배를 하는 경우(외출할 때 회식할 때)에 술, 담배를 하게 된다. 내무반장의 강제에 못 이겨서 술, 담배를 하게 된 자들이 많다(신자 중에).

4. 철학적 원인

술은 사람을 호탕하게 만들고 불안을 잊게 해주는 것이라는 관념과 전후파적 퇴폐주의는 사람을 모두 술주정꾼으로 만든다.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인생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즐기려 한다. 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 취급 하지 않고 출세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5. 논리적 원인

술, 담배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술 취한 자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이 모면할 수 있다는

이유 까닭에 범죄나 자살을 하는 자는 반드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단행한다.

6. 종교적 원인

기독교의 신교 외의 타종교에는 그 의식 속에 술잔이 포함된다. 구약시대 유대교에서도 전제로 여호와 제단에 포도주를 드렸다. 그리고 종교적 축제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술이 빠지지 아니했다. 가지가지의 술을 마시고 즐겼다. 오늘날에도 가톨릭의 의식에는 미사주가 있고 그것은 신부가 마신다.

IV. 술, 담배, 문제에 대한 성서적 회답

그러면 기독교신자들은 금주 금연하는 것이 옳으냐? 자유스럽게 음주 끽연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회답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그 회답을 찾기로 하자. 지면관계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술, 담배에 대한 구약의 회답

포도주는 음료수 중의 하나이다(창 9:20, 27:25 28 37 40 :1~23-1:11, 2:1 삿9 : 13 19:19 삼상 10 : 3 25 : 18 1 : 24 음 1:13 창 49 :11~12) (2) 포도주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에 포함되었다(욥 1:10 암5 :11 학 1:11 미 6:15 암 9:13~14 시 4:7 사 15 사 55 :1 (3) 특정된 사람과 특정된 장소와 시간에 금주하라 명하셨다(례10:1~11). 삿(3:4,14잠 31:4~7 단1:8 16). (4)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셨다(창9:20~24 창 19:30~35 잠20:1 23:20~21 잠 23-29~35 사 5:11~12 28-7~8 호 4-11 7:5).

2. 주초에 대한 신약의 회답

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마셨다)(마11-18~19 26-17~29 말 14-22~25 눅 22:14~20). 눅 7-33~34

② 예수님의 이적과 교훈 속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다(요2-3~10 마9:17 눅 5-37~39).

③ 술 취하지 말라 하심(눅 21-34~35로 13-11~14 고전 5-9~11 6-19~20 갈 5-21 엡 5-18 딤전 3-3, 8 디1-7 2-3).

④ 담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에 고찰한 바와 같이 성서의 회답은 ① 포도주 마시는 것은 허용하되 ② 절주를 명하였고(술 취하지 말라, 술은 즐기지 말라, 술에 인 박이지 말라 ③ 특저인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는 금주를 명하였다.

군진강단

위대한 산고

군목 2325전대 이 영 열

'교회당이 골목마다 있다'는 말은 풍자로만 듣고 넘긴 말이 아니다. 그만큼 교회당은 수에 있어서 이미 적정선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많은 교회당은 비교적 그 지역사회에서 미려한 편에 속한다. 거기 계단이 있고 신도가 있고 규례가 있고 또 복음도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많은 교회당 안에 부재중인 것만 같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신 가지, 교회에는 그에 관한 증명은 있어도 그의 실재는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리스도만 부재중인 것이 아니라 그가 찾는 대상도 귀족 냄새나는 교회 안엔 이미 존재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가난한 자 눌린 자는 이미 그들의 구세주를 권세자 옮겼지만 권세자는 그들에게 폭군으로 군림한다. 이래서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병든 자, 눌린 자는 인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옛날 메시야 대망의 때는 바로 이런 정황이었다. 전통과 시설과 제도상의 종교가 불행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예수는 바로 그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구주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저절로 날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오십은 인간 마리아의 심각한 아픔을 통해서 낳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남자를 잃게 될 뜻하지 않은 임신, 가출한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받는 수모,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장면의 목격, 이런 고통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생리적으로 느끼는 출산고 이상의 진통이었던 것이며 예수는 바로 이런 진통 뒤에 부각된 것이었다.

불행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가 이런 마리아란 인간의 진통 뒤에 왔다고 볼 때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그리스도가 부재중인 까닭은 아마도 이만한 산고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통 그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신앙자로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 땅 위에 지어주기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진통을 달게 받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는 질고를 당할 때 말없이 받는다. 자식을 위하거나 생계를 위해서는 쓰라린 고통과 위험도 감수한다. 그러면서도 유독 이 땅 위에서 자기와 자기 이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일과 무사주의, 그리고 현실도피에 자신을 숨기고 그를 낳는 산고는 지극히 혐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8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 성취했어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 마치 인생에 있어 20대를 넘으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생활방식을 바꿔 자립과 출산의 인격으로 달라지듯이 우리들도 또한 출산하는 신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산출하는 수고가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야 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일 때문에 받는 진통,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 받는 수모와 환란, 신병과 육체적 질고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에게 새 소망을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십자가가, 믿는 우리들에게 재연되지 않는 한이 땅 위에는 인도주의는 있을망정 몸을 입고 내림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는 산고! 그것은 혈족을 출산하는 고통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 위대한 산고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일종의 우상에게 자신을 도취시키는 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신앙의 위기 ▶

군목 공사교 김 두 식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그 형편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잔잔하게 흐를 때도 있고, 졸졸 소리를 내면서 흐를 때도 있고, 폭포가 되어 수십 척, 수백 척 높은 곳에서 벼락 같이 멀어지는 때도 있다. 각 사람의 개인생활이나 민족 국가의 형편도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잔잔한 평화시대가 있으며 폭포 같은 전쟁 때고 있고, 홍할 때도 있으며 망할 때도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같이 뜨거울 때고 있고, 아주 냉랭할 때도 있고, 복음적인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신앙의 위기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대개 어떠한 때에 닥쳐오는 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① 소년기 신앙에서 청년기 신앙으로 넘어 갈 때가 신앙 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다. 신앙적 위기를 나이로 말한다면 대개 15세부터 25세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로 말하면 키가 크고 목소리가 변하고 수염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의 형편이 변하는 시기이다. 신체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상태도 변하고 사상과 인생관까지가 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염려되는 것은 신앙의 변화인데 열렬하고 독실하던 신앙이 식어버리는 수도 있고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 이러한 제일 위험한 시기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잃기 쉽고, 나쁜 친우가 휩쓸리기 쉬운 이러한 시기를 종교 심리학자인 프래트씨는 ① 폭풍우 시대를 시대 ② 반항시대 ③ 의심시대 혹은 번민 시대라 하였다. 이러한 위기, 다시 말하면 엷은 얼음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은 위험한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상한 이상과 위대한 포부를 가지고 인격을 연마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계속적인 성서의 연구로써 신앙심을 북돋고 길러야 한다. ② 경제적 환경이 변할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당하게 될 때 게으름과 교만과 정욕과 방탕에 빠져 몸과 집안을 망치고 신앙을 내동댕이치는 사람이 있다. 또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따르고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중에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타락하게 된다. ③ 사회적 환경이 변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 농촌에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도시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수가 있다. 자기 고향에 있을 때는 착실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군대에 입대한 후에는 아주 딴 사람처럼 타락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물리쳐야 한다. 연령상으로 변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환경이 변할지라도 사회적 환경이 변할지라도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인내로써 이겨야 되겠다. 옛날 구약의 요셉은 ①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에나 ② 애급에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에나 ③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을 때에나 ④ 애급의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에나 환경이 어느 자리에 처하든지 하느님을 의지하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리도 환경이 변하여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겠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시편 139:7-8).

◀ 예수의 생활 규례 ▶

군목 군종감실 현 경 협

그가 죽은 지 1935년이 되는 오늘에도 그를 구주로 스승으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약 10억이나 된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사실이거니와 계속해서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욱 증가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생애가 얼마나 위대한 생애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나기는 이 세계의 한복판이 되는 유대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33년이란 짧은 생애의 마지막이 또 한 십자가 사형의 처참한 종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우리와 꼭 같이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독생자로 또는 위대하신 인생의 구주로 숭배받기 전에 우리의 참된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서 같이 살자, 그리하면 영생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안에 있을 때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안에 있기 위해서 그의 교훈을 받으며 그의 생활을 모방하여 그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생애에 관한 내용은 신약성경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그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의 생활습관 세 가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습관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시매(누가복음 4장 16절) 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북하게 지키라는 하느님의 계명대로 꼭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규례를 가지셨습니다.

2. 성경을 읽는 습관

그는 안식일 마다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때를 따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기도하는 습관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누가복음 22장 39절) 그는 한적하고도 신비한 산중에 혼자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명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전생애에서 편히 잘 수 있는 시간이나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얻지 못한 분주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규례를 만들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성경을 독서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습관을 본받아 나의 생활 습관으로 만듭시다.

안실일 제도는 조물주 하느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6일간 성실하게 일하고 한날을 안식하며 거룩한 날로 하느님께 바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날인 일요일입니다.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은 무엇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매일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은 고상한 습관입니다. 독서의 취미는 고상한 취미겠지만 성경을 읽는 습관은 더욱 고상한 습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습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복잡한 생활상황에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습관은 가장 바르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보다 좋은 생활규례를 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습관을 본받아서 이 해는 여러분 자신 자신에게 크게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성애 ▶

1요4:10

군목 군종감실 최 제 경

파사나라에 한 부자가 아들 삼 형제를 두었는데 만년에 있는 재산을 똑같이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오직 선조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다이아몬드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은 나눌 수가 없어 하루는 아들 삼형제를 불러 앉히고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석 달 동안 집을 떠나 각자 사업을 한 후 제일 훌륭한 아들에게 이 귀한 보배를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삼형제는 각각 집을 떠나갔다. 약속한 석 달이 지난 후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 보고를 하였다. 맏아들의 보고는 이러하였다. 집을 가다가 보석 상자를 만났다. 그 보석 상자는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보석 상자를 자기에게 말기였는데 그중에서 몇 개쯤은 훔쳐내어 자기가 쓰더라도 아무 탄로도 아니 날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정직하게 보관하였다가 내주었다. 이것이 선한 일일 아닌가고 하였다. 이 보고를 들은 부친은 '참 정직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당연한 일을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둘째 아들의 보고는 이러하였다. 호수 가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실족을 하여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이 아닌가고 하였다. 이것을 들고 부친은 '잘 하였다. 그러나 너의 책임을 이행한데 불과하다'하였다. 막동아들은 형님들의 보고를 묵묵히 들고 있다가 저에게 오래 전부터 원수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산꼭대기에서 잘 들어 있는 그 원수를 만났습니다. 발로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그는 절벽에서 굴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하고 그를 깨워서 위태한 곳을

피할 것을 권하였더니 그 원수는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는 이 보고를 듣던 부친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악을 선으로 갚은 자로다'하고 귀한 다이아몬드 가보를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1. 맏아들은 보석 상자를 보관하였다.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 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는 참 정직한 자이다. 오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 누구나 서로 믿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겠다. 정직은 인간 일생의 보배이며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2. 둘째 아들이 구원하여 준 것은 선한 일이다. 인간은 남녀노유를 불구하고 누가 위험한 자리에 있거나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돕고 구해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다. 성 바우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만일 내가 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다 하였다.

3. 막동아들의 원수와의 화목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본 받는 일이다. 곧 성애(아가페)를 실천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성애(아가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자! 그리하여 전우애를 발휘하고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 신앙과 양심 ▶

군목 30방관단 안 병 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딤전1:19) 옛날 유대인이 바벨론에게 포로생활을 할 때, 유대인 청년 중에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포로의 몸으로 잡혀가지 3년간을 요지음 사관학교와 같은데서 교육을 규칙적으로 받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을 맡은 후로부터 수십 년간을 네 왕이나 섬기는 재상으로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바벨론의 제일의 재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청년시절에는 군대생활과 같은 규칙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규칙적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는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버릴 것이냐,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신탁에는 당시에 유대인의 구약 율법에서는 먹지 못하게 된 우상에게 바쳤다가 물려나온 음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모든 환경과 규칙이 다른 이곳에서 그의 신앙과 양심을 지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신앙과 양심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느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 배식하는 사람에게 채식만 주기를 구했으나 그 음식물은 왕이 지정한 것인 것과 채식만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 앞에서 배식하는 자기의 목이 위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열흘간 시험적으로 채식만 해본 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못 하면 지정한 음식을 먹고 더 좋으면 채식을 계속 먹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청을 허락하여 열흘간 시험해 보니 다니엘의 얼굴이 타인들보다 더 윤택하고 나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립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단1:14-16). 이렇게 그는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몸도 더욱 건강하도록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여(1:17) 그 은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났다(1:20)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 다니엘은 아무도 꺾을 수 없게 신념대로 굳굳하게 형통하게 보람있게 일생을 지낸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군대와 일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력을 우리도 길러야 하겠습니다. 기회는 오직 준비한 자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지식보다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군대에 있을 동안 몸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다니엘의 건강은 그가 지식을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과 양심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지킴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온 평생에 큰 보람이 있게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우로 선생은 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전1:18)

살의 있다고 의사 불신, 임종 땐 사흘간 몸부림

딸이 본 스탈린의 죽음

'스탈린'은 3일 동안 몸부림치다 마지막 12시간은 차츰 숨이 막혀 죽었을 때에는 그 고통에 얼굴색이 검어지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끔찍한 형태로 변모했었다고 딸 '스베틀라나'여사가 이곳에서 발간된 노어판 회고록에서 공개. 스탈린은 의사들이 자신에 대한 살해 음모를 하고 있다고 믿은 후부터는 크렘린 거처에 일체 의사를 용납하지 않고 멋대로 약을 먹어 제 목숨을 단축했다고.

뇌일혈이 일어나기 전날만 해도 그는 의사가 있었으면 극구 만류했을 증기탕에 들어갔었다 한다. [런던 AP동화]

전술상으로 본 2차 세계 대전

-항공작전을 중심으로-

장 형 득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1945년 9월 2일 동경만의 미조리 호상에서 일본정부 수뇌들이 항복문서에 정식 조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역사적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제2차 대전이야말로 유례없이 많은 물자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특히 항공 전력의 대량투입으로 이채를 띄었다.

그러면 이 6년간이란 지구전에서의 항공전은 인류에게 대체 어떤 교훈을 전해주었는가?

1944년 여름 미육군의 항공대는 항공 전력을 어떻게 사용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월에 들어서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선, 미국의 전략폭격에 관한 조사를 명하였다. 그 결과 독일에 대한 작전 보고가 208, 대일본작전보고가 106권이 각각 작성되었다.

1930년대 독일과 세계를 상대로 도전하여 왔을 때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장거리 폭격보다는 지상전의 엄호역에 투입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1938년 나치 공군의 세력이 영국, 프랑스를 위압할 가능성이 길어지고 있을 때에도 미공군은 방관자적인 태도로서 B-17폭격기보다는 지상공격기의 개발에 편중해 있었다.

사실 1938년 7월 미육군 참모총장 '마린 C 그레익 장군은 1940 회계연도에 구입할 항공기를 경 · 중형공격기에 국한시켰다. 승리를 얻는 데는 육상 병력의 힘뿐이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1938년 11월 14일 히틀러의 야망을 분쇄하는 데는 지상병력이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야 할 것을 공식으로 표명하였다.

공군력을 배경으로 스크랩을 짠 삼국동맹을 허무는 데는 공군력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때문이었다.

1939년 1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대전을 예측하여 히틀러의 공군세력에 대비한 준비를 명하였다.

히틀러는 잘 훈련된 지상지원 공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화가 구라파 이외로까지 파급되지 않는 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1938년 11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군세력의 증강, 이를 밑받침하는 항공기 산업시설의 확장을 명령하고 있을 때 삼국동맹의 주축국 수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가?

독일공습

1941년 미국은 미극동공군에 4개의 중폭격기대대를 증강하여 그 배치를 완료하였다.

당초 필리핀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국은 P-40, B-17 전투폭격기를 배치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때를 이용하여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의 펄 하버를 기습공격하였으며 필리핀에 선제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예측 이외의 사태가 들이닥치자 미국은 즉시 전시태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주축국의 오산으로 인한 결과였다. 히틀러는 미국을 전쟁에 휩쓸어 넣지 않기를 바랐고, 따라서 개입을 꺼려했던 것이다.

조지 C 케네디 장군은 거치른 어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좀 더 빨리 미국 지도자들이 공군력의 증강을 일찍부터 서둘렀다면 필리핀을 빼앗기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강력한 전투기와 폭격기 및 조기경보망을 좀 더 일찍이 분산 확장 시켰다면 펄 하버, 바탄, 코레히도 등지에서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1920년부터 1930년에 걸쳐서 미국의 해군학교에서도 구로제이츠의 전쟁관 즉 '전쟁은 특이한 방법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정책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퍽 도덕적이며 규칙적인 생각으로서 미국인의 희생 없이 미국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인 것이다.

1941년 초 미영 지도자들은 워싱턴에 모여 새로운 양상을 띠고 번져가는 독일의 강력한 반격에 대처할 연합공동전선의 결성에 회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공군력의 정비강화, 장거리 폭격기의 생산 확대가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서 1941년 8월 12일 독일의 발전소, 교통망, 정유시설들의 폭격과 독일국민의 호전의식을 말살시킬 치밀하나 작전계획이 작성되었다.

일본 공습

이때부터 신형 B-29 폭격기와 행동반경이 4천 마일이나 되는 B-36 폭격기의 개발을 서둘렀던 것이며, 239개의 비행

연대와 108개의 정찰비행중대 및 269개의 전술비행연대를 증강하기로 하였다.
미육군과 해군에서는 이 작전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해군과 공군력은 전쟁에 중요한 구실을 하지마는 적을 약체화시키고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육상병력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펄 하버의 기습이 있은 이후 미국은 국내 군수산업을 항공기의 증산에 경주하였다.
그러나 1941년 12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영공동회의석상에서 토의된 전략공군의 정비문제에 관해서는 참가당사국의 담당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942년 3월 다시 전략안이 검토되어 독일 공군을 누르고 침수함 기지의 봉쇄, 군수지하공작을 폭격하는 작전계획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독작전계획에서 제일의 공격목표로 설정된 것은 항공기제작공장, 엔진공장, 침수함 도크, 교통망, 석유, 알루미늄, 고무 생산 공장 등이었다.
대독일전략폭격작전은 1943년부터 구체화되어 1944년 후반에 가서는 그 최고조에 달하였다.
1943년 1월 21일 카사보랑카 회의에서 처칠과 루즈벨트는 미영합동으로 독일의 군사, 공업, 경제기구를 파괴시킬 것에 합의 보았던 것이다.
1943년 8월 캐나다의 퀘벡에서 열린 4개국 수뇌회의에서 미영의 지도자들은 중앙태평양과 뉴기니아 필리핀을 보루로 일본본토상육을 위한 작전계획이 확인되어 급작히 중앙태평양에 B-29기지설치가 착착 진행되었다.

독일과 미영전략공군

카이로에서 개최된 미영중 3개국회의에서는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결의하였다. 1944년 5월 중국, 일본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칼 A 스파츠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2차 대전은 대량살인무기가 전쟁의 주력으로 투입된 데에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전략폭격기의 투입은 조전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대독작전에서 특히 공군은 폴베어링 공장을, 대일본작전에서는 만주의 탄산을 공습 폭격하였다.'
유럽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략폭격이 개시된 것은 놀만디상륙(1944년 6월 6일)에서부터였다.
미영공군에 의해 독일에 투하된 폭격양은 2,770,540톤이나 된다.
1944년 5월 12일 전략폭격기의 중심은 연료창고였다. 때문에 1944년 12월 독일은 연료 공급의 불충분으로 일대타격을 받게 되었다. 1944년 9월 교통망에 대한 폭격으로 독일의 경제상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발전소에 대한 폭격은 전쟁 초에는 시도되지 않았지만 독일의 군수산업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폭격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력한 독일공군도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이내 캐나가 퀘벡회의에서 검토된 작전계획에는 1945년 10월 일본 구주상륙, 12월에는 본주상륙이라는 세부계획이 서 있었다.
1944년 11월 24일 B-29 폭격기대는 마리아나 제도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고고도폭격에 필요한 정확한 폭격조준기였다.
악천후에 편대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고도에서는 엔진이 불을 뿜어 대부분의 B-29는 일본폭격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해상에 불시착하는 수가 많았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는 일본 본토상륙과 소련의 참전이 결의되었다.

르메이 장군과 B-29

1945년 1월 20일 제21폭격사단장에 카치스 B 르메이 장군이 임명되었다. H H 아놀드 장군은 제3의 B-29중대를 마리아나에 이동시켜 일본공업지대의 폭격개시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르메이 장군은 B-29의 기관포와 기관포탄을 제거하고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야간폭격을 시도하였다.
이 때의 B-29의 폭격고도 9,200피트의 저고도였기 때문에 동경의 약 4분의 1은 잿더미로 화하였다.
1945년 5월 아놀드 장군이 관도를 방문하였을 때 르메이 장군은 10월 1일까지에는 일본도시의 36~60개소와 공업지대를 잿더미로 만들 것을 장담하였다.
6월 5일 일본의 전투기는 B-29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특별공격대의 편성을 위해서 전투기의 출격을 삼갔다.
6월 20일 일본천황은 전쟁의 중단을 제안했으나 군부의 반대로 전쟁을 속행한 결과 8월 광도와 장기에 원폭의 세례를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참전으로 독일에 이어 참패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삼군통합작전

제2차 대전의 수행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육·해·공군의 삼군통합작전이란 점이다.
유럽 전선초기의 미폭격기의 공격은 B-17, B-24와 엄호전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3년 12월 게링 원사는 엄호전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것을 독일전투기에 명령하였다. 이것은 게링의 전적인 미스테이크였다.
1944년 1월 4일 이러한 기미를 탐지한 지미 도리틀 소장은 미엄호전투기대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폭격기 엄호에 그친 작전을 변경하여 적전투기의 구축에 전투기를 투입하였다.
게링의 이러한 미스로 연합군은 유럽에서의 제동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1945년 3월 태평양에서 르메이 장군이 B-29무장을 제거시키고 그만큼의 폭탄을 싣고 저공폭격을 감행한 것과 동양의 작전의 묘를 살린 것이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원사는 1945년 8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은 것은 공군의 힘에 의해서였다.

'적은 61개 사단이었으나 우리는 하루에 상륙시킨 병력이 겨우 7개 사단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우리는 하루에 상륙시킨 병력이 겨우 7개 사단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적은 견고한 요새에 깊숙이 들어박혀 있었다. 그 위에 독일의 공군은 강력한 반격을 가해왔다. 만일 이 강력한 독일 공군력을 구축하고 견고한 요새를 파괴시키는 공군이 아니었다면 노르만디 상륙은 불가능하였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육군과 해병대가 충승(沖繩)에서에서 백병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11폭격사단의 전 B-29는 구주사국의 주요작전기지를 폭격하고, 특공대의 출격을 봉쇄하였다.

연합군은 정찰기로써 A-20, P-39형의 소형기를 사용하였다.

미국에 모여든 9개국 육군 항공부대는 1940년까지 정찰중대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1941년 7월 정찰중대가 지원사령관부하에 배치되어 그 훈련을 포함한 근대화가 공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41년 이때까지의 경험에 의해 지상군에 대한 공군의 지원에 관한 보고가 완성되어 1942년 공표되었다.

1942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독일군은 지중해를 넘어서 튜니지아로 전력을 집중하였다. 1943년 1월 6일 제12공군은 X-2항공지원사단에 배속되었다.

1주일 후 중앙 튜니지아에서 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1월 20일 독일군은 프랑스의 X-X병포에 대해 항복보고를 발하였으나 프랑스는 이를 일축하였던 것이다.

항공력의 지상작전지원

매일 공군은 P-39정찰기로 임무를 수행하곤 했지만 독일공군의 맹렬한 추격으로 1회 출격 할 때마다 12대의 엄호전투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독공군기들은 폭격과 기총소사를 자유자재로 가해 왔던 것이다. 지상군은 독일의 급강하폭격기대를 막는데 전투기의 엄호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과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지상군의 작전은 공군의 엄호 없이는 그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영 제5육군의 지휘관이었던 몽고메리 원사도 지상군의 작전수행에 있어서는 공군의 기동력은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고 역설한바 있다.

미육군의 아놀드 해군은 공군을 일원화하여야 하며 중·대형 폭격기를 일원화된 지휘계통에 두고 지상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워싱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만일 전략공군, 전술공군, 방공공군, 항공지원사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계통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어졌다.

이와 같은 귀결에 의해 제5공군은 제6육군을, 제13공군은 제8육군을 지원하였다.

태평양전쟁 초기에는 해병대와 제13공군중대는 지상전투를 지원하는 해군전술사단네 속해 있었다. 해병대의 F4F와일드 캐트는 일본군의 신예기 쫓겼으나 지상부대의 지원에 활약하였다.

중부태평양 제도에서의 작전수행은 해군해병대기와 육상에 기지를 둔 공군기들의 밀접한 협력 작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2차 대전에는 허다한 과학적 개발품이 실전에 사용되었다.

1934년 무선을 이용한 발견거리측정과 이를 위한 레이더 장비가 고안되었다. 영군은 독일공군에 비해 열세한 공군의 요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레이더망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레이더의 출현에 의해 적전투기의 내습을 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격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목표지점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레이더도 또한 공격능력을 크게 개선시켰던 것이며 일렉트로닉스 회합측정시스템에 의해 내습하는 적기를 조기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전략폭격기의 손실률은 2% 이하로 감소되었다.

독일 공군의 미스터리

전쟁초기에 있어서 미국의 태도는 퍽 소극적이었으며 전투기만 하더라도 독일공군은 B-17, B-24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는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 급강하 폭격기는 폴란드에서 대활약을 하였지만 영국과의 대전에서도 별 신통한 전과를 얻지 못했다. 슈톨 정찰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합군의 폭격이 격렬해지자 독일은 V-1, V-2를 본격적으로 개발시킨 것은 종전직전인 1944년 7월이었다. 또한 우유부단한 결정과 히틀러의 오산으로 세계최초의 제트기가 등장한 것은 1944년 11월이었다. 이 Me-262에 폭탄을 적재하는 경우 연합국은 큰 피해를 입었었을 것이다.

Me-262는 연합국이 어느 전투기보다도 성능이 좋고 경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연료가 부족한 독일로서는 그것을 적용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그 태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독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십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실전용병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패전의 원이 있었다.

제2차 대전에서 적용함은 물론 정치적 군사적인 능력을 집중시킨데 있다 할 것이다.

손자병법으로 본 한국전쟁(완)

옛날 병법에 능한 장수는 먼저 적이 이길 수 없는 준비로써 적에게 이기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군형편

중령 공사교 이 종 학

6. 손자병법과 미래전(결론)

한국전쟁을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자. 즉, '옛날 병법에 능한 장수는 적이 이길 수 없는 준비로써 적에게 이기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적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적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석지선전자 선위불가승 이시적지가승 불가승재이 가승재적)고 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우리들이 취한 조치는 이 구절을 전도해 놓은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즉 적이 이길 수 있는 준비소홀로써 적에게 지는 시기를 기다렸다. 적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가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적에게 이길 수 없었던 적에게 결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선 방위를 위하여 토치카를 만들고 또 철조망을 치기 위하여 국회에다 예산신청을 했으나 그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영세중립국 스위스에 강대한 군사력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하고 또 초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인구 500만이지만 평상시의 직업군인은 550명에 불과하나 48시간 내에 50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지방에는 견고한 요새가 건설되어 있고, 그 요새의 지하실에는 1년간 50만 군대가 전투를 할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이 저장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지금 공군도 있으며, 놀랍게도 1958년부터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군사비가 국가 총 예산의 30~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소홀하지 않았기에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정예기계화부대도 감히 스위스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고 우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요즘의 북괴는 무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신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땅, 어느 직장에서도 각 직장별로 주 3회와 6시간 이상의 군사훈련 그리고 월 1회의 사격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참가범위는 신문기자, 작가 및 배우 그리고 심지어 직업여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전 한 외국정치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성인 가운데는 아직 값싸게 자기의 국토방위에 대하여 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력으로 자기 국토를 방위한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력으로 자기국토를 방위하지 못하는 국가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니 빨리 우리 국민각자에서 자력에 의한 국토방위의식을 철저히 하게 가지도록 고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피난 보따리를 꾸릴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손자의 전쟁원리에 의한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대비해야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가) 전쟁론-손자의 전쟁에 대한 개념을 일편수구에 있는 바와 같다. 즉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로써 국가존망과 국민사생의 기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고 하였다. 이 구절에 손자의 전쟁철학에 대한 근본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손자는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고, 결코 개인이 아님을 잘 말하고 있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옛날부터 개인의 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해결방법과 관대심이 잘 발휘되어 왔지만 일단 그 범위가 넓어져서 국가단위로 되었을 때 인간의 두뇌는 여러 가지 조정기관을 창설하였지만 한 번도 원만하게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전쟁이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장기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병귀승부귀구).

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사생과 직결되고 있으니 적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망도 전쟁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민의 사생도 전쟁에 의하여 결정되게 때문이다.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손자의 전쟁개념 속에는 염전론적인 성분이나 혹은 독무론적 성분이 전연 없고 다만 전쟁이 가지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사생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리고 이처럼 전쟁이 중대사이므로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빨리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전쟁에 있어서 선승·전승·필승 그리고 연승은 손자의 전쟁원리의 기본사상이다. 그래서 손자는 '한 번 망한 국가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전쟁에 대하여 신중하며, 선량한 장수는 이에 대하여 심히 조심을 한다. 이러한 조치가 바로 안국전군의 도리이다'(망국불가복존 사자불가복이생 고일명주신지 양장경지 차안국전군지도야)고 주석을 붙였다.

(나) 전쟁선무론-전쟁이 있기 전에 우리들이 해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분명한 정치가 시행되어 국민이 국가를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거국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법이다.

둘째는, 국가경제의 개발이다. 오늘날 경제적 기반이 없는 국가나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장 먼저 국민의 의, 식, 주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외교를 잘 해야 한다. 오늘날의 집단안전보장의 문제는 바로 외교의 산물이다. 손자는 '가장 전쟁을 잘하는 방법은 적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방 또는 동맹국을 이간시켜 적을 고립시키며, 그 다음은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접전하는 것이며 최하의 수단은 적의 성벽을 공격하는 것이다'(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대병 기하 공성)이라고 하였다.

넷째는 군비의 충실이다. 오늘날 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은 무기체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 미래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인적자원과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개선 그리고 소요량의 확보는 언제나 긴요한 것이다. '적이 이길 수 없는 준비로써 적에게 이기는 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군비의 충실에서 오는 결과이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선승, 전승의 방법이다.

(다) 전쟁지도론-전쟁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첫째, 전쟁지도에 있어서 전쟁의 목적은 필승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자는 '국리와 민복에 이익이 없으면 출병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획득이 확실하지 않으면 군사를 쓰지 말아야 하며, 국가민족이 위급하지 않으면 전쟁을 말아야 한다.'(비리불동 비득불용 비위불전)라고 하였다. 이 점 세계 2차 대전에 있어서 미·소의 전쟁지도는 확실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의 국가정책과 전쟁목적은 '무조건항복'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허울 좋은 전승국이라는 명칭뿐이요, 그 후 들은 패전국의 경제 부흥에 골몰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련은 국가정책과 전쟁목적이 언제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전승의 열매는 모조리 독점하고서는 전후 일약 세계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니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동독, 북한 등이 공상국가로 변했다. 그리고 거의 패북한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서는 만주와 북한에 침입하고서는 모든 중공업시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노동을 시켜서 전승국으로서의 실리를 추구하였다. 2차 대전 후 공산주의자들 만큼 손자병법의 비리부동·비위부전을 철저하게 활용한 나라는 드물 것이리라.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가로서의 일가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전쟁 전에 있어서의 전쟁지도는 적아상황의 비교이다. 이비교의 기준은 시계편에 있는 오사(지기)와 칠계(지피)이다. 오사란 도, 천, 지장, 법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 국민으로 하여금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생가를 같이함은 물론 어떠한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천 : 음장이 이(理), 한서의 변화 등 시간적 요소를 말하는 것.

지 : 원, 근, 험, 역, 광, 협, 사, 생 등 지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

장 : 지, 신, 인, 용, 엄의 오자는 장수의 인격구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

법 : 조직, 법률 그리고 장비 등을 말한다.

그리고 칠계라는 것은 양편의 군주는 어느 쪽에 도가 있는가? 장은 어느 쪽이 유능한가? 천과 지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병중은 어느 쪽이 강한가? 사졸의 훈련은 어느 쪽이 숙련되어 있는가? 또 상벌은 정명정대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 비교,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전시에 있어서 전쟁지도의 기본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알고(지기), 적을 알며(지피), 지리적 요소(지지)와 시간적 요소(지천)를 아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리적 요소나 시간적 요소는 비교적 알기 쉽지만, 자기를 알고 또 적을 안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손자병법 전권을 통하여 기지와 지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 가운데서도 지피는 더욱 어렵다. 그러니 전쟁에 있어서 적을 알지 않고서는 결코 먼저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영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가 군사를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하며, 그 전공을 특수하게 세우는 것은 적정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리 적정을 아는 방법은 귀신에게 기도를 하며 아는 것도 아니며, 사물의 현상에 비추어 추측될 것도 아니며, 도수로 증험하여 추단될 것도 아니요, 반드시 간첩을 통하여 적의 정황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라야 능히 지능이 출중한 인사를 뽑아서 간첩으로 사용하여 반드시 큰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전쟁의 요결이요, 전군이 신뢰하며 움직이게 되는 바인 것이다.'(고명군현장 소이동이승인 성공출어중자 선지야 선지자 불가취여귀신 불가상어사 불가험어도 필취어인 지적지정자야.고유명군현장능이상지위간자 필성대공 차병지요 삼군지소시이동야)고 하였다.

넷째, 전쟁지도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지도와 실제의 작전지휘권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전쟁철학에 있어서 가장 관계가 깊은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물론 정치의 실권자가 동시에 군사전략가라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어 버린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있어서 고구려의 태조왕, 고국천왕, 그리고 광개토왕 또 이씨조선의 이성계, 외국에 있어서는 알렌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프로샤의 프레드릭 대왕 같은 이는 최고집권자인 동시에 전략가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한국전쟁에 있어서 야전사령관인 맥아아더 장군, 미 연합참모총장 브랫드리 장군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사이에 있어서 군작전의 통수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상이한 사고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결코 승리의 호기를 상실해 버린 것이라고 본다. 한 가지 예로써 맥아아더 장군은 1950년 11월 초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추격해 옴으로 B-29에 의한 압록강의 교량을 폭격할 것을 극동 공군사령관에서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루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미 연합참모부는 교량폭격의 중지와 더불어 교량을 폭격하도록 명령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맥아더 장군에게 요구하였다.

맥아아더 장군은 다음과 같이 반언(1950년 11월 6일)하였다. '병력과 물자가 압록강의 모든 교량을 건너 만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동태는 본인이 지휘 하에 군대를 위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격멸될 우려가 있다. 이 적의 증원을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폭격으로써 제 교량과 부근의 시설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 이 폭격을 연기하는 경우 미국과 그리고 다른 국연군의 장병의 피를 더 흘리게 된다. 신의주의 주요교량은 수 시간 이내에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본인이 명령한 것은 온전히 전쟁의 원칙 이내의 것이며, 국제연합으로부터 본인이 받은 결정과 명령의 범위 내의 것이며, 중공에 대한 호전적인 행동은 결코 아니다. 귀 명령에 의한 제한에서 오는 실제상의 그리고 정신상의 재난은 아무리 과대평가하여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본건은 대통령에게 검토 받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본인은 귀 훈령이 큰 재해를 가져오는 것이니 나는 스스로 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시간이 퍽 중요한 것이니 즉시 재검토를 바람.'

트루만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미합참모의장 브랫드리 장군으로부터 맥아아더 장군으로부터 온 전보 내용을 듣고 또 맥아아더 장군이 현지에 있어서 특별히 긴급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에게 '좋소, 해치우라'고 맥아아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였다.

과연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사생을 결정하는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서구세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은 정부 책임자는 대전략(Grand strategy), 그리고 군 지휘관은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으로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대전략과 군사전략의 정의는 각인각생이지만 생존하고 있는 영국의 전략가 리델 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통령은 전쟁의 정치적 목표 즉 근본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또는 국가 간의 자원을 협조시키고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군사전략은 정책상의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 수단을 분배 적용하는 기술이다.'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가 웨드마이어 장군 같은 이는 '오늘 날 제 문제가 조잡하게 얽힌 이 시기에 있어서 더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함을 확언한다. 오늘 날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것과 비군사적인 것(Military and non-military)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선이 없어졌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전쟁이 계속 될수록 심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즉 전략은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운용하는 기술이

며 과학이다.'고 하였다.

물론 군사적인 것과 비군적인 것 사이의 명확한 구분선은 끌 수는 없지만 역시 군사적인 것과 비군사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에 있어서 그 색깔 사이의 명확한 구분선은 끌 수 없지만 적, 청색 등 각색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손자병법에 있어서는 전쟁지도의 최고권은 정부의 최고집권자가 가지고 있으며 실제작전지휘권 즉 통수권은 장수에게 있는 것이다. 전쟁지도의 최고권이 정부의 최고집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장수가 군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장수명어군)이라 표현했고 장수의 통수권에 대하여 '장수가 능력이 있으며 또 군주가 간섭하지 않는다.'(장능이군불어)고 말하였다. 그러니 현대오로 표현한다면 국가의 최고집권자가 장수에게 작전지휘권을 주었다면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고 독단활용의 권한을 대폭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수라는 것은 국가를 수레라고 하면 수레의 채장목과 같은 것이다. 채장목이 강하면 그 국가도 반드시 강할 것이며 채장목에 틈이 생기면 그 국가는 반드시 약하여진다. 국주로 말미암아 작전수행 상 방해를 받는 세 가지가 있으니 군이 진격해서는 안 될 때 군주가 진격명령을 내리며, 군이 후퇴해서는 안 될 때, 군주가 후퇴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이것은 군을 노끈으로 얽어매어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린다. 군사에 정통하지 못한 자가 군정에 간섭하면 군사들은 미혹되어 어리둥절 되어 버린다. 군의 지휘계통을 알지 못하고 간섭을 하면 군사는 어느 편에 복종할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군사들이 의혹하여 군기와 풍기가 문란하게 되면 적국이 그 약점을 이용하여 침입할 것이니 이것은 자기네 군사를 요란하게 하여 적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된다. 승리를 하는 데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장수가 유능하고 또 군주가 간섭하지 않는 자는 승리한다.'(부장자국지보야 보주국필칙강 보극칙국필약 고군지소이환어군자삼 불지군지불가이진 이위지진 불지군지불가이퇴 이위지퇴 시위미군 불지삼군지사 이동삼군지정자 칙군사혹의불지삼군지권 이동삼군지임 칙군사이의 삼군기혹차의 패제후지난지의 시위란군인승 고지승유오-장능이군불위자승). 이 말은 집권자가 군작전의 통수권을 간섭하면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전쟁지도상 크게 꺼려야 할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군명유소불수)라든가, '또 최고지휘관의 도는 적의 힘

을 평가하여 승리하는 계를 꾸미고, 그 지형의 험이와 원근을 잘 알고 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상태라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싸워야 한다. 또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군주가 싸우라고 명령하더라도 싸워서는 안 된다.'(료적제승 계험액원근 상도지도야 지차이용전자필승 불지차이용전자필패 고전도필승 주백무전 필전가야 전도불승 주배길전 무전가야)고 하는 것도 전술한 내용과 같다.

손자병법에 있어서 통솔론, 장재론, 전략 및 전술론 등의 내용도 흥미가 있지만 이번 기회는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송자병법에 관한 흥미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도 한창일 무렵, 영국의 저명한 전략가 리델 하트(Liddel Hart)에게 장개석 총통의 부하인 중국육군무관이 찾아갔다. 그 중국무관은 리델 하트에게 '당신과 플라 장군의 저서는 중국군관학교에서 중요한 교과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리델 하트는 그 무관에게, '손자병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다. 그 중국무관은, '손자의 책은 고전으로써 존경은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청년장교들은 그 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그래서 기계화된 무기체계를 가진 시대에 있어서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리델 하트는 '내가 저술한 20여권의 책에 설명한 전략 및 전술의 기초내용이 그 조그마한 책에 거의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이 손자병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지금입니다.'라고 그 중국무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 부기 : 이 글을 쓰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정평 있는 6·25동란사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서적을 참고로 해서 썼다.

① 한국전쟁사 연구(제1집) 국방부 간(刊)
② 한국전쟁사 육군사관학교 간
③ 유엔군전사 ·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제1집) 육군본부 간
④ 한국동란사 올리버 지음, 김봉호 역 문교부 간
⑤ 한국전쟁 밀사 크라크 지음, 심연섭 역 성좌사 간

<논 픽션>

피닉스 송

김 병 호

1. 서(序)

필자가 공군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어언 십 오년이 되어온다. 파랗게 젊기만 하던 육체도 정신도 이제는 풋기가 가셔지고 영그는(Maturity) 단계에 이른 것 같다. 물론 제대로 영그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길이 없지만....

청년기의 십 오년! 이는 누가 말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알맹이-노란 자위라 할 것이다. 그 노란 자위를 속속들이 공군에 바쳐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임을 누구 못잖게 자랑으로 여기는 필자는 그 동안에 짜여진 푸른색의 인생직(織)을 퍽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며, 여기 그 인생직에 주렁주렁 달린 전설스런 에피소드들을 적는 소위도 그런 생각 밖의 딴 어떤 의도도 없다.

종언을 기다림과 같이, 필자도 머잖아 공군을 떠나야 한다는 내 내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내가 서둘러 이 글을 써야 한다고 조마스런 생각을 할만큼 가깝다는 사실도 직감하고 있다. 그러니 이 글은 필자가 공군에서 적는 마지막 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없잖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결코 필자의 공군에서의 스원 송(Swon song)이 아니고 피닉스 송(Pheonix song)의 일부가 되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 인제부터 이야길 시작해 보기로 한다.

2. 주도(酒道)

이 타이틀을 보고 필자를 아는 사람은 혼자 고소를 금치 못할 줄 안다. 그렇다는 것은 술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방면에 도통한 사람이나 말해 봄직한 어마어마한 도를 추켜들고 나왔으니 말이다.

그건 사실이다. 술을 모르는 사람이 주도를 논할 수 없단 말이다. 허나 여기서 필자가 하고픈 말은 필자가 직접 보고 느껴온 공군에서의 술 마시는 형태 내지 방법에 대한 개인의 의견 그것이다. 따라서 주도란 타이틀이 격에 맞지 않는단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따로 적당한 말을 발견치 못해 그대로 사용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이 있는 곳에 그림자처럼 술이 따랐고, 그것은 색과 합하여 주색이란 이름 아래 인간사를 엮는데, 좋게건, 나쁘게건, 주된 요인을 이뤄 왔었다. 특히, 자고로 군인과 술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 같다. 나폴레옹이 잠호 속의 군인을 위해 특별히 질 좋은 술을 발달시켰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가까이 우리나라의 6.25동란 때에서도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술은 담배와 함께 숱한 에피소드를 낳았던 것이다.

공군에도 이당 술이 있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술은 공군장병에게 늘 짜릿한 환희를 안겨주면서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그럼 공군장병들은 이런 친근히 따라붙는 술을 어떻게 맞아들였던가? 먼저 영내에서의 주법(酒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약 십 오년 전 필자가 사병 제 27기로 공군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시절에는 영내에서의 주법은 아주 단조했었다. 술을 마시는 기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름 있는 날에 부대에서 마련해 주는 경우와, 전출입, 전역, 진급 등 개인의 신상에 변화 내지 기쁨이 있을 때 등이었다.

그것도 친구끼리라든가, 지연, 학창 등으로 인한 시쳇말로 비공식적 조직들에 의한 술자리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내무반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집단 속에서 단체적으로 마시는 술이었다.

주법도 극히 소박했다. 대개의 경우, 식사 시간에 나오는 부식(당시는 내무반에서 식사했다)을 안주로 해서 군용식기에 소주를 부어 들고 일제히 건배하고 마는 정도로 회식이 그쳤다.

입대한지 약 1년이 지나서 필자가 장교로 입관되어 B부대로 부임했을 적엔 영내사병들의 주법이 약간 변해지고 있었다. 비공식 집단(Informal group)끼리 주보에서 만나 술 마시는 경향이 생기고, 내무반에서의 회식 형태도 전처럼 단조하지가 않고, 식사시간 외에, 별도로 좌석을 만들고, 안주(물론 안주보다 술에 치중했지만)도 부식이 아니고 따로 장만해서 술을 마셨다. 그 빈도가 전보다 잦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따라서 영내사병들은 봉급외에 집에서 제법 많은 돈을 가져와야 전우들의 관혼상제시에나, 인사이동 시에 얼굴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회식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니나누가 쏟아지고, 일제히 젓가락 장단을 치는 식의 내무반 회식이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그로부터 약 3-4년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십년 전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형태는 아직까지 계속되는 굉장히 수명이 긴 주법이라겠는데, 그간 그 내용이 많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다.

당초에 술자리에서도 상급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거지스레 또는 거의 의무적으로 노래하고 장단치는 경향이 짙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내무반에서 상급자의 존재를 전혀 도외시하고 술을 마시는 법은 없지만, 시초에 비해서 놀랠 만큼 그 농도가 얕아졌다. 상급자들은 술좌석에서까지 상급자의 냄새를 피지 않겠다고 애쓰는 눈치이고, 하급자들 역시 공사의 구분을 당연한 처사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다.

요사이 영내사병들의 회식현태를 엿보면 한 마디로 퍽 현대화되어 있다. 어떤 좌석이건 반드시 사회자가 있다. 공식적인 군조직과 관계없이 그 방면에 가장 능한 사람이 사회를

맡아 소위 회식을 진행시킨다. 근데, 그들의 진행과정이나 노니는 양상도 옛과 견주어 퍽 다양하고 다이나믹하다. 바꿔 말해서 사회에서의 일류 사회자들의 기법과 술집에서 매미(酌婦)들과 어울려 목이 찢어져라 우짖고, 술상이 으서져라 젓가락으로 두들겨 패는 주법이 이입되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단 말이 되겠다. 템포가 비상히 빠른 노래와 춤, 이를 악물고 식기며 술상을 두들겨 패는 광란스런 제스쳐 등은 합하여, 소위 사차원의 세계를 예견하고 파격적인 예술을 지향한다는 현재 예술가들의 자태를 방불케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십팔 세기에 살며 이십세기의 영향을 받는 후진국의 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맴돌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흥미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영외장병의 주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사회에서의 그것의 변천과 자신들의 처한 환경의 변화를 좇아 부단히 변해온 것을 엿 볼 수 있다.

필자가 입대하던 당시를 회고하면 영외장병들의 주법은 개인집에서 마시는 편이 많았고, 돈 사정이나 몸 사정을 불고한 폭음의 주법을 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남의 사정 따위 고려치 않고, 술병을 차고 남의 집으로 모여들면 받아들이는 측도 무가내로 여기고 이를 받아들이고 술상 마련을 해줬다. 들고 간 술은 인사이고, 그 몇 배를 주인집에서 사다 보태야 술이 지탱되도록 술꾼들은 혼전만전 술을 마셨다. 이번 휴일은 어느 과장 집, 다음은 어느 선임 하사관 집, 이렇게 전전하면서 영외장병들은 술로 휴일을 보내기 일쑤였다.

당연했다. 당시의 그런 주법 말이다. 전쟁에서의 데카당스런 기질이 생생히 남아있던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개인 기질로서는 남의 눈치, 장찻 생각 아랑곳할 여지가 없었다. 마셔서 취하고, 취해서 호탕스레 떠들며 시간을 보내면 되었다.

당시라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측이 없는 것 아니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군인들은 폭음을 지상으로 쳤다. 또 남의 시비도 곧잘 걸고, 용맹을 싸움터 아닌 술병이나 홀에서 떨치고 좋아하는 수도 있었다. 군인의 주법은 으레 그런 것이려니 여기고 아무도 그걸 탓하지 않았다. 전쟁 직후에 있음직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영외

장병들의 주법이 달라져갔다.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총각군인들이 장가들기 시작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전처럼 무궤스런 주법을 그냥 지속할 순 없었다. 돈에 정신을 두기 시작했다. 총각친구들의 빈축이 빗발쳤다. 하지만 불가피했다. 술보다 가정이 앞섰다. 마시되 정도껏(이 정도에는 자기의 처지의 전부가 포함되었다) 마신단 풍조가 일어났다. 기를 쓰고 마시던 술잔들이 이리저리 밀리는 술좌석이 비일비재했다. 남의 집에 가는 버릇도 서서히 퇴각했다. 무조건스런 환영이 용납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리하여 영외장병들의 주법은 개인집에서 밖으로 그것도 요정이나 관(館)자 붙은 술집이 아니라 싸구려 대포집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여기 그런 실예(實例)를 하나 들기로 한다.

대구에 있을 때의 일이다. 물 사고로 이미 고인이 된 L대위가 진짜 주법을 보여준다면서 향촌동 입구에 있는 XXX집이란 대포집으로 필자를 끌고 간 일이 있었다. 좁고 긴 홀 안에 길직길직한 목로(조제였다)가 쭉 놓이고 그 양쪽에 흡사 재봉틀 앞에 놓이는 따위 동근 의자가 무수히 놓여 있었다. 홀 한쪽이 카운터식 나무받침으로 구획된 채 개방식 주방을 이루고 거기서, 갈비며, 빈대떡, 두부 생선, 오뎅 등을 굽고, 지지고, 끓이고 하기 때문에 방안이 온통 훈연에 휩싸이고 있었다. 거기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또 자꾸만 꼬여들기도 했다. 퇴근시각이란 땟손이어서인지, 공무원, 군인, 각양 상인, 품팔이, 노동꾼이 한 겨울의 추위에 벌벌 떨면서 들어 닥쳤다. 거기서 앉는다는 건 사치에 속했다. 아니 남을 위하는 일이 못되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홀쭉한 비닐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채 엉거주춤히 사람들에 끼어선 채 각양 군상들은 대포사발을 기울이고 안주를 뜯었다. 곱빼기는 거의 없고, 배급 타듯, 한번이면 족했다. 한번 마시곤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필자는 술은 말고 L대위가 시켜주는 갈비 한 대만을 뜯고 함께 밖엘 나왔다. L대위는 길가에 늘어선 엿장수에게서 깨엿 한 토막을 사서 필자의 포켓에 쑤셔 넣어주며 딸애 갖다 주라 했다.

L대위와 헤어져 혼자 집으로 걸으며 필자는 진귀한 것을 발견한 때의 흐뭇한 감정을 지닐 수가 있었다.

바쁘고, 돈 없고,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남자의 주법은 바로 이런 것이란 걸 난 느껴댔다.

그 후로 필자는 우리 공군 영외장병들의 주법이 차차 이런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고, 현재에도 영등포의 XXXX집이 유명해진 연유를 그런 추이에서 찾는 필자이다.

어떤 파티석상에서 누군가가 우리 장교들도 가끔 칵테일파티를 열고 거기서 담소할 줄 아는 멋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지만, 필자는 그 멋을 배운단 말엔 동감이었지만 칵테일을 택한 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대구의 XX 집이나 서울의 XX 집 식을 택하고 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술을 찬양하거나 술을 권장하는 필자는 아니다. 마실 바에는 우리 정도에 맞고 한국적 체취가 풍기는 이런 식이 좋단 말이다. 영내에도 대포집 식의 주보를 두고 내무반에서 악을 쓰는 버릇은 없어졌으면 한다.

3. 기합(氣合)

군의 이야길 쓰면서 이 기합 이야길 뗄 순 없을 것 같다. 또 기합을 주는 입장인 장교 생활 뿐 아니라, 잠깐이지만, 기합을 받는 입장인 사병생활도 맛 봤던 점에서 필자는 이 글을 쓸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기서 미리 말해두고픈 것은 우린 항용 기합하면, 무슨 대단스런 육체적 제재를 뜻하는 줄 알기 쉬운데, 필자는 그런 뜻 만에서의 기합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이 윗사람에게 몇 마디의 꾸중을 듣고도 기합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에서 필자는 이야길 쓰고 있단 사실이다.

어쨌든, 십 오년 전 필자가 처음으로 공군에 발을 들여 놓았을 적엔 우리 공군에서도 이 기합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여기 소개하고 역시 그것의 변천과정을 약술해 볼까 한다.

필자가 잊을 수 없는 기합중의 하나는 신병훈련시절 그러니까 1953년의 겨울, 항공병학교에서 받은 설사기합 이었다.

설사기합이라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용인즉 이랬다. 아침에 기상해서 옥외점호를 받는다고 연병장에 뛰쳐나오니까 거기 밤사이에 누가 쏟아놓은 설사X이 제법 넓은 면적에 걸쳐 이상한 빛깔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것이 주번하사관의 눈에 띄었다. 신병들이 한 짓이라 단정되었다. 그리고 톡톡히 기합을 주겠노라 선언했다. 마침 주번사관이 주번하사관에게 점호 받아도 좋다는 전달이 왔기 때문에 이 설사X의 처리는 전적으로 주번하사관의 권한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우린 대열 속에서 운이 나빠서 치도쿠니를 당하게 됐다고 속삭이며 전전긍긍했다. 이때에 단상으로 뛰어 오른 주번하사는 노기 찬 쇠로 차렷 구령을 부치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장장 이십분 이상이 걸린 긴 훈계였지만 간추리면 "너희들 중의 하나가 설사X을 쌌음이 분명하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남자답게 어서 자수를 하라. 그러면 자기도 남자니까 쾌히 용서하겠다. 만일 끝내 범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자기도 생각이 있다. 너희들의 혀로 핥아서 그걸 몽땅 없애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 연설 후에 X싼 사람 빨리 나오라 해놓고 그는 얼마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열은 숙연한 채 아무도 움직이질 않았다.

"그럼 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나직이 그러나 힘주어 뇌이고 뒤이어 버럭 소릴 질렀다. 일렬종대로 해서 모이란 구령이었다. 얼마동안 주위가 수런거리다가 신병들은 장장 긴 일렬종대를 지어놓고 다시 숙연해졌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듣거라. 지금부터 작전명을 하달하겠다."

사뭇 위엄을 갖추고 서서 이렇게 전제한 그는 인제부터 일렬로 적진지(설사똥)을 향해 제 5 포복행진을 한다고 했다.

"적진지에 도달하면 혀를 가능한 한 길게 뽑아서 거길 세 차례씩 핥고 지나간다. 알았나?"

"네!"

우린 엉겁결에 크게 대답을 했다.

"대답이 커서 좋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맨 앞에 선 사람부터 제 5

포복 앞으로 갓!."

키 큰 탓으로 제일 앞장에 섰던 신병이 몸을 구불덕이며 땅바닥에 엎디었다. 그리고 적지를 향해 포복을 시작했다.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위가 얼어 있으니 더러울 것 없잖아. 그렇지?"

열중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따는 그렇다고 필자는 생각했다. 남이 혀로 핥아 녹인 다음에 핥는 것보다 빤빤히 얼어붙은 표면을 핥고 지나가는 편이 깨끗할 것 같았다. 허지만 작은 키를 당장에 엿가락 당기듯 늘릴 수도 없고-그저 묵묵 운명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첫 사람이 적진지 바로 앞까지 다다라서 막 혀를 내미는 순간이었다.

"그만!"

주번하사가 크게 구령을 부쳤다.

"이러섯! 뒤로 돌아갓! 뛰어갓!"

첫 사람은 구령에 따라 자기의 정 위치에 돌아왔다. 우린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다. 주번하사가 이렇게 명령했을 적에야 우린 기합이 중지되는 줄 알고 휴우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친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용서 않겠다. 알았나?"

"네!"

우리의 대답은 아까의 갑절이나 컸다. 주번병더러 삽을 가져다 오물을 치우도록 하라 명하고 아울러 점호생략까지 하명하며, 단을 내려서는 주번하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슨 구인(救人)처럼 보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에 잊혀 지지 않는 기합은, 지금 필자의 동기생-그것도 절친한 동기생이 되어 있는 친구에게 따귀 한 대 맞은 일이다.

당시 그 친구는 내무반장으로 일등중사(지금의 하사)였고 필자는 이등병이었다. 밤의 점호가 끝난 뒤에 그가 반원에게 훈계할 일이 있어서 내무반원 전원 집합을 하명한 모양이었다. 훈계할 건덕지를 가진 그의 기분이 좋았을 턱이 없는데, 난 변소에 다녀오노라 집합에 늦었다. 다급해서 허겁지겁 내무반문을 들어서는 나를 보고 가까이 오라 호통을 친 그는 다가서는 필자의 따귀를 다짜고짜 힘껏 갈겼다. 순간 필자는 정신이 아찔함을 느꼈다. 그는 더는 때리지 않고 이미 정렬한 대열 속에 필자를 밀어 넣었다.

참 분했다. 따귀 맞은 것이 말이다. 숱한 기합을 받았지만, 구보가 아니면 엎드려뻗쳐, 그리고 빠따몽둥이로 엉덩이 맞기 정도였지, 이렇게 정면으로 따귀를 맞기는 처음이었다. 그렇듯 팔촉스레 남의 면상을 후려갈길 수가 있느냐 말이다. 억울한 생각이 일주일도 더 계속되었다.

그 일 이후로 얼마가 안 되어서 그와 필자는 꼭 같이 장교후보생으로 합격이 되어 훈련받으러 떠났고, 벌써 임관한지 십 사년 째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너, 나 하는 동기생 사이지만, 아직도 그를 만나면 가끔 그때 그 생각이 뇌리에 번개치곤 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순수한 추억이지, 감정 나부랭이 때문은 아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합 이야기를 하고 그치기로 하겠다.

장교후보생으로 한창 고된 훈련을 받고 있을 무렵이었다. 뭣 때문이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지만, 하여간 우리 장교후보생 일동은 밤잠을 자다 말고 연병장으로 호출이 되어 일동 어스름 달빛 아래 엎드려뻗쳐를 하명 받았다. 그런데 그 기합의 시간이 상금껏 공군의 기록

이 아닌가 한다.

의견이 구구하긴 했지만 기합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적에 근 한 시간이나 걸렸단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당해 본 사람이면 아는 일이지만 몸통엎드려뻗쳐 자세로 한 시간을 지탱한다는 건 불가능에 속한다. 인간의 힘의 한계 밖이다. 헌데, 이런 초인적인 기합 시간을 거뜬히 버티어낸 사람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이미 공군의 군종감을 지내고 솔가하여 미국으로 의주한 R목사가 우리와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이 기적의 인물이었다.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으니 육체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 없었다. 기합 후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핼쑥해져서 비트적거렸지만 그 분은 종당 쓰러지지 않고 배겨냈다.

간을 끌었겠지만, 이렇듯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합이란 일본군에 그 원적(原籍)을 두고 있으며, 어휘자체도 그들의 것을 그냥 따라가 우리 군에서 한창 모방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은 점차 사라지고 상호 이해와 협조와 복종의 형태에로 군의 상하관계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기합의 잔영이 구석구석에서 번득이는 수가 없진 않지만 그건 꺼져가는 불길이 마지막으로 일렁이는 따위 힘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줄로 안다. 많이 발전한 셈이다.

4. 역부(驛夫)

요사이는 거의 그런 현상을 볼 수 없지만, 멀잖은 지난날까지 복장으로 해서 공군장

병은 곧잘 역부의 대우를 받았다. 전혀 복장의 탓이었다. 차림새가 역원들의 그것과 비슷한데다 공군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했던 탓으로 시골 기차 정거장에선 말할 나위도 없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공군과 역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임직한 곳에서까지 곧잘 혼돈을 일으켰다. 필자도 기차 시간문의 따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기차가 늦다는 책임추궁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 웃지 못 할 현상이었다.

필자가 처음 공군에 들어왔을 당시는 사병들은 푸른 옷에 역시 검푸른색의 스포츠모형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역원이라도 정식역원 풍채가 안 나고 심부름하는 바닥 역원들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정거장에 나타나면 손님들이 스스럼없이 기차 시간을 물어 볼 밖에.

얼마 후에 사병들의 모자는 도루꼬군의 그것 같은 괴짜스런 것으로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섭가락잎으로 만들어 쓰던 그런 모자와 흡사했다.

그 후로 복장은 색깔이 짙고 연한 것, 또 연한 것에서 짙은 것으로 몇 차례 바뀌었고, 모자도 현재의 형에서 쟈바라가 있고 없고로 장병의 것을 구분한 때도 있었고, 불과 몇 년 전부터서야 지금처럼 모자줄의 색깔로 그것을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모표는 꾸준히 전통을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려나 인젠 공군의 복장도 자리가 잡혔고, 거의 십인십중이었던 시절은 뒤로 갔다고 믿는다. 아직 간혹 역부 취급을 받는 수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급하는 사람의 무식의 소리이지, 우리 공군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는 것은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기까지 장족의 발전을 이룬 공군의 복장을 몰라보는 국민이 있다면 약간 시세의 추이에 어두운 사람이겠기에 말이다.

인제 공군은 성년기에 들어섰다. 복장에 있어서도 조정모개(朝定暮改)식의 변덕성을 제쳐버리고 차분히 전통을 쌓을 자세를 갖춰야 할 줄 안다. 불과 몇 년 전에 찍은 공군장병의 사진이 변한 복장 개념으로 해서 이국사람처럼 보여서야 되겠는가?

5. 취미

공군장병의 취미도 시간의 흐름과 세태의 추이에 따라 몇 단계의 변화를 이룬 감이 있다.

개인의 취미를 일일이 매거하려 논할 순 없고 그때그때의 대표적이고 공통성을 띄었던 취미 몇 가지를 골라 차례대로 말해 본다.

아무래도 공군 내에 제일 먼저 밀려들었던 장병의 취미는 춤인 것 같다. 휴전 후 점차로 사회가 질서를 잡아갈 무렵 공군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군인들이 이 춤을 배운다고 열중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풍조는 전시에 우리를 도우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왔던 외국군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휴전 직후의 우리네 사회 환경에서 당연히 발생될 산물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당시엔 비밀댄스홀이 골목마다 아박아박 들어서고, 소위 춤 선생이란 야릇한 명칭을 지닌 기름 머리 반지르르한 젊은 측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부대에서 파티를 한다 하면 거개의 경우 댄스홀로 찾아갔고 거기서 춤 잘 추는 젊은 장교들에게 시범을 보이라 해 놓고 둘러앉아 구경하는 일이 허다히 있었다. 그만큼, 한 때 춤은 공군장병의 넋을 사로잡았다.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필자는 용케(?) 춤을 못 배우고 져 나왔지만.....

춤 다음에 온 것이 당구란 의미였다. 이건 열도에 있어서 춤은 상대도 안 되리만큼 높았던 것 같다. 필자 같은 무취미한 사람까지도 적백 네 알의 공에 의해 완전히 넋을 앗기웠댔으니까....

거리엔 당구장이 촘촘히 들어서고 그 당구장 안에 또 사람이 미어져라 몰려들어 서물거렸다. 그들 앞엔 몇 개의 당구대가 놓이고 그 위에 당구 채에 맞아 때깍 소리를 내며 분주히 궁구르는 적백의 공이 있었다.

부대에라고 당구대가 없을 수 없었다. 부대마다 다투어 당구대를 설치했다. 물론 대성황이었다.

필자도 부대 안 당구장에서 당구를 배웠다. 한 번은 주번을 서면서 밤을 꼬박 새워가며 당구를 친 일이 있었다. 그렇듯 극성스레 배운 당구의 기술이 백이십에 이르렀을 적에 4.19가 나고 필자는 당구대를 놨다.

당구에 미쳤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늘어놓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 중 한 가지만을 여기 소개해 보면, 어느 비행단에서의 일인데, 갓 당구를 착수한 사람이 하도 열을 올린 나머지 집에서 밤중에 연습할 생각으로 부대 당구장에서 주인 몰래 당구알 한 조와 당구대 하나를 슬쩍해 갖고 나가서 방바닥에 모포를 깔고 밤새 쑤셔댔다는 이야기이다. 거짓말 같으면서 사실 있었던 이야기이다.

필자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이건 무리가 아니라고 수긍이 간다. 다만, 집의 방바닥에 엎드려서 공을 쪼아댈 때 가족들이 어떻게 봤겠는가가 상상할수록 필자를 혼자 고소케 했다. 당구는 4.19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그 빛을 잃기 시작했다. 어퉁비둥 취해버렸던 당구꾼들이 세태의 변화에 자극되어 번쩍 꿈에서 깼던 모양이다. 그렇듯 성황을 이뤘던 당구장들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고 몰리던 꾼들도 발길을 끊게 되었다. 그 많은 당구대와 큐와 당구알은 다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궁금한 일 줄의 하나다.

당구의 열이 식자, 우리 군내에는 또 한 가지의 오락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바둑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엔간히 열들을 올렸다. 열기가 높아진 축들은 오바레이로 바둑판을 만들고 오일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가면서까지 바둑에 열중했다. 사회에서의 유단자들이 군문에 들어와 숭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마 현재의 공군 내의 대표적인 오락을 지적하라면 역시 이 바둑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이 이 오락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준 공과이다. 이건 각자 경우가 다르겠지만, 한 마디로 오락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공보다 과가 많으리란 이야기이다. 아무래도 오락은 사람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에게 틈틈이 휴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일

을 위해 도움을 줄 적에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특히 군에서는 그렇다고 강조해 본다.

6. 전역지상(轉役至上)

아직도 공군 내 일부에서는 이 전역지상이 관념이 제법스런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옛날-그러니까 복무연한제도가 없어서 전역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엔 관념이 전염병처럼 우리 공군장병들의 머리를 속에 만연되어 있었다.

모여 앉으면 입입이 이 전역을 내세웠다. 짜장 이 전역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축에 들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관념은 우리들의 머리를 풍미하고 있었다.

당장 나가면 이튿날부터 입에 풀칠이 난감한 사람들까지도 집단효과의 영향에서 주문처럼 전역을 뇌었었는데,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전시에 군을 멀리하려던 잠재의식이 연장되어 그런 풍조를 낳지 않았나 한다. 의무적이니까 한 번 거치지 않을 순 없지만 오래 머물러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기 일제말기의 징병 때부터 우리 젊은이의 뇌리에 새겨지기 시작한 군에의 관념이 아닌가 여긴다.

아무튼 극성스러우리 만치 군에서 빠져 나가려고 들 애를 썼고 또 많이 빠져나갔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축들이 얼마 못 가서 전역한 것을 후회하는 예를 필자는 얼마든지 보았다.

휴전 후 사회의 안정과 함께 군도 안정일로를 걸었고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사회의 일반 공무원에게 뒤지지 않도록 배려되었다. 차차 군인들 사이에 직업군인 의식이 부식되기 시작했다. 무작정 군문을 나간다고 해서 사회가 무한정 수용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군에서 이 전역지상의 관념이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군의 질서가 잡혀서 복무연한제도가 확정된 후로 단기복무 장교는 사년, 병은 삼년의 의무연한만 마치면 자동적으로 전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와 병행하여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의 진로도 여러 갈래로 설정이 되어 막말로 입맛 당기는 대로 군의 복무를 마치게 되어 있으나, 단기복무 장병에 의한 골칫거리가 상금도 눈에 뜨인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전역이 가까우면 웬만큼 수양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얼핏 종말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끝장이다-이런 의식으로 해서 정신상태가 느슨해지고 그로 인한 복무의욕의 감퇴와 군율에의 대담성을 낳게 된다. 전역을 앞둔 한두 달을 빈둥거리기만 하다 군복을 벗는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향이 우리 주변에서 실감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중위로 전역하는 단기복무 장교들도 가끔 전역을 앞둔 종말의식에 짙게 감염되는 예를 본다. 젊은 나이에 있을 수 있다는 관용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엄격히 따질 적에, 최고 학부를 나온 지성인이란 긍지에서라도 이 케이쎄라, 쎄라의 풍조를 그들 스스로가 불식해줬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군복무는 시간아 달려라 식으로 적당히 넘기고 사회에 나가서는 일약 뭇사람의 신망과 표적이 되는 인간이 되어 보겠다-따위 사고방식이 전무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적당히 넘기는 행동밖에 취할 수 없다고 단언해서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비록 군무가 자기 소양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대하는 자세가 진지한 사람은 군에서도 신망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군 생활을 없는, 심하게는 잃은 시간으로 칠는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그 바닥을 흐르며 작용하는 사람됨의 흐름의 측면에서 볼 적에 그런 단절된 간격은 존재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군무에 졸렬한 인격으로 대한 사람이 사회에서 원만한 인격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이란 집단이 없어진다는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우리 주변에서 군의 무시할 수 없는 직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현실

그대로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뤄지는 자아의 일체의 행동거지가 자기 인생과는 무관한, 단절해 버려서 좋은 것이 될 수는 없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한 토막이요 연장임에 틀림없다.

단기복무 장병 거의 모두가 훌륭한 사명감과 인격을 지니고 인생의 한 토막인 군 생활을 국가민족이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스레 보내고 있는 줄 알지만,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한강물 흐린다고, 몇몇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전역지상주의가 낳는 후유증이 없지 않아 한 마디 해 본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서 군무를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복무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과, 돈이 있고, 배경이 좋아서 사회에 나가면 명성을 떨칠 사람이라도 자기의 소질과 사명감에서 일생을 군에 바치는 서구스런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7. 본관들

필자가 신병 교육을 받을 당시엔 대부분의 내부반장이 이등중사-지금의 병장이었다. 신병들의 눈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지당스레 미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 가지 꼭 한가지만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었다. 본관이 어쩌고저쩌고 자신들을 본관이란 대명사로 부르는 현상이었다.

일제 때에 중학교를 졸업한 필자의 머리엔 일본군인들이 자주 이 본관이란 말을 쓰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남아있었는데, 그들도 장교만이 이 대명사를 쓰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 국군이 일본의 군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초창기의 창설자들의 대부분이 일군출신이었고 보면, 부지부식 간에 그들의 군제를 많이 이입했다고 봐야 옳을 텐데, 이 본관이란 말을 일개 병장까지 사용토록 변경 이입한 이유가 뭘까-필자는 궁금히 여겼었다. 그러나 차차로 그건 공인된 병급들의 대명사가 아니란 것을 필자는 인지하게 되었다.

내무반장들의 모두 퇴근하고 소위 깡통사령관(계급장이 깡통으로 만들어진 사병들의 속칭)들만의 세상이 밤과 함께 영내에 찾아들면 그 때부터 내무반장들은 지칠 것 없이 이 대명사를 마구 휘두르며 거드름을 피웠다.

"에-또, 본관이 오늘 저녁 귀관들 앞에서...."

내무반원들을 모아놓고 뒷짐을 쥔채 잔뜩 고자세로 서서 그들은 이런 식의 서두를 끄집어내곤 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기술학교로 기술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여기서는 항공병학교가 유가 아니게끔 이 본관이라 대명사가 널리 불리워지고 있었다. 걸핏하면 사병들이 버티고 서서 이 본관을 찾았다. 필자는 그 소릴 들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고소했었다. 소영웅심리의 작용이라 생각해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영웅들도 거의 모두 공군에서 자취를 감추고, 요사이는 내무반장들이 자기를 낮춰 가며 부하들을 감화시키려 든다고 듣고 있지만 이것도 영석지감(令昔之感)을 느끼게 하며 흐뭇한 회억(回憶)거리가 되고 있다.

8. 대방동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란 속담에 견주어 공군도 좁은 테두리 속에서 꼬무작거린다 해서 이런 별명이 붙은 모양이다. 별명이란 것이 개인에게 일 경우나 단체에게의 경우를 막론하고 좋지 못한 점을 꼬집어서 해학적으로 표현된다고 볼 적에 우리 공군이 별명을 가졌단 자체가 약간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 고쳐나간다면 오히려 별명이 없었던 경우보다 결과적으론 좋잖겠는가 생각해 본다.

필자가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란 생각을 절감하게 된 것은 육군고급부관학교에서 교육받을 때의 일이다. 여군까지 합쳐서 4군이 모였다고 하던 당시의 모임에서 필자는 육군 장교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 공군은 너무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육군의 방대함과 또 각 장교들의 전투경험의 다양함을 듣고 이들이 진짜 군인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직이 크고 수가 많으니까 훌륭한 인재들도 공군보다 훨씬 많다고 느꼈다.

공군에도 전투조종사들의 무공담이 숱하게 있어서 늘 듣지만 육군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단조로운 것 같다.

하늘을 달리는 조종사를 제외하고는, 일선의 산야를 전전하며 생명을 걸고 싸워온 육군의 기개를, 후방 깊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근무한 공군에서 바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공군은 공군대로 타군이 지니지 못한 특색을 갖고 있다. 고도의 기술 장비를 조작하는 기술군이란 면이랄지, 일반이 평하는 바와 같이 높은 지적 수준을 지니고 신사의 체모를 가졌다는 점 등은 자랑할 만한 일인 동시에 이 점에 있어선 타군들도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넓은 바다에 산다 해서 바다의 일을 모두 알 수 없듯이 어느 누구나 남의 분야에 대해서는 맹점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자칫 우물 안의 개구리란 별명을 받기까지 짙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린 이 별명을 싫어하기에 앞서 이의 연유를 캐고 고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특히 각 군이 한 자리를 모이게 되는 삼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등에서 공군의 어엿함을 보이도록 평소의 수련을 쌓아야 될 줄 안다.

9.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공군생활 십 오년에 많은 사람과 접해 봤다. 형형색색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과 즐겁게,

언짢게, 밉게, 곱게 사귀어 봤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요 사람이다 할 수 있을 만큼 뚜렷이 필자의 뇌리에 인상지워진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뉘앙스처럼, 액체 속의 앙금처럼 영영히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 본다.

먼저 K대령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벌써 공군을 떠난 분이지만 그 분에 대한 인상은 아직 어제의 일처럼 필자의 머리에 선명하다.

그 분이 대위, 필자가 소위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 그 분은 일찍 돌아간 형님의 가족까지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천성이 융통성이란 없고 학자형의 얌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심(尤甚)한 것 같았다. 남에게 돈을 빌릴 줄도 알고, 가정에서 뭣이든 부업도 생각해 봐얄 텐데 그걸 모르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한 번은 날 끌고 부산 남포동 거리로 나가 아주 파격적인 일을 하셨다.

어느 봉급날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 분이 필자를 불러 같이 점심이나 하러 나가자 했다. 그 분의 가정형편을 지실(知悉)하고 있던 필자는 정식으로 사양을 했다. 그 분은 거의 강제적으로 사양은 안 된다 했다. 마지못해 따라나섰다.

광복동에서 버스에서 내린 둘은 남포동의 번화한 뒷골목으로 걸었다.

"제일 큰 요릿집이 어디지?"

앞장서서 묵묵히 걷던 그 분이 느닷없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요?"

필자의 대답.

"글쎄..."

그 분은 다시 걸었다. 걷다가 이번엔 행인들에게 아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정쩡해 하는 행인도 있었고 친절히 상대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린 남포동 어구의 크낙한 중국 요릿집 독방에 마주 앉게 되었다.

필자는 그저 덩두련히 앉아 있었다.

"제일 비싼 요리가 뭐지?"

물수건과 차수를 갖고 들어온 보이에게 그 분은 또 제일이란 관사를 붙여서 말을 걸었다. 보이가 벽에 잔뜩 써 붙인 메뉴를 가리켰다. K대령님은 메뉴 중에서 가장 값비싼 요리 몇 개를 골라 시켰다. 물론 뭔지도 모르고 값만 보고 그랬댔노라 나중에 말씀하셨다.

중국 요리를 먹다 남기고 나왔는데 K대령님은 광복동 거리에 나오자 또 필자를 끌고 어느 고급 다과점에 들어갔다.

"제일 비싼 걸로 주슈."

다과점에서도 그 분은 제일 비싼 걸 찾았다. 종업원들이 어리둥절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필자가 적당히 몇 가지 케이크를 가져오라 해서 먹고 나왔다.

아무튼 그날 오후 필자는 K대령님에게 끌려 다니며 제일만 먹노라 허둥지둥이었다. 고통스럽기도 했다. 배가 부른데 자꾸만 먹자니깐 그랬다.

"돈을 한번 지배해 본 거야."

택시에 흔들리며 이렇게 간단히 대답한 K대령님은 그저 덤덤하기만 했다.

"저까지 지배하셨군요."

예감했던 대로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필자는 이렇게 빈정댔다.

"아니야. 증인으로 세운 셈이지."

필자는 이 증인의 자격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나 K대령님이 한 나절에 한 달 봉급을 몽땅 써버리고서 돈을 지배해 봤다는 그 뭔가 모르게 서글픈 이야기에 대해서만은, 표현은 못하지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

다음은 L대령의 이야기이다. 필자는 그 분의 부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 분의 공공생활을 잘 알고 있다. 이 분도 공군에서 떠난 지 오래 되었지만은 필자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집이 찢듯 가난하면서도, L대령님은 필자가 휴가 장병들의 신고 안내를 들어가면, 신고 후에 꼭 호주머니를 뒤져서 있는 한껏 돈을 내놨다. 그걸 휴가비용에 보태란 뜻이었다. 그런데 그건 결코 그 분의 꾸민 행동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자동차 공장의 직공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니까 남보다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면서 늘 책 속에 묻혀 사시면서 영어를 익히고 기타 군대에서 필요한 지식을 익히셨다. 부하들로부터 학자 내지 실력파로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보니 L대령님은 얼핏 꽁생원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회식장에 같이 나갈 땐 언제나 손수 운전하시면서 칠십 마일의 속력을 내고서야 직성이 풀려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퍽이나 호탕스런 면도 있었다.

아무튼 L대령님의 진실스런 인간성은 남을 감화시키고도 남았다. 부하들이 기를 쓰고 떠받들던 일이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눈에 선히 떠오른다.

윗분들의 이야긴 그만하고 동료의 이야길 시작해야겠다.

수년전 물 사고로 죽은 L대위를 말하고 싶다.

L대위는 술고래였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술을 마셔도 멋있게 마셨다. 대포와 목로주점을 탐색하는데 남에게 뒤지지 않았고 홍취로 일등 가는 집만 골라 다니며 술에 축축이 젖곤 했다.

죽을 때까지 가정을 이루지 않고 술과 책을 벗 삼아 살았었다. 문학에도 남달리 조예가 깊었고, 많은 책을 읽어서 박식하기도 했다. 독서도 멋있게 했다. 고전만 골라 읽었다. 그래야 인품이 고상해진다 주장하던 그는 확실히 독서의 진수를 꿰뚫고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요사이 고전 읽기를 장려하는 목적을 생각할 적에 더욱 그렇다.

L대위는 오끼나와에 다녀오면서 코랑을 사왔었다. 그리고 열심히 읽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독서의 멋의 일면이라 여겨 적는다.

그는 술과 글에만 멋을 낸 것은 아니었다. 군 업무에도 멋을 냈다. 자기 맡은 일에는 늘 권위자였고 열도 대단스러웠다. 누구나 그의 그런 정열과 실력을 인정해줬다.

그에게 결점이 있었다면 가정을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공허함과 방탕성 이었겠는데 이런 결함도 그의 멋에 의해 넉넉히 커버되었다.

"너 결혼해라. 반드시 너에게서 큰 것이 나올 것이다."

필자는 언젠가 대구 영화관에 같이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만신창이가 된 갈본데 나오긴 뭐가 나와?"

그가 H선생의 저서를 읽었던지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 나도 H선생의 글을 인용했다.

"늙은 갈보도 옥동자를 낳을 수 있지."

"정말?"

"난 믿어."

"그럼 장가 가야지."

그 일 이후로 그는 결혼에 대해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 같았고, 죽기 얼마 전에는 약혼까지 했었다.

"니나노-. 닐리리야. 늴리리야!.."

한잔 거나히 되면 독수리의 그것처럼 두 팔로 활짝 날개를 펴고 이렇게 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L군! 결혼 못하고 간 것을 난 이런 각도에서 슬퍼해 본다.

P상등병의 이야길 해야겠다.

필자가 이등병으로 모대위의 행정에 연락병의 일을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일이 하도 고달파서 필자가 허겁지겁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던 이 P상등병은 헌신적으로 날 도왔었다.

전대본부가 멀고, 전보취급소는 더욱 멀어서 필자는 하루에 수십 차례씩 이 먼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입 속으로 나는 바보다! 를 연거푸 뇌이며 열심히 뛰었다. 뛰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일 뛰다 보면 혼자서 접발해야 하는 문서가 무더기로 쌓였다. 밤일을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었다. 근데 밤일을 하게 되면 내무반의 고참병들이 가만 두질 않았다. 고의에서라고 눈을 부라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을 적에 이 P상등병의 구원의 손길이 필자에게 미쳤다. 자기일 제쳐놓고 필자의 접발 업무를 도맡아

처리 해줬다.

P상등병은 텁텁한 경상도 기질의 사나이로서 안팎의 됨됨이 그저 순진스럽고 호인풍이었다. 악의 티라곤 아예 없는 위인이었다. 남을 진심에서 도울 줄 알았고 계급의식을 거의 갖지 않았다. 자기의 외출 차례까지 하급자인 필자에게 양보하곤 했다면 말 다 했지 뭐겠는가.

같이 외출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진주에 나가서 고구마를 사들고 촉속루에 올라 남강을 굽어보며 그걸 나눠 먹고, 책을 보며 뒹굴다가 돌아오곤 했다. 귀로엔 대로집에 들려 필자에겐 사이다를 사 주고 자기는 막걸리를 마시는 일도 가끔 있었다.

"김형. 서로 돕구 삽시더. 살믄 얼마나 살겠다고 야박스레 살겠읍니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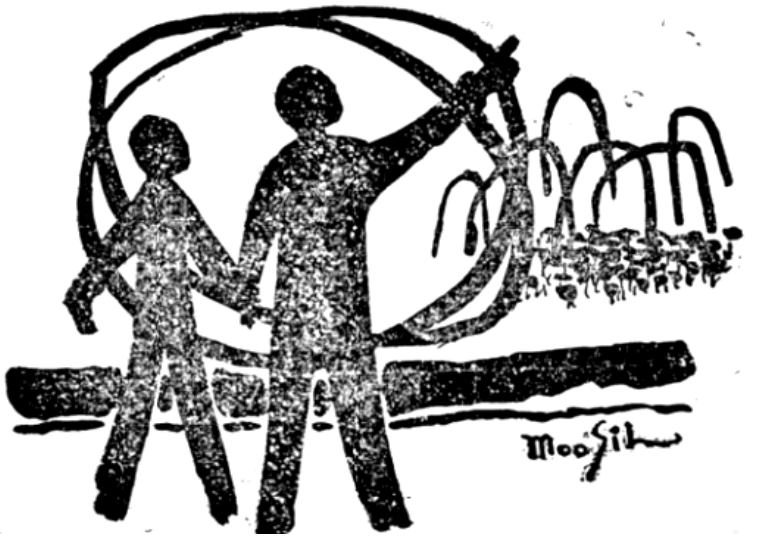
한잔 거나히 되면 그는 게슴치레해진 눈으로 필자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하고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의 표현이 못 따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필자가 장병후보생으로 떠날 때에도 그만은 별도로 송별회를 해 주었었다.

"장교되믄 나 같은 사람 싹 잊으시이소. 김형이야 땅이나 파 묵든 나하곤 따니께..."

송별회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순진하고, 열심 있고, 정력 좋고, 사람 좋던 P상병도 벌써 공군에서 사라졌지만 가끔 그의 그 소박한 성품이 그리울 때가 있다.



<통재...반공수기>

자유에의 여로(下)

-공산치하 죽임의 3년-

박 운

8.

열차 보안대가 완장을 두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손님의 집도 살폈다.

우리 트렁크는 마침 큰 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안에 파묻혀 있었다.

기차는 계속 칙칙 거리며 달렸다. 한 시간 두 시간...지루함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의 모험이 이제 중간지점에 도달한 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도무지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었지만 잠이 와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차표 검사원이 차표를 검사했다.

거기에서 약 4분 정차하고 기차는 계속 남으로 향해 달렸다.

불쌍한 농부들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우리를 쳐다보고 부러운 듯이 눈을 떼지 않았다.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적셔지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이를 깨물었다.

아까 번에 나온 여관 생각을 했다.

그렇다. 아직은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점심때가 되었다. 빵 장수가 지나가고 있다. 빵을 몇 개 샀다. 고향에서는 먹기 힘든 빵이다. 형은 하나만 먹고 나는 나머지 빵을 다 먹었다. 앞으로 내 시간만 있으면 평양이라고 했다. 기차가 역에 정거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였고 기차가 다시 그 역을 떠나 바퀴를 굴리면 나의 긴장은 풀렸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형은 입을 꼭 다문 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선천을 벗어져 나온 기차는 수많은 철교를 건너서 일로남하했다. 가끔 트렁크를 올려다 보았다.

다행히 누가 짐을 그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를 않았다. 위에 얹혀 있는 짐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마른 생선 뭉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리했다.

생선 뭉치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나 않나 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이것은 나중 안 일이지만 역시 그 생선뭉치도 순전히 그것이 생선뭉치가 아니라 그 속에 남하하는 값진 물건이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한 시간 있으면 평양이라고 한다. 평양은 나로서 처음이었다. 그리고 마음이 두근거렸다. 기차는 이윽고 평양역에 들어섰다. 역이 번잡했다. 문 밖으로 시가지를 바라보았다. 전차도 생전 처음으로 멀리 볼 수 있었다.

평양역에서 15분간 정차했다. 여기도 소련군이 더러 보였고 눈이 시뻘건 열차 보안대가 이리저리 살피면서 오갔다. 그러나 생선뭉치는 평양역에서도 내리지 않고 계속 우리의 트렁크를 덮어주었다.

"너 배 안 고프냐?"

형님이 나를 보고 물었다.

"아니요."

"여기서 뭘 좀 먹자."

하고 형님은 점심을 샀다.

점심이라는 것은 수수떡이었다.

"자 먹어라."

"먹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형님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알겠다는 듯이 얼른 그것을 받아서 입으로 넣었다.

집에서 흔히 먹던 것이지만 여기서 먹으니 맛있었다. 기관차를 갈아타느라고 한참 동안 기차는 서 있었다. 형님은 말없이 수수떡을 먹으면서 표정을 태연히 하려고 애를 썼다. 다시 기차는 남으로 달렸다.

"아이구. 저것 봐라."

형과 나는 마음속으로 한탄을 했던 것이다.

생선뭉치가 내려지고 우리의 트렁크가 드러났다. 이 사람은 사리원에서 내려서 남하하는 코오스를 해주 쪽으로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다. 기차는 우리 트렁크를 출렁거리며 계속 달렸다. 수상한 사람은 더러 신분증 검사도 받는 사람이 있었다.

형은 태연해지려고 또 사과를 샀다. 어적어적 그것을 깨물어 먹었다. 보안대원이 지나갈 때면 더 어적거리고 깨물어 먹었다. 입고 온 것이 학생복이 아니고 시골 젊은이들이 입는 허름한 옷이었기 때문에 대개 보안대는 옷으로 그 성분을 짐작하여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허름한 옷의 덕택을 여간 입지 않았다.

열차 보안대가 한 차례 닥쳐올 때면 괜히 표정을 긴장시키고 안색이 이그러지는 사람들은 모두 남하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또 그들은 보안대가 지나가면 무사한 듯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며 긴 숨을 몰래 쉬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역시 이들과 다름없는 표정이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황토의 구릉이 많았다. 그리고 조그마한 강들이 많았고 터널은 별로 없다. 고작해야 짤막짤막한 터널뿐이었다.

이윽고 38선이 가까워 온 것이다. 형과 나는 오랜 시간 기차를 탔기에 지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최고도에 달해 있었다.

"거의 다 왔다."

"여기가 어딘데요?"

"나도 잘 모르겠다만...다음다음 역에서 내려야 될 거야."

"몇 시간 쯤 가면 될까."
"아마도 두 시간 쯤?"

9.

기차는 천포라는 곳에 닿게 되었다. 열차 보안대가 떼를 지어 올라온다. 우리 칸에는 세 사람이 올라와서 우선 이상한 사람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매 눈처럼 부릅뜨고 째리고 지나간다. 몇 사람이 잡혀 나갔다. 그러나 우리 형제는 무사했다. 그 다음은 짐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했다. 그 동안 기차는 천포를 떠나서 금천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짐 조사는 매우 세밀했다. 하나를 조사하는데 무려 10분이 걸렸다. 짐을 거의 조사했을 때는 기차가 금천역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 트렁크는 누구 꺼지요?"

보안대는 눈을 도사려 뜨고 손님을 째려보았다.

(대답을 안 해 버릴까) 하다가

"이 트렁크 임자 없어?"

"저의 것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쌍!"

"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 귀가 먹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못들어...성분이 안 좋아."

하면서 트렁크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적거렸다. 양복이 여덟 벌이나 나왔다.

"이것이 다 당신 옷이야?"

"아니오."

"그럼 이 양복은 누구에게 갖다 주러 가나?"

"아니고 연천에 아는 집이 있어서 그리 갑니다."

"쌍. 연천이 어딘데 이리와. 거짓말은 말아."

"너 이남가지?"

"아니오."

나도 눈을 맞 부릅떴다. 형님의 안색은 붉었다가 파랗다가 문어 빛깔처럼 변했다. 창 밖만 바라다보았다.

"거짓말 말아."

"아니오.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기차를 일부러 잘못 탔단 말이지. 성분이 나빠."

"아닙니다."

"잔말 말고 따라 내려와. 트렁크 들고서..."

보안대 한 사람이 앞에 서고 한 사람이 뒤에 서서 나를 기차역 사무실로 데려갔다.

거기서 소지품 검사를 다 받았다. 돈도 빼앗겼다. 사무실 창밖에 멀찌감치 대합실 한 구석에 형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살피고 있었다. 약 30분 후에 북상하는 기차로 나는 다시 양송 당했다. 이때가 밤 열두시 반쯤 됐다. 기차는 다시 천포에 봐서 닿았다. 나를 압송하는 사람은 보안대 두 사람이었다. 형님은 역시 몰래 그 기차에 타고 나의 뒤를 따라다녔다.

"자 여기서 내려. 여관에서 자고 내일 아침 평양으로 간다."

"내리자."

두 사람은 나를 끌고 내렸다. 형도 따라 내렸다. 기차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여관에서 자게 됐다. 형님은 그때 그 옆방에 들어서 옆에 사람보고 사정을 얘기했던 것이었다.

형님은 거의 남하하는 사람과 또 남하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관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나를 빼어내는 의논을 했다.

"돈을 뭉텅 집어주시고. 놈들도 돈에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북상하여 소리원에서 해주 쪽으로 해서 남하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이 찻길로 다시 남하하다가는 또 잡힙니다. 놈들이 다 짜고 도로 잡아요. 북상하면 모르니까요. 북상하는 차는 조사를 안 해요."

형은 이 말을 듣고 곧 행동에 옮겼다. 보안대와 안면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변소깐으로 두 사람을 불러내어 가지고 있는 돈 5백 원을 주었더니

"그럼 우리는 모르겠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가버렸다. 형님의 얼굴에 웃음빛이 돌았다.

"놈들은 상관에게 놓쳐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하면서 그 사람은 웃었다. 형님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50원을 주었다.

"이 역에서 타지 말고 십리쯤 걸어 올라가서 간이역에서 타십시오. 웃옷을 벗고 변장을 하는 것이 좋을 꺼요."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 주었다.

그대로 우리는 십리쯤 걸어서 어느 작은 간이역에서 기차를 탔다.

약 세 시간 후에는 황해도 소리원에 도달했다. 우리는 결국 트렁크도 빼앗기고 맨몸이 됐다. 처음 여관에서 나올 때 차라리 트렁크를 버리고 왔으면 가진 돈도 그대로 남았고 이런 변도 당하지 안했을 것 아니냐고 자문자답을 했다.

형과 나는 서로 의논을 해 두었다.

"기차에서 보안대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해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 차 간다고 대답하자."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쪽 기차 편도 만만치 않게 조사가 심했다.

10.

기차 속은 대부분이 사과 장수였다. 황해도 사과가 맛이 있다는 말은 지리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 평북에서 사서 먹을 때보다 값도 퍽 쌌다. 기차의 속력은 별로 빠른 것 같지 않았다. 자리도 그 전 기차만 못했다. 다만 보안대의 수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았다. 해주에 가까이 와서 우리도 신분증 조사를 받았다.

"동무는 어디로 가?"

"저 해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러 갑니다."

"가진 짐은 없어?"

"없습니다."

보안대는 마음을 놓은 듯 다음 사람에게로 옮아갔다. 이윽고 해주에 도착했다. 우리는 변두리 여관으로 찾아 들어갔다. 여관의 동정을 살피면서 하룻 동안을 거리서 묵었다. 여관 주인이 빨갱이 열성분자 같으면 섣불리 말을 끄집어내서는 안 되겠기에 조심을 하면서 말을 물어보지 않았다.

(길잡이를 찾아야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이틀이 지나갔다. 그 동안 낮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만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튿날도 그대로 있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여관 주인이 우리 방으로 오더니 "손님들은 어디로 가는가요?"하고 물었다.

"글쎄올시다."

형님의 대답이었다.

"만약 38선을 넘으려면 지금 좋은 길잡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요?"

여간 주인은 우리들의 말을 듣자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듯이

"가만 계세요. 한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못쓰니까 열시에 내가 보내는 사람을 따라 가시오."

"네."

열시가 되자마자 주인이 노크를 했다. 우리 형제는 주인이 보내는 사람에 따라 어두운 길을 빠져서 바닷가로 나갔다. 약 20리 길을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조금 더 가면 괴뢰군이 바다 쪽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것이 보이는데 이 언덕을 기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쯤 있으면 물이 썰물이 될 때 물 가장자리를 밟아 가는 길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은 당신들이 택하시오"

우리 일행은 여덟 명이었다. 여덟 명이 쪼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인솔값을 치루었다. 매인당 50원씩이었다. 그는 장님처럼 어두웠는데도 돈을 만져서 헤었다.

"어디로 가겠소?"

나는 바다 끝으로 가자고 했다.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서 직코스 90도로 바다 깊숙이 걸어 들어가서 물을 밟으면서 또 90도 각도를 꺾어 남하했다.

"아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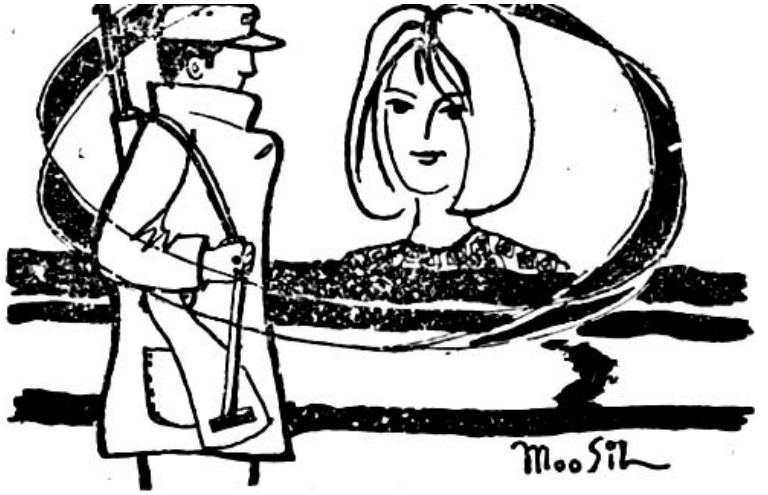
한참 걸었을 때, 내 신발이 뻘에 묻혔다. 위급해서 그대로 버리고 맨발로 뛰었다. 조금만 걸음을 늦추어도 뻘 속으로 몸이 빠져 들어간다. 서치라이트가 훨씬 뒤로 사라져간다. 온몸이 땀에 비 맞듯이 젖어 있었다. 입안이 짜다. 물이 들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뭍으로 뛰어 나오고 있을 때 날이 밝아왔다.

날이 환하게 새었을 때 어떤 농부가 하나 밭으로 나왔다.

"여기가 이남 땅이요! 여기가 이남 땅이요!"

하고 외쳐 주었다. 우리 일행은 그 소리에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국군의 초소를 거쳐 우선 먹을 걸 선사 받았다. 그리고 인자스럽게 웃는 미군이 우리를 지프차에 태워서 개성(開城)까지 안내해 주었다.



▣희곡

겨울 비둘기

최 인 호

막이 열리면 관객 측에서 볼 때 무대 왼편은 현실적인 무대이고, 오른편은 항상 환상적인 무대이다. 왼편 뒤쪽으로는 PSP 철판이 후면을 가리고 있고 무대 전면에 가등이 졸고 있다. PSP 철판 앞에는 2급 제한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다. 무대 오른편엔 흰 벤치가 하나 놓여 있고 벤치 뒤로는 나목들이 몇 그루 서 있다. 이 오른편 무대는 현실적인 장면일 때엔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어야 한다.

때는 겨울. 장소는 겨울의 고궁 안이다.

나오는 사람은

동호 : A 현실의 인물

동호 : B 환상 속의 인물

경아 : 여주인공

무대감독 :

보초병 : A

동물원 경비원 :

막이 열리면 보초병 동호. 방한복을 입고 총을 멘 채 PSP 판 앞을 서성이고 있다. 가끔 정지하고 귀를 기울이다간 다시 걷는다. 이때 굉장한 비행기 폭음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다가왔다간 이윽고 사라져 간다. 동호 결음을 멈추고 비행기의 행방을 좇는다. 그러다 비행기가 멀어지자 다시 걸음을 옮겨 가등 밑에 서서 담배를 피워 문다. 이때 무대감독 오른편 무대에서 슬며시 나타난다. 새로운 조명 그에게 집약된다. 그는 40세 가량.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무겁다. 그는 관객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무대감독: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처럼 조그만 연극 때문에 여러분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읍니다만 준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었던가 봅니다. 이 연극이 끝난 다음 나는 뒷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절약하라고 주의를 주겠습니다.(파이프 불을 붙인다.)

저기는 (단장을 든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폭탄 저장소 옮습니다. 그리고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보초병은 2시간 전에 상번한 보초병 김동호 이등병입니다. 낮이 밝기만 하면 우리 김이병님께서는 교대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김이등병님은 매우 똑똑하고 영리하고 예쁘게 생긴 신병입니다. 절대 걷는 일이라고는 없고 언제나 뛰고 있으며, 누가 묻든지 흰 이빨을 드러내고 빙그레 웃는 모범군인 아저씹니다. 게으른 여인이라면 우리 김이병님의 빠릿빠릿한 행동을 보고 연애 걸고 싶어질 만한 그런 군인 아저씹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김이병님하고 결혼했다간 자기는 잠만 자더라도 우리 군인 아저씨께서 옷도 빨고 밥도 짓고 커피도 끓이고 어린애 우유도 먹이고 총채로 거미줄도 털고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건넌방까지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치워 놀 테니까요. 핫하하.....

(시계를 본다.)

벌써 2시 35분입니다그려. 지금쯤 저 먼 곳의 고향 식구들은 검은 날개를 펴고 조용히 내려 안기는 밤의 옷자락 속에서 잠이 들어 있을 겝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그리고 물건들도, 차디찬

겨울바람을 피하고 따스한 보금자리에서 서로 체온을 나누며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을 겝니다. 깨어있는 것이라곤 우리 김동호 이등병님과 가등,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들이 다 잠드는 밤이라야 깨어나는 요술쟁이들, 일테면 낮에는 실컷 낮잠을 자다가 밤에는 아무래도 잠이 안 들어 저 인어아가씨에 나오는 바다 및 마귀할멈에게서 빌려온 두꺼비 눈물에다 두더지 발톱을 끓여서 만든 이상한 향약을 가지고 밤과 밤 사이를 빠져 날아다니는 요술쟁이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술쟁이들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같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남 다 자는 밤 한데서 눈을 뜨고 있을 때 당신들의 귓가에서 조용히 날개 소리를 내는 요술쟁이들, 당신의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하나 당신의 귓가에 소곤거리는 요술쟁이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깜빡 잠이들게 하고 그래서 그놈의 괘씸하기 짝이 없는 요술쟁이들이 우리 김이등병님을 어떠한 세계로 이끌어 가는지 두고 보기로 합시다.

물론 이처럼 보초병이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이겠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 김이등병님의 탈선을 눈감아 주기로 합시다. 물론 우리 김이등병님이 환상의 세계로 침전해 들어갔을 때엔 제가 대신 보초를 설 것을 약속합니다.

(이야기 도중에 동호는 조용히 가등 밑에 쭈그리고 앉는다.)

쉿!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그는 막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쉿, 저기 앉은 박상병님두 조용하세요. 될 수 있는 한 입을 다무세요. 숨도 크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쉿, 쉿, (지팽이를 들어 동호를 가리키며 낮은 소리로 은밀하게 신비롭게 속삭인다) 조용히, 조용히 여행을 떠나게 짐은 내가 벌써 꾸려 두었네. 자, 자네가 여행 떠난 동안은 자네 대신 내가 보초를 서 줌세. 걱정할 것 없네. 차표두 내가 이미 끊어 놓았지. 자네 왼쪽 상의 포키트에 2등 특급열차권으로 사두었네. 자, 안심하고 출발하게. 차가운 밤하늘엔 별만 가득하네. 자, 조용히 떠나게. 조용히.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환상적인 음악 높아졌다 사라진다. 그대신 오른쪽 무대가 밝아진다. 왼쪽 무대는 언제나 희미하게 밝아 있는데 그곳에 항상 현실의 인물 김동호 A가 가등 밑에 앉아 있고 오른쪽

모두에의 김동호 A는 김동호 B의 환상적 분신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슷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오른쪽 무대의 김동호는 벤치에 안아서 신문을 본다. 이때 경아(京娥) 무대 뒤쪽에서 나온다. 어딘지 가냘프게 생긴 여인으로 선명한 빛깔의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다. 그녀는 누구를 찾는지 두리번거린다. 그러다가 동호를 발견하고 무어라 물어보려는지 멈칫멈칫 거린다. 그러다 드디어 용기를 낸다.)

경아. (작은 소리로)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호. 못 들었는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다)

경아: (수줍게 되돌아선다. 그러다 용기를 낸다.) "저, 여보세요. 말씀 좀 물어보겠어요."

동호: "아! 아예, 저 제게 말입니까."

경아: "저, 저, 혹시 비둘기 한 마리 보지 못했나요?"

동호: "비둘기라뇨. (어리둥절한다.) 이 한겨울에 비둘기라니 무슨 말입니까?"

경아: "저 제가 키우던 비둘긴데요. 벌써부터 없어졌었거든요. 아주 눈처럼 희고, 목덜미하고 눈알만은 빨간 비둘긴데요 저..."

동호: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고궁 안에서 비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커녕 사람도 본적이 없거든요. 댁을 만난 것도 처음인걸요. 이 겨울의 동물원에 들어와서 본 것이라곤 동면하는 곰 새끼와 얼음을 타고 좋아라고 날뛰는 물개 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망할 놈의 비둘기가 이 한겨울에...."

경아: "우리 비둘긴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답니다. 겨울 초 제짝을 잃고서는 언제나 겨울에만 이 동물원에 날아오곤 했었으니까요."

동호: "거 신기한 일이군요. 그놈의 비둘기가 이 동물원에 몇 번이고 날아왔었다고요? 허 거참. 하필이면 이 한겨울에 무엇이 먹을 게 있다구 이 먼 곳까지 날아온담."

경아: "그리고는 (신비스럽게 얘기를 계속한다.) 가냘프게 눈 쌓인 공원 한 모퉁이에서 구슬프레 울곤 한답니다. 조용히 혼자서 종종걸음으로 고궁을 날아다니다가는 날개를 떨어뜨리고 빈 철책 안을 들여다

보기도 하다가 다시 이 고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완전히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새로운 울음을 시작한답니다."

동호: "허 거참 해괴망측한 비둘기로군요."

(경아 이때 동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을 하곤 귀를 기울인다. 동호도 무엇엔가 홀린 듯 귀를 기울이나, 들려오는 것이라곤 바람 소리뿐.)

동호: "아니 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경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비둘기가 울고 있어요. 우리 집 비둘기 소리에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동호 귀를 기울인다.)

동호: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는데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오는데요."

경아: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 울음 소리가요. (감자기 수줍던 태도를 버린다.) 잘 들어 보세요. 아득한 곳에서 바람을 타고 가냘프게 이어오는 소리 말이에요 비둘기 울음 가엾어요. 우리 비둘기를 같이 찾아주세요. 그 비둘기는 혼자서 이 동물원 어느 뜰악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동호: "허 이것 참 큰일인데 좋습니다. 찾기로 합시다. 댁께서는 저 식물원 쪽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이쪽 동물원 쪽으로 돌아볼 테니까요."

경아: "고마워요."

동호: "그런데 참 댁 비둘기의 특징이 어떻다구 그러셨죠?"

경아:" 아주 흰빛갈이에요. 한겨울에 내려오는 눈처럼 온통 하얀데 눈하고 목덜미만 빨간 비둘기에요."

동호: "목하고 눈만 빨갛다. 그렇지, 빨간 머플러를 두른 꼭 당신 같군 그래. 그런데 내가 그놈을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도망가 버릴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경아 :"절대 도망치는 일은 없어요. 우리 비둘기는 버림받기 전에는 언제나 한 자리에 앉아 있답니다."

동호: "좋습니다. 찾아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찾건 못찾건간에 우리 이 벤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자, 난 이쪽 동물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댁께선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무대 어두워진다. 잠시 바람소리 높아지며 그 사이에서 가냘프게 비둘기 소리가 난다. 비둘기 소리가 계속되다가, 적당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 연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악은 굉장히 세심한 주의 끝에 선정된 음악이어야 할 것이다. 잠시 후 다시 무대가 밝아지면 무대는 종전과 같다. 오른쪽 동물원 쪽에서 동호가 나타난다. 그는 손에 작으마한 봉투를 들고 있다.)

동호: "이런 제길헐. 이런 한겨울에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람. 그런데 이 아가씬 여전히 비둘기를 찾지 못한 모양이군. 신문이나 봐야겠다."(신문을 든다. 이때 아가씨 식물원 쪽에서 나타난다.)

경아: "못 찾으셨나요."

동호: "못 찾았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두 동면하는 곰 새끼랑 새 종류, 난방장치 안에서 기가 죽은 맹수들, 눈치만 빨라진 물개, 게을러진 낙타와 타조들, 이런 따위들 밖에 못 봤지요. 저 아가씬 찾으셨나요?"

경아: (힘없이) 저두 못 찾았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두 비둘기는 없었답니다. 있는 것이라곤 바람에 잉잉거리는 헐벗은 나무들과 온상 속에서 잠들은 식물들, 짚더미에 잔뜩 덮혀진 장미들, 쌩쌩이는 바람, 수은처럼 희게 얼어붙은 한겨울의 잔설, 그런 것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떡한담. 비둘기를 찾지 못한다면...."

동호: "저 아가씨. 포기해 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테면 그놈의 비둘기가 혹시 제 발로 추위와 굶주림 끝에 아가씨 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경아: " 쓸데없는 일이랍니다. 우리 비둘긴 너무나 큰 비통에 싸여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정도랍니다. 그저 조용히 나락의 경지 속에서 자기가 알 속에서 뛰어 나왔을 때 처음 본 햇볕의 영롱함과 같이 일순 반짝이던 과거의 인광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 아, 저는 한 시라도 빨리 비둘기를 찾아야 해요."

동호: (피하듯) 글쎄요. 어쨌든 빨리 찾아..."

"그런데 오는 길에 매점에서 팝콘을 팔길래 사왔지요. 들겠습니까?"(팝콘봉지를 내어민다.)
경아: "고마와요."(한줌 집는다.)
동호: "그래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었지요. 이 고궁에서 혹시 비둘기를 보신 적이 있는가고요?"
경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동호: "글쎄요. 비둘긴지 뭔지는 모르지만 목덜미가 빨간 작은 새 같은 것이 얼풋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구요. 그래 저두 반가와서 어디서 보셨냐구 다그쳐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글쎄요, 자세히 생각하느라니 이 고궁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심심하다가 얼풋 환상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별 수 없이 이거나 사가지구 이리로 온 것입니다. 자 많이 드세요."
(경아, 팝콘을 받다가 두 사람의 손이 닿는다.)
동호: "아니, 이 겨울에 장갑도 끼지 않으세요. 손이 무척 찬대요."
경아: "제 손은 언제나 차디차답니다."
동호: "그런데 언제 이리로 오셨어요. 외투도 안 입으시구 마치 새의 깃털처럼 얄팍한 옷차림으로, 감기라두 들면 어떡하실려구."
경아: (기침을 하며) "벌써 걸려버렸는걸요. (웃는다.) 여기 온지는 벌써 아주 오래되었답니다.
동호: "그렇다면 댁은 어디신지?"
경아: "저희 집이 어디냐구 물으셨나요?"
동호: "그래요. 아가씬 어디서 오신 겁니까?"
경아: "너무나 먼 곳이에요. 저희 집은, 지금쯤 갓스탠드의 불빛이 어스름히 비치는 식탁에 모여앉아 식구들은 식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은 화주에 취해서 그 꺼칠꺼칠한 수염으로 우리 형제들의 얼굴을 마구 비비고 있겠죠. 어머니는 조용히 "얘들아,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얼른얼른 큰 단다."하고 타이르실 테고, 막내 동생애는 제 바로 윗 언니하고 누가 빨리 먹나 내기를

하느라고 국을 마구 엎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좋았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워 손수 애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옷을 입으면 한겨울의 추위쯤 아무 것도 아니었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두 방안은 아늑하고 포근했어요. 저녁이 끝나면 우리 형제 남매들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마술할멈 얘기를 하곤 했었지요. 그때 어머니는 손으로 뜨개질을 하다가 오빠 얘기가 하두 무서워 막내 동생이 그만 한 밤중 어둠이 무서워 이불에 쉬-를 할지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면 "얘야 그만해라. 도깨비는 우리 착한 막내둥이에겐 맥을 못 춘단다." 하고 타이르시곤 했죠."
동호: (팝콘을 씹으며) "그건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군요. 아가씨, 그런데 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따듯한 집을 놔두고 이 쓸쓸하고 추운 고궁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아: "비둘기 때문이에요. 비둘기는 버림을 받고 차차 회색보다도 암울한 망각의 세계 속으로 구구구구 울면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에요."
동호: "아니 집으로 들어가실 수 없다구요? 그럼 미아란 말씀이세요?"
경아: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설혹 집을 찾았다 해두 그 골목 피아노 소리 들려오는 계단, 오른쪽 창문, 내가 발돋움을 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카나리아 울음 소리를 내는 초인종을 누른다고 해도 결과는 뻔한 거에요. 아버지가 나오실 거에요. 수염이 잔뜩 길어진 아버지가 눈이 충혈해서 비틀거리며 커튼을 들치고 유리창 밖으로 나를 보고는 그대로 커튼을 닫고 큰 소리로 동생들에게 소리칠 거에요. "얘들아, 얘들아 누구든 나와서 문을 열어주어선 안 된다. 흉악한 거리애가 문 밖에 나와 있단다. 얘들아."
동호: "어머니는요? 어머니까지 문을 안 열어준단 말입니까?"
경아: "어머니는 골방에 틀어 박혀서 울고 있을 거에요. 난 지금껏 어머니가 딱 한번 우신 적을 본적이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는 고개만을 내밀었다가 그대로 커튼을 닫으셨구 이층 문이 열리더니 눈물 가득한 어머니께서 고개를 내미시더니 내게 큰 로울빵을 내어던지며

"얘야, 이젠 다시 오지 말아라. 말아라." 하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동호: "그런데 저 아가씬 지금 혹시 울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경아: "울다니요. 보세요. 전 웃고 있지 않아요? 손을 내미세요. 어머나. 당신 두 장갑을 끼지 않으셨군요. 제 손을 잡으세요. 제 체온으로 녹여 드릴게요. 몸이 춥지 않으세요?"
동호: "굉장히 추운데요."
경아: "제 머플러를 뒤집어 쓰겠어요?"(벗는다.)
동호: "아 아니 괜찮아요. 전 이런 추위에는 아주 익숙해져 있답니다."
경아: "당신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껏 상대편의 나이도 이름도 몰랐잖아요?"
동호: "당신이 먼저 얘기해야지, 나이는 몇 살이지요?"
경아: "한 번 맞춰 보겠어요?"
동호: "오라 맞았어, 19살."
경아: "딱 맞았어요. 바로 19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방 알아 맞추셨지요?"
동호: "당신 얼굴에 쓰여 있는걸. 정말 당신의 얼굴은 예뻐."(둘은 완전히 몸을 기댄다.)
경아: "당신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전 지금껏 당신이 친절한 사내고 나와 같이 20원 주고 이 고궁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신문을 보던 사람이라는 것과 내게 팝콘을 선사한 사람이라는 것 밖에는 모르잖아요?"
동호: "그래 우리는 그 밖에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저 추워하던 두 사람이 어깨를 기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족하니까. 그런데 왜 아가씬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집에서 버림당한 것입니까?"

경아: "겨울의 골목 입구에서 찾아오던 사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내는 겨울의 입구에서 외투도 없이 나즈막한 겨울바람 소리, 음산한 담배냄새, 한겨울 눈나리는 밤의 정숙. 이런 것들을 널따란 두 어깨에 몰고 커다란 잘 길들인 사냥개를 수 십 마리 거느린 사내처럼 의기양양하게 우리 집 앞을 오가는 것이었어요. 나는 겨울마다, 그 사내가 씩씩거리며 혹은 조용하게 그런 겨울의 체취를 몰고 지나가던 휘파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긴 겨울밤들을 잠못 이루는 불면의 밤으로 지내어야 했던가? 그 씩씩하게 생긴 사내의 미간에 그어진 짙은 의지의 냄새, 듣고 계시나요?"
동호: "듣고 있소. 나는 너무나 얘기에 굶주려 있소."
경아: "가엾은 사람. (그녀의 손이 동호의 얼굴을 감싸 쥔다.) 어떤 밤 그 사내는 날 유혹했어요. 저속하고 은밀한 목소리로, '자, 나가서 온통 수은색으로 투명한 유리세계 속에서 산책을 합시다. 귀여운 소녀여'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답니다. 밀실 속에서 나는 그의 파이프냄새 나는 입술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결국 버림을 받았죠. 차가운 겨울의 골목길 모퉁이에 그이는 날 던져 버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전 말했죠. 여보. 난 당신의 뒤를 따라갈 테에요. 그래서 당신이 손에든 채찍으로 휙휙 내리치는 난폭한 성질을 제 힘껏 고쳐 보겠어요."
동호: "그런데두 당신은...."
경아: "허지만 전 이제 얼마든지 강해졌어요. 제 눈을 보세요.(동호 경아의 눈을 본다.) 눈싸움을 하시겠어요? 누가 오랫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뜨고 있나 내기할 테에요?"(동호 고개를 끄덕이다. 두 사람은 마주본 채 말없이 서로를 응시한다. 그 질긴 침묵 끝에 동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허덕인다.)
동호: "당신은, 당신은 이상한 여인이군. 당신의 눈을 바라보느라면 나는 마치 결박당한 사내처럼 꼼짝할 수 없는걸.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쓸쓸한 고궁에 던져져 버린 것일까. 당신은 혹 이 고궁 바깥의 거리를 본 적이 있소?"

경아: “있구 말구요.(경아의 머리가 동호의 어깨에 얹혀진다.) 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거리의 여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쁠까? 두터운 오버들을 입고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하고, 남자들은 백화점에서 껄껄거리며 아내에게 줄 화장품을 사고 그 알록달록한 포장지, 두툼한 입술들, 싼타클로스 할아버지로 위장을 한 구세군 아저씨가 거리 끝에서 종을 달랑달랑 흔들어대면 학교에서 온통 동그라미 투성이 시험지를 받아 쥔 착한 어린애들이 벙어리 저금통을 뜯어 적선을 하고, 어느 날엔가는 국립극장 연주를 하느라고 떠들썩하니 극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후 곱게들 차린 남자, 여자들이 눈짓으로만 웃음을 뿌리며 티케트를 사고 그들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박수를 치고 앵콜을 하고, 화려한 꽃다발이 무대 위에 던져지고...”

동호: (확신하듯) “당신은 정말 정말 예쁜 여인이야. 드레스를 입은 여인보다 두 더 예쁜 여인이야. 그런데 그 음악회가 벌어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오?”

경아: (쓸쓸히) 거리의 우체통처럼 극장 바깥에서 서 있었어요.(갑자기 기침을 한다. 이 기침은 이 연극 도중에 간간히 해야 할 것이다.)

동호: (웃으며) “그래 당신과 나는 이상하게두 꼭 우체통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당신 감기걸렸군 그래.”

경아: “미안해요”(계속한다.) “더 제 곁으로 오세요.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따스한 체온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봄이 오는 것을 믿고 있나요?”

동호: (힘 있게) “난 봄이 와 줄 것을 믿고 있소. 란도셀을 멘 아이들의 빨간 캡 모자가 선명히 부각되는 잔디밭의 햇살, 양지쪽에 모인 올챙이 떼들처럼 오글거리는 햇살, 봄 햇살의 난무, 난 믿고 있소. 봄이 올 것을 믿고 있소.”

경아: “저두 믿고 있어요. 죽은 자들 무리에서 새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돼요.”

동호: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처럼 혼하디 혼한 행복과 멀리 이런 외따른 곳에서 모처럼의 휴일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경아: (얼굴을 감싸 쥐며.)“가엾은 사람. 그런 행복과 우리는 무관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동호: “거짓말이요. 그 소리는, 자, 일어납시다. 우리 나가서 이 고궁을 벗어나 주말의 오후를 뛰어 다닙시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틈바구니에서 껄껄거려보기도 합시다. 손을 잡아요. 거리거리엔 수많은 쇼 윈도우가 있소. 쇼 윈도우 사이로 경품 대매출이란 쪽지가 붙은 외투도 보고, 두툼한 털 스웨터도 보고, 큰 케이크집 안에서 고양이처럼 예쁜 여인이 아이스크림 먹은 모습도 보고, 그리고 우리 전차를 탑시다. 전차는 느릿느릿하고 주말의 노새처럼 안전하게 달려줄 것이요. 종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견고하게 무장한 거리를 내다봅시다.”

경아: “그리구 당신은 제 손을 잡으세요. 담배를 피우며 눈짓으로만 신문장수를 불러 태연한 모습으로 신문을 한 장 사세요.”

동호: “옳아. 오늘 우리 맘껏 낭비합시다. 내겐 몇 푼의 돈이 아직 남아 있소. 그래, 우리는 마냥 즐거울 수가 있소. 거리에서 교회당에 가는 아이들이 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마냥 웃고 있거들랑 우리는 풍선을 삽시다.”

경아: “그리고 그것을 화신백화점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려 보내죠.”

동호: “자, 이곳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내 팔을 잡아요.”

경아: (따라 일어선다. 그러다 멈칫거린다) “그러나...그러나...”

동호: “뭘 주춤거리구 있는 거요?. 난 행복해서 웃고 있는 당신을 보고 싶어. 남산에도 올라갑시다. 싸구 양 많은 단팥죽하는 집을 내가 알구 있소. 전차두 타고 쇼윈도우도 드려다 봅시다. 난 거들먹거리구 당신은 쉬지말구 얘기해요.”

경아: “난, 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동호: “뭐라고? 아니 무서워졌다니?. 도대체 뭘 말이요?”
경아: “난 난...(웃으며) 그래요.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요.”
동호: (웃으며) “그래 그건 어린이놀이터에 있소. 우리 회전목마를 타고 파리에두 가구 런던에두 가구 그리구 동경에두 갑시다.”
경아: “회전목마는 이 고궁 안에두 있잖아요.”
동호: “허지만, 허지만, 그 회전목마는..., 고궁 안에서, 참 아까 비둘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폐쇄되어 있었어요. 주인도 없고 기계는 녹이 슬어 있었오. 말들은 이미 뼛뼛이 얼어 죽어 있었다니까...”
경아: “그래요. 허지만 난 그런 목마가 좋아요. 행복한 가족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태우며 좋아 하는 그런 목마보다는 버림받은 회전목마가 좋아요. 우리 저쪽으로 가요. 그래 당신은 검은 말을 타세요. 나는 흰말을 탈 테에요. 그리구 당신은 챗쭉으로 말을 모세요.”
동호: (난처한 듯) “당신은 정말 이상한 여인이야.”
경아: “전 이 고궁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당신은 곧 초라하고 볼품없고 말라빠진 제 모습을 발견하실 거에요. 공작새 옆에 선 거위처럼 볼품없는 저에게 실망하실 거에요. 그래서 당신은 거리 한 모퉁이에 저를 세워 놓고는 잠깐 담뱃불을 붙여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 놓고, 영영 사라져 버릴 거에요.”
동호: “무슨 소리, 자, 빨리 이곳을 나갑시다. 당신은 이 고궁 안에서 그만 새처럼 약해져 있는 거요. 난 갑자기 이곳이 무의미해졌소. 거리에 나가서 유치원 생도처럼 떠들고 싶어졌오.”
경아: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동호: (일으켜 세운다.) “나갑시다. 나가재두, 난 이 쓸쓸한 고궁이 아주 싫어졌오. 당신은 너무 추워하고 있는 것이요. 나가서 남산어귀에 있는 단팥죽을 훅훅 들이키면 기운이 날게요. 자 손을 잡아요.”
(경아 따라 일어선다. 그때 어디선가 가냘프게 비둘기 소리가 난다. 눈이 나리기 시작한다.)
경아: (멈칫하며.) “들었죠? 분명 들으셨죠?”

동호: “뭐라구? 뭘 말이요?”
경아: “비둘기에요. 그래요. 우리는 비둘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저 비둘기 잊어버리듯 곧 저를 잊어버릴 거에요. 난 난 비둘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동호: “아니 내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오. 확신하오.”
경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동호: (귀를 기울인다.) “아, 무언가 들려오고 있는데.”
경아: “맞았어요. 우리 가엾은 새의 울음소리에요. 목덜미가 빨간 흰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요.”
동호: “그럼 찾읍시다. 찾아서 그 가엾은 새를 구합시다. 짝이 없는 겨울이 지나가면 풀린 강변에 맘껏 모이를 줏도록 방목합시다.”
경아: “비둘기가 울고 있어요. 우린 비둘기를 찾아야 해요.”
동호: “그럼 이번엔 당신이 동물원 쪽으로 돌아요. 난 식물원 쪽으로 돌 테니.(귀를 기울인다.)여전히 새가 울고 있군.”
(동호 황급히 식물원 쪽으로 다가가려 한다.)
경아: “저 잠깐만..”
동호: “왜 뭐 내게 말할게 있소?”
경아: “아니 저 곧 돌아와 주시겠어요?”
동호: “아무렴, 돌아오는 것뿐이겠오? 그리고 이번엔 틀림없이 그놈의 비둘기를 찾아오겠오.”
경아: “가엾구 착한 사람. (얼굴을 쓰다듬는다. 둘은 이상한 충격으로 잠시 포옹을 한다. 눈발 세어지고, 새소리가 높아진다.) 저하구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라두 영영 가엾은 비둘기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구요. 약속하실 수 있겠죠?”
동호: “약속하다 뿐이겠오.”

경아: “그럼 자 이젠 새를 찾아주세요.”
동호: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아 멍하니 서 있다. 눈발 세어진다. 비둘기 소리 높아진다. 이때 먼 곳에서 조용히 시가 흘러나온다. 조명 그녀에게 집약된다.)
시 귀절: “아,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그이를 놓쳐버렸네.
그이는 곧 새소리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
곧 나를 잊어버릴 거야.
허지만 언젠가는 기억나겠지.
그땐 이렇게 말할 거야.
그게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하고
아,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경아 운다. 서서히 퇴장하며 조명 Fade out.
그와 동시에 사나이 등장한다. 지팽이를 들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나이: “여러분, 우리 김동호군이 비둘기를 찾아올 것인지 못 찾아올 것인지 생각지 말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이 고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 마리씩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들려오는 새소리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 가끔 즐거운 연회에서 껄껄거리고, 여인들을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도 이상하게 불면의 밤이 계속되는 그러한 밤,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밤이라도 조용히 눈을 뜨고 지켜보세요. 어린 날의 부끄러운 치희가 당신의 맘 속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마치 롱 펠로우의 싯귀처럼 어릴 때 화살을 쏘고는 아무도 그 떨어진 곳을 모르듯이 인생이 끝없는 방황

을 계속하고 드디어 찢어진 돛폭으로 돌아온 배처럼 지쳐버릴 때 결국 그 녹슨 화살을 옛 친구의 마음속에서 찾아내었듯이 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새소리는 당신이 인간의 처세에 때가 묻고 생활, 생활,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울리고야 말 것입니다. 기둥 밑에서 성냥을 파는 소녀의 동화를 읽고 밤새도록 울었던 당신의 어린 기억은 지금쯤 산산 파편조각으로 깨어져 이처럼 음산하고 어두운 겨울밤이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이미 도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또한 끝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허지만 우리 김동호군은 아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비둘기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나 나나 빌어야 할 것입니다.(담배를 피어문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니까요. 아, 우리 김동호군이 오고 있습니다. 쉿, 쉿, 여러분, 제발 모른척해 주십시오.”
(조명 밝아온다. 그는 식물원 쪽에서 나타난다. 그는 벤치 옆에 웬 사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다 동호 머뭇머뭇 거리다 얘기를 건다.)
김동호: “저 혹시 여기서 웬 여인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나이: “저 제게 물었소?”
동호: “예, 저 흰옷을 입고 가냘프게 생긴 여인이었는데...”
사나이: “전 아무도 만난 기억이 없소.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야 바로 당신 한 사람 뿐이요.”
동호: “그럼 어디 갔나. 바로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는 벤치 끝에 앉는다. 두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
동호: “저, 그렇다면 저, 혹시 이 고궁 안에서 비둘기 한 마리 보지 못했었나요?”
사나이: “비둘기라구요?”
동호: “예, 저, 목덜미가 빨갛고 몸이 하얀 비둘긴데요.”
사나이: “그것 말이군. 보았소.”
동호: “보았다구요? 도대체 어디서 보셨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나이: “한 반시간 전에 이 벤치에서 보았오.”
동호: (돌아본다.) “그런데 지금, 지금 비둘기는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무데도 없는데요.”
사나이: “그렇소, 지금은 없소.”
동호: “그렇다면 그 비둘기는 어디 있다는 거에요.”
사나이: (무심코.) “그 비둘기는 죽어 있더군.”
동호: “뭐라구요?”
사나이: “눈 쌓인 벤치위에서 죽어 있더군. 꼭 눈처럼 하얀 비둘기였오.”
동호: “.....”
사나이: “그런데 그 비둘기를 찾는 것 보니 젊은이는 혹시 잃은 물건은 없으시나요?”
동호: (허탈하게.)“...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나이: “혹 빨간 머플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오?”
동호: “아닌데요.”
사나이: “그럼 아니군.”
(다시 신문을 본다. 동호 멍하니 앉아 있다. 새소리 다시 둘려온다. 이때 경비원 뛰어온다. 그는 양 옆구리에 열쇠꾸러미를 차고 있다.)
경비원: “저 여러분들 혹시 비둘기 한 마리 못봤나요?”
사나이: “오늘은 왜 이렇게 비둘기 찾는 사람들이 많을까.”
경비원: “비둘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비싼 비둘기라구요. 세계에서두 몇 마리 없는 비둘긴데...이것 참, 야단났는걸.”
동호: “도망가다니요? 아니, 비둘기가 어떻게 철망을 뚫고 도망가죠?”
경비원: “그렇게두 말입니다. 엊저녁 틀림없이 하루분의 먹이를 주구 꼭 채워왔었는데 지금 보니 철책문이 열려 있구 비둘기가 없어졌잖아요?”

사나이: “것 참, 희안한 일이군요.”
경비원: “며칠 전엔 수놈이 죽었지요. 그 후부터 이놈이 통 먹을 것두 안 먹고 내리 울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수놈을 구입해야 되는데 워낙 희귀한 품종이라서...이것 참.”
사나이: “혹 몸이 하얀 비둘기 아닌가요?.”
경비원: “그래요. 몸이 하얗고 목덜미만 빨갛지요. 어디서 보셨나요?.”
사나이: “그렇다면 가만있자. 죽어 있었더군요.”
경비원: “뭐라구요? 죽었다구요. 큰일 났군. 어디 있었어요?”
사나이: “글쎄요. 그 새는 저 언덕 아래에서 죽어 있었고, 그곳에 대신 이 머플러가 놓여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죠. (주머니에서 머플러를 꺼낸다. 바로 경아의 머플러이다.)
경비원: (머플러를 받으며.) “이런 제길헐, 어쩐지 엊저녁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그런데 이 머플러가 누구 것일까? 손님들이 놓고 갔을 리는 만무하고...”
동호: “아니 이 머플러는...”
사나이: “그렇다니까요. 비둘기가 이 머플러에 싸여서 꼭 살아 있는 여자처럼 글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조명 받은 박제된 표본처럼 죽어 있었다니까...”
동호: “오오 하느님.(운다.)
(조명 그만을 비춘다. 새소리 들려온다. 먼 곳에서 시가 흘러나온다.)
시: “거짓말입니다.
비둘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구 우리 경아두 살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추워하면서.
그래, 맞았어.
추워하면서 장갑도 끼지 않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면서 새처럼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난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두 난 알고 있습니다... 오오."
(조명 꺼진다. 음악 흐른다. 환상의 무대 완전히 Fade out 된다. 비둘기 소리 높아진다. 그리고 사라진다. 무대 뒤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들린다.)
보초병: "여! 그럼 수고해.(왼쪽 무대에서 나타난다. 그는 가등 밑에서 졸고 있는 김이병을 발견한다.) 어 이 녀석 봐라. 야, 야, (깨운다) 교대할 시간이다. 야, 교대할 시간이라니까...
김동호: "뭐, 뭐라구요?"
보초병: "교대할 시간이라니까 임마. 들어가서 자라. 이 자식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에."
김동호: (웃으며.)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보초병: "신송사항 없냐?"
김동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놈의 꿈이 잘 생각나지 않는단 말씀이야. 어쨌든(기지개를 편다.) 여기 실탄 15발 하구 수칙판 자, 수고하세요."
보초병: "오케이, 푹 곰처럼 잠들어라. 우리 똘똘아."
(김동호 손을 비비며 무대에서 사라진다. 잠시 침묵 후 오른쪽 무대에서 사나이 나타난다.)
사나이: "재미없는 연극을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우리 김동호 이병님은 짧은 여행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허지만 우리 김동호군이 꾸었던 꿈은 잘 기억나지 않을 게지만 두고두고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기 저쪽에 오리온좌가 흐르고 있고 저기 저쪽엔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독자에게 알리는 말씀

당 감실(監室)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군지에는 군 보안 규칙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 책자와 같은 것도 공산계열에서는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이 재일한총련계와 간모들에 의하여 공산국가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 간행물의 독자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

●후기●

적기발간을 목표로 동분서주해 보았으나...지연 발간되고 보니 우선 옥고를 주신 필자와 독자 제위에게 송구하오며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작년 12월에 인쇄의뢰는 하였으나 교재부 인쇄소의 작업 복주사정으로 부득이 일렬순번대기-
이제사 겨우 발간된 것.
공군력증강에 따른 기본임무가 날로 팽대해짐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인쇄지원업무도 급격하게 증대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그러나 새 창장님(김복구대령)의 부임과 아울러 창전체기능(장비, 재료, 인부 등)이 보다 획기적으로 현대화 해가는 모습에 더 없는 흐뭇한 기대를 건다.

☆ ...이 호에는 특집으로 공군재학자문위원님들의 논문을 실었다. 항공공학, 항공의학, 언론, 국제법, 사회학, 심리전 등 분야의 단편이긴 하나 알찬 내용임을 자부, 일독을 권한다.
☆ ...9회에 걸쳐 연재하던 리종학씨 집필의 「손자병법으로 본 한국전쟁」을 이 호로서 대미를 맺는다.
지금으로 부터 2,500여 년 전인 중국 전국시대에 만고불멸의 명저로 알려진「손자병서」에 담아져있는 전략, 전술을 현대전(한국전쟁)과 비교, 분석하며 병학적으로 엮어 우리에게 산 지식을 준 필자 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투를 빈다.
☆ ... 다음 호부터는「공군」지의 편집방향을 좀 달리하기로 기도하겠다. 종래의 잡다한 내용을 탈피하여 보다「공군」적인 「우주항공과학」분야로 주력을 기울여 보겠다.
(물론 상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이 분야의 많은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실·홍>

◇비행교에 대통령부대표창

공군비행학교 5만 시간 무사고비행기록수립을 축하하는 대통령부대표창 수치식(授幟式)이 3월12일 동교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최국방부장관 F—4「팬텀」기 시승

최영희 국방부장관은 장총장의 안내로 우리공군 ○○ 기지에서 앞으로 도입될 F —4「팬텀」기를 시승하였다.

우리는 不死鳥 공군

푸른 창공 저 너머 아침 해 뜨면 오
늘도 솟구치는 우리 보라매.
조국의 부르심에 뭉쳐진 얼아 장하
다. 그의 이름 대한의 공군.
나가자 달려가자 승리를 위해.

공 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